

광주여성사 Ⅱ 근대편

참고문헌

변화를 이끈 광주여성 ————— 196

부록

오늘 우리의 하루, 그날 그들의 하루
맺는 글 ————— 192

식민체제와 여성동원 ————— 162

六 장 **광주여성, 침략전쟁에 감히다**

항일의 경험, 새 사회의 상상, 여성의 주체화 ————— 136

五 장 **광주여성, 저항의 주체로서다**

근대 가족구조의 변화와 성역할 ————— 108

四 장 **광주여성, 전통가족에 도전하다**

광주 경제구조와 여성의 일경험 ————— 082

三 장 **광주여성, 근대적 직업세계로 나가다**

근대 문물과 일상의 변화 ————— 048

二 장 **광주여성, 신문물의 이중적 얼굴과 만나다**

1895년생 김광희의 삶 ————— 014

一 장 **근대 광주의 풍경들을 쫓으며**

근대여성, 기록과 상상력 사이에서
시작하는 글 ————— 006

시작하는
글

근대여성, 기록과 상상력 사이에서

『광주여성사I - 전근대편』에서는 현재의 광주라는 지명이 처음으로 사용된 고려 태조 23년(940) 이후 광산구 신창동을 중심으로 발굴된 철기유물을 통해 벼농사를 짓고 옷감을 짜고 옷칠한 그릇을 사용하였으며 현악기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거쳐 무진주에 거주했던 ‘안길의 처 3명’을 비롯해 현재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살면서 전근대적 가부장제의 한계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던 여성들의 존재를 찾아냈다. 광주 북촌 부자의 딸이었던 견훤의 어머니를 비롯해 삼한국대부인 김씨가 광주 출신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문종과 현덕왕후의 딸인 경혜공주가 남편의 유배 시절 광주에서 기거하였음을, 남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허벅지살을 베어 먹었다는 구전의 주인공 강씨가 광주에서 살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번에 출간하게 된 『광주여성사II(근대편) : 개항에서 해방이전까지』는 신문기사와 사진자료, 광고, 문학작품 등 더욱 다양한 매체들을 이용해 개항에서 해방 이전까지 광주에서 살아간 여성들의 이야기를 정리하였다.

1장에서는 광주가 근대도시로 변화되는 과정을 1895년생 ‘김광희’라는 여성의 삶을 통해 조명하였다. 조선이 근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과 서양선교사들의 등장은 광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행정구역과 지명을 개편한 내용들을 정리하였으며, 전남재판소, 광주우체국, 광주감옥, 제중원 등 근대적 시설물들이 광주의 중심에 등장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담았다. 근대적 교육기관으로서 석초등학교,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전남여고의 전신)가 세워졌으며,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수피아여학교를 중심으로 박애순, 김필례, 유화례가 활동했다. 또한 옥양목 적삼에 검정 통치마와 검정고무신을 신고 고아와 나병환자를 돌보고 인신매매와 축첩금지, 공창제폐지 운동의 선봉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활동했던 서서평이라는 선교사의 이일성경학교가 등장한다.

2장, ‘광주여성, 신문물의 이중적 얼굴과 만나다’에서는 당시의 신문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통해 광주여성들이 근대를 어떻게 맞이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당시 유행하던 행운의 편지와 화재 및 악물중독과 전염병 등의 사건들을 통해 당시 남녀의 역학관계를 읽어낼 수 있으며 자동차, 열차, 비행기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등장과 화장품, 의류 및 잡화상점, 백화점 등의 등장으로 근대 문물에 노출된 광주여성들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한다. 극장이 들어서고 체육, 수필, 야학 등 근대적 가치와 문명 속에 등장

‘들만 낚아 잘 기르자’는 인구정책의 중심에서 베이비부머 마지막 세대로 광주 금남로 5가 00번지에서 3남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훗날 누군가에 의해 ‘1964년생 김0경’이라는 몇 단어로 기억될지 모르는 나의 삶을 반추해보며 여성의 역사쓰기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많은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존재했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며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채 그 시대의 정신으로 살다 갈 것이다.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기록되지 못하는 한 존재의 의미가 누군가에게 닿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기록해야 한다. 여성이어서, 기억되지 못한 존재라서 더더욱.

역사는 그동안 지배자의 관점에서 승자의 이야기들을 기록해왔고 여성들의 목소리는 역사의 뒷전에 서성거렸다. 여성주의 학자들은 역사 속에 소외된 여성의 삶을 드러내고자 생애사에 관심을 갖고 구술사라는 여성학적 방법론을 구축해왔다. 가족과 일터를 비롯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담아내기 시작한 여성학 방법론의 등장으로 역사는 지배자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관점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사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 조안 스콧(Joan Scott)은 편지, 일기, 자서전, 구술사, 그림 등을 폭넓게 사료로 활용함으로써 주로 역사서에 의존해 있던 역사연구 방법론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또한 젠더적 관점의 여성사는 지배계층의 이야기에서 탈피하여 섹슈얼리티, 출산, 육아, 모성성, 동성애, 몸, 일상생활 등으로 주제를 확장해가고 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광주여성의 역사를 통사로 기록하고자 광주여성사를 기획하여 그 첫 결과물로 2019년 고대에서 조선에 이르는 전근대의 광주여성사를 발간하였고, 2020년에는 개항에서 해방 이전까지의 근대 역사를, 2021년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현대 역사를 정리할 예정이다. 전근대와 근대는 주어진 사료의 제한성으로 광주의 지역성과 젠더적 여성성을 드러내기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근대는 시대적 특성상 전적으로 사료에 의존한 학술적 성격으로, 근대는 학술서와 대중서의 중간적인 성격으로 기획되었다. 현대에서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담아 낼 대중서로 광주여성의 삶을 다각도로 발굴할 예정이다. 여성사는 여성운동사와 맥을 함께 하기에 광주여성사 역시 현대에 와서 그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1895년생 김광희
1964년생 김0경
1982년생 김지영

하는 새로운 여성상들이 당시 광주의 여성들에게도 분명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3장, ‘광주여성, 근대적 직업세계로 나가다’는 당시 여성들의 노동현장을 담아내고 있다. 한국의 근대적 산업화는 일제의 식민지 수탈의 역사와 함께하며 그 과정에서 여성은 근대적 교육 및 직업의 기회라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동시에 직면하게 된다. 농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1차산업이 지배적이던 당시의 산업구조에서 당시 여성들은 주로 가내 노동인력으로 또는 미숙련 단순노동력으로 종사하였으며, 식모, 파출부, 애보기 등의 가사업이 등장하였다. 사무원, 타이피스트, 여점원, 전화교환수, 차장 등 보다 근대적 직업이 생겨났고 1920년대 후반부터는 카페여급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업이 등장하여 전통적인 기생이나 창기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광주중방제사, 도시제사, 약림제사 공장의 90%가 어린 소녀공이었으며, 대우불만, 임금인상, 음식물개선, 취업시간 단축, 차별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사공장 여성노동자의 파업투쟁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4장, ‘광주여성, 전통가족에 도전하다’는 아이를 키우며 글을 쓴 1903년생 박화성 작가를 조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부모 몰래 비밀리 자유결혼을 감행했다가 이혼을 선택하고 자식들을 데리고 재혼한 박화성 작가는 오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도 용감하고 도전적이다. 개화기 서구문명 앞에서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저항한 여성들은 박화성 뿐만은 아닐 것이다. 소설가 전영택은 축첩폐지를 중심으로 가족개혁론을 주장하였는데 이런 주장이 유명인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광주에 사는 젊은 남녀는 조혼과 강제결혼을 반대하는 기고문을 신문에 실기도 하였다. 부모가 맺어준 여성과의 강제결혼을 반대하여 이혼하고 자유결혼을 새롭게 선택한 남성의 이야기가 실린 신문기사에는 강제결혼과 자유연애의 딜레마 속에서 살아가는 당시 여성들의 엇갈린 운명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광주에는 1930년대 후반 일제 전시체제의 산물로 황국여성과 군국의 어머니라는 일제의 현모양처 여성상에 저항하는 여성들이 있었다.

5장, ‘광주여성, 저항의 주체로 서다’는 항일경험 속에서 여성이 주체성을 획득하는 근대 여성사의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다. 이미 1898년 ‘여권통문’을 통해 여성의 참정권과 교육권, 직업권이 요구되었고, 이어 1919년

3·1운동은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함으로써 남녀평등을 위한 여성운동의 기점이 되고 있다. 1919년 3월 광주군 효천면 소재 수피아여학교 교사 박애순은 같은 학교 교사 1인과 학생 20여 명을 모아 독립만세 시위를 준비하였다. 3월 10일 광주여성의 독립만세 시위는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규범을 넘어 새로운 젠더관계를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20년대 이후 조직된 여성단체들은 전통적 젠더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관계로의 전환을 견인하였다. 김필례, 임자혜, 홍승애 등이 여자야학의 교사로 활동하면서 여성과 남성을 상하관계로 보았던 전통적인 젠더규범을 대체할 부부평등이라는 신가정 건설론을 가르쳤다. 그 가운데 1921년 7월 30일 광주부인회가 조직되었고 1924년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가 창립되었다. 여자야학을 관리했던 광주여자청년회의 김홍은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 입각해 여성이 진정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현 체제를 근원적으로 타파해야 한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 가운데 좌우진영 논리를 넘어 연대한 근우회라는 여성대중단체가 1927년 창립하기에 이른다. 이외에도 1928년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비밀독서회가 만들어졌으며 이들이 중심에 선 나주역 사건은 식민지성과 젠더성을 반영한 대표적 사건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6장, ‘광주여성, 전쟁에 갈하다’에서는 전시체제에서 동원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앞 부분에서 전통적 여성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여성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대동아전쟁에 동원된 식민지 여성들의 현실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여성을 전시에 동원하기 위한 애국부인회가 조직되었고 1941년에 이르러서는 조선인이 일본인 회원의 3배에 달하기까지 했다. 이어 조직된 국방부인회 등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일제하 민족 차별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더욱 억압적인 체제로 포박되어갔던 식민지 여성의 현실적 삶의 단면을 또한 보여준다. 식민지 여성들은 일제 전시체제에서 위안부나 근로정신대 등의 이름으로 동원되는 아픔을 겪었다. 특히 여자근로정신대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동원하는 일들이 자행되었다. 가난한 식민지 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현장과 전쟁에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나 양육통제, 아동교육, 전쟁에 동원된 자식에 대한 미화에 동원되었으며 광주여성 역시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1940년 광주에 국영직업소개소가 설치되어 광주여성들은 한반도 북부지역 공사장과 광주소재 종연방직 등에 동

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양금덕을 비롯해 여자근로정신대에 끌려가 밤낮으로 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한 광주지역 여성들의 이야기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근대여성의 삶은 전근대 여성들과는 사뭇 다른 주체성과 혁명성을 보인다. 그러나 근대여성들의 삶은 그 시대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무관할 수 없기에 가부장적 생산방식과 가족구조 안에서의 생존방식을 떨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같이 식민지를 경험한 여성들은 계급과 젠더의 차별 구조와 함께 민족이라는 중층적 역학구조 안에서 살아가야 했다. 일제 식민지를 지나 미군정을 거쳐 본격화되는 산업화 과정 속에 여성들의 역할은 또 다른 삶의 전략을 취하게 되고 근대 가부장제의 '현모양처'관은 가부장적 자본주의라는 신가부장제 하에서 '슈퍼우먼'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기에 이른다. 『광주여성사II(근대편) : 개항에서 해방이전까지』는 광주지역 여성들이 근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갔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많은 지역여성들을 발굴하고자 하였지만, 근대 역시 전근대와 마찬가지로 사료의 한계로 인해 광주라는 지역성과 젠더관계 안에서의 여성성에 대한 분석이 글 전반에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아쉬움과 한계는 좀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현대 광주여성의 삶을 기록할 『광주여성사III - 현대편』에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무소의 뿔처럼' 살아가고자 했던 여성들이 '82년생 김지영'으로 발목 잡혀 살아가지 않도록 광주여성사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일은 앞으로도 멈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근대 광주의 풍경을 열며

1895년생 김광희의 삶

개항부터 식민시기를 아우르는 근대 광주여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은 매우 지난하다. 여성의 삶과 일상은 역사적 기록에서 배제되기 일쑤였고, 중앙 중심의 역사 서술 또한 지역민의 흔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접근 가능한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여성 삶을 추적하는 일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되었다. 그 새로운 시도로서, '1895년생 김광희의 삶'을 상상해보는 것으로 광주여성의 근대사를 열고자 한다. 1895년 태어난 광주여성 김광희(金光熹)가 근대도시로 성장해가기 시작한 광주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여성 주체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담아내고자 했다.

고 시신이 훼손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이후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났는데, 이 의병은 고종의 뜻에 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고종은 전국에 사람을 몰래 보냈다. 밀지를 전했다고 하는데, 비밀스러운 고종의 뜻을 적은 내용이었다. 그 내용은 의병을 일으키라는 것이었다. 전라도에도 의병이 일어났다. 나주에서도 당연히 의병이 일어났다. 이들은 을미개혁을 강제하는 지방관들을 위협하기도 했고, 일본에 도움을 주는 이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이 을미의병은 고종의 뜻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후대 학자들의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단발령에 대한 극심한 반대는 고종의 심기를 어지럽혔지만 의병을 일으킨 것은 또 고종의 뜻이라고도 하니, 나주를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시각이 어디에 무게를 두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관찰부는 광주로 옮겨졌다. 나주는 지배세력인 양반이 뿌리를 내려 이미 적당한 규모의 도시가 만들어진 곳이었고 광주는 나주에 비해 규모가 아주 작은 곳이었었는데, 1896년 지방행정제도에서는 나주가 배제되고 광주가 선택되었다.

근대국가로의 이행기에 양반들의 도시였던 나주가 아니라 광주가 지방의 중심지로 부각되었다. 전근대 시대와는 다르게 서서히 관공서들이 들어섰고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사람들이 광주로 몰리기 시작한 것이다. 1896년 지방행정제도의 변화는 이처럼 광주의 성장을 이끄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1895년 광주읍성 안에서 태어났다. 나주목 아래에 있던 광주군이 나주부 아래의 광주군으로 변화된 해였다. 아버지는 양반은 아니었고 광주 읍성 안에 있는 객사 광산관에서 일을 하신다. 어머니는 집에서 우리를 키우시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있다. 나에게는 언니와 오빠가 각각 두 명씩 있다.

내가 태어난 해는 서울에서 중전마마가 왜놈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고, 왜놈들의 강요로 여러 변화가 있었다. 많은 변화 중 하나가 단발령이라는 것이었는데, 남자들의 긴 머리를 자르도록 강요한 것이었다. 중전마마의 죽음과 단발령으로 광주와 인근에서는 의병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변화는 계속되었던 모양이다. 아버지도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머리 모양은 항상 짧았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바다 건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광주에는 아직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서서히 광주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근대라는 이름으로 찾아왔다. 이제부터 내가 태어나고 살았던 광주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

광주의 변화는 내가 태어난 해인 1895년 지방행정제도가 변화하면서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8도로 나뉘었던 것이 23부 체제로 바뀌었다. 조선시대 전라도라고 불리었던 우리 지역은 전주와 나주가 가장 큰 고을이었다. 그래서 전주와 나주에 감사와 목사가 부임하였다. 이 전주와 나주에는 그래서 양반들이 많이 살았고, 이들에 의해 도시가 돌아갔다. 광주군은 나주부의 관할이었다.

그랬던 것이 이듬해 1896년 다시 23부를 폐지하고 13도로 바뀌었다. 조선시대 8도의 일부를 남북도로 나누어 13도로 개편한 것이다. 전라도가 전라남북도가 되었고 전라남도의 관찰부가 광주로 정해졌다.¹⁾ 지금까지 나주가 전라도의 중심이었는데 큰 변화였다.

왜 나주에서 광주로 옮겨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알려졌다. 앞서 말한 단발령에 대해 많은 양반들이 반대하였다는 것도 한 이유였다. 나주는 양반들이 많이 살았고, 이들의 반대도 격렬했을 터였다. 물론 다른 지방의 양반들도 반대했지만, 나주의 양반들은 그야말로 결사반대했다고 어른들은 자부심에 찬 말투로 말씀하시곤 했다. 그래서 임금은 불편했을 것이고 나주가 미움을 샀다는 것이 나주가 중심에서 밀려난 이유라는 설명이었다.²⁾

그런데 1895년의 단발령은 을미사변 이후에 있었던 개혁이었다. 을미사변은 앞에서 이야기했듯 중전마마가 왜놈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살해되

광주의 기쁨
내 이름은 김광희 金光喜

1) 광주시사편찬위원회, 『광주시사』 2, 광주광역시, 1993, 83쪽.
2) 박선홍, 『광주백년 1: 개화기 이후의 삶과 풍속』, 광주문화재단, 2012, 17쪽.

읍성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방향에 각각 성문이 있었다. 동문은 서원문(瑞元門)인데, 지금으로 치면 전남여고 후문 쪽이다. 서문인 광리문(光利門)은 황금동 네거리 부근이고 남문인 진남문(鎭南門)은 옛 대성학원 앞 네거리에 있었다. 북문은 공북문(拱北門)이라 불리었는데 충장치안센터 앞 네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남문에서 전남대병원 쪽으로 300m 지점에 홍살문이 있었다.⁴⁾ 홍살문은 왕궁과 능, 묘, 관아의 정면에 세우는 붉은 칠을 한 나무문을 말하는데, 광주는 객사 부근에 홍살문이 세워졌다.

광주읍의 읍성 안에 아버지가 일하시는 객사가 있었다. 객사는 광산관이라 이름 지어졌는데, 지금 지명으로는 충장로2가 조선대학교 동창회관과 옛 무등극장을 포함하고 있었다. 광산관은 일제에 강제병합된 이후 광주군청으로 쓰이다가, 다시 광주면사무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아버지가 일했던 객사가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본거지로 쓰인다는 사실, 자라는 내내 내 마음에 울분을 심어주었다.

그렇다면 읍성은 언제 철거됐을까? 이것은 일본인들의 이주, 그리고 한말 의병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선 한말 의병전쟁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후 전국에서 많은 유생과 백성들이 일본에 항의하기 위해 의병을 일으켰다. 그 가운데 호남지방의 의병이 숫자가 가장 많았고, 항거한 시기도 가장 길었다. 일본은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지금의 동부경찰서 근처에 대대본부를 두었는데, 원활한 이동과 작전을 전개하면서 광주 읍성을 허물기 시작했다.⁵⁾

우리 땅을 침략했던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 봉기한 의병들은 호남지방의 여러 곳에 진을 치고 활동했지만 광주와 직접 관련된 곳은 어등산이었다. 일제로서는 광주 읍성 안에 위치한 본부에서 경찰을 좀 더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길이 필요했고, 그 의도대로 읍성을 허문 곳에 도로를 만들었다. 이렇듯 광주 중심가에 있는 도로는 일본의 침략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도로를 중심으로 일본인들은 시가지를 형성했는데, 충장로2가와 3가가 상업 중심지로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⁶⁾

읍성 안에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였다. 내 나이 열여섯 살 되던 해인 1910년 조선은 일제에 강제 병합되었다. 이후 일본인들이 광주에 많이 이주했는데, 광주의 읍성 안에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시가지를 늘려야 했다. 1910년 이전 의병을 진압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철거되기 시작한 읍성은 일본인들의 이주를 고려할 때 더욱 필요 없는 것이 되었다. 일제는 읍성을 허물면서 일본인과 한

광주군이 관찰부가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여전히 자그마한 시골동네였다. 나주의 규모에 비할 바가 못되었다. 해질녘이면 산짐승 때문에 일찍 문단속을 하고 나들이도 할 수 없었다. 족제비나 오소리, 늑대가 가축을 물어가는 일도 예사였다. 초가집이 촘촘하게 지어진 동네에 골목길은 꼬불꼬불하고 좁았으며 큰길이라고는 우마차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였다.³⁾

광주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자.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광주 시가지는 읍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이 읍성은 고려말에 세워졌다고 한다. 성벽의 위치를 21세기 광주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곳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옛 전남도청 뒷길 ~ 장동로터리 ~ 전남여자고등학교 후문 ~ 중앙초등학교 후문 ~ 충장치안센터 ~ 광주세무서 ~ 전 리버사이드관광호텔 ~ 남동 구 시청 ~ 옛 전남도청 뒷길. 이 읍성 안에는 객사를 비롯하여 조선시대 수령과 아전들이 근무했던 건물과 아전과 관계된 사람들의 집이 있었다. 아버지가 객사에서 일을 하셨기에 우리 집도 읍성 안에 있었다. 이웃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로 객사에서 일을 하는 아전이었다. 아전이나 수령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의 숫자는 꽤 많았다. 그리고 양반들은 읍성 안에 살지는 않았다. 이것은 광주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을 가도 마찬가지였다.



광주읍성의 읍문.
1913년 발간된 『보고의 전남(寶庫の全南)』에 광주 읍문으로 소개된 사진이다.
*출처 : 박선홍, 『광주 1백년 1: 개화기 이후의 삶과 풍속』, 15쪽.



옛 광주군청.
광주 객사인 광산관을 개조하여 광주군청 사무실로 썼다.
*출처 : 박선홍, 앞의 책, 21쪽.

4) 박선홍, 앞의 책, 18~19쪽.
5) 조정규, 『일제강점기 광주읍성 내의 경관변화』, 『남도문화연구』 제24권, 2013, 243쪽.
6) 조정규, 앞의 논문, 243쪽.

3) 박선홍, 앞의 책, 39쪽.

광주에 일본인이 들어온 것은 1897년이었다. 내가 세 살 때의 일이라 기억할 수는 없고,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다. 이때는 일본인이 함부로 조선땅을 다닐 수 없었다. 1876년 개항과 동시에 일본과 조일수호조규를 작성하였는데, 이 조규에 의하면 일본인들은 개항장에 지정된 조계지를 벗어날 수 없었다. 1883년 이후 조계지 10리를 넘어서 다닐 수 없다고 다시 정해졌다. 광주와 가까운 목포에 일본의 조계지가 설정된 것은 1897년이었고, 광주와 목포는 10리보다 훨씬 멀었다. 그러니 광주에는 일본인들이 들어올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미 18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인들은 나주 인근에 농지를 사들여 농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광주에 들어온 일본인은 교토 본원사의 승려였던 오쿠무라 엔싱(奥村圓心)이었다. 교토의 본원사는 일본 불교의 사찰이었다. 오쿠무라 엔싱은 일본 불교의 포교를 구실로 광주에 왔다. 오쿠무라 엔싱은 1877년 부산에 본원사 분원을 이미 세웠는데, 당시 조선 내 유력한 인물들과 친분을 쌓았다. 그가 만난 인물들은 세간에 개화파라 불리는 사람들인데 철종의 사위인 박영효, 김옥균 등이었다.

오쿠무라 엔싱은 1897년 목포가 개항하자 목포에 들어와 본원사 분원을 건립하려 하였다. 그렇지만 목포와 무안 주민들은 일본인에게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하물며 일본 불교에 호의적인 사람을 찾기 어려웠다. 포교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오쿠무라 엔싱은 전남관찰사인 윤용렬을 생각했다. 윤용렬과 오쿠무라 엔싱은 2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윤용렬이 동래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자객에게 쫓기게 되었고, 오쿠무라 엔싱이 윤용렬을 숨겨줬다는 것이다. 이런 인연이 있어서 오쿠무라는 광주에 살고 있는 윤용렬을 찾아갔다.⁸⁾

윤용렬은 일본 불교에 대한 광주 사람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처음에는 오쿠무라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오쿠무라의 끈질긴 요구에 서문 밖 보작촌에 터를 잡게 했다. 보작촌은 현재 불로동 1번지 일대를 말한다. 오쿠무라 엔싱은 광주에 자리잡자 동생 오쿠무라 이오코에게 연락을 했다. 오쿠무라 이오코는 목포를 거쳐 광주에 들어와 오빠와 합류했다. 이 여성은 나중에 광주공원 광장에 동상으로 세워질 정도로 일제 식민지 침탈의 첨병 노릇을 하였다. 1926년 일본 애국부인회 전남지부가 오쿠무라 이오코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식민지의 한 도시에 동상을 세운 것이다. 이 동상은 광주 신사를 오르는 입구에 서 있었는데 1940년에는 광주공원 아래쪽에 있다가 지금의 빛고을시민문화관 자리로 옮겨졌다. 그러다 1944년 전쟁물자가 부

승려 오쿠무라 엔싱 광주에 온 첫 일본인

국인의 경계도 허물었다. 철거는 가속화되었고, 1920년대에는 읍성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일제는 시가를 정리한다는 구실로 광산관, 동헌, 선화당, 내아, 영칭 등의 건물도 허물었다.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읍성 내 주요 건물들을 전부 철거한 것이다. 아버지는 더 이상 광산관으로 일하러 가지 않았다. 그곳에는 광주에 들어온 일본인들의 편의를 봐주고 침략을 용이하게 하는 식민의 침탈기구가 들어섰다.

광주의 인구와 광주에 온 일본인의 수를 살펴보자. 19세기 후반에 간행된 『여지총람』이라는 자료에 의하면 광주의 인구는 32,23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지총람』에 기재된 인구조사가 언제 진행되었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19세기 말 광주 인구는 3만 명을 살짝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 광주군에는 42개의 면이 포함되어 있었다.⁷⁾

8) 박선홍, 앞의 책, 23~24쪽.

7) 광주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834쪽.

죽었던 일제는 금속회수령을 내려 이 동상을 철거하였다.⁹⁾

오쿠무라 이오코는 광주에 도착한 후 둘째 딸 미츠코와 사위 세스타로를 불렀다. 이렇게 광주에 일본인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게 되었다. 이들은 일본식 농업과 잠업을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실업학교를 설립하였다. 이오코의 딸 미츠코는 양잠에 정통하였고, 사위 세스타로는 농업학교 출신이었다. 이들은 쓰시마에서 목재를 들여오고 일본과 동래에서 건물을 지을 인부들을 불러들였다. 조용하던 광주읍이 일본말을 하는 한 떼의 무리로 시끄러워졌다.

1898년 11월 일본인들에 의해 31평 규모의 건물이 완성되었고, '본원사 오쿠무라 실업학교'라는 간판이 걸렸다. 교장에는 이오코가 취임했다. 이 실업학교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학생들도 가르쳤다. 일본인들이 한국인을 동화시키기 위해서였다. 일본 와세다대학 창설자 오오쿠마는 당시 일본의 신농기구 한 벌을 오쿠무라 실업학교에 기증하기도 했다. 한국으로 진출하는 자국민에 대한 지원과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오쿠무라 남매는 일본인들이 광주에 이주하기 위한 선발대 역할을 한 셈이었다.

이들은 광주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없었다. 일본 불교에 대해 이 지역 사람들은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다. 게다가 일제강점기 내내 보아온 풍경이지만, 일본인 남자들의 혼도시 차림은 정말이지 절대 적응할 수 없는 모습이었고, 보는 이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 나 또한 혼도시 차림의 일본인 남자를 먼발치에서라도 보게 될 때면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거나 샛길로 피하게 되었다. 이 차림새는 절대 익숙해지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일본과 우리의 옷차림이 다르다고 해도 타국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차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이 길거리를 마구 활보하는 것은 예외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오쿠무라 남매는 1900년 청나라에서 일어난 의화단사건 이후 광주를 떠났다. 오쿠무라 이오코는 부교장 아카스카(赤塚敬雄)에게 학교를 맡겼다. 아카스카는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육군 장교로 떠났고, 당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 근무하는 가본명치(榎本明治)에게 맡겼다. 그러나 일본과 이 학교에 대한 광주 사람들의 거부감으로 학교는 결국 1904년 폐쇄되었다.¹⁰⁾

이후 그 건물은 일본인의 숙박소로 쓰이다가 목포에 있는 일본영사관에서 파견한 경찰관 주재소로 활용되기도 했고, 뒤에는 목포이사청 광

황금동, 계다, 을사늑약,

주지청의 청사로, 또는 일본인 소학교 교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 뒤 일본 본원사로 환원한 뒤 자연스럽게 사라졌다.¹¹⁾

광주에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난 1905년부터였다. 내가 열한 살이 된 해였는데, 계다를 신고 일본인 복장을 한 이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1907년 3월 일본인회가 조직되었을 때 그 수가 68명이었던 것이 1913년에는 1,92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¹²⁾

일본인들은 대체로 목포에서 광주에 들어왔는데, 그 길은 두 가지 경로가 있었다. 목포에서 영산포까지는 소형 발동선을 타고 왔다. 영산포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 날 아침 남평을 거치면 오후에는 광주에 당도하는 일정이었었는데 이때는 서문을 통해 보작촌으로 왔다. 보작촌에는 광주에 들어온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숙소와 음식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점점 늘어났다. 이 동네의 술집과 음식점이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황금동의 기원이다.¹³⁾



1910년대 영산포 일대. 일본인들은 목포항을 거쳐 발동선으로 이곳에 도착해 조랑말을 타거나 걸어서 광주에 들어왔고, 한편으로는 여기에서 다시 뚝단배를 타고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 서창나루까지 와서 광주에 들어오기도 했다. *출처 : 박선홍, 앞의 책, 31쪽.

또 다른 길은 영산포에서 뚝단배로 갈아타고 서창나루까지 와서 광주 성내로 들어오는 경로였다. 이 길은 화물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였다. 자국민들의 왕래가 잦아지자 일제는 1907년 광주~송정리간 도로를 놓았다. 광주교도 그때 함께 가설하였다.¹⁴⁾ 이렇듯 일본인들이 몰밀 듯 광주에 들어오면서 1905년 4월 가본명치가 광주우편취급소를 개설하였고, 정통심 삼랑(井筒基三郎)이 잡화상을 열었다. 이 잡화상은 주로 일본인들이 많이 이용하였는데, 여러 색깔로 염색한 옷감도 있었고 호롱불보다 훨씬 밝게 빛

11) 광주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95쪽.
12) 광주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95쪽.
13) 박선홍, 앞의 책, 30쪽.
14) 박선홍, 앞의 책, 41쪽.

9) 박선홍, 앞의 책, 23~24쪽.
10) 광주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95쪽.

일제는 한국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그들의 방식으로 지방을 통치하기 쉽도록 행정구역을 개편했다. 1913년 4월 광주를 기존 41개 면에서 20개로 줄였고, 1914년에는 다시 15개 면으로 줄였다. 15개 면은 광주, 지한, 석곡, 서방, 효천, 극락, 송정, 서창, 동곡, 대촌, 본촌, 우치, 비아, 임곡, 하남면이었다. 이 지명들은 해방 이후 고스란히 살아남고 여전히 광주지역을 구획하는 이름이 되었다.

21세기의 광주는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의 광주면에서 그 모습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의 광주는 120여 년 전부터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제에 강제병합되기 이전 광주면은 읍성 안쪽에 있었던 성내면, 서문과 남문 밖의 부동방면 일부, 북문 밖의 기례방면과 공수방면 등 4개 면에 19개 동네로 이루어졌다. 각 면별 동네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⁵⁾

성내면 : 사정리, 서내리, 남내리, 북내리

부동방면 : 서외리, 보작촌(복가물), 금계리, 궁수리, 호연리, 서남리

기례방면 : 후리(뒷동네), 성저리(성밀), 보통리, 중촌, 시리, 누향촌

공수방면 : 상촌, 하촌, 교촌

성내면 사정리는 금남로1가의 전일빌딩에서 공동의 중앙초등학교 일대를 가리킨다. 이 지명은 희경루 혹은 관덕정이라 불렀던 사정(射亭), 즉 활터가 이 일대에 있었던 것에서 비롯됐다. 현재의 공동은 활터를 뜻한다.

부동방면의 보작촌은 보를 만든다는 뜻인데, 지금의 광주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물로 녹십자병원 앞에 조탄보가 있다. 이 보에서 경양방죽에 이르기까지 관개용수로를 만들었는데, 이때 작업을 하였던 인부들과 관리인들이 모여 살았다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 보작촌은 ‘복가물’이라고도 했는데 불로동 1번지 일대였다.

금계리는 광주천을 비단내 즉 금계(錦溪)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였다. 지금의 금동이다. 궁수리는 장동 로터리에서 전남대병원 앞에 이르는 일대를 말하는데 현재 남동성당 근처에 있었던 고목을 사람들이 ‘궁수’라고 부른 데서 생겨난 지명이다. 이 나무의 나뭇잎이 피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고 한다. 이 나뭇잎이 다른 나무들보다 먼저 피면 흉년이, 늦게 피면 풍년이 들었다고 했다. 이 나무는 제봉로 개설 공사를 할 때 베어졌다.

금계가 되고 비단내가

을 내고 크기도 큰 남포등도 팔았다. 신기한 물건이 많아서 한국인들도 이 상점에 기웃거리기도 하였다.

러일전쟁 후 외교권을 일본에게 빼앗기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문이 크게 돌았다. 이 소식과 함께 어등산에 의병이 나타났다는 소문도 들렸다. 양반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모으고 산에 들어가 숨었다가 밤에 일본 군대를 습격했다는 소식이 사람들 사이를 은밀하게 떠돌았다. 이웃 도시인 나주, 담양, 화순, 함평, 보성 등 여러 지역에서도 의병이 나타났다. 하지만 의병들은 무기가 워낙 열악하였고 자금도 변변치 않아서 부대를 계속 이끌 힘이 부족하였다. 그렇다고 의병이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어서 일본과 강제로 병합되었던 1910년 이후에도 가끔씩 볼 수 있었다. 그런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나는 의병이 힘을 내어 일본의 군대를 물리치기를 기대했지만, 결국은 엄청난 무기를 가진 일제의 경찰이 의병을 잔혹하게 죽인 이야기만 떠돌았다.

앞에 잠깐 이야기했듯 일제는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군대를 이동할 방법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읍성을 허물고 도로를 놓았다. 그렇게 기동력을 높인 일제의 군대는 우리 의병들을 잔혹하게 진압하였는데, 일제는 이들을 ‘폭도’라고 부르며 우리에게 신고할 것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¹⁵⁾ 광주읍의 지명 및 위치는 모두 박선홍, 앞의 책, 34~39쪽을 옮겼다.

보통리는 성저리와 인접한 동네였는데 순우리말로로는 보통물이라 했다. 보통이란 조탄보에서 흘러든 물을 일컫는다. 그러니 조탄보 아래에 있는 동네가 보통리였다. 기레방면의 성저리는 성 밑을 뜻하는 말로 북문 밖 일대를 일컫는다. 시리는 큰 장이 열리던 곳으로 장터를 의미한다. 누항촌의 '누항'은 누추한 골목이라는 뜻으로 지금의 누문동 일대를 말한다. 이 누항촌을 누 앞의 동네 '누앞리'가 와전되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광주의 지명은 광주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이름이었다. 그런 이름을 일제는 1914년 4월 일본식으로 바꿨다. 통(通)과 정(町) 등 일본식 지명으로 바꾸어 4개의 통과 10개의 정, 5개의 리로 개편했다. 다음은 바뀐 지명이다.

통 : 동문통, 서문통, 남문통, 북문통

정 : 동광산정, 서광산정, 서성정, 북성정, 중정, 궁정, 금정, 부동정,

화원정, 수기옥정

리 : 서남리, 금계리, 향사리, 성저리, 누문리

이렇듯 광주의 지명은 일제가 강점하면서 변화하였다. 내가 어린 시절 불렀던 동네 이름이 많이 바뀐 것이다. 비단내가 금계가 되고 모든 지역이 동서남북으로 구획되었다. 지역의 지리적 환경이 스며있는 지명 대신 획일적인 동, 서, 남, 북 식의 표기는 사람들의 삶과 함께 했던 토속적인 동네 이름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그 잔재로 남아있는 것이 구의 명칭인 동·서·남·북구이다. 이는 광주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어느 대도시를 가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일본식의 이름을 강요하는 것은 1930년대 더욱 심화되었다. 이렇게 지명을 바꾼 것은 식민지를 영구히 하려는 일제의 속셈이었다.

행정구역의 변화와 지명의 변화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변화된 지명 속에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대체로 새로운 건물은 일제가 강점하면서 세워졌다. 전남재판소, 광주우편국, 광주감옥 등이 그것이다. 제중원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지어서 앞의 것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관공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학교 건물도 많이 지어졌다. 근대 학교는 대체로 일제강점기에 지어졌지만 대한제국 시기에 지어진 것도 있다. 학교는 한정된 공간에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교육활동을 해야 하

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양식 건물로 지어진 것이 많았다.



1899년 전남재판소로 개원한 구 광주법원.
*출처 : 광주시청각자료실, 검색일 : 2020.10.03.
http://gjarchive.kr/p_view/4566



1917년 지금의 충장로 사거리 광주우체국 자리에 들어선 광주우편국 건물.
1905년 일제의 한일통신협정으로 그동안 한국인이 관리했던 광주우편국과 전보사, 그리고 일본인들이 자체 운영했던 광주우편 수취소가 광주우편국으로 통합됐다.
*출처 : 광주일보, 검색일 : 2020.10.03.
<http://www.kwangju.co.kr/article.php?aid=1342537200472810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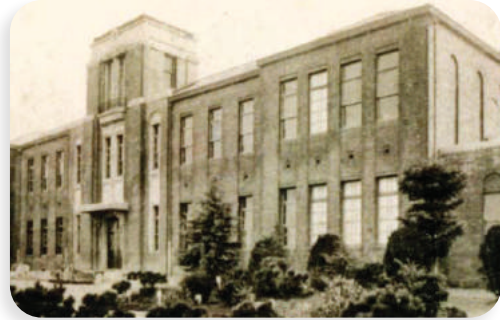
일제강점기의 광주형무소. 오른쪽의 한옥 건물은 원래 광주객사 정문이던 황화루였던 것을 일제가 형무소 정문 옆으로 옮겨(시기 미상) 간수 양성소로 사용했다. 황화루는 문흥동으로 감옥이 이전되기 전에 철거됐다고 알려졌지만, 철거 시기는 미상이다.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제공
*출처 : 한겨레신문, 검색일 : 2020.10.03.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713443.html#cid=6507ed1631838b48397d-29fa5acc93

누문동의 광주고등보통학교는 수피아여학교에 비해 늦은 1920년 5월에 개교했고, 일본인들이 많이 다녔던 광주공립중학교는 1923년 계림동에 지어졌다. 여학생들을 위한 교육 시설로는 광주고등여학교가 있는데, 광주공립중학교와 마찬가지로 1923년에 문을 열었으며 대부분 일본인들이 다녔다. 광주고등여학교 부지는 현재 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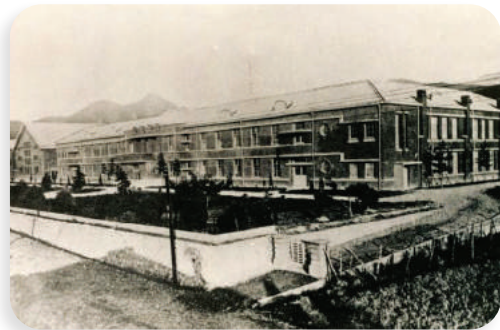
그곳에 체육관 시설 한 개만 남아있다. 남학교 개교에 비해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1927년 4월,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가 개교하였다. 전남여자고등학교는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의 후신이다. 이렇듯 근대 교육시설이 들어서면서 광주의 모습은 또 다른 변화를 겪었다. 이와 더불어 유림숲 너머 근대시설인 광주역과 공장시설이 지어지면서 광주는 점점 더 확장되었다. 새로 지어진 건물들은 객사관과 같은 옛 건물 모양이 아닌 서양식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를 처음 보는 행인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하였다.



광주공립고등심상소학교.
1907년 이미 광주에 뿌리를 내린 일본인들은 일본인회를 창립하고 일본인 소학교를 동본원사에 세웠다. 1913년에는 공중에 사진 속 건물을 신축, 이전하고 광주공립고등심상소학교라고 불렀다.
*출처 : 박선홍, 앞의 책, 27쪽.



현 전남여고 전신인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전경.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상지이며 광주광역시 기념물 제26호이다.
*출처 : 박선홍, 앞의 책, 112쪽.



광주 최초로 개교한 지금의 서석초등학교.
일본인들이 다녔던 심상소학교와 달리 조선인들이 다녔던 학교로 광주-전남 계몽운동의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출처 : 박선홍, 앞의 책, 168쪽.

이렇듯 광주의 모습이 변화를 가져온 것은 일제강점기 이후였다. 앞서 말하였지만, 일제가 광주에 지은 새로운 건물들은 식민통치의 기구였다. 광주를 비롯한 전라남도를 효율적으로 통치하여 수탈하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광주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책이 있다. 1913년 광주군청에서 펴낸 『광주군세개지(光州郡勢概誌)』에 광주를 묘사한 내용이 있다. 이 글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⁶⁾

광주 고을은 조탄강(광주천) 오른쪽의 평야 지대에 펼쳐진 성안, 공수방, 기례방, 부동방의 4개 면으로 형성된 고대로부터 유명한 도시다. 합방 후 내지인의 이주가 날로 늘어나 조선인과 합쳐 호구가 2,500호에 인구 1만 명을 포용하고 있으며 근래에 빈번한 시가지 구역의 조정으로 19개 방리로 분할됐으며, 가로는 사통팔달로 정연하게 정비됐고, 종횡으로 일본식 가옥이 활발하게 건축됨에 따라 시내의 면모가 크게 일신하게 됐다.

광산정(광산동)에는 전라남도청을 비롯하여 경무부, 헌병대본부, 수비대(일본군 대대본부와 1개 중대), 자혜병원(전남대학교병원 전신, 옛 도청 옆에 있었음), 물산진열소(상무관 앞에 있었음), 잠업전주소 등과 아울러 이에 따른 관사가 좌우로 즐비하여 관청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귀빈의 접대소로 유명한 황화루를 들어서면 지금은 광주군청과 성내 등 3개 면사무소로 쓰이는 객사 건물에서 광주의 옛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우편국과 농공은행(광주우체국 옆에 있었음, 산업은행 자리)의 신축건물이 시내 한복판에 의젓하게 솟아 있고 동문동으로는 경찰서, 보통학교(서석초등학교의 전신으로 이 무렵 전일빌딩 자리에 있었음), 면채종포 등이 있다. 동문을 나서면 인적이 드문 곳에 광주감옥(재감 인원 437명)이 외따로이 떨어져 있다. 동성정(금남로3가)에는 광주지방법원과 몇 채의 관사가 인접해 있어 한 블록을 이뤘으며 동양척식회사의 출장소는 북문동(충장로3가)에 있다.

멀리 공북루를 나서면 유림숲에 이르고 이곳에는 광주농업학교와 광주임업묘포(임업시험장으로 전방과 일신방직 공장 터)가 있어 그 부속 농장(9정 8반)은 정연하게 정리되어 행인들의 눈을 새롭게 한다.

내지인의 교육기관인 심상소학교(중앙초등학교)는 지금의 서성정의 가교사(볼로동 1번지 일대)에 있으나 머지않아 새로 터를 잡아 일대 신축의 역사를 계획하고 있다. 광주교를 건너 조탄강 건너편 공수방면에 이르면, 언덕 위에 지방금융조합(광주공원 어린이헌장기념탑 일대)이 있어 전망이 좋기로

16) 박선홍, 앞의 책, 40~42쪽.

관공서 가운데 으뜸이다. 부동방면에는 광주중축장(축산시험장의 전신, 양림동에 있었음)이 있어 농사의 경영과 개량 발전에 시범을 보이고 있으며, 그 서쪽 일대는 미국인 선교사의 거주지가 됐고 미국야소교회가 세운 송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 제중 병원, 나병환자 수용소(수용인원 28명) 등이 있다. 그 사이를 누비듯이 양림 뒷동산 중턱에 벽돌 양옥 수실 채가 점점이 있으니 광경 또한 이채롭다.

각종 상점은 시내에 준비하여 지방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하고, 특히 전남 굴지의 광주시장이 있어 매월 음력 2일과 7일에는 큰 장, 4일과 9일에는 작은 장이 열려 활발하게 물자를 집산시키는데 상권은 거의 읍내 상인들이 쥐고 있다.

공업은 아직 미미하여 마쓰다, 시메노, 오오츠 등 3개 양조장에서 청주, 된장, 간장을 양조하여 인근 고을에 공급하고 있으며 광주일보사는 일간 신문을 발행하는 한편으로 목포신보 광주지국과 함께 인쇄공장을 설치하였는데 인쇄기의 신기하고도 교묘한 작업 광경은 오가는 조선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다.

시내 전화는 138번에 이르고 기타 소방조직, 화장장 등이 있어 본도의 발전이 아직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시설이 괄목할 만하다.

이처럼 광주는 많은 관공서와 도시 기관을 구비하여 지방개발이나 식민지의 필요한 설비가 해와 달이 거듭할수록 진보되어 가고 있어 비단 전남의 정치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상업과 교통의 요지로 지위를 굳히고 있다. 물자와 현금 거래는 연간 200만~300만 엔에 달하고 여객의 왕래도 매월 6,000~7,000명을 상회하여 시황이 날로 번창해가고 있다.

이 책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한지 3년 만에 펴낸 책이기에 광주의 새로운 모습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광주의 새로운 모습은 일제가 식민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도시로 성장해가는 광주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근대적 변화의 흐름에 대응했다.

양림동
광주의 새로운 풍경

돌이켜보면 나, 1895년생 김광희는 광주가 경험한 근대적 변화를 고스란히 겪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시작은 학교였다. 나의 두 오빠들은 서당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였는데, 언니들은 부모님의 말씀대로 집안 청소를 하고, 샘에 물 길는 일을 하고, 조탄강으로 빨래를 하러 다녔다. 그러다 언니들이 스무살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시집보내야 한다며 부모님은 혼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나는 언니들처럼 살기 싫었다. 언니를 따라 우물물을 길러 간 어느 저녁, 이웃집 동생 최숙이가 양림리에 들어와 있는 미국인 목사 집에 예배 다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양동이를 팽개치고 그 길에 숙이를 따라 나섰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다는 야소교(耶蘇教 천주교와 개신교, 정교회 등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를 통틀어 이르는 말) 선교사를 처음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보다 하얀 피부에 눈 색깔은 파랬고 눈은 옴폭 파여, 꼭 푸른 광채가 나는 해골 같았다. 눈동자 색깔이 파랗다니,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머리 색깔도 노란색이 섞인 갈색이었다. 우리에게는 더듬거리며 어눌한 우리말을 썼는데, 미국인들끼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을 했다. 정말이지 처음 봤을 때는 도깨비인 줄 알았다.

선교사들은 세계전도라는 것을 보면서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줬다. 푸른 것은 바다요 흙 색깔의 덩어리는 대륙이라는 세계전도에 그려진 우리나라는 너무 작았다. 이웃나라 중국이나 바다 건너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컸고, 일본은 섬나라였다. 목사의 가족은 머나먼 미국에서 배를 타고 왔다고 하였다. 목사 이름은 배유지였다. 원래 이름은 유진 벨(Eugene Bell)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으니 우리식 이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해 이름을 배유지로 지었다 했다. 배목사는 의사인 오원과 함께 광주에 왔는데 신기하게도 오원은 아픈 사람들을 잘 고쳐주었다. 오원도 한국식 이름이었고, 미국에서는 클레멘트 오웬(Clement C. Owen)이라고 했다.

두 분은 양림동에 터를 잡았다. 양림동은 부동방면에 있었는데 조탄강을 넘어야 갈 수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은 광주읍에는 이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이들이 비집고 들어갈 마음의 틈이 없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다. 광주읍은 땅값이 비쌌을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의 모습을 보고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두 선교사가 광주에 선교를 올 수 있었던 것은 김운수라는 분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김운수에게는 손에 종양이 생긴 늙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오원 선교사의 치료를 받고 병이 낫자 야소교 신도가 되

었다. 그 후 광주교회 건립에 큰 몫을 하였다.

광주의 야소교 신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옆집에 사는 최속이의 아버지 최홍중 목사였다. 최홍중 목사는 김운수를 만나 1904년부터 배유지 목사의 사랑방에서 열리는 예배에 참석하였다. 최홍중 목사는 대한제국에서 순사를 하였는데, 일본이 의병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탄압하는 것을 보고 그만두었다고 한다. 이후 광주농공은행의 토지 감정원으로 일했던 적도 있었다. 1909년 제중병원에서 포사이드 선교사의 조수로 일하면서 나병환자를 돌보는 것이 계기가 되어 나환자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심하였다.¹⁷⁾

최홍중 목사는 광주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분이 되었는데, 서울에서 3·1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기도 하였다. 광주의 3·1운동에도 관여했는데 서울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광주의 3·1만세 시위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출옥 후 목사안수를 받아 북문안교회의 목사로 활동하였다. 최홍중 목사는 조선노동공제회와 신간회에 참가하였으며, 광주 YMCA와 조선나병환자구제연구회에 발기인으로 참가하였다.¹⁸⁾ 그는 나환자들의 구제 활동에 헌신적이었는데, 이것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최홍중 목사는 동생 최영옥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 귀국 후 최영옥은 서석병원을 개원하였는데, 그 부인이 뒤에 이야기할 김필레이다.

배유지 목사는 그의 사랑방에서 예배를 했고, 평일에는 아이들을 데려와 가르치기도 하였다. 주로 야소교 신자의 아이들이었는데 최속이도 포함되었다. 나는 이곳에서 공부를 배우는 최속이가 너무 부러웠다. 그래서 몰래 따라가 배유지 목사의 집 근처를 서성이기도 하였다. 교사는 배유지 목사와 부인인 마가렛 벨(Magaret W. Bell)과 엄언라(Ella Ibernica Graham) 선생님이었다.

학생 수가 증가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이 따로 배웠다. 학급을 각각 여학교와 남학교로 나누고 광주남학교와 광주여학교라 하였다. 남학교는 송일학교라 이름지었다. 여학교는 학교 건립에 기부한 제니 스피어(Jennie Speer)의 이름을 기념하여 수피아여학교라 하였다.¹⁹⁾ 정식으로 수피아여학교가 문을 연 것은 1907년이었다.

17) 박선홍, 앞의 책, 49-50쪽
18) 임선화, 「미군정의 실사와 전라남도 도시사교문회의 조직」, 『역사학연구』 38, 호남사학회, 2010, 332쪽
19) 수피아100년사간행위원회, 『수피아백년사』, 광주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2008, 180쪽.



스승에 대한 공경이 각별했던 시절, 1931년 수피아여학교 졸업생들은 스승과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다.
*출처 : 박선홍, 앞의 책, 178쪽.



신사참배 거부로 폐교당한 수피아여학교에서 1944년 5월 개교한 광주의학전문학교(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전신) 학생들이 가축한 노력봉사에 지쳐 잠시 쉬고 있다.
*출처 : 박선홍, 앞의 책, 178쪽.

마리아 선생님은 1910년 수피아여학교에 부임하여 1912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날 때까지 수피아여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쳤다. 나중에 수피아여학교에 부임하신 김필례 선생님은 두 분의 고모가 된다. 나는 이 집안을 보면서 딸도 아들과 똑같이 가르치는 분위기가 참 부러웠다. 딸들도 교육시키는 집안이 당시는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수피아여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된 학생들이 생겼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다. 보통과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11년 수피아여학교에서 고등과를 설치했고 나는 운 좋게도 고등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통과 졸업과 동시에 고등과에 입학할 수는 없었다. 딸 교육은 그만하면 됐다는 부모님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고, 나는 잠시 집에서 어머니의 일을 거들면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었다.

1915년 3월 수피아여학교의 고등과 졸업생이 처음으로 배출되었다. 박애순과 표재금, 두 명이었다. 내게는 2년 선배들이었다. 박애순은 그 뒤 서울 정신여학교 사범과를 마치고 수피아의 교사로 근무하였다. 3·1운동 때에는 수피아 학생들을 데리고 만세시위에 참여하여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최홍종과 김철이 서울에서 인산일에 배포되었던 독립선언서 등을 가지고 광주로 내려와 여러 사람들과 논의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홍종이 서울의 만세시위에 참여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김철 혼자 광주로 내려왔다. 양림동에 있는 금동교회의 남궁혁 목사 집에는 김철, 송일학교 교사 김강, 최병준, 황상호, 강석봉, 최한영, 한길상, 최영균, 김용규, 최정두, 서정희, 김봉렬, 홍승애 등이 모여 거사일을 3월 8일로 정하였다. 이들은 각각 태극기와 선언서 준비부터 사람들 동원 등 모든 일을 분담하였다. 박애순과 홍승애는 수피아여학교의 학생 참여를 맡았다. 막상 3월 8일이 다가오자 거사를 일으킬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들은 만세시위를 3월 10일로 연기하였다. 드디어 3월 10일, 부동교 아래에 있는 작은 시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양림동에 있었던 수피아여학교와 송일학교 학생들은 하천 변까지 내려와서 만세시위에 합세하였다.²²⁾

이 군중들은 부동정에서 서문통을 지나 본정으로 향했다. 누문리에서 온 농업학교생들과 북문 밖에서 합세하여 우편국으로 다시 올라갔다. 이때부터 일제는 헌병경찰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총검을 미친 듯 휘두르며 구타와 폭행을 가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피아여학교의 내 후배들은 하얀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입고 열렬하게 만세를 외쳤고, 일제 경찰

정식으로 수피아여학교가 문을 열자 나는 부모님을 즐겼다. 학교가 가고 싶다고, 나도 배우고 싶다고 즐겼다. 우리 집이 학교를 보내지 못할 만큼 가난한 것은 아니었기에 부모님에게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문을 연 학교는 광주소학교도 있었지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는 수피아여학교가 처음이었다. 처음 수피아여학교는 보통과였다. 보통과 4년제였는데, 1914년부터는 학제가 변경되어 보통과 6년제가 되었다.²⁰⁾ 1911년 고등과가 설치되었다.

이렇게 여학생을 위한 학교가 생겼다는 것은 광주의 여성들이 집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뜻이었다. 나는 이 기회를 통해 집을 나와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싶었고, 실천을 하였다.

수피아여학교는 배유지 목사의 사랑방에서 시작된 뒤 정식으로 문을 열며 더 많은 교사들을 맞이하였다. 배유지 목사 부인과 엄언라 선생님, 윌슨 부인, 구애라(Anna McQueen) 선교사, 최재익 선생님, 최홍종 목사님, 홍우중 선생님, 변창연 선생님, 남궁혁 선생님, 김함라 선생님과 김마리아 선생님 등이 수피아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²¹⁾

이 분들 가운데 내게 가장 깊은 인상을 준 사람은 김함나 선생님과 김마리아 선생님이었다. 두 분은 한국인 여성으로 학생들의 우상이었는데,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들처럼 멋진 여성이 되고 싶어했다. 지금까지 한국여성들은 어려서는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 동생을 돌보다가, 시집 가서는 시부모를 공양하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다. 그런데 두 사람은 고등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문직 여성들이었다. 이 얼마나 멋진가! 당시 여학생들에게는 집안에 머물며 가정사를 챙기는 여성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 후학을 양성하는 이 선생님들이 더 훌륭해보였다. 그래서 이 두 선생님들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다.

김함나 선생님과 김마리아 선생님은 자매였다. 이 두 분은 황해도 장연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야소교 신자였다. 김함나 선생님은 남궁혁 선생님과 결혼을 하여 광주에서 생활하던 중 수피아여학교 교사가 되었다. 이후 서울에서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동생 김마리아까지 학교로 불러 교육 공동체를 만든 것이다.

김마리아 선생님은 작은 숙부 김필순의 집에서 정신여학교를 다녔는데, 당시 김필순의 집은 장안의 유명한 야소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선생의 고모인 김순애와 김규식이 만났고 결혼을 하였다. 김

20) 「순회탐방(99) 화려한 시기도...」 『동아일보』 1926. 9. 30.

21) 수피아100년사간행위원회, 앞의 책, 206~207쪽.

22) 수피아100년사간행위원회, 앞의 책, 250쪽.

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 순식간에 하얀 저고리는 빨갱게 물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만세운동에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였다. 나도 장터에서 목청 높여 만세를 불렀다. 비록 박애순처럼 주동자가 되어 만세시위를 조직하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자행했던 일들을 피부로 느꼈던 터라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와 함께 공부했던 많은 여학생들이 거리로 나왔고 “대한독립 만세”를 목놓아 외쳤다. 물론 이 날 장터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이 모두 수피아여학교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나중의 기록에 의하면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 중 교사와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간호사들도 시위에 참여했다. 이로써 명확해진 것은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이 서서히 큰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고, 더 많은 여성들이 그런 역할에 참여하고자 열망하였다는 점이다.

수피아여학교를 졸업한 여성들 중 결혼과 육아 등을 이유로 집으로 다시 돌아간 이들도 있었고, 사회에 나서 활동을 하였던 이들도 있었다. 당시 배운 여성들이라 해도 사회에서 직업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았고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직업의 수도 많지 않았지만, 여성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가운데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박애순처럼 학교 교사가 되거나 간호사가 되는 것이었다. 3·1운동 때 광주에서 불잡힌 여성들을 보면 수피아여학교 학생들도 있지만, 이 학교를 졸업하고 제중원 간호사로 재직 중이었던 이들도 있었다. 여성들의 직업으로 간호사가 꽤 선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사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여성이 의사가 되는 것이 20세기 초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고, 외국의 의대에 진학해야 했기 때문에 참으로 희소했다.

박애순(1896-1969)
전남 목포 사람이다. 1919년 3월 9일 광주 수피아여학교 교사로서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했다. 김복현·김강으로부터 독립선언문 50여 통을 받아 다음날인 3월 10일 광주 장날의 독립만세 시위에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을 대거 참가시켰으며, 독립선언문을 시위군중에게 배포하며 활동하다가 불잡혔다. 이에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처 : 공훈전자자료관.
검색일 : 2020.10.03.
<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do?goToCode=20002&pageTitle=Merit&mngNo=4890>



광주 최초의 여자의사
자유결혼한

근대가 되면서 세상이 달라졌다. 이제 여성들도 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돌파구가 생겼다. 학교를 통해 지식인 여성이 등장했고, 이 여성들이 사회적 공간을 확보하면서 조금씩 세상을 바꿔나갔다. 광주여성들 또한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대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 물론 이름을 남긴 이들보다 그렇지 못한 이들이 훨씬 더 큰 역사적 변화를 가져왔지만 기록되지 않은 익명의 목소리는 현재의 우리에게 닿지 못하므로 이름을 남긴 여성들을 통해 이름 없는 여성들의 삶을 살펴보는 방식의 독해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다음의 대표적인 여성들은 그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기록되지 못한 숭한 여성들을 대표하여 기억되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지면 좋겠다.

우선 현덕신을 들 수 있다. 현덕신은 1896년 황해도에서 태어났다. 그의 오빠 현석칠은 목사였는데 현덕신을 후원하였다. 현덕신은 오빠 덕분에 15세에 이화학당을 졸업하였다. 이후 도쿄 여자의학전문학교로 유학을 갔고 졸업했다. 현덕신은 1919년 2·8독립선언에 김마리아, 황신덕, 박승호, 박순천, 황에스터 등의 여학생들과 함께 성금 모금에 힘을 보탰다. 이 때 나중에 남편이 된 최원순을 만났다. 의사가 되어 서울로 돌아온 현덕신은 동대문부인병원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다 1923년 광주 출신 최원순과 결혼하였다.

현덕신과 최원순의 결혼사진.
현덕신은 1923년 6월 16일 서울 종로 중앙예식장에서 김창준 목사의 주례로 혼인식을 올렸다.
*출처 : 박선홍, 앞의 책, 105쪽.



현덕신(1896-1963)
광주 최초의 여자 의사였으며 늘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출처 : 박선홍, 앞의 책, 108쪽.

와세다대학에 유학하였던 최원순도 2·8독립선언에 참여하였고,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귀국하여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며 현덕신과 결혼하였다. 당시 '모던걸'과 '모던보이'의 결혼이었다. 이들은 봉건적인 사고를 타파하기 위하여 부모가 정해주는 결혼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찾아 결혼했다. 이러한 결혼은 그야말로 그 시대 여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모던보이들 중에는 10대에 부모님이 정해준 여성과 결혼한 이후 홀로 서울이나 일본 등지에서 유학하다가 모던걸과 연애했던 이들도 있었다. '사기 연애'라 몰아세우기에는 모던보이들 입장에서도 원치 않은 결혼을 해야만 했던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모던걸의 입장에서는 결혼한 남성과의 연애로 인해 모든 것을 희생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자유로운 연애를 표방하며 기혼 남성과 사랑을 나누다가 절망하여 목숨을 끊은 사례도 있었다. 윤심덕과 김우진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현덕신과 최원순은 내가 살던 시대의 결혼치고는 늦은 편이었지만 자신의 의지로 결혼 상대자를 선택한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결혼 후에는 서울에서 각각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다가 1928년 최원순이 폐결핵을 얻자 부부는 광주로 내려왔다. 현덕신은 중장로4가 옛 화니백화점 자리에 개업하였다. 진료과는 산부인과와 소아과였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여자의사가 나타난 것이다. 세상이 바뀌어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한다고는 하지만 남녀유별의 유교적 가치관이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는 시절이었다. 여성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려면 큰 용기를 내야 했고 특히 부인과 질환이나 분만과 관련된 것은 남성 의사를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 의사의 출현은 광주 여성들에게는 대단히 환영할 일이었다.²³⁾

현덕신은 여의사로 이름을 떨쳤지만, 그의 단발머리도 유명세를 탔다. 당시 모던걸들에게 단발머리가 유행이었는데, 현덕신은 환자를 돌보기 위해 머리 다듬을 시간을 아끼려고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고 알려졌다. 그는 사회운동에도 참여하였는데 근우회 광주지회를 설립하는데 앞장서기도 하였고, 계몽운동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남편인 최원순의 요양을 위해 광주로 내려왔던 현덕신은 무등산에 최원순이 요양할 수 있게 집을 지었다. 그 집은 최원순의 아호를 따서 석아정이라고 불렸다. 석아정에서 최원순은 요양을 하며 지내다 1936년 사망하였다. 이 시대에 폐결핵은 불치의 병이었기에 마땅한 약도 없었다. 석아정은 최원순이 요양한 곳이지만, 현덕신도 최원순과 함께 이곳에서 그들의 시

23) 박선홍, 앞의 책, 108쪽.

간을 보냈기에 현덕신의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석아정은 나중에 오방 최홍종이 인수하여 오방정이라 불렸다. 최홍종은 1936년 이후 오방정에서 칩거하다가 해방 이후 허백련에게 이곳을 양도하였다. 허백련은 이 집을 춘설헌이라 이름을 붙였고, 광주의 차문화 산실이 되었다.²⁴⁾



석아정에서 단란한 때를 보내던 현덕신-최원순 부부.
현덕신은 남편의 요양을 위해 무등산 밑에 집을 짓고 최원순의 아호를 따 석아정이라고 했는데 석아정은 최원순이 고인이 된 뒤 최홍종 목사가 거쳐하면서 오방정이라 했고, 해방 후 의재 허백련이 이곳을 개축하여 오늘날 춘설헌이 되었다.
*출처 : 박선홍, 앞의 책, 106쪽.

24) 박선홍, 앞의 책, 106쪽.

미국 유학을 마치고
광주 여성교육에
헌신하다

선교사촌이면서 개신교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양림동에서 김필례를 찾아 볼 수 있다. 김필례는 1891년 황해도 장연에서 태어났다. 그의 오빠는 김합라 선생과 김마리아 선생의 부친이었다. 수피아여학교와 관련 있는 선생들 가운데 여성 선생님들이 한 가문 출신이라는 것이 놀랍다. 김필례는 1907년 연동여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가 일본동경여자학원 중등부를 다니다 1913년에 졸업하였다. 1916년 고등부를 졸업한 이후 귀국하여 1919년까지 정신여학교 교사를 지냈다. 1923년 이후 미국 조지아주 액네스칼여자대학으로 유학을 가 1926년 졸업한 이후 1927년 컬럼비아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필례 선생의 어머니는 안성은 여사로 황해도에서 조지아나 파이팅(Georgiana Whiting)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도왔는데, 파이팅 선교사가 광주의 오원 선생과 결혼하여 광주에 내려올 때 함께 왔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1918년 최홍종 목사의 동생 최영옥과 결혼을 하였다. 이후 남편을 따라 광주에 내려온 김필례는 수피아여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이후 김필례는 1922년 한국 YWCA 창립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최영옥과 결혼 후 1920년대에 부부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가 있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수피아여학교에 근무하며 교감이 되었다.²⁵⁾



김필례(1891-1983)
수피아여학교의 교감과 교장을 역임했으며 야학을 열어 못 배운 여성들의 교육에 헌신했다.
*출처 : 박선홍, 앞의 책, 119쪽.

25) 수피아100년사간행위원회, 앞의 책, 317~320쪽.

광주여성들
푸른 눈의

광주교를 넘어 부동방면에는 광주종축장(훗날 축산시험장의 전신)이 있었고, 그 서쪽은 미국인 선교사의 거주지가 되었다. 미국 야소교회가 세운 송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 제중병원, 나병환자 수용소(수용인원 28명) 등이 주변에 있었다. 그 사이를 누비듯이 양림 뒷동산 중턱에 벽돌 양옥 수신택이 점점이 있었다.²⁶⁾ 이른바 서양촌의 모습이다. 21세기에는 양림동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송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가 세워졌고, 제중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곳과 관련된 이들이 사는 집들도 있다. 이곳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서서평으로 불리웠던 엘리자베스 세핑(Elisabeth Johanna Sepping)의 집도 보인다. 푸른 눈의 광주여성이라 불리는 서서평은 1912년 간호원 겸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었다. 처음에는 군산과 서울에 머물다가 광주 제중병원의 간호원장으로 부임하며 의료 선교에 힘썼다. 그녀는 여성교육, 특히 교육 적령기를 놓친 여성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양림동산 선교사 마을에 이일성경학교를 설립하였다.

1918년 독신여성을 위해 기술교육과 성경을 가르치는 광주초급여자성경학교를 설립하였는데, 1926년 로이스 니일(Lois Neel)을 기념하는 건물을 세운 뒤에 학교 명칭을 이일성경학교로 바꾸었다. 선교단체였으므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기술교육을 함께 교육함으로써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은 정말 중요하다.



서서평(1880-1934)
뒷줄 중앙이 서서평이다. 서서평은 광주이일학교를 세워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계몽에 앞장섰다. 사진은 이일학교 보통과 제3회, 성경과 제7회 졸업식 사진이다.
*출처 : 박선홍, 앞의 책, 59쪽.

26) 박선홍, 앞의 책, 41쪽.



서서평은 옥양목 직삼에 검정 통치마, 검정 고무신을 신고 고아인 양자를 업고 양림거리를 누볐다.
*출처 : 박선홍, 앞의 책, 55쪽.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제는 동방요배를 강요하였다. 이후 1935년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는 이 문제에 대해 선교본부와 많은 논의를 하였고, 대체적으로 남장로회는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광주에 진출한 선교회는 남장로회였고, 일제와 타협이 실패하면 폐교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 일부 한국인 선생은 폐교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폐교 반대 움직임은 광주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션 스쿨에서는 대부분 보인 현상이었다.

선교사들이야 신앙과 양심의 문제로 폐교를 단행했지만, 학교가 문을 닫으면 더이상 근대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한국인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었다. 개항 이후 한국인들은 근대 문물을 배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다. 특히 교육에 대한 열의는 대단히 높았다. 그런 한국인들에게 학교 문을 닫는다는 것은 청천벽력의 일이었다. 나는 자진폐교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인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폐교는 단행되었다. 유화례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남장로회 교단의 선교사들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폐교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교단 내에 일부 선교사들은 폐교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서울의 북장로교단의 학교 중 어떤 곳은 신사참배를 국가의 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말기 한국인들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을 했고, 자진폐교된 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학교로 진학을 갔다. 이는 한국인 특유의 항학열에 기인한 선택이기도 했고, 배움을 통해 힘을 기르고 독립을 쟁취하자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기도 했다. 나는 당시 학교 진학을 위해 창씨개명을 하는 것이나, 학교를 계속 다니기 위해 신사참배에 동원되는 것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에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민지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한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앞장 서 만세시위를 조직하고 피 흘려 죽어갔지만, 또 누군가는 지식을 얻고 힘을 갖기 위해 창씨개명에 협조했다. 시인 운동주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창씨를 한 것을 비난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내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에 놓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분명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 식민지의 초라한 현실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여성들이 독립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경제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건 21세기에든 마찬가지이다. 당시의 여성들이 남성에 종속된 가장 큰 이유는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기술교육이야말로 가난한 여성들에게는 절실한 것이었다. 그는 학생들을 위해 양림동 일대에 뽕밭을 조성하고 양잠, 제사, 직포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선교사들의 바느질감을 학생들에게 맡겨 그들의 경제적 형편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일성경학교는 교육기회가 적었던 광주여성들에게 근대문물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곳에서 많은 전문 여성 인력이 배출되었다. 그들은 간호사, 산파(조산원), 교사, 유치원 보조, 여성 전도사 등으로 활동하였다.²⁷⁾

서서평은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가 간호학을 공부했다. 그는 우리말과 풍습을 익혀 흰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를 입고 다녔다. 광주의 고아를 입양해 키우기도 하였고, 나병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손길을 주었다.²⁸⁾ 또한 인신매매, 축적금지, 공창제폐지운동의 선봉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활동도 하는 등 헌신적으로 광주의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였다. 선교를 위해 광주에 왔으나 선교 이외의 활동에도 헌신했고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면서 광주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광주에서 22년을 봉사하다 1934년 별세할 때까지 가난하고 병든 이들과 줄곧 함께 했다. 그의 장례식은 그가 입양했던 자녀들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인사들이 모여 치른 광주 최초의 사회장이었다. 그는 양림 뒷동산에 묻혀 여전히 광주를 지켜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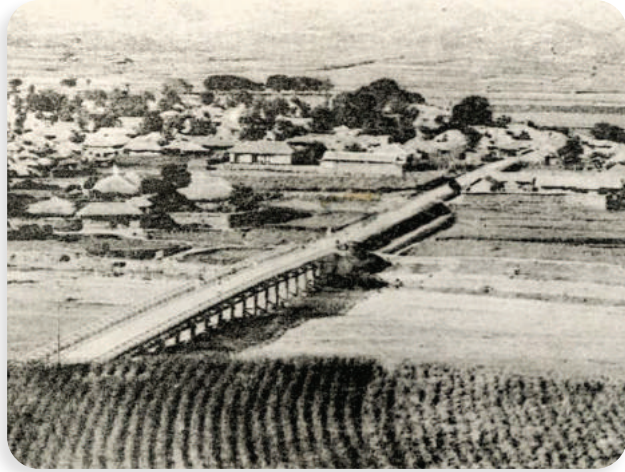
광주를 사랑한 푸른 눈의 여성을 또 한 명 찾는다면 유화례(Florence Elizabeth Root)를 들 수 있다. 유화례가 광주에 온 것은 1927년 1월이었다. 그는 수피아여학교에서 영어와 음악을 가르쳤고 1933년 3월 수피아여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좌) 젊은 시절의 유화례
우) 수피아여학교 교장 재직시 유화례
유화례는 수피아여학교 교장으로서 일제강점기 광주지역의 기독교 선교활동과 교육운동에 생애를 바쳐 광주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미국인 여성 선교사이다.
*출처 : 박선홍, 앞의 책, 63쪽.

27) 박선홍, 앞의 책, 58-59쪽.
28) 박선홍, 앞의 책, 55쪽.

광주의 풍경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옛 광주읍성 내에는 근대식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것은 대부분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 건물과 도시의 도로는 광주를 봉건시대에서 근대로 변화시켰다. 광주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편의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분명 광주의 근대적 변화이다. 그러나 일제가 광주에 들어온 근대는 식민통치를 위한 것이었고, 광주의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다.



광주공원 쪽에서 본 1909년의 광주. 앞의 다리는 광주교이고 오른쪽의 화살표는 공복문으로 추정된다.
*출처 : 박선홍, 앞의 책, 35쪽.



광주 동부 시가지와 지산유원지 쪽을 바라보고 찍은 1928년의 광주. 오른쪽 멀리 서석초등학교가 보이고, 바로 앞 오른쪽 돌담이 지금의 상무관 돌담이며 왼쪽 2층 양옥이 금융조합연합회(훗날 농협 지도부 자리)이다. 그 뒤로 광주여고, 전남도립사범학교가 보이고 장원봉(왼쪽), 향노봉(오른쪽)이 멀리 보인다.
*출처 : 박선홍, 앞의 책, 139쪽.

광주천(조탄강)을 넘어 양림동에도 근대식 건물이 보인다. 식민 통치기구를 보는 우리의 눈은 거부감으로 가득차 있다. 당연하다. 광주천을 사이에 두고 근대의 풍경이 나뉜다. 이 속에서 여성의 모습을 찾아보자.



일제의 잔재가 채 가시지 않은 1950년 양림동 수피아여고 일대. 중앙 우측에 수피아여고가 보인다.
*출처 : 광주시청각자료실, 검색일 2020.10.03.
http://gjarchive.kr/index.php?filter=search&mid=p_view&category=27895&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6%91%EB%A6%BC%EB%8F%99&document_srl=3239

여성이 사회에 진출한 것은 근대 이후였다. 가정을 나와 갈 수 있었던 곳 중 안전한 곳은 학교였다. 집을 나서는 것 자체가 무방비 상태로 어떠한 공격과 약탈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였던 시대에, 학교를 통해 여성은 종속적인 존재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여성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여성은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았다.

1919년 3·1운동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3·1운동은 천도교계와 기독교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는데, 광주에서도 기독교계의 참여를 찾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송일학교, 수피아여학교, 농업학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였다. 이미 여성들의 참여가 당연한 모습이 된 것이다.

일제 헌병경찰의 폭력에 노출된 것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였다. 체포되어 재판받은 것도 남성만이 아니었다. 독립을 위한 한국인들의 저항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했고, 여성들의 참여는 점점 더 늘어났다. 이후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항일운동에 여성들의 참여는 꾸준히 늘어났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여학생을 포함하여 학생 신분이 아닌 여성들도 참여한 항일운동이었다. 이는 1900년대 이후 광주여성들이 조금씩 집을

벗어나 사회의 일정한 영역에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여성들의 항일운동은 일제강점기 백청단 사건에서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다. 여성들은 서서히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이 사회를 변화시켜갔다.

이제 내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다. 광희의 ‘희’는 기쁨을 뜻한다. 빛처럼 와서 기쁨을 주라는 것이다. 이 이름이 뜻하는 바와 같이, 여성들에게 기쁜 세상이 온 적이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여성을 존중하는 세상, 여성이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광희’, 광주의 기쁨에는 여러 뜻이 함축되어 있다. 여성이 생각하는 광주의 기쁨은 언제가 여성이 진정한 주인으로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 날의 기쁨일 수 있고, 5·18광주민중항쟁을 겪은 ‘광주’가 그날의 진실을 세상에 밝히는 날의 기쁨일 수도 있다. 아직은 오지 않았기에 더욱 절실하고, 절실한 만큼 그날의 기쁨을 더욱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그런 기쁨의 날이 오기까지 여전히 수많은 여성들의 눈물과 한숨, 희생이 필요할는지 모른다.

나는 비록 근대교육을 받기는 했으나 안타깝게 선구적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원하는 여성으로서의 모습과 근대여성으로서의 선구자적 모습 속에서 방황한 나는 가족에 안착했다. 김함라, 김마리아처럼 멋진 지식인 여성으로 살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혼기가 지나고 동무들이 모두 결혼하여 가족을 꾸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내가 다른 길을 간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그려보기도 했지만 답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잠시 나의 모교인 수피아여학교에서 여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지만 결혼에 대한 압박감은 점점 더 커지기만 했다. 그렇게 나는 결혼이라는 것을 했다. 자유결혼은 아니었고 부모님이 정해준 혼처였다. 그렇지만 나는 앞선 세대의 부부관계보다는 조금 더 선진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고 나의 딸은 나보다 더 당당하게 인간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키우고자 했다.

돌이켜보면 근대란 여성을 역사의 흐름의 주체로 나서게 한 커다란 프로젝트였다. 이러한 모습을 나의 삶과 광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시작은 집을 나서, 학교로 거리로 세상으로 걸어나가는 것이었다. 여성이 겪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나 김광희의 한 걸음도 있었음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二 장

광주여성, 신문물의 이중적 얼굴과 만나다

근대 문물과 일상의 변화

근대의 식민지시기는 일상의 많은 부분이 억압되는 암울한 시기임과 동시에 다양한 신문물이 물밀듯 유입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음악과 영화, 연극, 극장, 미술 등 신문물이 대중문화의 방식으로 향유되고 소비되었으며 수백 명의 '대중'들이 이를 수용했다. 여성들 또한 새롭게 형성되는 근대적 대중의 무리에 속해있긴 했지만, 여전히 문맹이 다수였던 광주여성들이 신문물의 적극적인 소비자나 지속적인 향유자로 자리매김 되기는 힘들었을 터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광주여성들은 광주에서 개최되는 신여성의 강연회나 강습회에 인산인해를 이루어 배우고 변화하려는 열망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 장에서는 1920~3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사건과 사고' 속에 풍문으로 등장하는 광주여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신문물로 가득찬 일상 속에서 매혹과 저항, 두 갈래의 길 사이를 오갔던 그 희미한 윤곽을 쫓아가 본다.

추적해보다
광주여성들의 발자취를
신문물을 거니는

근대 광주 여성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던 잡화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그녀들은 어떤 음악을 즐겨 듣고 노래를 자주 불렀을까. 거리를 산책할 때, 영화관에 갈 때에는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을까. 이런 질문들과 함께 시작한 광주 여성들의 흔적을 찾아가는 여정은 처음부터 성공하기는 힘들어 보였다.²⁹⁾

남아있는 기록 중에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광주 여성들은 희미한 윤곽만을 드러냈다. 군중의 무리에서 식별되지 않는 다수의 그녀들은 근대 광주 여성사를 특정한 이름들을 중심으로 쓸 수 없게 만들었다. 당시 유행하던 ‘행운의 편지’에 적힌 글자들이 무슨 뜻인지조차 헤아릴 수 없었던 수많은 그녀들이 바로 이 글을 전개하는 주인공들이다.³⁰⁾

1920년대 중반, 신문에는 “미국에서 비롯된 행운의 편지(幸運便紙)”로 “골머리를 앓는다”는 기사가 실렸다. “수년 전에 조선에도 돌아다니던 ‘행운편지’가 요즘 또 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³¹⁾ 경찰당국에서는 “일반민심을 소란케 한다고” 하는 그 편지의 내용을 공개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남에 성행하는 행운의 편지 - 관계자는 엄벌한다

행운편지내용(幸運便紙內容) = 편지를 받게 된 귀하에게는 행운이 올 것이다.

편지받는 즉시에 지인친척(知人親戚) 9명에게도 이 뜻으로 편지하는 동시에

선산(先山)이나 사당(祠堂)에 참배(參拜)할지이다. 만일 그러치 아니하면

불의(不意)의 횡액(橫厄)을 받을 것이니 지시하는 대로 실행하라 운운.

(『동아일보』 1935.7.5.)

행운편지의 발신인은 편지를 받은 사람은 즉시 9명에게 편지를 전달해야 하고 “선산이나 사당에 참배”하라고 당부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의의 횡액을 받을 것이니 지시하는 대로 실행하라”는 것이다. 경찰당국에서는 “관계자를 조사해서 엄벌하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신적(迷信的)인 것에 “돈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과학을 배우고 알려는데 이용하여 참된 지식과 행복을 찾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하였으나 편지 열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 행운의 편지는 1920년대 이전부터 각 지역을 떠돌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³²⁾

그런데 이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이들이었을까. 당시 편지에 적힌 문자들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을까. 미국 남장

29) 이 글은 광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광주여성사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동아일보』 한글판과 『부산일보』 『시대일보』 『조선시보』 『조선중앙일보』 『중외일보』 등에 게재된 일부 기사들을 참조해 작성했다. 신문 기사를 인용할 때에는 당시의 현장을 떠올리기 위해 기사의 제목, 신문과 잡지, 발간일을 본문 내용과 함께 제시했다. 기독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만 한글(한자)로 표기하고 숫자와 문장은 현대어로 바꾸어 썼다.
30) 일제강점기 광주 여성들의 근대적 '일상'의 변화를 여성과 관련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피고, 평범한 광주 여성들의 일상을 그려보기 위해 특정한 이름을 익명으로 표시하거나 생략한 경우도 있다.
31) 『휴지통』 『동아일보』 1926.8.1.; 『보는대로 듣는대로 생각나는대로』 『동아일보』 1926.8.12.
32) 『행운의 편지 장성에도 유행』 『매일신보』 1926.8.28.; 『행운편지는 미신적 행동 절대 배격합니다』 『조선중앙일보』 1935.7.4.; 『행운의 편지 또 다시 목포 방면에 출현하다』 『부산일보』 1935.7.6.

33) 대한간호협회, 서서평 일대기 『천국에서 만났습니다』(1980), 『한센 HANSEN』 5-6호(통권 제100호), (사)한국한센총연합회, 2020, 55쪽
34) 『순문맹(純文謄)』 76.5%로서 놀랍게도 170여만명: 문자해득자(文字解得者)는 불과 23.5% 침담한 전남교육상황』 『동아일보』 1936.5.21.
35) 『광주기민(光州僉民)으로 무등산이 인산화(山石化)』 『중외일보』 1930.5.14.; 『전라남도, 농촌불황으로 도시집중 호수 증가한 광주(全羅南道, 農村不況で都市集中戶數增加光州)』 『조선신문』 1931.6.3.; 『광주군 일대에 절량호수(絶糧戶數)가 삼천(三千)』 『조선중앙일보』 1935.3.27.
36) 『질투와 원한으로 방화한 여성』 『동아일보』 1932.5.23.; 『술꾼 남편 두고 투신자살한 여성』 『동아일보』 1932.5.1.

로교 간호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된 엘리자베스 셰핑(Elisabeth J. Shepping, 徐舒平)의 편지에서 하나의 단서를 구해볼 수 있다. 서서평은 1921년 내쉬빌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서 여행하는 동안 “500명 넘는 조선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열 명도 안 됐다고” 적고 있다. 그 무렵 서서평은 양림동에 이일(李一) 학교를 세우고 “이혼당한 여자, 남편이 죽고 없는 여자, 학령이 초과한 여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교육구제 사업을 전개했다.³³⁾

광주여성들 중에서 행운의 편지를 구경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 앞서 읽은 두 통의 편지와 함께 다음의 조사 자료를 더 참조할 필요가 있다. 1936년, 광주전남 지역의 문맹률은 76.5%에 달했고 그 인구는 무려 170여 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³⁴⁾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수입된 행운의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광주지역은 점차 근대적인 도시로서 외관을 갖추어 나갔다. 또한 기근과 춘궁을 견디지 못하고 농촌에서 도시로 “이향결식자(離鄉乞食者)”가 이주해 들어오면서 호수가 증가했다.³⁵⁾

일제강점기 광주 여성들은 직공, 여공, 인테리 여성, 신여성, 기생, 여급 등 다양한 호칭을 달고 출현했다. 그녀들은 회사, 공장, 상점, 극장, 학교 등에서 얼굴을 드러냈다. 각종 기관 단체에서 주최하고 후원한 강연회, 연주회, 영화회, 운동회 등에도 참여했다. 그런 한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 “질투와 원한이 몽친 심사를 펴기 위하여 그의 집에 불을 질렀다는 사실이 발견되어 사법의 취조를 받는 여성”이 있었는가 하면 가족을 돌보지 않고 술만 마시는 남편과 구차한 살림살이를 견디지 못해 “세상을 비관하고 물에 빠져 죽어버린 여성”도 있었다.³⁶⁾

희미한 “전등” 아래에서, 각종 “풍문” 속에, “비밀결사” 사건에 연행되어 취조받는 자리에서 광주 여성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문제가 된 그 ‘행운편지’의 발신인과 수신인에 포함되지 못했던 다수의 광주 여성들은 근대의 신문물과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주체라기보다는 근대의 이중적인 얼굴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일상의 공간에 자리한 근대적인 신문물은 여성들과 관련된 각종 사건 속의 배경이나 소품으로 등장한다. 1920년 6월, 광주 대시장 음식점 화재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에는 음식점 주인, 화재 발생 시간과 진화 시간, 손해액, 화재의 원인 등이 매우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광주에 화재 : 정부와 말다툼하다가 집에 불붙는 것도 몰라

지난 8일 오후 12시 10분에 광주 대시장 음식점 □□□의 집에서 불이

났으므로 경찰과 소방원이 활동한 결과 그 집 한 채만 타버리고 오후 11시

경에 불을 끄는데 손해는 약 150원이오. 불난 원인은 □□□의 아내되는

여자가 자기의 정부되는 □와 더불어 말다툼을 하는 사이에 촛불[촉불]이

넘어진 것을 모르고 내어버려둔 까닭이라더라.

(『동아일보』 1920.6.12.)

이 화재는 남편을 둔 여자가 정부와 말다툼을 한 사이에 넘어진 ‘촛불’에서 비롯되었다. ‘여자’에 초점을 두고 다시 읽어보면 “아내되는 여자”가 바로 화재를 일으킨 문제적인 인물로 부각된다. 무엇보다 화재 사건에 즉각 대응한 “경찰과 소방원”의 활동이 돋보인다. 다음 사건에서 불을 지른 사람은 한 여자의 ‘남편’이다.

질투로 살처(殺妻) 멸증(滅證)코저 방화

불꽃같이 타오르는 질투심을 억제치 못하여 ... 잠들어 있는 아내를 깨워가

지고 전기회사물(電氣會社水)에 목욕을 나가자고 데리고 나가다가 도중에

서 그 아내의 목을 눌러 죽인 후 ...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시체(屍體)

를 안방에 누이고 그 곁에다가 헌 신문지와 양복(洋服) 등을 늘어놓고 거기

다가 석유(石油)를 부은 후 집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 아내가 자다가 불타 죽

은 것 같이 하려고 하였던 것이라더라.

(『동아일보』 1929.7.26.)

아내를 질투한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불을 지른 이 사건에서는 “전기” “석유” “신문지” “양복” 등 근대적 물품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불꽃같이 타오르는 질투심을 억제치 못하여” 발생한 살인과 화재 사건은 일상의 곳곳에 유입된 신문물이 매혹의 대상임과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준다.

화재는 집, 음식점뿐만 아니라 회사와 공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1933년 1월, 천정(泉町)에 있는 제사주식회사(製絲株式會社)의 여공 기숙사 전부가 타버린 화재가 발생했다. 혹시 방화가 아닌가 하고 여공을 취조하는 중이라는 소식이다. 뜻밖에 화재를 당해 아우성을 지르면서 뒷마당으로 피신한 여직공의 숫자는 “385명”이었다고 한다.³⁷⁾

1936년 2월, “동양 제일을 사랑하는 종업광주방직공장(鍾淵光州紡織工場)”에서 일어난 화재는 공장 여공들의 상황을 드러낸다.

일년간 근속여성 퇴직금 일원(一圓)으로 해고: 가혹한 노동에 탈주 여공도

탈출 광주종방(鍾紡)에 비극 비등

입사당시에 임금 칠십전이란 박금을 받았으나 퇴직시는 좋은 대우로서

상당한 퇴직금을 주기로 약속까지 있었다는데 ... 해고를 시키고 ...

□□□는 기숙사 ‘카텐[커튼]’에다 방화를 하였는바 대사에 이르지 않았으나

경찰조사에 의하면 과도한 노동을 참지 못하여 그와 같이 방화를 하였다는

바 그 소문을 들은 일반인은 회사의 태도에 대하여 비난이 높다 한다.

(『조선중앙일보』 1936.2.11.)

공장은 동경의 장소이면서 노동력 착취의 장소였다. 여공들은 공장에서 바깥으로 “탈출”을 시도하거나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에 공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임금과 약속한 퇴직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과도한 노동을 참지 못하여” “기숙사 ‘카텐[커튼]’에다 방화를” 하였다. 불타오르는 커튼의 불빛이 공장의 비참한 현실을 환하게 비추었다.

37) 『사백여직공피란(四百女職工避難)』으로 비장한 장면연출. 『동아일보』 1933.1.15. 『혹한열풍(飢寒熱風)』의 기후와 각지에 화신발동(火神發動) 발화원인에 대하여 여공 심여명 취조 공장안에 도라기는 이상한 풍설. 『매일신보』, 1933.1.15.

양림 서양촌
야광귀골,
도깨비 나오는

1910년경 사직공원 주변과 양림동 일대는 전통과 근대가 교차하는 풍경이었다. 1910년 전후에 조사한 『조선지리지자료』에는 광주 사직산 곁의 방림·양림 사이 골짜기를 도깨비가 나오는 곳이라 ‘야광귀골’이라 했으며 이 도깨비골에 1905년 목포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 ‘양림 서양촌’이 형성되었다고 적혀있다.³⁸⁾ 또한 『광주지방사정』에서는 “1917년 8월 16일” 광주 시가지는 “휘황하게 빛나는 전등으로 시가지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불야성을” 이루었다고 하며 “약 1,000개의 전등 수용자 가운데 자혜의원이 95, 감옥이 45, 우편국이 35등으로 가장 많다.”고 한다는 내용이 소개되었다.³⁹⁾

1920년대 이후 광주지역에는 전등이 설치되고 철도, 도로가 개설·증설되었다. 1920년 3월에 전기회사 기계 파손으로 정전이 되었고 그해 여름에도 대구대흥전기회사(大邱大興電氣會社)의 기계 파손으로 “암흑세계”에 휩싸였다. 정전 사태에 직면해 광주시민들은 학교 강당에서 시민대회를 열어 “구십이마력(九十二馬力)의 기계”를 요구하고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대회는 일상 생활에서 전기가 필수품이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정전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⁴⁰⁾

광주지역과 전남지역을 오가는 자동차 통행이 활발해지던 시기기도 이 무렵이다. 광주와 송정리 간 자동차가 개통되어 광주 인사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광주와 장성, 나주, 능주, 순천을 운행하는 자동차 통행을 개시했다. 또한 광주, 보성, 여수, 이 세 지역에서 철도기공식을 거행하였고 광주와 여수 간 철도 개통이 이루어졌다. 남철개통 후에는 광주의 호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다.⁴¹⁾

1930년대 중반 무렵에는 수년 전부터 전등회사에서 전력을 공급해서 광주 전시에서는 선풍기를 사용하였고 90개의 가로등을 증설하였다고 한다. 가로등 설치와 더불어 광주공원의 벚꽃길은 호남의 명소로 탄생했다. “광주공원의 앵화(櫻花)는 … 전등회사의 분발로서 점등수(點燈數)도 대대적 증가하여 청색적광(靑色赤光)의 문채(文彩)로써 관람객의 몽환경(夢幻境)을” 연출한 것이다. 전등화 아래 벚꽃을 향한 청춘의 발길이 이어졌다.⁴²⁾

1929년 1월 18일자 『동아일보』에 실린 「지방잡신(地方雜信)」란에서는 화려한 근대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광주의 거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준다.

◇ 지난 10일 밤 광주시의 풍향리(豊鄕里)에서는 □□□이라는 여자가 석유 호등(石油胡燈)에 기름을 붓다가 잘못하여 화재요동(火災擾動)을 일으키는

38) 김정호, 『제4장 광주의 믿음』, 『광주산책(산)』, 광주문화재단, 2014, 211-212쪽.
39) 기타무라유이치로(北村友一郎) 편, 『광주지방사정(光州地方事情)』(1917, 문송이 번역), 광주관련 국역 고서 제2집 『일제강점기 광주문헌집(光州文獻集)』, 광주민속박물관, 2004, 62쪽.
40) 『흑암(黑闇)이 된 광주 전시가(全市街)』, 『매일신보』 1920.3.21.; 『광주 전기계획(光州電氣計劃)』, 『동아일보』 1921.7.17.
41) 『영송자동차(靈松自動車)』, 『동아일보』 1920.4.19.; 『남평자동차(南平自動車) 개업』, 『동아일보』 1920.5.11.; 『광순간(光順間) 교통편의』, 『동아일보』 1921.4.12.; 『광주 장성 간에 자동차 동행 개시』, 『동아일보』 1924.11.17.; 『여수광주간 철도기공식』, 『부산일보』 1929.2.26.; 『남철(南鐵) 개통시승』, 『부산일보』 1930.12.29.
42) 『광주전시의 선풍기(光州全市의 扇風機)』, 『부산일보』 1930.7.10.; 『광주가등증설 전시에 90등(光州街燈增設, 全市に九十燈)』, 『조선신문』 1931.3.26.; 『광주의 앵화, 23일에 만개』, 『조선신문』 1930.3.31.; 『? 청춘? 청춘? 4월 2일부터 광주공원 전신(光州公園 電飾) 남국(南國)의 꽃 소식』, 『매일신보』 1930.4.3.; 『만개앵화(滿開櫻花)와 정연(爭妍)할 광주공원의 전등화(電燈花)』, 『매일신보』 1935.4.

동시에 중상(重傷)하였다는데 그는 애자(愛子) 교육을 위하여 모일인(某日人)의 집 고용(雇傭)살이하는 여자라고.
◇ 요새같이 도로가 험악한 데다가 자동차가 질주하니 타고가는 사람은 좋을 터이나 일반에게는 일대고통(一大苦痛).
◇ 사회의公安(公安)을 위하여 질주하려는 자동차는 반드시 흠발침을 달게 하는 것이 어떨는지.
◇ 이만삼천의 시민이 거주하는 광주에서 일년간 도서관출입자가 불과 9000여인(九千餘人)이라니 당지방(當地方)의 독서열이 너무나 냉각(冷却)함을 가지(可知).
(『지방잡신』, 『동아일보』 1929.1.18.)

1935년, 광주읍에서 광주부로 승격하면서 신광주역에서 남정, 본정, 수기옥정을 거쳐 광주대교를 지나 공원앞까지 주요 도로를 “아스팔드”로 포장하는 도시 미화사업을 실시했다. 이어서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버스[버스]”가 운행되었다.⁴³⁾

무엇보다 비행기는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교통수단이었다. 1918년 이후에는 기관장들의 출장 업무, 전투기 비행, 우편물 운반용으로 비행기를 운행되었다. 당시 “광주비행대회는 … 초현면대시장 옆에서 거행 … 관중 수만에 달하여 성황을 성한바” 광주전남도민의 관심을 모았다.⁴⁴⁾

1937년 11월 중순에는 광주비행장을 신설하고 경성과 광주 간의 정기항로를 개설했다. 광주와 경성 간을 오가는 정기항공 편이 운행을 시작하자 비행기를 구경하러 광주로 건너온 사람들도 있었다.⁴⁵⁾

43) 『부승격(府昇格)을 앞두고 광주 시가지 미화: 시내 중요도로를 아스팔드로』, 『조선중앙일보』 1935.8.25.; 『6만 부민의 발걸음을 빠르게 하여주는 광주 부영버스가 탄생된다.』, 『부영(府營)버스 불원출현(不遠出現)』, 『동아일보』 1940.3.14.
44) 『비행대회(飛行大會)』, 『매일신보』 1918.11.28.; 『성황의 비행회』, 『매일신보』 1918.12.6.; 『광주비행대회상보(詳報)』, 『매일신보』 1918.12.12.; 『경성광주간 시험비행』, 『매일신보』 1929.8.31.; 『광주와송정리에서 비행연대 대환영』, 『부산일보』 1929.3.6.; 『전라남도, 평양비행 제주연대의 전투기 3대, 광주 상공에서 고등비행(全羅南道, 平壤飛六の戰戰機三台, 州上空で高等飛行)』, 『조선신문』 1933.11.10.
45) 『광주비행장설치 각방면에서 기대(光州飛行場設置, 各方面から期待する)』, 『조선시보』 1937.10.13.; 『신설광주비행장 기공식 성대거행(新設光州飛行場 起工式盛大舉行)』, 『매일신보』 1937.11.25.; 『광주비행장 25일 개장식 범주비행구락부발회식도(軌走飛行俱樂部發會式也)』, 『매일신보』 1939.11.21.



좌) 『일본포드자동차주식회사』, 『동아일보』 1926.9.29. 우) 김기진(金基鎭), 『창공의 특급열차 경성 광주간(정기항로) 처녀비행동승기』, 『매일신보』 1938.5.15.



창공의 특급열차 경성 광주간(정기항로) 처녀비행동승기(蒼空의 特急列車 京城 光州間(定期空路)處女飛行同乘記

5월의 푸른하늘을 날으는 날씬 제비같이 경성-광주 사이를 왕복하는 정기항공로(定期航空路)가 개설되어 오늘(14일) 그 첫비행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 구름속의 급행열차의 운전수는 조선항공계의 기린아(麒麟兒) 1등비행사 ...

(김기진(金基鎭), 『매일신보』 1938.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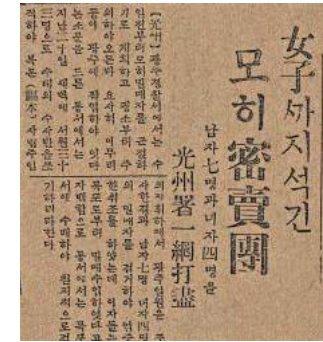
거룩한 모성애! 자녀생명 구(救)코저 '추력[트럭]'에 어머니 절명(絶命) 광주 경성 간의 정기항공의 처녀비행을 구경하려고 담양군 고서면 ... 처자를 데리고 ... 광주를 도착하여 오던 중 ... 화물자동차를 만나자마자 어린이가 놀라서 갑자기 길을 가로건너게 되었으므로 이것을 본 그 어머니 ... 위급한 아들을 구하려고 화물차앞으로 달려들었던 바 ... 자동차에 걸려서 내장이 터져나와 현장에서 무참하게도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8.5.19.)

광주와 경성 간, “걸어서 구백리(九百里)의 먼길 날라서 네 시간(四時間)에 왕복”하는 비행기는 “구름속의 급행열차”였다. 김기진은 광주시민과 전남관민들에게 이 “역사적 기적”을 알리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창공의 특급”에 몸을 실었다고 했다. 다음은 1938년 봄날, 비행기를 구경하러 담양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광주로 건너오던 길에 겪은 사고 소식이다. “화물자동차”를 보고 놀란 아이, 자동차 앞으로 뛰어드는 아이를 구하려다 “추력[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은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의 내막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거룩한 모성애’를 강조하고 있는 듯하지만, 그 사건의 발단은 ‘비행기’에 있었다.

허영녀?
모루히네 중독은

1920-30년대 광주 지역 뉴스 중에서 “모루히네(모히, 모르핀)” 중독과 아편 밀매단에 관한 기사는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 광주는 모루히네 중독자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1921년 6월 30일에는 동아일보 광주지국의 주최로 ‘모루히네 방독강연회’를 열었다.⁴⁶⁾



『여자까지 석인 모히 밀매단 남자 7명과 여자 4명을 광주서(光州署) 일망타진』 『매일신보』 1931.2.23.



광고 「모루히네 해독약의 세계적 발견! 명약 안티모린(안티모친)」 『동아일보』 1931.11.15.

모루히네 중독에 관한 기사 중에서 ‘여성’과 관련된 표현이 눈길을 끈다. 1926년 5월 “30세 가량의 조선인 여자 한명이 죽어 넘어진 것을 순행하던 경관이 발견”하여 “검시한 결과 타살이 아니요 모루히네 중독자로 배가 주리어 죽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허영녀(虛榮女)의 아사(餓死)

꽃다운 시절에 허영에 날뛰어 빈화로운 서울로 올라와서 이래 타락생활을 계속하든 끝애야 아편침까지 맞게 되어 그와 같은 최후를 마친 것이라더라.

(『동아일보』 1926.5.22.)

여자까지 석인 모히 밀매단 남자 7명과 여자 4명을
광주서(光州署) 일망타진
(『매일신보』 1931.2.23.)

이처럼 여자들은 모루히네 중독자 검거 사건을 보도하는 곳에서도 특별하게 언급되었다. “광주아편밀수판매당 일당 100여명은” “양가(良家) 부녀자까지 얹혀 여자들도 다수 참가하여 멀리 만주, 인천 등지로부터 중국 인과도 연락을 두어다 다량의 마약을 밀수판매해야 거대한 이익을 꾀해야 주

46) 「모루히네」 방독회(防毒會), 『동아일보』 1921.6.30.

야로 주지육림(酒池肉林)에 도취된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또한 일본 대판(大阪)에서 아편밀매 사건에선 석유 궤 안에 “아편여섯몽치”가 발견된 것처럼 그만큼 활동 범위가 넓었다. 그중에 여자가 끼어있다는 사실, 즉 “무려 158명으로 그중에 17명은 여자라 한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을 주었다.⁴⁷⁾

당국에서는 모루히네 중독자를 퇴치하기 위해 중독자를 등록하게 하거나 치료소를 설치하였으나 중독자수는 감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루히네 중독자를 “소록도(小鹿島)에 나병환자를 수용하는 것과 같이” 중독자들을 섬에 수용하자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모히 밀매자는 극형(極刑) 중독자는 섬에 수용

그 중독자는 연연세세 증가하는 현상이니 그것을 참으로 퇴치하려고 하면

밀매자를 극형에 처하는 소록도(小鹿島)에 나병환자를 수용하는 것과 같이

어떤 섬을 지정하여 전부 그곳에 수용하도록 하였으면 어떻겠느냐고 질문

하였음에 대하여 유생(柳生) 경찰부장은 중독자를 섬에 수용한다는 것은

재정이 허락지 아니하니 어려우나 좀더 철저히 단속하여 퇴치하도록 하려고

방금 연구중이라고 답변하였다.

(『동아일보』 1934.3.20.)

모루히네 중독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약으로 처방하기보다는 섬에 격리시키자는 제안은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서 유보되었다. 모루히네 중독자와 한센병 환자를 동일한 위치에 놓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발상 자체가 이채롭다. 다시 말해 모루히네 중독자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시선은 도시의 위생과 청결을 도모하고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센인을 소록도에 수용하자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당시 모루히네 중독자들만큼이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편중독과 한센병과 같은 전염병은 비슷한 크기의 공포감을 유발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1915년 광주 지역의 전염병 환자는 장티푸스 86명, 파라티푸스 11명, 이질 24명, 디프테리아 3명 등으로 총 124명이 발생해 103명이 치료되었고 21명이 사망했다. 1917년에는 발생 17명, 치료 13명, 사망 4명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도시의 위생 상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⁴⁸⁾ 괴질, 천연두, 나병, 이질, 염병(腸壅扶斯, 장질부사) 등 각종 유행병과 전염병이 끊이지 않았다.⁴⁹⁾

전염병의 유행을 우려하여 위생사상을 보급하기 위하여 “전염병에

47) 「모루히네 중독자 40여명 검거, 광주 시내서 일망타진」, 『동아일보』 1932.11.4.; 「호남마약밀수단 57명에 체형(體刑)」, 『동아일보』 1938.3.20.; 「광주부내 마약중독자 150여명을 타진」, 『매일신보』 1938.11.12.
48) 「전염병 환자 현황표」, 『광주지방 사정』 앞의 책, 80쪽.
49) 「광주에 성홍열(猩紅熱) 예방에 노력중」, 『동아일보』 1923.6.26.; 「광주에 염병(染病) 4명이 발생」, 『동아일보』 1931.8.7.; 「전남도 내의 나환자(癩患者) 1635명」, 『동아일보』 1935.8.20.; 「광주에 전염병 창궐-염병, 이질, 성홍열 등이 대만연」, 『동아일보』 1937.7.16.

관한 표본, 사진, 실물(實物) 기타 위생상 참고품을 진열하고” 견학을 독려하거나 위생 지식을 함양하는 활동사진을 상영하기도 했다. 유행병을 방지하고자 방역자위단(防疫自衛團)을 조직하고 구역별 방역 담당 요원을 배치하였다.⁵⁰⁾

50) 「광주 위생사상 고취」, 『동아일보』 1921.6.13.; 「방역자위단(防疫自衛團) 조직」, 『동아일보』 1921.5.28.

중독설이 퍼지고, 1935년 박가분 본포의 화재, 일본 고급화장품의 시장 잠식으로 결국 1940년대 초엽 생산을 중단했다.⁵⁴⁾

1930년대에 이르러서 쓰개치마와 장옷이 사라지고, 짧은 통치마를 입고 버선 대신 양말을 착용하였다. 일제 말기에는 검정 몸뻘 일색이었고 상의는 블라우스 등을 착용하였으며 국민복, 슬랙스 등이 이용되었다.⁵⁵⁾ 여학교를 다녔던 시절을 회고하는 글에서는 신발, 옷차림, 머리 모양 등을 자세히 들 수 있다.⁵⁶⁾ 철도역 자살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기사문에서는 젊은 여성의 옷차림을 선명하게 그려준다.

묘령여철도자살(妙齡女鐵道自殺)

남조선철도주식회사의 제19호 열차가 전남광주역에 도착하려 할 즈음에 나이 30가량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뛰어 들어가 자살하였다. 아직 신분이며 주소 성명은 물론이요 원인도 알 수 없어 경찰당국에서는 각방면으로 조사중이라고 하며 그 여자는 백색법단치마 저고리를 입었고 청색 고무신을 신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4.2.8.)

철도역에 뛰어들어 서른살 가량의 여성에 대한 신원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 여자는 법단(法緞) 치마와 저고리 차림에 청색 고무신을 신었다고 한다.

1933년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와 성전무선상회가 공동주최하고 동아일보 광주지국이 후원한 「의류세탁과 정리법강습회」가 10일에 걸쳐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렸다. 이 강습회는 “조선인의 옷감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모직물 기타 양속을 많이 사용하게되는 관계로” 의류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르쳤다.

의류세탁 급 정리법강습(衣類洗濯 及 整理法講習) 광주에서 개최

1. 습식세탁법
2. 건식세탁법
3. 염색견뢰도감별법, 각종직물섬유감별법, 각종염색포유색의 색류법, 각종 푸레스법
4. 각종의류정리법
5. 오점발거법
6. 각종약품사용법
7. 염색법 기타 각종.

의류 세탁법, 정리법, 염색 등에 대한 관심과 함께 화장품, 이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35년 제국관에서 “전조선의 이발업자대표 일

당시 일간지를 가득 채운 광고들은 국내 제품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된 화장품, 의약품, 총, 칼, 머릿기름, 석유, 거울, 문구류, 자동차 등 상품들이었다. 그런데 “근대적 일용잡화 품목들은 식민지인들에게도 신기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제국주의 국가들에서도 신기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잡화는 이제 매일 새롭게 갱신되어 신기한 것으로 드러나는 근대적 소비품목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⁵¹⁾ 식민지 조선의 일간지들에서는 경쟁하듯이 각국에서 수입한 화장품, 구두, 미용제품 광고들을 수록해 여성들의 눈길을 끌었다.



『박가분 제조 본 포(本舖)』, 『매일신보』 1925.6.23.



『박가분을 애용하시는 각위에게 조선물산장려를 축하합니다.』, 『동아일보』 1923.2.16.



『박가분을 애용하시는 각위에게 조선사람은 조선 것을 아모조록 만나십시오.』, 『동아일보』 1923.3.1.

1920년대 식민지 조선 여성들에게 인기있는 상품 중의 하나는 ‘박가분’이라는 화장품이었다. 일간지에는 연일 박가분 광고가 실렸다. 이 화장품 광고는 “부인화장계(婦人化粧界)의 패왕(霸王)”라는 문구와 함께 주로 신문의 하단을 장식했다.⁵²⁾ 그런데 박가분 광고 문구는 당시 독일, 일본에서 수입된 화장품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조선물산장려운동’의 분위기를 수용하여 광고의 메시지를 수정하기도 했다. 수입품보다는 조선의 물품을 ‘애용’하길 바란다는 요청을 담았다.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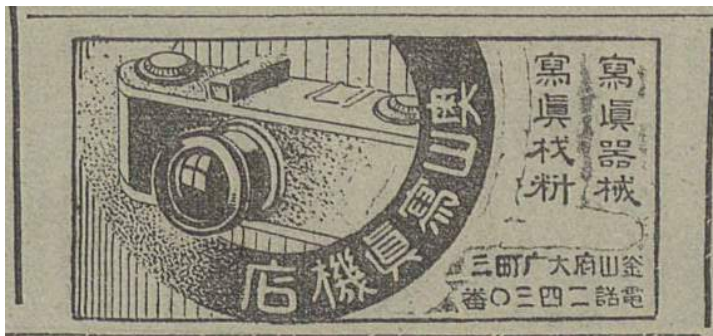
당시 판매되고 있던 분으로는 서가분(徐哥粉), 장가분(張哥粉), 미용백분, 서울분 등 여러 제품이 있었다. 그런데 1930년대 중반, 박가분의 납

51) 박해광·김기곤·박경동·박근원·송유미, 『지역문화와 문화정치』,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2, 182쪽
52) 『박가분(朴家粉)의 호평(好評)』, 주문답지로 잘 팔려, 『매일신보』 1922.2.16.; 『부인화장계(婦人化粧界)의 패왕(霸王)』, 『동아일보』 1922.9.7.
53) 『박가분 제조 본 포(本舖)』, 『매일신보』 1925.6.23.; 『박가분을 애용하시는 각위에게 조선물산장려를 축하합니다.』, 『동아일보』 1923.2.16.; 『박가분을 애용하시는 각위에게 조선사람은 조선 것을 아모조록 만나십시오.』, 『동아일보』 1923.3.1.

54) 박선홍, 『풍성한 삶의 현장. 큰 애기 가슴태우던 박가분』, 『광주 1백년』 1권, 215-217쪽
55) 『제2장 광주여성의 가족 및 가정 생활』, 『광주여성발전사』, 광주광역시 여성정책과, 2000, 55쪽
56) 『신은 나막신 외에도 갖신, 메추리, 지프리를 신었는데 갖신은 아프고 메추리는 돈있는 사람만 신었습니다. ... 머리는 땀이 뒤로 내려드리고 다녔는데 뒷머리라고 해서 옆에다 살짝 올리는 법이 나왔습니다.』(이성은 여사) 『쓰개치마를 옥색 물을 들어서 당목으로 해서 쓰고 다니고 부인들은 잠옷을 입고 다녔는데 큰 두루마기 같이 생기고 명주에다 초록색으로 들어서 입고 다녔습니다. ... 땀기를 드리고 귀엽 머리를 땀고 다녔으며 겨울에는 솜바지에다 솜저고리를 입고 다녔습니다.』(변계희(영은) 여사) 『수피야 100년 시간행위원회, 『수피야 백년사』, 2008, 207-209쪽) 『흰저고리 감정치마의 한복으로 다니다가 4학년 때에 흰블라우스에 잠바스카트는 정말 여학생 다웠습니다. 교복이 제정되어 머리를 자르게 되었는데 머리자르는 것은 그때의 우리로서는 죽는 것만 같아서 벌벌 떨면서 양복치마보다 머리를 더 길게하고 다닐 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 우스운 일이었습니다.』(양생강 여사). 『전남여자중고등학교, 『창립30년사』, 1957, 4쪽. 『전남여성 100년』, 2003, 44-45쪽.

백여명이” 모여 중대한 토의를 하기도 했다.⁵⁷⁾ 1947년 기록에는 광주 시내 이발관은 47곳이었고 비로소 여자들이 서양여자들 머리 흉내를 내면서 미장원이 생겼는데 겨우 12곳이 영업했다.⁵⁸⁾

1917년 당시 “광주에서의 일본인 상인은 250명이고 조선인 상인은 93명”이었다. 광주 도심에 위치한 유명한 상점들로는 잡화상점, 포목 면직물 마직물 상점, 약중상, 술·된장·간장·일용품상, 과자상, 어물점, 지물포, 재목상, 사진관, 시계상, 납품업(御用商), 양복상, 다다미(疊)상, 인쇄소, 계마(下駄, 나막신)상, 전당포, 자전거상 및 기계(器械)상, 미곡상, 양화상, 일본식·서양식 만물완구상, 채소류상, 표구점 및 칠기점, 고물상, 염색 세탁상, 면상(綿商) 등이 있었다.⁵⁹⁾



부산부 사진기점 광고 『조선시보』 1939.9.25

1930년 봄밤, 수기옥정 조선인 상점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을 보면 조선인 상점들이 다양하게 늘어서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전화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광주대화속보(光州大火續報) 전화 일시 불통

지난 8일 밤 광주 수기옥정 조선인 상점이 즐비한 중심지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 잡화상점(雜貨商店)/동양화점(東洋靴店)/고무화점(靴店)/문방구점(文房具店)/ ... 금번 화재로 인하여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에 전선(電線)이 전부 끊어져서 하룻밤 동안 광주 북부 일대에는 전화가 통하지 못하였으나 9일 아침 응급공사로 개통되었다 한다.

(『동아일보』 1930.3.11.)

57) 『전조선에서 모일 이발업자대회』, 『동아일보』 1935.6.2.
58) 김정호, 『제3장 광주경제』, 『광주산책』(하), 광주문화재단, 2015, 120쪽.
59) 『광주지방사정』 앞의 책, 63-89쪽.

이 화재 사건은 잡화상점(雜貨商店)/동양화점(東洋靴店)/고무화점(靴店)/문방구점(文房具店) 등 조선인 상점의 현황을 자세히 그려준다. 1920년대 말에는 양조회사(釀造會社) 공장 건축, 공설시장이 신설되어 “식량품(食糧品)과 일용잡화(日用雜貨)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특산품선전 판매” 박람회도 개최되었다.⁶⁰⁾



『동아일보』 1922.1.13.



『동아일보』 1922.10.18.



『동아일보』 1929.5.28.



『동아일보』 1922.9.7.



『동아일보』 1922.10.8.



『동아일보』 1922.10.9.

60) 『광주 양조회사(釀造會社) 공장을 건축중』, 『매일신보』 1928.5.28.; 『광주 부영시장입찰(光州府營市場入札)』, 『매일신보』 1936.7.5.; 『불완전 신설(不遑間 新設)될 광주시장』, 『중의일보』 1928.7.9.; 『조선박람회 포스터 전시회와 특산품선전 판매(光州で開いた朝鮮ボスター展, 觀覽者多數盛況を極む)』, 『조선신문』 1929.7.11.

다음의 논설에서는 1930년대 중반,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에 자리한 잡화점, 연쇄점, 백화점 등 대형 상점과 시장에서 판매되던 구체적으로 물품들을 헤아려볼 수 있다.

누구 손에서 경영되든지 간에 조선에서 연쇄점(連鎖店)을 하자면 포목같은 시세물(時勢物)은 간수(着手)할 수 없고, 또 의식주의 실제생활 중 가장 중요한 식량인 미곡도 취급할 수 없고, 겨우 할 수 있어야 잡화(雜貨)뿐이라라, 잡화 중에도 넥타이, 와이사쓰, 비누, 양말, 샷스 등 문화인의 일용품일 터인데 지금 조선 각지의 시장을 돌아다 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물품은 양젓물과 석양갑 등이다, 넥타이, 와이사쓰 등은 도회지에서밖에 장사가 안된다. 도회지란 원산, 대구, 부산, 광주, 신의주, 함흥, 인천 등 십여처나 될까, 그 나머지 일천(一千)시장의 중요 상품은 오직 녹그릇, 질그릇, 양젓물, 춘향전 석양갑 물감 등이라.

(최남(崔楠), 『백화점(百貨店)·연쇄점(連鎖店)에 대한책(對抗策)-소매상인(小賣商人)이여 전문상(專門商)되라-』, 『삼천리』제6권 제9호, 1934.9.1, 150쪽.)

위에서 보는 것처럼 “연쇄점”에서 판매한 물품들은 “문화인의 일용품”이라 할 수 있는 “잡화”들이었다. 주로 광주를 포함한 도회지 10여 곳에서 판매되었다. 그밖에 물건들은 1000여개의 시장에서 판매했다. 이외에도 양조장과 백화점이 운영되었다.⁶¹⁾

총장로 최초의 한국여자 상인으로 총장파출소 건너편에서 도자기와 고무신을 판매한 김세라(金世羅)의 금세상회(金世商會)를 들 수 있는데, 이 점포는 일본인 스가하라(菅原太一) 양화점과 맞선 광주의 대표적인 구둣방이었다고 한다. 또 다른 유명한 여자 상인이 운영하는 상점으로는 총장로 4가에 있던 추양임(秋良任) 상점을 들 수 있다. 원래 지정남이 광주에서 한국인 최초로 잡화점을 차렸던 자리에 위치한 이 상점에서는 식료품, 주류, 일용잡화를 취급했다. 또한 대형 잡화점으로는 1930년대 초, 총장로3가의 옛 호남은행 바로 옆자리에 문을 연 동아부인상회(東亞婦人商會) 광주지점이 있었는데 광주 시내와 인근 사람들의 단골 백화점으로서 ‘동아부인’이니 ‘부인상회’이라고 불렸다. 이 시기 일본인이 경영한 미나카이(三井) 백화점은 1924년 목포점, 1929년 군산점, 1932년 광주점을 냈다.⁶²⁾

극장의 시대가 열리다
바야흐로

1920-30년대 사이 광주 지역에는 광주좌, 광남관, 제국관, 광주극장 등 다수의 극장이 설립, 운영되고 있었다. 각 극장에서는 활동사진 상영회, 영화대회, 사진대회, 음악회, 전람회 등을 열어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따라서 기존의 극장이 작고 불편해서 광주에 “대극장” 건설 계획이 논의되었다.⁶³⁾ 극장들을 중심으로 예술 문화적 경험과 지역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각 극장의 설립과 역사에 대해서는 광주의 역사문화를 다룬 여러 책들에서 상세하게 논의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들을 중심으로 극장 무대 위에 올린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소개하려 한다. 그런 가운데 각 극장이 지닌 성격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한다.



좌) 광주음악대회 광경 사진, 『시대일보』, 1925.6.24.
우) 「전조선순회활동사진회」, 『매일신보』, 1922.4.24.

광주좌(光州座)

광주좌에서 192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졌다. 형설회 순극단(螢雪會巡劇團)의 무대를 비롯해 전남광주기독교청년회 주최로 양림야소교유치원(楊林耶蘇教幼稚園)과 서북여자학교(瑞北女子學校)가 참여한 무도음악가극대회(舞蹈音樂歌劇大會)에서는 “소년소녀들의 합창, 무도(舞蹈), 유희 등”을 선보였다.⁶⁴⁾

1929년 3월 29일자 『조선신문』에는 양일간에 광주지사의 신문독자 우대 무료공개 영화회 광고가 실렸다. 이 영화회에서는 대검극기결(大劍戟奇傑) 「운정용웅(雲井龍雄)」, 현대화류애화(現代花柳哀話) 「애염초(愛染草)」, 소품현대극(小品現代劇) 「형제(兄弟)」, 대희활극(大喜活劇) 등을 무료로 상영했다. 이어서 1929년 10월 19일에는 영화신영회(映畫新映會)의 후

63) 「광주에 대극장(光州に大劇場)」, 『조선신문』, 1925.5.18.
64) 「광주에 형설극(螢雪劇) 성황」, 『동아일보』, 1923.7.19.; 「광주 소년소녀 음악가극대회(音樂歌劇大會)」, 『매일신보』, 1925.6.23.

61) 「백화점과 양조장을 경영 지방의 번영에 노력(百貨店と釀造業を經營地方の繁榮に努力) 광주상공회장 금융조합장 염곡여장씨(光州 商工會長 同金融組合長 鹽谷與藏氏)」, 『조선신문』, 1934.12.18.
62) 광주 잡화점과 백화점에 대해서는 박선홍, 『광주1백년』 1권, 광주문화재단, 심미안, 1994: 2012, 236-239쪽 참조 인용.

원을 받은 독자위안회에서는 “다그라스”씨의 주연으로 「로빙훗도」와 「바스 타키튼」씨의 주연인 「키논장군」이라는 제목의 두 편의 영화를 상영했다. 이 작품들은 “일찍이 조선영화계(朝鮮映畫界)에서 가장 많은 호평을 전하여온 것이므로 영화에 다소 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 듣고 보기를 원하지 않을리가 없다”고 언급할 만큼 당시 매우 인기가 있는 영화들이었다.⁶⁵⁾

광주기독교청년회와 동아일보 광주지국 후원으로 평양 송전학생 순회 음악연주회를 개최, 광주기독교청년회 주최로 음악가극 무용을 개최 했는데, 유치원생의 「나의 몸」이란 유희창가로 막을 열어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⁶⁶⁾



광주좌 무대면(좌) 광주좌의 인파(우) 『기념사진화보』 『동아일보』 1927.5.3.



『본사광주지사의 독자우대영화회』 『조선신문』 1929.3.29.

안타깝게도 1931년 11월, “황금정(黃金町) 활동사진 상설관 광주좌”는 화재로 소실되었다. 발화의 원인은 “극장 주인 등천(藤川)의 집에 커 놓았던 촛불이 ‘필름’에 넘어져 연소된 것이라 한다.” 광주좌가 전소된 것은 일상의 필수품이었던 ‘촛불’과 새로운 문명의 표지이기도 한 ‘필름’이 만나서 생긴 불행한 사건이었다.⁶⁷⁾

65) 『본사광주지사의 독자우대영화회(本社光州支社の讀者優待映畫會)』 『조선신문』 1929.3.29.; 『본보 광주자유대 영화신영회(映畫新映會)에서』 『중외일보』 1929.10.19.
66) 『송전음악회(崇傳音樂會) 광주서성향』 『동아일보』 1931.2.13.; 『광주음악가극(光州音樂歌劇)』 『동아일보』 1931.4.30.
67) 『광주대회(光州大火) 광주좌 전소』 『동아일보』 1931.11.10.; 『광주좌 전소(光州座 全燒-損害五萬圓の見込)』 『조선신문』 1931.11.10.; 『손해수안원(損害數萬圓)의 광주를 대화(光州邑 大火)』 『매일신보』 1931.11.10.

광남관(光南館)

광남관은 활동사진 상설관으로 특히 유명했다. “광주에 유일한 활동사진 상설관인 광남관은 일본인 본위(本位)로 경영하는 관계상 조선인 시민에게는 일야(一夜)의 위안도 주지 못하게 됨을 유감이었던바 … 망년 시민위안 영화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런 한편 “조선인 경영의 활동사진 상설관을 설치할 목적으로 … 삼우회(三友會)를 조직”하여 1928년 4월에 제3회 특선사진대회(特選寫眞大會)를 개최하였다. “광주지사 주최 일만호(一萬號) 기념영화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929년 4월 2일자 『조선신문』에는 극장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찍은 사진이 게재되었다.⁶⁸⁾

광주학생 사건 이후 “비분과 원한에 시달려 온 시민대중의 우울한 가슴을 만일이라도 위로코저 반도(半島) 「키네마」 구락부(俱樂部) 의 광주 각 저명상점(著名商店)의 후원으로” 광주시민 위안영화대회(慰安映畫大會)를 개최하기도 했다.⁶⁹⁾



『본사 광주지사 영화대회의 성황(本社 光州支社 映畫大會の盛況)』 『조선신문』 1929.4.2.

제국관(帝國館)

제국관에서는 활동사진대회, 독주회, 영화회 등이 자주 열렸다. 영화삼우회(映畫三友會)가 주최하는 활동사진대회에서는 “대성황리에 「아리랑후편」을 영사하던 중” 이웃집에서 화재가 일어나 “700여명의 군중이 일시 큰 폭동을 일으키어 다수의 중경상자(重輕傷者)를 내인 사실이 있었”다고 보도한 것처럼 “관람석의 상하층은 물론이요 장외에까지도 입추의 여지가 없이 대만원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삼우회(三友會) 주최와 본사 광주지국 후원으로 독자우대 영화회를 개최하였는데, “파라마운트 회사 발성 영화 「자장가」 10권과 「삼림의 남아」 8권을 상영하였다.” 입장하는 사람에

68) 『망년영화대회(忘年映畫大會)』 『동아일보』 1927.12.15.; 『광주영화회 개최』 『매일신보』 1928.4.3.; 『광주지사의 영화대회, 성황(光州支社の映畫大會, 盛況を極む)』 『조선신문』 1929.4.1.
69) 『광주시민위안영화』 『중외일보』 1930.4.2.

계는 “1등은 백미일포(白米一俵) 2등은 내의, 3등은 양말, 4등은 세수비누가 제공되었다.”⁷⁰⁾

제국관에서는 동아일보사 광주지국이 주최한 “최(崔)리차드 군(君) 뽀조 독주회(獨奏會)”가 있었고, 민심작흥강조(民心作興強調) 영화회와 좌담회, “금강(金剛) 키네마사의 초특작품인 「청춘(靑春)의 십자로(十字路)」라는 조선영화와 기타 수편”을 비롯해 다수의 공연들이 있었다.⁷¹⁾

하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쟁영화가 주를 이루었다. 광주재향군인분회에서는 기본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주사변영화회(滿洲事變映畫會)를 개최하였고, “충렬폭탄 삼용사의 활동사진공개(忠烈爆彈 三勇士의活動寫眞公開)” 지나사변(支那事變)를 다룬 “뉴스영화”, 전남도청기자실문화부에서 주최한 “문화영화 대일향촌(大日向村)” 등을 상영했다.⁷²⁾

광주극장(光州劇場)

광주극장은 1935년 10월 1일에 광주부로 승격함으로써 “광주시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개관하였다.

남조선 초유(南朝鮮 初有)의 대극장 건축 광주읍내에서

남조선 유일의 대극장이 광주에 새로 건축된다는 바 5만시민이 살고 있는 광주읍내에는 재작년에 광주좌(光州座)가 불타버린 이후 제국관(帝國館)에 서만 흥행하게 되었으므로 일반 흥행단의 계나 시민 등에게 불리와 불편이 막대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광주에 유지부호 최선진(崔善鎭)씨는 느낀 바 있어서 본정(本町) 오(五)정목에 극장을 신축하려고 당국에 허가원을 제출하였던 바 총공사비는 6만여원이라고 하며 수용인원은 1200여명으로서 남조선지방에서는 처음보는 대규모의 극장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1935.2.26.)

광주극장 낙성(落成) 10월 1일에 개관

조선 제일이라고 하는 광주극장(光州劇場) …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2층에 건평이 4백평이며 공사비는 7만 5천원으로서 조선 제일의 대극장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데 입장 정원은 1200명이라고한다.

(『동아일보』 1935.10.1.)

70) 「화재났다 소리듣고 영화관람 소동-전남광주 제국관에서 자상전담(自相踐踏), 중상자다수」 『중의일보』 1930.3.30.; 「광주독자우대 발생영화대회(發聲映畫大會)」 『동아일보』 1934.12.9.

71) 「최(崔)리차드 군(君) 뽀조 독주회(獨奏會)」 『동아일보』 1933.7.14.; 「민심작흥강조(民心作興強調) 영화회와 좌담회」 『부산일보』 1934.10.30.; 「본보창간 15주년기념 각 지역의 봉사적 대활동」 『동아일보』 1935.3.31.

72) 「광주재향군인분회: 기본금 조성위해 만주사변영화회(滿洲事變映畫會)」 『부산일보』 1932.2.6.; 「삼용사영화회(三勇士映畫會)」 『부산일보』 1932.3.26.; 「사변(事變)뉴스영화-각지에서 공개(광주)」 『부산일보』 1938.4.19.; 「문화영화 대일향촌(大日向村) 제국관에서 상영」 『부산일보』 1940.12.21.

광주극장에서는 악극, 판소리를 극화한 창극 공연과 조선 영화를 주로 상영하였고 노래, 무용, 쇼, 그리고 코미디를 합친 악극이 인기를 누렸다. 광주극장은 이 공연들을 상영하기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인기를 얻었던 대표적인 영화 중에서는 「무정」(박기채 감독, 1939), 「수업료」(최인규 감독, 1940)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영화들은 음향 효과를 살려 유성영화를 자리를 잡게 한 작품들로 평가받는다.⁷³⁾

발성영화가 등장함에 따라 무성영화가 퇴진함에 따라 실직, 곤궁한 생활을 연명하다, 변사가 실직당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과학문명을 저주하는 청년”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기사 설명이 붙여 있다.⁷⁴⁾

흥행계에 반영된 광주의 호경기(好景氣)

소화 11년 광주부내 흥행계의 총감정(總勘定)을 보면 개장회수가 796회로 관람자가 25만7천7백58명인데 입장료는 5만9천백4원으로 소화10년에 비하여 일약 1만여원이 증가되었으니 과연 신흥도시(新興都市)로 약진을 거듭한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매일신보』 1937.2.2.)

6만부민의 관람료 이십팔만칠천이백이십일원 광주 각 극장 작년 통계 전남광주 6만 부민의 제국관 광주극장 황금좌 등의 오락기관을 통하여 소화 12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에 활동사진 기타흥행에 대하여 소비된 관람료는 …

(『매일신보』 1938.2.1.)

위의 자료에 따르면 1937-38년 사이에 광주전남 지역의 극장에서 벌어들인 관람료는 상당한 액수에 달했다. 관람객의 참여로 흥행한 기록을 보면 광주는 ‘신흥도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극장 무대에서 펼쳐진 공연들 외에도 길거리에 설치된 가설극장을 비롯해 곡마단 서커스 공연, 장터를 무대로 한 약장수의 공연까지를 포함한다면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시대에서도 일상은 풍성한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공간이 되었을 것이다.

73) 광주극장과 사람들, 장소성, 오락 장으로서 광주극장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위경혜, 『광주극장: since 1933』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52-105쪽 참조.
74) 「발성영화등장(發聲映畫登場)따라 변사실직(變士失職) 끝에 자살」 『동아일보』 1938.6.15.

「아코디언」
“개화기 이후 서양음악이 들어오면서 함께 보급되어 공연장 등에서 널리 애용되었다. 장터를 무대로 한 약장수의 공연에서 빠지지 않는 악기 가운데 하나였다.”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회 『광주장날』, 2017.)



동우회(同友會) 순회강연단 일행은 계림을 배경으로 한 “가설극장”에서 “홍영후(洪永厚)씨의 사현금(四鉉琴) 독주 윤심덕(尹心惠)양의 독창 「장미화」, 그리고 “조선사회 현상을 배경으로 한 참담한 비극”인 「김영일의 사(金英一의 死)」를 공연했다. 이 공연에는 “600여명 관중”이 모였다고 한다. 또한 “곡마단원이 수천명 관중앞에서 연기하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희귀한 사실”도 일어났다.⁷⁵⁾

광주의 극장들에서 열린 음악회, 연주회, 영화회 등에서는 여러 기관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다채로운 예술작품을 선보였다. 예술 장르들이 혼합된 공연과 동서양을 아우르는 무대를 기획해 상연했다. 1921년 4월 20~21일 이틀간에 걸쳐, 양림리 오원기념각 내에서는 전남광주 양림기독교청년전도회 운동부 주최로 동서양음악연주회를 개최했다. 이 연주회에는 미국 선교사 도대선(都大善)씨 외 조선인 음악가, 유치원생이 참여하며 조선구음악(朝鮮舊音樂)을 함께 연주했다.⁷⁶⁾

여광여취(如狂如醉)한 청중 수무족도(手舞足蹈)를 불금(不禁)
 여명기에 있는 반도(半島) 신악계(新樂界)에 획기적 사명을 자부하고 산출한 「코리안 쟈즈밴드」와 본사 주최 본보 독자 위안 납량음악단(納涼音樂團) 일행은 … 기절묘절(氣絶妙絶)한 각종 양악(洋樂)은 수백여명의 청중으로 하여금 일시에 고해생활(苦海生活)을 초탈하여 별세계(別世界)에 소요하는 감(感)이 있는 듯이 장내(場內)에 박수와 환호소리가 그칠 새 없었으며 더욱 조선악으로 「아리랑」과 「양산도」며 이병삼(李丙三)씨의 「탄스」 등은 또한 만장으로 하여금 재박수부도를 금지 못하게 하고 …
 (『중외일보』 1928.8.25.)

3만시민위안의 「음악과 연극의 밤」을 준비중, 광주좌에서 개최 예정
 ◇ 상연될 예제(藝題)=인정비극(人情悲劇), 오-玉順아全-幕 가정극(家庭劇)
 =버레들의 싸움 全-幕 희극(喜劇)=一九四〇年?全-幕 무신극(無信劇)
 =물레방아는쉬었다全-幕
 ◇ 음악부=조선음악, 일본음악, 중국음악, 서양음악, 기타 독창, 무도(舞蹈)
 등등
 (『3만시민 위안의 음악과 연극의 밤』, 『동아일보』 1931.3.3.)

“조선악”과 “양악”이 어우러진 음악 향연이었다. “반도(半島) 신악

75) 「계림(鷄林)을 배경으로-동우 연극의 성황」, 『동아일보』, 1921.7.22.; 관야(管野)사가스단 흥행 중에 참사」, 『동아일보』, 1939.11.22.
 76) 「동서양음악연주회」, 『동아일보』, 1921.4.15.

77) 「음악과 극의 밤 인기가 집중」, 『동아일보』, 1933.3.8.; 「신진음악대(新進 聲樂隊) 오양(吳嬭) 독창회 내육일(來六日) 광주서」, 『동아일보』, 1935.6.30.
 78) 「콜럼비아 가수 음악연주회-광주 독자우대」, 『동아일보』, 1933.10.28.; 「김석구독창회(金錫九獨唱會) 성황」, 『동아일보』, 1938.11.8.

계(新樂界)에 획기적 사명을 자부하고 산출한 「코리안 쟈즈밴드」 “각종 양악(洋樂)” “당시 새로운 음악조선악으로 「아리랑」과 「양산도」, 「탄스」 등 쟈즈” 등이 인기를 끌었다. 또한 인정비극, 가정극, 희극, 무신극 등과 같은 연극을 비롯하여 조선음악, 일본음악, 중국음악, 서양음악, 기타 독창, 무도 등이 시민을 위안하는 음악과 연극 무대에 초대되었다.

한편, 광주여자 기독교청년회와 동아일보 광주지국이 후원하는 음악과 연극의 밤은 “여성들이 무대극을 한다는 것은 당지에서 처음보는 사실인 만큼 각 방면의 인기가 많았다. 이 행사에서는 성악계의 명성 오경심(吳敬心)양이 출현했다. 오경심 양의 독창회는 양림정 송일학교 강당에서도 개최되었다.⁷⁷⁾

1930년대에 남해당악기점(南海堂樂器店), 중앙양행(中央洋行), 동아일보 광주지국의 공동주최로 제국관에서 개최된 음악연주회는 다채로운 예술 장르를 혼합한 공연으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예술가실연(藝術家實演)의 밤’ … 오케-레코트회사 전속만담가 신불출(申不出) 가수 임방울(林芳蔚) 이란영(李蘭影) 신일선(申一仙) 이외 신구가수 20여명이라는 바 행연 종목은 만담(漫談)소리 신구성악(新舊聲樂) 각종 쟈즈 무용 등이라는 벌써부터 일반시민은 큰 기대를 가지고 이날을 기다리는 중이므로 대성황을 예기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5.2.24.)

‘무용과 음악의 밤’ … 무용가 조택원(趙澤元)씨를 비롯하여 그 연구소생 진수방(陳壽芳)양과 황인호(黃仁好)양 등의 독특한 무용과 음악은 피아노 이흥렬(李興烈)씨 바이올린 임춘옥(林春沃)씨 첼로 김인수(金仁洙)씨 등 사계의 명사가 총출연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5.7.29.)

“콜럼비아 회사 전속가수 음악연주회”를 비롯해 “예술가실연의 밤”, “무용과 음악의 밤”을 개최하였는데 만담, 판소리, 재즈, 무용,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등이 어우러진 공연이었다. 서양 예술이 유입되는 시기였으나 만담, 판소리와 같은 전통 예술의 장르도 혼재하고 있었다. 남해당악기점과 동아일보 광주지국 후원으로 “「춘향가」와 신작한 「금강산가」 등이며 남녀 명창의 성악예술”이 청중들의 관심을 모았다.⁷⁸⁾

1936년 12월 8일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서울 명월관(明月館)에서 「인기가수 좌담회(人氣歌手 座談會)」가 열렸다. 이 좌담회에서는 장안 6대 회사의 가수들과 문예부 간부 전부가 한자리에 모여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기가수좌담회

박영호(朴英鎬) : 내가 총독부 당국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조선에서

일년동안에 팔려가는 레코드 장수는 약 150만장으로 그 중에 삼분에 일인 4~50만매가 조선소리판이라 합니다. 4~50만명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레코드는 실로 우리 사회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던지고 있는 줄 압니다. ...

김 (金) : 네. 알겠어요. 그런데 흥행성적(興行成績)은 어디가 나아오.

민효식(閔孝植) : 대개 일등지(一等地)지요.

김 (金) : 일등지라면?

왕 평(王平) : 서울, 평양, 대구.

박영호(朴英鎬) : 그렇지요. 그 다음 이등지라면 전주, 광주, 목포, 원산 등이지요.

김용환(金龍煥) : 그리고 그밖에는 조그만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이지요.

(『삼천리』 제8권 제1호, 1936.1.1, 135쪽.)

위의 좌담회에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1년 동안 레코드 판매량이 150만장이며 그 중에서 4~50만장은 조선소리판이었다고 한다. 음악을 듣고 음반을 사는 대중들의 숫자만을 보더라도 조선의 음악 소비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었다. 광주는 서울, 평양, 대구에 이어 “레코드” 판매 흥행성적에 있어서 “이등지”에 해당할 정도로 음악 공연은 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 예술 공연들은 강연회와 함께 진행되거나 빈민, 기근, 수해 등 재난 구제를 목적으로 한 점도 특징적이다. 1923년 4월 23일 『동아일보』 칼럼에는 장문의 글이 게재되었는데 그 일부를 읽어보면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볼 수 있다. “설령 무엇에 감염(感染)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석유(石油)에 점화(點火)된 것이며 홍수(洪水)의 창일(漲溢)한 것이다.”⁷⁹⁾ ‘조선물산장려운동’을 “감염” “점화” “창일” 등에 비유하고 있는 표현들이 흥미롭다. 이것은 괴질, 홍열, 천연두 등 전염병과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 석유로 인한 화재 사건들이 일상의 주요한 문제들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79) 윤영남, 「자멸(自滅)인가 도생(圖生)인가」 『동아일보』 1923.4.26.



「광주음악대회광경(光州音樂大會光景)」 『시대일보』 1925.6.24.

예술 공연은 위와 같은 문제들을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 1925년 8월, 흥학관(興學館) 광장에서 열린 수해구제음악 연주회는 “삼천여인(三千餘人)에 달하여 광주초유의 대성황”을 이루었다. 권번예기(券番藝妓)의 가무와 신진음악가(新進音樂家)의 음곡으로 청중을 감동시키고 “조선전토를 뒤덮으려던 미증유의 수해참상에 대한 ... 상세한 숫자보고”가 있었다.⁸⁰⁾

애국부인회, 조선인유학생동우회, 광주청년회, 광주기독교청년회, 조선노동공제회광주지회, 광주권번의 후원 아래 동정금과 구제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공연들이 계속 이어졌다. “각지의 환과고독(鰥寡孤獨) 불구(不具)의 빈민”, “동경재류고학생(東京在留苦學生)” “황해도수재” “삼남수해” “광주노동야학” 등 구제의 대상은 다양했다. 광주극장에서는 “광주지방 개인예기일동(個人藝妓一同)”이 출현한 수해구제연주회가 열리기도 했다.⁸¹⁾

1920년대까지는 여업집 부인이나 처녀들의 경우 극장 출입이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었으나 1927년에 여성노동야학의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물레방아는 쉬었다」라는 연극이 광주좌에서 공연된 이래로 여성들의 공연 관람이 서서히 증가하였다. 「물레방아는 쉬었다」(최경순 작, 최남주 연출)는 일제의 동양척식회사가 우리농민들에게 횡포를 부려 북만주로 이주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반일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화시킨 작품이다.⁸²⁾

80) 「삼천(三千)의 청중 광주수해구제음악」 『시대일보』 1925.8.12.

81) 「애국부인회(愛國婦人會)와 구제」 『동아일보』 1920.5.4.; 「동우극 개연(同友劇 開演)과 동정(同情)」 『동아일보』 1921.7.31.; 「수해동정금 속보(水害同情金 續報)」 『동아일보』 1922.9.23.; 「기근구제음악(飢饉救濟音樂)」 『동아일보』 1929.7.5.; 「광주명창대회(光州名唱大會)」 『동아일보』 1934.8.17.; 「금일음악단순연(今日音樂團巡演)」 『동아일보』 1927.05.19.; 사진 「三南水災救濟大會(삼남수재구제대회)」 『동아일보』 1934.8.21.; 「본보 광주지국 후원 수해구제연주회 23일밤 광주극장에서」 『동아일보』 1936.10.23.

82) 「제2장 광주여성의 가족 및 가정생활」 『광주여성발전사』 광주광역시 여성정책과, 2000, 60쪽; 전라남도, 「전남여성 100년」, 금호문화, 2003, 121쪽 참조

광주초유의 대성황
삼천여인에 달한

일제강점기 각종 행사에 몰려든 청중의 숫자는 그때 그 시절,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증언한다. 광주 여성들은 ‘청중’ 안에, 사고의 현장을 보고하는 ‘숫자’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녀들은 “일천여인(一千餘人)의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성한 남녀청강자(男女聽講者)” “남녀직공(男女職工) 팔백여명” “여공(女工) 일천오백명(一千五百名)” “여자청중수백명의 갈채” “삼천여인(三千餘人)에 달하여 광주초유의 대성황”을 이룬 그곳에 있었다.

광주지역에서는 신지식을 널리 알리는 교육, 강좌, 강연회가 많이 열렸다. “아동은 희망이오 가정은 국가의 기초로다.”라는 기치 아래 광주야 소교회(光州耶穌教會)와 동아일보사 광주지국에서는 광주에 유치원 설립을 위한 자선음악회(慈善音樂會)를 열었다. 광주기독교청년회 주최로 크리스마스 행사를 북문의 예배당(北門外禮拜堂)에서 개최했는데 성탄축하 기념 강연회에서는 광주 유치원생의 합창, 서북여자야학생(瑞北女子夜學生)의 합창, 연사의 웅변 등 합창과 웅변이 어우러졌다.⁸³⁾

광주청년회지육부(智育部)가 준비한 여자야학에는 김필례, 임자혜 여사 등이 교사로 참여하였고 입학지원자가 10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여자야학을 계기로 “당지 여자계(當地女子界)에는 신광명(新光明)을 득(得)하리라”는 기대감으로 충만했다. 광주청년회는 김필례 학장을 중심으로 여자야학을 열어 “400여인의 여자가 회집하여 조선문한문(朝鮮文漢文), 산술(算術), 가정학(家庭學)”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⁸⁴⁾

조선여자교육 순회 강연단 일행은 청년회, 부인회, 기독교청년회, 조선노동공제회광주지부 등 단체의 후원으로 흥학관 광장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강연회의 강연 주제로는 「가정(家庭)은 인생(人生)의 낙원(樂園)」 「시간(時間)은 생명(生命)」 「합창(合唱)갈길 망연하다」 등으로 “각 연사의 열정이 유한 바 수백명의 청중에게 불소(不少)한 감각을 흥하였”다고 한다. 또한 동경유학여자강연단 일행이 광주에서 각 단체의 후원으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연사열변은 일천여인(一千餘人)의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성한 남녀청강자(男女聽講者)에게 무한(無限)한 감각(感覺)을 흥(興)하고” 라고 보도했다.⁸⁵⁾

1922년 8월 13일 『매일신보』에 광주의 김선례(金仙孺)가 기고한 장문의 글 「광주여자강습생(光州女子講習生)에게 최고(催告)함」은 당시 광주 여성들에게 강연회, 강좌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광주여자강습생(光州女子講習生)에게 최고(催告)함
국가(國家)는 일가(一家)의 평화(平和)를 유지키 위하여 여자에게 무능력함을 선언함이 아닌가. … 신성(神聖)한 여자의 본능(本能)을 진(盡)하야 … 기로(岐路)에서 방황(彷徨)하던 누습(陋習)을 개변(改變)한 연후(然後)에 아동포형제자매(我同胞兄弟姊妹)로 더불어 공존공영(共存共榮)에 균점(均霽)하기를 중심(衷心)으로써 희망불기(希望不己)하노라(광주(光州) 김선례(金仙孺) 기(寄), 『매일신보』, 1922.8.13.)

광주지역 여성들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전달하려는 움직임들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강연회, 야학 등에서 여성들은 무엇을 배웠던 것일까. 1927년 7월, 광주교육보급회(光州教育普及會)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조선인 남녀를 교양키 위하여” 하기학교(夏期學校)와 자수강습회(刺繡講習會)를 무료로 개최했다. 흥학관에서 열린 자수강습회 학생 모집 공고문을 보면 “16세 이상의 부녀”를 대상으로 “불란서수(佛蘭西繡), 조선수(朝鮮繡), 편물(編物) 등”을 교과목으로 개설하였다.⁸⁶⁾

광주 여성들은 다양한 단체에서 주최한 강습회, 강연회를 통해서 새로운 문물을 접할 기회가 적지 않았다. 광주기독교청년회관에서 주관한 요리강습회에서는 “조선요리 일본요리 중국요리 서양요리 등의 강습”이 이루어졌다. 전남 장성군 오성단 청년회에서 경영하는 여자야학회에서는 조선문, 산술, 위생학, 가정학 등의 과목을 개설했다.⁸⁷⁾

수피아 여학교에서는 수신, 성서, 국어(일어), 선어(조선어), 수학, 역사, 지리, 이과, 영어, 도화, 음악, 가사, 재봉수예(자수), 체조 등을 개설하였다. 물론 요리강습회는 주로 소수의 부유층 부녀자들이거나 정규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었겠지만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주목할 만하다.⁸⁸⁾ 이 시기 강연회들은 새로운 문명과 문물에 대한 지적인 갈망이 표출된 것으로, 동서양의 광범위한 지식을 수용하려는 여성들의 열망이 전해진다.

83) 「광주군에 자선음악 연주회, 광주에 유치원을 건설코자」, 『매일신보』 1920.5.19.; 「광주자선음악회」, 『동아일보』 1921.5.15.; 「각 지방의 크리스마스」, 『동아일보』 1925.12.27.
84) 「여자야학개학식」, 『동아일보』 1920.8.31.; 「광주 여자야학(女子夜學) 속보」, 『동아일보』 1920.9.6.; 「김필례 여자강연」, 『동아일보』 1922.11.18.
85) 「여자회 광주강연(女子會 光州講演)」, 『매일신보』 1921.8.18.; 「여자광주강연회(女子光州講演會)」, 『매일신보』 1921.8.30.

86) 「학용품(學用品)도 무료제공(無料提供)」, 『동아일보』 1927.7.29.
87) 「광주 요리강습회 성황」, 『동아일보』 1934.11.14.; 「오성단여자야학회(淸城團女子夜學會)」, 『동아일보』 1921.6.30.
88) 수피아100년사간행위원회, 『수피아백년사』 2008, 270-171쪽.

안하리오
여성의 향상운동이라
부인운동회가 어찌

화장품 광고가 연일 신문에 실리고, 여성들을 위한 각종 의약품, 치료제들이 신문의 지면을 가득 채웠다. 그만큼 신체와 질병,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라디오 체조와 부인대운동회가 주목된다.

1927년 4월에는 광주좌에서 광주양예기조합(光州兩藝妓組合)이 출동하여 조선음악연주회를 개최, 1927년 5월에는, 예기조합과 구미양행(歐米洋行) 호남지점 후원으로 조선음악연주회와 라디오 청취회를 개최하였다.

본산신축낙성기념 삼십일(卅日) 전후하여 각지 일제히
조선전래(朝鮮傳來)의 유일한 예술(藝術), 가무(歌舞), 음곡(音曲) ...
당시에 현대문명의 최고권위라고 하는 라디오도 청취할 터이므로 ...
("동아일보" 1927.4.21.)

형형색색(形形色色)의 기념소식-음악, 연주, 라디오
자동차 삼대(三臺)에 신규악대(新舊樂隊)와 가기(佳妓) 등이 분승(分乘)하고
... 라디오로 경성, 일본, 중국 등지에서 방송하는 연예(演藝)를 청취하고
이어서 광주, 광산 양 예기조합(藝妓組合)에서 총출동하여 기묘한 음곡과
특독(特獨)한 가무를 연주할 때에 ...
("동아일보" 1927.5.3.)

위의 두 행사에서는 “라디오[라디오]”를 청취하는 기회를 가졌다. “조선전래”의 예술과 “현대문명의 최고권위라고 하는 라디오도 청취”하면서 아시아 국가에서 방송하는 연예 프로그램을 듣기도 하고 예술 공연을 관람했다.

이 시기에 광주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농산어촌에도 라디오 설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라디오는 체조 운동을 할 때에 사용되었다. 라디오 체조 시간을 “조기(早起)습관을 함양하기 위하여 오전일곱시부터로 변경하였는데”라고 한 것처럼 라디오는 신체 단련하고 일상의 습관을 개선하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제 근대 문명의 상징인 라디오는 각국의 방송을 즐기는 오락도구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스며들었던 것이다. 1940년 2월에는 광주방송국 설치와 함께 기술원을 각지로 파견하고 전남지역 라디오 청취자는 5천 5백명에 달했다.⁸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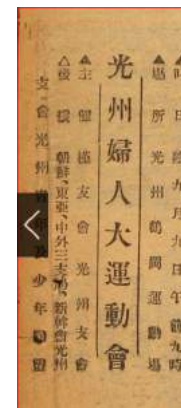
1929년 10월 15일, 근우회 광주지회의 주최로 학강운동장에서 열

89) 「광주의 라디오 최근 두드러지게 증가」, 『부산일보』 1933.6.13.; 「농산어촌(農山漁村) 위하여 라디오를 설치 전남도의 첫 시험」, 『동아일보』 1938.10.27.; 「광주에서도 라디오 체조, 청년단 주최로 21일부터」, 『부산일보』 1935.7.20.; 「광주 라디오 체조」, 『매일신보』 1938.11.2.; 「라디오 청취자가 전라남도에도 5천 5백명(ラヂオ聴取者 全南に五千五百名)」, 『부산일보』 1940.2.20.

린 부인대운동회는 “광주 유사이래로 처음있는 일인만큼”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 운동회는 “만여 군중이 회집하여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집안에 갇혀 있던 여성들이 용기있게 경기하는 모습을 이전에 보기 드문 광경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부인운동회

재래로 우리 조선 여성계에 운동과 노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 송정유치원 주최하에 열린 송정부인운동회는 ... 계급을 타파함과 동시에 농촌 급 도시 부녀를 총망라하여 날직한 송정보교운동장(松汀普校運動場)에서 회원 약 이백여명이 활발히 운동회를 열리라 하니 어찌 여성의 향상운동(向上運動)이라 안하리오 그 성황을 축한다.
("동아일보" 1932.10.15.)



광고 「광주부인대운동회」 『중의일보』 1929.10.9.



「라디오 청취자 전남에 5천5백명」 『부산일보』 1940.2.20.

1932년 10월 15일, 송정유치원이 주최한 송정부인운동회(松汀婦人運動會)는 이전 시기에 여성들이 명절에 놀이를 즐기거나 노름을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경험이었다. 특히 이 운동회는 계급을 타파하고 농촌의 부녀들이 참가해 “여성의 향상운동”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련되어 있었다. 운동회가 여성의 지위 향상과 관계된다는 것은 당시 외부 활동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던 여성의 위치를 다시 가능하게 해준다.

1938년 광주부내에 “처음으로 수영골(水泳場)이 신설되어 6만 시민은 물론 일반아동 등은 크게 기뻐하여 매일 대만원의 성황”이었다고 한다. 이 수영장은 지나사변(支那事變)으로 중지된 것을 증방(鍾紡)전남공장

에서 “1만여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수영풀을 임정(林町)에 신설”한 것이다.⁹⁰⁾

이처럼 일제말 침략전쟁이 노골화되는 시기에 광주지역에서 라디오 공연 감상, 라디오 체조, 부인대운동회 등이 열리고 수영장이 신설된 것은 여성들의 일상에서 그것이 단순한 여가활동이거나 오락적인 성격을 지닌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말해준다. 시민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는 일은 곧 전시 동원체제가 일상화되는 과정과 다르지 않았다.

화려한 전등화 아래
그늘진 곳에서

일제강점기 일상의 소품들은 근대적인 모양으로 장식되고 있었으나 다수의 여성들은 화려한 전등화 아래 그늘진 곳에 갇혀 있었다. 근대의 신문물에 대한 호기심과 지적인 욕구는 각종 강습회, 강연회에 대한 열풍 현상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근대의 신문물을 소비하고 향유하는 주체로 머물지 않고 일상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사례로 음악회, 공연, 영화회 등을 통해 수해 성금 모금 운동에 참여하였던 일을 들 수 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기록 속에 남아 있는 근대 광주 여성들의 흔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제말, 침략전쟁기로 접어들면서 광주지역에는 “지나사변이 장기항전기 위하여 … 시국좌담회를 개최하였는데 … 참가한 인원이 무려 48만 여명에 달하였으며 회수는 10334회에 달하였다 한다.”⁹¹⁾ 좌담회에 참여한 인원과 개최 횟수가 놀랍다. 1941년, 광주전남의 ‘애국미담(愛國美談)’으로 소개된 글을 보면, “전남 250만 도민들은 지나사변이 발생한 이래 총후의 국민으로써 … 12월말 현재 누계를 보면 84,436원으로 전남도민의 적성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⁹²⁾

1940년 초반, 문인 정인섭은 광주를 다녀간 후 광주라는 도시의 인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광주의 향취(香臭)-문인(文人)이 본 남북(南北) 16도시의 인상(印象)
광주(光州)는 펍도 그리웠습니다. 거기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기대가 컸습니다. 역사적인 전설적인 도시라기보다는 신흥적인 상업도시같이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폭신 안겨지는 듯한 안온한 맛은 없었습니다. 총력대회(總力大會)가 열리는 날을 전후해서 갔으니깐 그런지 거리거리가 펍도 뒤숭숭해 보였습니다. 무슨 소학교 강당이던가 각 지방의 대표적 인사가 열심으로 강연을 들어주어서 기뻐했습니다. 천여관(泉旅館)의 추억도 있거니와 광주(光州)의 인상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다만 상품(商品) 진열관(陣列官)의 감독하는 내지인(內地人) 여자 하나가 불쾌하게도 어찌나 인색한지 물건 사는 고신문지(古新聞紙) 한 장 때문에 싸운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인섭, 『삼천리』 제13권 제3호, 1941.3.1.)

이 짧은 수필에는 “신흥적인 상업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광주의 “거리거리”를 스케치한다. “총력대회가 열리는 날” “열심으로 강연을 들어주”는 사람들, “천여관의 추억도 있거니와” “상품 진열관의 감독하는 내지

91) 『전남 시국좌담(時局座談) 참가인원 50만명』 『동아일보』 1938.5.13.
92) 『적성의 분류 전남에 병기헌납 8만 여원(赤誠의 奔流 全南에 兵器獻納 8萬餘圓)』 『삼천리』 제13권 제4호, 1941.4.1.

90) 『광주 수영(水泳)풀을 신설』 『동아일보』 1938.8.17.

인 여자”와 “싸운 생각”들이 교차한다.



좌) 광고「광주양산공장(光州兩傘工場)」, 『공업신문』, 1946.11.21.
 우) 광고「연예(演藝)」「여인제전(女人祭典) 여자만의 도회(都會)」
 (佛) 토비스사 특작, 광주극장, 『동광신문』, 1947.3.12.

공장의 불빛, 여공들의 웅성거림, 연주회와 강연회에 모여든 청중들의 환호성, 자동차와 열차가 지나가는 소리들은 해방의 물결 속으로 섞여 들었다. 해방 후 양산공장이 들어서고 광주극장에서는 여성을 다룬 프랑스 영화가 개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공장의 여공들은 구타고문에 시달렸다.⁹³⁾

일제강점기 광주 여성들에게 일상이란 전쟁터와 다름없는 생존 투쟁의 장소였다. 다수의 여성들은 문자 해독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여전히 가부장제 하에서 근대의 새로운 문물을 일상에서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새롭게 들어선 공장, 회사, 잡화점 등은 여공, 여급과 같은 신종 직업여성들을 창출에 기여했다. 하지만 여성들은 근대화의 흐름에서 생겨난 다양한 사건 사고에 의해 희생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동경의 장소이면서 노동력 착취의 장소였던 공장의 두 얼굴과 같이 근대 광주 여성들은 신문물로 가득찬 일상과 문화 속에서 매혹과 저항, 이 두 갈래의 길 사이를 오갔던 것이다.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니 ‘사건’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여성들,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여성들, 아직 빛바랜 자료들 속에 묻혀 있을 여성들. 그녀들이 언젠가 광주 근대 여성사를 다시 쓰게 할 것이다.

93) 「여공을 구타고문(毆打拷問) 광주 중방(鐘紡)직원의 괴행(怪行): 죽인다고 협박 구타당한 여공담(女工談)」, 『제주신보』, 1947.3.28.

광주여성, 근대적 직업세계로 나간다

광주 경제구조와 여성의 일경험

이 장에서는 근대적 직업세계에 들어선 여성들의 삶의 변화를 살펴본다. 광주의 근대적 변화는 양기적이었고 이는 노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근대적 직업은 여성들이 사회적 공간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자본의 수탈과 착취의 경험에 직면하도록 했다. 특히 한국의 산업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들이 '여공'인데 그 역사는 일제 식민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광주지역에 전국 최대의 방직공장이 들어서면서 '방직 공장 여공'이 지역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떠올랐지만, 저임금과 임금체불, 규율적인 기숙사 생활 등 열악한 노동환경은 '번듯한 직업여성'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카페 여공과 애보개, 식모 등의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늘어났는데, 이는 여성에게 열린 직업 세계의 성역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성차별적 모순에 더해 식민지 민족 차별의 현실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일이 쉬울 리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낸 여성들이 있었고 차별에 저항한 여성들이 있었다. 여전히 광주지역 구석구석에 흔적이 남아있는 여공과 여성노동자의 삶을 좇아 가다보면, 지금의 모습과 닮아있기도 한 우리 여성의 역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조선 여성의 일경험은 일제에 의해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 일제는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 식민지의 자원 수탈과 노동력 착취,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조선을 근대화 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 여성은 과거 봉건체제 하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근대적 교육 및 직업을 가질 기회가 제공되어 근대적인 자아의식을 가진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⁹⁴⁾를 맞이하기도 하였지만 피식민지국의 조선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이중차별과 착취를 감내해야 하기도 했다.

일제에 의해 추진된 산업화, 도시화가 조선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업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식민지 전 기간 동안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조선인 비율은 80% 내외였고 조선 거주 일본인의 경우에는 20%도 되지 않았다. 반면 상업, 공무 및 자유업 등 비농업 분야의 일본인 종사자의 비중은 조선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산업화의 가장 특징적인 양상을 1차 산업 부문으로부터 2, 3차 산업 부문으로의 변화라고 본다면, 식민지 시대 산업화의 효과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에게만 나타나고 대다수의 조선인에게는 무관한 것이었다. 조선인은 1차 산업에 집중적으로 종사하였고, 비농업 부문에서도 조직화되지 않은 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었던 것이다.⁹⁵⁾

여성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인 여성과 일본인 여성을 비교해 보면 조선인 취업 여성의 90% 정도가 농수산업에 종사하였고 일본인 여성의 농수산업 종사비율은 20%대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일본인 여성은 상업과 교통업에서 40% 내외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⁹⁶⁾ 즉 조선인 취업 여성의 절대 다수는 1차 산업인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이다.⁹⁷⁾

식민지 시기 조선인 여성 취업자 수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17년 기준으로, 여성 취업자 수는 대략 330만명 정도인데, 1925년 이후 30~40만명 정도 증가했다가 1930년 380여만 명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계공황의 여파로 보이는 감소 현상은 1930년대 초에 두드러지다가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350~360만 명 정도로 1920년대 후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1940년 이후에는 여성 취업자 수가 점차 증가하여 1942년에는 식민지 시기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1917년을 기준으로 330여만 명이었던 조선인 여성 취업자는 식민지 말기에는 380만명 정도로 식민지 시기 내내 소폭 증가한 것이었다.⁹⁸⁾ 그나마 1940년대 조선인 여성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도 일제의 전쟁 수행을 위한 총동원 체제 속에서 일제가 여성노동력 동원에 주목했던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⁹⁹⁾

94) 윤정란, 「식민지 시대 제사공장 여공들의 근대적인 자아의식 성장과 노동경험의 변화과정 : 1920~1930년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담론 20』, 9(2)호
95) 이정옥, 「일제하 공업노동에서의 민족과 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48쪽
96)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351쪽
97) 김경일, 앞의 책, 339쪽
98) 김경일, 앞의 책, 341-344쪽
99)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의 식민지 노동력 및 자원의 동원은 전쟁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일제는 일본을 중심으로 조선뿐 아니라 대만, 남양군도 등과 같은 식민지를 포함한 일본제국이 통치하거나 점령하고 있는 전 지역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전 영역에 걸쳐 총동원체제를 구축해 갔다. 조선에서도 총동원체제라는 총합적인 조정 아래 인적, 물적, 정신적 동원을 실시하기에 이른다.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조선 여성도 예외가 아니었고 식민지 초기부터 전시체제가 이전까지 식민 체제에 순종적인 여성을 양성하는 데 주력했던 식민권력은 전시체제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여성의 역할에 주목하고 그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김미정, 「전시체제가 조선총독부의 여성노동력 동원정책과 실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2쪽.

1912~1942년 조선인 여성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단위: 명)

연도	농수산업	공업	상업교통업	공무자유업	기타영업자	합계
1917	3,074,662	42,067	1,353,778	16,042	60,598	3,328,747
1920	2,979,350	37,256	119,893	16,361	41,167	3,194,027
1925	3,417,606	42,076	148,760	26,723	85,199	3,720,364
1930	3,437,426	36,023	148,685	30,849	115,323	3,768,306
1935	3,217,114	30,816	137,358	25,518	127,368	3,538,174
1940	3,172,435	33,960	140,901	29,390	128,352	3,505,038
1942	3,395,228	54,721	143,002	42,977	173,563	3,809,491

* 출처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를 근거로 작성, 김경일, 앞의 책, 342쪽에서 재인용

일반적으로 근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의 기회를 증대시키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이 시기 조선에 일정 정도의 산업화와 근대화가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여성의 직업구조에는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절대적인 수에서는 약간 증대되었지만 남성 고용 비율 및 전체 여성 인구 대비 미미한 수준이었다.

여성의 취업률이 낮았던 가장 큰 이유는 조선인 경제의 침체와 부진에 있었다. 조선인 회사나 기업이 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힘들었으며 부모는 가난한 상황에서 딸에게 교육을 시키기보다는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기를 바랐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의 여성은 대부분 가내 농업의 노동력으로 활용되거나 어려서부터 미숙련 단순 노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가사업(식모, 파출부, 애보기 등)에 종사하여야 했다.¹⁰⁰⁾ 그 결과 일제시기 조선 여성은 출산과 육아기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였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이른바 M자형 곡선의 취업 형태가 아닌 지속적인 돈벌이 활동을 모색하여야 했다. 그만큼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서게 하는 경제적 압박이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이른바 신여성의 상황은 어땠을까? 여성 취업의 제약은 신여성도 마찬가지였는데, 1920년대 전반기의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진학 및 취업 모두에서 극히 제한된 상황에 놓여 있었다. 1920년대 전반기에는 중등학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교육받은 여성의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으나 19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중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의 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일자리는 부족하였으며 교사나 기자와 같은 고급 일자리는 국내에서 수학한 사람보다는

100) 1930년에 광공업과 하나나 가장부가 중종을 이루는 가사업에서 15세 미만 유년 노동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가사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15세 미만이었다. 1940년에는 광공업과 상업, 공무자유업에 종사하는 20세 미만 여성이 증가하는데, 이는 전시 동원체제에서 유년노동과 청년 노동이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김경일, 앞의 책, 353쪽.

일본 유학 경험이 있는 여성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¹⁰¹⁾

취업 기회의 제약성과 함께 여성의 일자리는 매우 불안정하였고 단기적이며 일시적이었다. 여성의 노동이 가계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고 결혼과 함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을 담당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여성이 직장생활을 통해 자아를 계발한 다거나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의식을 발휘하기 어렵게 만드는 직장문화 때문이었다. 일부 전문직종을 제외하고는 여성의 취업 조건이 자격이나 숙련 보다는 외모나 결혼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직장 내에서는 동료라기보다는 성적 대상으로 다루어지거나 감정노동, 성적 유혹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¹⁰²⁾

일제강점기 여성의 직업에서 나타났던 특성들은 취업 기회의 제약성, 취업활동의 임시성과 불안정성이었다. 대부분의 직업은 불안정했고 여성들은 빈번하게 직업을 바꿔야 했다.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았던 안정된 직업을 가진 소수의 상층여성을 예외로 한다면, 직업을 가진 대부분의 여성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 그리고 성희롱이나 성적 유혹에 노출된 상황에서 일을 해야만 했다. 일정한 교육을 받고 근대적 제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여공이나 부인 노동자와 구분하여 직업여성이라고 표현했지만 고용불안과 열악한 직업환경, 성적 대상화는 식민지 조선 대부분의 취업 여성이 겪어야만 하는 일이었다.¹⁰³⁾ 따라서 일제강점기 여성의 경제활동은 사실상 정체, 내지는 침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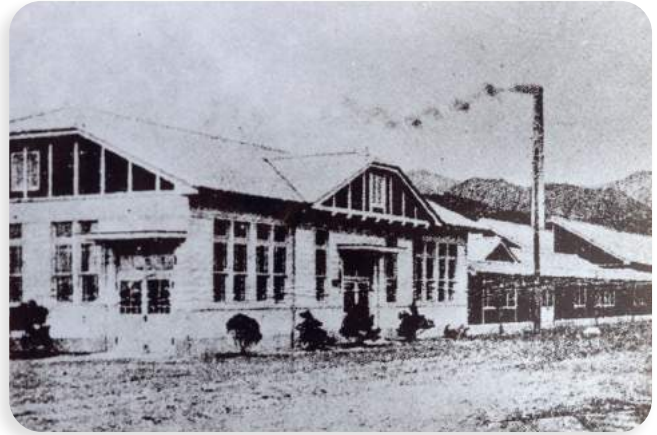
여성의 노동력이었다
산업화의 기반은

광주지역의 산업화(공업화)는 일제의 행정구역 정비, 철도개설, 토지조사, 공장설립 등 도시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본인의 광주 거주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1917년 일본은 그들의 행정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의 면 가운데 24개 면을 지정면으로 하였는데, 그때 광주도 지정면이 되었다. 지정면이 보통면과 다른 점은 일본인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있고 가로나 점포가 시가지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다. 1931년에는 광주읍이 되었고 1935년에는 지방 제도의 변경과 함께 광주군의 지한, 효천, 서방면을 편입하여 행정구획을 확장하고 광주부가 되면서 그동안 광주군에 속해있던 11개 지역은 광산군으로 개칭하였다. 부는 인구 2만명 이상 지역이 해당되었는데, 광주의 인구는 1925년 이후 2만명을 넘어서 해방을 맞이한 1945년에는 83,000명으로 1920년대 이후 급증하였다. 1920년대 이후 광주면의 인구가 급증한 이유는 일본인의 유입과 함께 광주를 행정중심지, 상공업중심지, 서비스 센터의 중심지로 재편해 나갔기 때문이다.¹⁰⁴⁾

광주의 인구증가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식민지 조선 여성이 그러했듯이 광주 여성들도 일본이 세운 공장의 노동자로, 식모살이, 애보개, 점원 등으로 근대적 경제활동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04) 한신애, 「광주지역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 일제강점기부터 고도성장기(1910년~1980년)를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9~20쪽.

101) 김경일, 앞의 책, 356쪽.
102) 김경일, 앞의 책, 359-360쪽.
103) 일정한 교육을 받고 근대적 제도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의미하는 직업 여성은 식민제제가 안정화되면서 1920년대 후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직업여성이라는 표현은 여공이나 부인 노동자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의미를 함축하면서 1930년대에 널리 통용되었으며, 흔히 성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여성성의 이미지가 결부되어 있었다. 김경일, 앞의 책, 340쪽.



1930년 가네보방직(중연방직) 주식회사의 전경
*출처 : 광주 옛모습 사진전 출품작(1988. 9. 6 ~ 15)



1935년 학동에서 임동으로 이전 확장된 전남방직주식회사 정문
*출처 : 광주 옛모습 사진전 출품작(1988. 9. 6 ~ 15)

제사공장에 취업한 여성들은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대기업의 노동자로서 상대적으로 노동환경이 좋고 기숙사가 딸려 있기 때문에 의식주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당시로서는 괜찮은 여성 일자리였다. 초창기 1920년대 제사 여공들은 간이학교, 보통학교 졸업 이상의, 당시로서는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¹⁰⁷⁾ 진학을 한 여학생들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 선망의 대상이었다. 실제로 제사 여공들은 연고나 공개채용을 통해서 취업하였는데,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한다. 대부분 제사공장 인근 지역의 농촌에서 성장한 여성들로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거나 통근의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이를 통해 봉건적인 농촌가족으로부터 일정 정도 분리되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107) 이정옥, 「일제하 공업노동에서의 민족과 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209쪽.

광주의 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1920년대 공장들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일제에 의한 공업화, 도시화로의 재편과 함께 1927년 광주 최초의 근대적인 제사공장인 도시제사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1930년 중연방직 광주제사공장이 지금의 학동 삼익세라믹 자리에 들어섰다. 방직공장으로는 지금의 임동 100번지 일대 전방과 일신방직자리에 중연방직 전남공장이 1934년 문을 연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제는 침략 초기에는 면업의 원료인 면화를 조선에서 충당하려 했으나 1930년대 이후에는 조선에 직접 독점자본이 침투하여 면직물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도시제사공장부터 중연방직(중방)이 들어선 것이다. 일제는 조선의 근대화와 발전을 위해 당시 총독부가 적극적으로 공장 유치에 노력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공장법 개정으로 일본 내 여성 및 아동의 심야 노동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저렴한 여성 및 아동의 노동력을 식민지 조선에서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의 방직산업은 저임금의 노동력이 경쟁력이었는데, 1930년 대공황으로 영국을 비롯한 유럽과 미국의 침체를 틈타 시장 석권을 노리던 과정에서 조선에 방직공장을 적극적으로 설립, 가동하였다. 그렇게 들어온 것이 지금의 전방과 일신방직 자리에 1934년 들어선 중연방직 전남공장이다. 초창기 중연방직 전남공장은 부지 14만 8천500평, 건평 1만4천 394평으로 대규모 공장이었으며, 공식적인 종업원이 2천 700명에 이르렀다. 1939년 통계에 의하면 당시 전체 방직 노동자의 22%를 차지하는 숫자였다고 한다. 중방은 1940년대 초반 일제가 세계 곳곳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는 전쟁특수를 누리며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회사의 간부진은 주로 일본인들이 맡았고 조선인 노동자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본인 간부의 엄중한 감시와 탄압을 감내해야 했다. 때문에 여공 탈주사건이 한 달에 2회 꼴로 발생하였고 자연발생적이고 방어적인 노동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¹⁰⁵⁾

일제에 의한 대규모 제사공장의 설립은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광주 이외에도 경성, 평양, 대구, 전북, 함흥, 충남, 이리, 전주, 충북청주, 함평, 경남 진해, 철원 등에서도 대규모 제사공장이 가동되었다.

식민지시대 제사공장 여공들은 기숙사제도, 작업장에서의 통제, 강제저축 및 상벌제도 등을 통해 관리자들의 강력한 통제 하에 있었지만 작업 과정에서 주체적인 여성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대작업장, 기숙사라는 조건 등은 이들이 단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¹⁰⁶⁾

선망과 억압 사이에서
공장 노동,

105) 해방 후 중방의 노동자들은 일본인들이 빠져나가 주인이 없어진 회사를 전남방직주식회사로 이름을 바꾸고 스스로 관리하는, 이른바 자주관리운동을 통해 공장을 정상 가동하였다. 정근식(1991)에 따르면, 중방노동자들은 일제 패망 직후 스스로 치안대를 만들어 재산을 가져가려는 일본인들과 충돌으로부터 공장을 지켰고 공장자치관리를 위해 중업원 회의와 과장급 이상의 고참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기술자 부족과 노동력 문제 등을 해결하며 공장운영을 정상화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미군정이 일제 총독부를 대신 하면서 노동자자주관리는 종식되었고 이승만정권의 직산불하 등의 과정을 거치며 사유화되었다. 당시 미군정청 통역관이었던 김형남과 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성, 이한할 등 3인이 1951년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전남방직을 불허받았고 1961년에는 김형남과 김용성이 회사를 분할하여 오늘날의 전방(김용성)과 일신방직(김형남)에 이르렀다. 「임동 전방방직일신방직 - 거긴 우리 누이들의 역사」, 『시민의 소리』, 2001.7.27.
106) 윤정란, 앞의 글.

여공의 대다수는 12세에서 20세 사이¹⁰⁸⁾였으며 15세에서 18세 사이가 가장 많았다. 제사공장의 생산공정은 ①건건공정(乾繭工程) ②자건공정(煮繭工程) ③조사공정(纈絲工程) ④생사정리공정(生絲整理工程)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작업이 자건과 조사 공정이었다. 여공 중에서 조사 여공이 되려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였고, 때문에 처음부터 조사공정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6개월 정도의 견습 기간을 가져야 했다.¹⁰⁹⁾

제사공장 노동자의 성별 비율을 보면 남성이 전체 비율의 10% 미만이며, 여성의 거의 90%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작업자는 여공들이었으나 공장에서 통제와 명령의 권한을 가진 것은 대부분 남성들이었다. 당시 제사공장의 위계질서는 주임, 감독, 교부(敎婦), 공원(工員)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유일하게 교부에는 여성들도 임명될 수 있었다. 점심시간은 20분 정도 밖에 주어지지 않았으며, 하루 11시간 이상을 노동해야 했다.

작업장과 기숙사는 여공들의 규율과 통제의 공간이기도 했다. 작업장에서의 통제는 감독, 교부 등에 의해 이루어졌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폭력, 성적인 방법 등을 동원했다. 특히 작업장에서 여공들에 대한 폭력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¹¹⁰⁾ 4평 미만의 기숙사 방에는 수용인원이 12명에서 17명이나 되었고 침구는 본인 것을 가져와 사용했으며 외출도 엄격히 통제되어 저녁 9시 30분에는 모두 취침을 해야 했다. 이 시간이 되면 전기를 꺼 버림으로써 여타의 활동을 못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아 규율과 통제가 엄격했음을 보여준다.¹¹¹⁾

또한 상벌제도와 강제저축제도를 통해서도 통제가 이루어졌다. 잠 사랑과 실의 길이, 생사의 품질에 따라 상금과 벌금을 매겼고 이는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지만 벌금제도를 악용하여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였다.¹¹²⁾ 임금의 1할을 의무적으로 저금하게 하되 만 3년이 되지 못하면 찾을 수 없는,¹¹³⁾ 소위 강제저축제도도 여공들을 통제하는 수단이었다.

당시 제사 공장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민족,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었고 일본인, 남성, 성인 노동자의 임금이 조선인, 여성, 유년 노동자의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 여공은 조선인 남공과 일본인 여공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식민지인으로서의 민족적 차별과, 여성으로서의 성차별이라는 이중의 차별이 임금책정에 반영되어 있었다.

108) 윤정란, 앞의 글, 42쪽
 109) 이정옥, 앞의 글, 206쪽
 110) 윤정란, 앞의 글, 47-48쪽
 111) 윤정란, 앞의 글, 46쪽
 112) 『조선일보』, 1933.1.9.
 113) 『동아일보』, 1922.4.6.

제사공업 노동자의 임금 실태

국적	성별		임금	종업시간	종업자수
조선인	남	성년공	0.83	11.1	1,365
		유년공	0.43	11.3	233
	여	성년공	0.66	11.0	5,694
		유년공	0.46	11.1	2,096
일본인	남	성년공	1.69	11.1	119
		유년공	1.00	11.5	5
	여	성년공	0.84	11.4	73
		유년공	-	-	-

* 공장수 : 22개
 * 출처 : 李如星, 金世鎔, 1932, 『數字朝鮮研究』 2집, 86쪽, 윤정란, 앞의 글, 50쪽에서 재인용.

종연방적 전남공장 남공의 승급, 승격 내역

승격일자	승격	승급일자	승급
1936. 6. 20.	13급	1936. 4. 1	일급 45전
12. 20.	12급	9. 1.	46전
1937. 11. 1.	11급	1937. 3. 25.	57전
1938. 7. 1.	10급	5. 1.	63전
1939. 9. 1.	9급	10. 1	68전
1940. 5. 1.	8급	1938. 10. 1.	73전
10. 1.	7급	1939. 10. 1.	86전
1941. 3. 1.	6급	1940. 6. 1.	91전
11. 1.	5급	12. 1.	96전
1943. 1. 21.	4급	1941. 3. 1.	1원 6전
1944. 3. 21.	3급	1940. -. -. .	1원 20전
1944. 10.10.	2급	1942. 1. 1.	1원 30전
11. 16.	전기와 보전부장	11. 21.	1원 40전
		1943. 5. 21.	1원 55전
		8. 1.	1원 71전
		1944. 2. 21.	1원 85전

* 자료 : 종연방적 광주공장 工場長 발행의 '昇給通知' '昇格通知'를 재정리. 강이수, 「1930년대 면방대기업 여성노동자의 상태에 대한 연구 : 노동과정과 노동통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60쪽에서 재인용.

임금에 이어 승진, 승급에 있어서도 민족, 성별에 따른 차별이 적용되었다. 종연방직 전남공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남공의 승급 및 승격의 기간이나 범위에 비해 여공의 그것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임금 내역 중 수당은 남공들의 경우에는 가족수당과 직책수당이 부분적으로 주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여공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수당이 없었다고 한다. 단지 1년에 1~2회 정도 지급되던 광목이 면방직 여공에게 주어지는 임금 이외의 유일한 혜택이었다. 종연방직의 경우 1년에 2번씩 광목이 배급되는데 1인당 5마 정도 주어졌다. 그나마 이 광목 배급도 무상이 아니라 공장 측에서 공장 전체 종업원들에게 싼 값으로 팔면, 노동자들이 배급날 정문 앞에 모여든 장사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 이익을 남기든지, 옷을 해입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이었다.¹¹⁴⁾

작업시간이 11시간이 넘고 휴식시간도 대개 1일 60분 정도이며 노동강도가 강하고 통제와 규율이 심하다 보니 제사 여공들의 근속기간은 1년에서 2년 사이로 매우 짧았다.¹¹⁵⁾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 및 강력한 노동통제는 제사 여공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도 위협했으며, 이에 따라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여성들이 제사공장에 취업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다. 공장주도 보통학교 이상의 여성들이 노동조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근속연수도 짧아지자 교육 수준이 낮은 산간벽지의 여성들로 충원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여공들을 구하기 어려워 제사공장 간에 여공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¹¹⁶⁾ 1920년대 초창기 선망의 대상이었던 제사 여공에 대한 사회적 위상도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점점 낮아지게 된다.

“신성하지 않지만
직업이다”
사회서비스업 - 카페여급

공장과 함께 1930년대에는 다양한 근대적 직업이 확대되었다. 직업여성은 1920년대 후반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1930년대에는 ‘직업여성’이라는 표현이 널리 통용되었으나 여공이나 부인노동자와는 구분하여 은행이나 회사의 여사무원, 데파트(백화점)의 여점원, 교사, 타이피스트, 교환수, 간호부, 산파, 미용사, 카페나 바, 또는 요리점의 여급 등이 1930년대 직업여성으로 언급되었다. 아울러 데파트걸, 엘리베이터걸, 다방걸, 티켓걸, 가이드걸, 버스걸 등 직업 명칭에 ‘걸’(소위 ‘모던걸’)을 붙이는 일본식 방식이 유행하게 된 것도 이 무렵이다. 일본에서 들어온 ‘걸’이라는 표현은 원래는 남성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직업여성을 의미하는 단어였는데, 식민지 조선에서는 근대적 취향이나 성적인 코드를 내포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¹¹⁷⁾ 김남천은 직업여성을 여직공이나 여차장과 구분해야 한다면서 타이피스트나 여점원이나 양재사 등은 학교 교육을 필요로 하고 육체노동과 함께 지능노동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¹¹⁸⁾ 김남천의 주장대로라면 1930년대 교육 및 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여공과는 다르게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으며 앞서 서술한 대로 도시제사공장의 여공들도 보통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고 숙련도를 필요로 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여성들은 교육수준과 상관없이 취업의 제약을 겪었고 생계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가능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였으며 직업인으로서의 사회적 존중을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사무원, 타이피스트, 여점원 등 사무직 및 판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폐향락의 이미지나 성적인 코드를 부여받아야 했던 직업군은 카페나 바, 다방에 종사하는 여성들이었다. 강이수에 따르면, 카페 여급은 자격 조건은 따로 없었지만, 전통적인 기생이나 창기와는 달리 보통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도 많았다고 한다.¹¹⁹⁾ 여급과의 인터뷰, 직업 동기 등을 담은 기사들이 당시 잡지에 종종 실렸는데, 19세의 장유라라는 여성은 복혜숙이 경영하는 ‘바·비너스’ 주점의 카운터 일을 보고 있었는데, 보통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취직하였다고 밝혔다. 19세의 장영순은 “인텔리 여성들이 여급을 무용지물, 혹은 가없는 존재라고 가혹한 비판을 할 때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생애 허무를 느껴 올게 된다”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도 “고향 목포를 떠나 카페의 웨이트리스가 되어 목이 터지게 노래하고 알콜에 마비된 손님 앞에 공손한 서비스를 해야 하는 자신의 직업을 운명으로 돌리고 그 직업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중이며, 자신도 그 직업이 신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본주의

117) 김경일, 앞의 책, 366-367쪽.
118) 김남천, 『여성의 직업문제』, 『여성』 제5권 12호, 1940. 김경일, 앞의 글, 365쪽에서 재인용.
119) 강이수, 『일제하 근대 여성 서비스 직의 유형과 실태』, 『메미니즘 연구』, 5호, 2005.

114) 강이수, 앞의 글, 160쪽.
115) 윤정란, 앞의 글, 53쪽.
116) 이정옥, 앞의 글, 208-209쪽.

의 노예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다. 그러니 “이 직업도 내 힘으로 내가 살자고 하는 직업”인 만큼 멸시하지 말라고 당당히 주장한다. 일본의 공창화 정책으로 크게 증가한 공창과 기생, 작부 같은 사창의 증대, 서구 근대 문물의 영향 하에 번성했던 카페 여급에 이르기까지 식민지 향락 산업은 다양한 층위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확대되었다.¹²⁰⁾

퇴폐 향락의 이미지가 덧씌워진 카페나 바, 다방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일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차적으로는 성적인 대상이었으며 사무직이나 판매업, 교육 보건업 등 근대적 직업제도의 다른 직종의 여성 종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처해 있었다.

식모가 등장하다
근대적 계약관계의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종사했던 직업군 중 하나는 유모, 식모 등으로 불리우는 가사사용인이었다. 전통사회에서 노비가 수행했던 가사노동은 일제시기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차츰 고용-피고용의 근대적 계약관계로 전환되어 갔다. 행랑살이가 성행했던 1910-1920년대에는 행랑살이 식구들이 주인집 가사를 도맡아 하기도 했으나, 주택난으로 집값이 폭등하고 가사노동에 남성의 기여가 줄어들면서 행랑살이를 내보내는 대신 약간의 급료를 제공하고 여성 가사사용인을 들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 행랑살이와 여성이 혼자 주인집에 들어와 일을 해주는 어멈, 안잠자기 등이 한국형 가사사용인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식민지 시기 초반에는 남성이 홀로 건너오는 경우가 많아 일본인 현지처가 성행하였고, 주로 일본인 하녀들을 고용했다. 따라서 가사사용인이라는 직업군이 처음 형성되는 과정은 조선인 가정과 일본인 가정의 경우가 달랐으며, 일본의 하녀 고용 관행이 그대로 이식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사회의 맥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²¹⁾

1920년대 후반부터는 가사사용인이 인사상담소 및 직업소개소의 직업소개에서 과반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신문사가 구인난을 보도할 정도로 여성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직업군이 되었다.

유모가 부족 관내 구인이 격증

경성부팀인사상담소에는 최근 유모를 급구해 달라고 의뢰하는 사람이 많아서 현재 의뢰받은 것만 하여도 사십여명이 부족하다는데 유모가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인사상담소에서 신청함이 좋겠다더라.

(『동아일보』 1929.9.28.)

식모초빙

총독부제 생원에서는 유아 포육을 원만하게 하기 위하여 일반가정에서 아이를 맡아 젖을 먹여 왔는데 유모가 자기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아니면 선량한 유모를 얻는게 매우 힘든 일인데 어린아이를 낳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많이 나와서 괴롭게 지내는 사람으로 젖없는 아이를 길러주려 하는 자비한 맘을 가진 여자는 부내 신교제생원에 와서 신청하기를 바란다.

(『중외일보』 1927.8.4.)

121) 이이리, 『日帝下 주변적 노동으로서 '家事使用人'의 등장과 그 존재 양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20) 강이수, 앞의 글, 112쪽.

1920년대 후반에 가사사용인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기 때문인데, 수요의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정착을 하고자 하는 일본인 가정의 이주가 늘어났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농가 경제가 급속히 몰락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인구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하지만 가사사용인은 일정 임금이 보장되지 않았고 고용 계약이나 업무가 표준화되지 않았으며, 신분차별적 대우에 직면하는 등 근대적 고용관계로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았다. 다른 직업군과 마찬가지로 일본 고용인과 조선인 여성 가사사용인의 상하 관계는 여성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민족적 차별도 동시에 작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사용인들은 조선인 가정보다 일본인 가정에서 일하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급료가 더 높았기 때문이었다.

남촌엔 식모食母 「인폴레」 본정관내서에만 이천사백명 북촌엔 식모난의 두통 식모 취직전선이 이상하다. 해마다 늘어만 간다는 본정 일대 일본 내지인 집에서 식모 노릇을 하고 있는 부녀자는 … 그 숫자가 부쩍 늘어 관내 일본 내지인 총 호수 일만사십여호 중에 식모노릇을 하고 있는 조선 부녀자 수가 일천사백여명으로 작년 동기에 비하면 사백여명이 격증하였다 한다. 일천사백여명의 절대 다수는 삼십 전후의 새파란 청춘자로 대개가 한번 결혼하였다가 경제적 파멸로 인하여 남편과 생이별을 하고 식모 노릇을 하는 여자가 많다 하며 이들의 월급은 최저 2원 50전으로부터 최고 9원이라 하는데 … 조선인 가정에서는 식모를 구할 수 없는 기현상을 이루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7.11.28.)

일제강점기 내내 농촌을 떠난 조선 여성들은 자신이나 가족의 생계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가사사용인이거나 비공식적인 취업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일제시기 내내 여성 공장노동자의 수는 여성 가사사용인의 수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¹²²⁾ 그럼에도 가사사용인들은 여공들이나 신여성들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했고 보다 비천하게 여겨졌다.

일제의 전시 총동원체제는 의도치 않게 가사사용인의 고용을 활성화시켰다. 일제는 조선노동자의 일본 도항을 막고, 북부 공업 지대에 남부의 유희 노동력을 이동시키는 등 남성 노동력 수급에 관여하고자 직업 소개소를 설립하였으나 직업소개소는 주로 가사사용인의 소개처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에 걸쳐 가사사용인은 양적으로는 확

122) 이아리, 앞의 글.

대되었으나 고용인에게 위생관념과 덕성을 요구받았고 임금을 떼이거나 도둑으로 몰리는 등 열악한 처우와 비인격적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한 집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거나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主人마님이 食母들에게
 요사이 식모들은 한집에 오래 있지 않습니다. 이 만큼 주인에 대한 친밀한 맛이 없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대의 흐름이겠지만, 좀더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할까? 시골서 새로 온 사람들은 순박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군데로 쏠다녀서 처음 선을 보이라와서부터 전에 있던 집 흥을 보는 사람은 싫습니다. 시골서 갓 온 사람은 좋지만은 일반적으로 위생관념이 퍽 희박합니다. 가령 감기가 들어서 이불을 꼭 쓰고 자라고 그래도 옷을 프리 헤치고 이불을 벌렁 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말썬씨가 좋고 나쁜 것은 대번에 알 수 있지만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은 심부름을 시켜보면 곧 알 수 있습니다. 식모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으면서 서로 으르렁 대는 것은 주인에게 상관이 없어도 좋지 못합니다.
 (『매일신보』 1935.2.14.)

귀한 얘기는 누가 보아야 하나 얘기 보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얘기어머니는 꼭 보시오.
 (『동아일보』 1934.9.7.)

월급 달라고 식모가 제소
 부내리 태원정 이경희란 여자는 작년 십이월부터 부내 태천정 십삼사리 경양집에 유모로 들어가 최근까지 있었는데 그동안 월급 3개월분을 주지 않음으로 속히 달라고 수차 청구를 하였는바 그 집에서는 짓이 나빠서 어린 아이의 발육이 잘되지 못한 관계로 줄 수 없다 함으로 할 수 없이 팔일에서 대문서에다 탄원을 넣었다 한다.
 (『매일신보』 1937.5.10.)

혐의 받은 식모 죽음으로 대항
 금일 휴일 오전 10시경에 부내둔0정 00번지 흥인원 방 식모 허성여는 한 삼개월전 흥씨집 식모로 있던 중 수차를 거둬주어 주인에게 돈을 가져갔다 는 말을 듣고 청천벼락같이 허무의 혐의를 받고 있던 중 00 아침에도 또다시

졸라삼에 못이겨 자기의 깨끗한 행실을 죽음으로 증명하려고 전일에 빨래
 하려 사온 양재물을 먹고 신음하자 급보를 받고 달려온 부내서창의원원장이
 응급수당을 가렸으나 식도의 축소로 생명을 건지기가 어렵다 한다.
 (『동아일보』 1938.7.9.)

식모가 미로
 강원도 사는 여자로서 사오일 전부터 부내필운정 일오0번지 삼호 오영환씨
 집 식모로 있는 바 팔일 오후 5시에 적선정으로 심부름을 나간 채로 소식이
 없었는데 … 그는 … 종로에서 수사원을 제출하여 왔다고 한다.
 (『매일신보』 1937.2.10.)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본격적인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조선총독부는 가사사용인 규모가 비대해지는 것을 문제시 하였는데, 이는 전시체제로 비어있는 남성노동력을 여성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조선총독부는 1940년에 가사사용인의 규모가 16만을 넘어설 정도로 비대해지자 각종 식모 폐지 담론과 고용을 방해하는 정책들을 통해 가사사용인의 고용을 억제하고자 하였다.¹²³⁾

가사사용인은 전통사회의 동거노비제와 행랑살이를 거쳐, 일제강점기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근대에 새롭게 등장한 직업군이었고 식민지의 민족모순을 반영하고 있었다. 당시,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적 공간에서 수행하는 가사사용인은 대표적인 여성 취업 노동이었던 것이다. 일제하에서 여성노동력을 공적 영역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전시체제기에 국한된 것이었고 그마저도 남성노동력의 대체물로서 여성 노동력에 주목한 것이었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서 등장한 여성노동력의 공적 활용은 전시하의 강제적인 노동력 동원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¹²⁴⁾

인쇄공들이
 광주지역 최초의
 파업을 일으키다

전남지역에서 근대적 노동자의 초기형태는 19세기 말 목포의 개항에 따라 창출된 부두노동자들과 뒤이어 나타난 도시지역의 자유노동자들이었다. 일제는 목포를 경제적 수탈의 거점으로, 광주를 행정 경찰적 지배의 거점으로 활용하였다. 목포는 일제의 미곡 및 면화의 반출과 관련한 도정·정미업, 조면업, 제유업에서 노동자층을 형성하였고 주류 및 식료 제조업에서 약간의 노동자를 형성하였다. 광주는 행정 및 경찰업무가 집중된 관계로 인쇄업이나 운수업 등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이 부문에서 노동자층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산업노동자의 형성은 192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의 제사공장과 1930년대 중반 대방적공장 설립이 계기가 되었다. 정근식·나간채는 일제 하 광주의 노동계급 형성을 크게 세 계기로 나눈다.¹²⁵⁾ 1920년대 초중반기의 노동공제회 및 광주청년회 활동, 1920년대 후반 제사여공의 창출, 1930년대 중반기의 방적여공의 창출이 그것이다. 식민지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전남이 전반적으로 농업지대로 특화된 관계로 산업노동자의 양적 성장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지만 식민지라는 특수성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사회적, 경제적 해방을 목표로 하는 노동운동은 민족운동의 한 범주로서 192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3.1운동 이후 1920년대부터 광주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 시기부터 광주는 행정중심지로서뿐만 아니라 상공업중심지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 1917년 광주의 주요 공장은 조면공장(2개), 정미공장(3개), 양조장(4개), 인쇄공장(3개) 등이었고 모두 소규모였다. 1920년대 전반기에 소규모 공장은 증가하나 수백명 단위의 공장은 1927년 도시제사공장이 설립되면서부터였고 이후 비슷한 규모의 종방제사와 약림제사가 1930년부터 가동되었다. 1939년에는 소규모업체를 포함하여 광주지역 공장은 총 65개였으며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약 4천여 명이었다.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방적, 제사공장에 집중되어 있었다.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대기업은 거의 대부분 일본인 소유였다. 1938년 현재, 5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공장은 25개였는데, 이 중 5개 업체만 한국인 소유였다. 노동자 규모면에서 가장 큰 것은 종연방적이었는데, 여기에는 약 4천명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었고 특히 여성노동자가 집중되어 있었다.¹²⁶⁾ 종연방적은 광주지역의 근대적 임금노동자의 양적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다.

근대적이고 전국적 연대를 갖는 광주지역 노동운동이 시작된 것은 1920년 8월 26일 조선노동공제회¹²⁷⁾ 광주지회가 설립되면서부터이다. 노동

125) 정근식·나간채, 『1920~30년대 광주지역의 노동운동』 『호남문화연구』 21, 1992.
 126) 정근식·나간채, 앞의 글, 127~128쪽.
 127) 전국적 노동운동단체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은 3.1운동 직후인 1919년 7월부터 대두되었다. 박종하를 중심으로 <대한독립단>이라는 비밀결사에서 조선노동문제연구회를 준비하는 모임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기초가 되어 1920년 4월 서울에서 조선노동공제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5월 평양지회와 대구지회가 설립되었고 8월에는 광주지회가 설립되었다. 정근식·나간채, 앞의 글, 130쪽.

123) 이아리, 앞의 글.
 124) 이아리, 앞의 글.

공제회 광주지회는 30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발회식을 개최하였으며 이후 지역노동운동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다. 노동야학, 노동강연활동, 소비조합창설, 노동자합숙소 설치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광주청년회와 함께 광주소작인연합회를 조직하여 지주들에게 저항하는 소작인 운동은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도 하였다. 그 성과로 인근 14개 면에 소작인회가 결성되었다. 또한 1923년 5월에는 임금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토목공조합, 자동차운전사조합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광주지회는 노동공제회의 지방지회 중 진주지회와 더불어 가장 규모가 크고 강력한 지회로 꼽혔다. 노동공제회의 주요 주체는 민족주의 지식인, 사회주의 지식인, 노동자 대표 등이었다.

1920년대 초 광주지역에서 최초로 기록된 파업은 인쇄공들의 파업이었다. 1921년 4월, 누문동에 위치했던 목산인쇄소의 조선인 직공 6명은 인쇄소 주인이 야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판개라는 노동자를 해고하려 하자 부당대우를 내세워 동맹휴업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이득선이라는 노동자가 해고되고 다른 사람들은 복직되었다. 1922년 7월에 다시 동맹휴업이 발생하였는데, 그것은 일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지불문제 때문이었다. 1925년 6월에는 10년 경력의 노동자를 해고한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동맹휴업이 발생하였다.¹²⁸⁾

1925년 말부터 1926년 초까지의 광주지역 노동운동은 광주청년회와 노동공제회간의 갈등과 직업별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이라는 두 가지 흐름을 보인다. 1925년 말 광주청년회관이 소실되자 회관의 재건을 위해 일부 집행위원들을 지주들의 자제로 채우자 노동공제회가 청년회가 “부르주아”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촉발되었고 양자 간 폭력사태로까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서도 직업별 조합 결성 움직임이 이어졌다. 1925년 11월에는 인쇄공 친목회가 광주인쇄직공조합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시기에 광주청년회의 주도로 광주철공조합이 창설되었다. 1926년 2월에는 지식인들과 광주의 운동단체 대표가 대거 참가하여 인력거꾼의 모임이 완차부조합으로 조직되었고 정미조합도 결성되었다. 3월에는 광주이발공조합이 결성되었고, 4월에는 자유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1926년에는 청년조직도 계속 확대되어 갔는데, 2월에는 광주형평청년회, 광주점원청년회 등이 결성되었고 7월에는 광주소년회가 결성되었다. 이 조직들 이외에도 1921년 창립된 광주기독교청년회, 1923년 창립된 광주여자청년회(김홍은, 윤경옥, 정순이, 정은순 등 50여명) 등이 있었다.

각 부문운동의 진전과 함께 지역의 운동지도부를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그 결과 전남해방운동자동맹이 결성되었다. 해방운동자동맹은 노농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 노동자 및 농민교육 등을 총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 동맹은 사회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에 관한 방침, 교양 및 당면 현안에 관한 방침을 정하였다. 노동운동과 관련해서는 “노동운동을 비타협적 정신으로 경제적 해방을 주로 하는 동시에 정치적 시련을 도모할 것”을 지침으로 직업별,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 혼합노동단체를 직업별, 또는 산업별로 분화, 도시와 군에 연합회를 두어 도연맹을 조직하고 다시 중앙총동맹을 조직하는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체를 확립할 것, 단 연합회가 조직되지 못한 곳에서는 세포 단체가 가입하되, 되도록 빨리 연합회를 조직할 것 등을 방법론으로 제시하였다. 즉 도시지역에서 직업별, 또는 산업별로 노동청년단체를 조직하되 무산청년운동 강력 하에 지식청년과 일반 무산청년을 망라한 지역별 청년회를 조직한다는 것이다.¹²⁹⁾

전국적으로 볼 때, 1927년 8월 조선농민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이 분리되었다. 이후의 활동은 민족통일전선운동과 일제의 탄압 속에서 소멸되었으며, 광주지역에서는 1920년대 후반기 광주학생운동으로 이어졌다. 광주학생운동에서 직공 및 노동단체에 대한 동원을 광주소년회 출신이자 광주인쇄직공조합원, 광주청년동맹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오봉이 담당하였다.¹³⁰⁾

전국적으로 볼 때, 1927년 8월 조선농민총동맹과 조선노동총동맹이 분리되었다. 이후의 활동은 민족통일전선운동과 일제의 탄압 속에서 소멸되었으며, 광주지역에서는 1920년대 후반기 광주학생운동으로 이어졌다. 광주학생운동에서 직공 및 노동단체에 대한 동원을 광주소년회 출신이자 광주인쇄직공조합원, 광주청년동맹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오봉이 담당하였다.¹³⁰⁾

128) 정근식·나간채, 앞의 글, 137-138쪽.

129) 정근식·나간채, 앞의 글, 142쪽.
130) 정근식·나간채, 앞의 글, 143쪽.

광주지역 노동운동사에서 1920년대 전반기는 노동운동의 형성기였고 그 주체는 지식인과 노동자들이었다. 하지만 근대적 대공장이 설립되기 이전이어서 소위 근대적 노동자의 수요가 적었고 노동자의 유형도 자유노동자나 운수노동자, 인쇄노동자, 정미노동자에 국한되었다. 1920년대 후반이 되면 광주지역에 대규모의 제사업체가 설립되고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이어서 이들이 노동운동조직의 대상이자 주체가 된다. 광주지역의 근대적인 제사공장은 1927년에 가동되기 시작한 도시제사공장과 1930년 가동되기 시작한 종연방적 광주공장, 약림제사공장이었다.



1963년 전남도시제사공장 주변(양동 판자촌 상가의 모습)
이 공장은 1974년에 철거되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다. 그 당시 광주 주변에는 판자촌 상가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 출처 : 광주 옛모습 사진전 출판작(1988. 9. 6 ~ 15)

1931년 현재, 조선의 섬유노동자는 전체 공업노동자의 26.3%인 17,196명이었고 이 중 60%가 제사여공이었다. 1930년대에는 방적업의 발전으로 방적여공의 비중이 훨씬 커진다. 당시 제사 여공들의 노동조건과 처지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매우 비참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근속년수가 1년도 채 되지 않는 여성이 47%나 되었다고 한다.

광주지역 제사공장 노동실태(1931년)

공장명	남성(명)	여성(명)	노동시간	휴식 시간	총 노동자수/여성비율
광주종방제사공장	39	319	13	1시간5분	358/89.1%
광주도시제사공장	44	667	12	1시간5분	711/93.8%
광주약림제사공장	21	194	12	1시간50분	215/90.2%

* 출처 : 조선총독부 「공장급 노동상황조사」 정근식-나간채, 앞의 글, 145쪽에서 재인용 및 보완

광주 종방제사, 도시제사, 약림제사 공장의 90%내외의 노동자가 여성이었으며 조선총독부자료로는 하루 12시간 이상의 노동과 약 1시간 5분에서 1시간 50분 가량의 휴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다. 하지만 실제 공장 현장에서는 더 많은 노동시간과 더 적은 휴식시간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1930년대 신문자료에 따르면 제사공장의 실제 노동시간은 14~16시간이었고,¹³¹⁾ 휴식시간이 1시간 5분이라면, 실제 휴식시간은 식사시간을 제하면 5분에 지나지 않는다. 점심시간도 30분이었다고 한다. 임금수준 또한 매우 열악하였는데, 1937년 제사여공의 임금은 성년공이 47전, 유년공이 21전이었고 양성공(견습공)은 10전 이하였다고 한다. 반면 당시 일본인 성년공은 72전을 받았다.¹³²⁾ 이는 1932년 전국 도시제사공장 22개의 평균임금보다도 낮은 것이다. 이마저도 작업성과에 따른 상벌제도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¹³³⁾ 기사에 따르면, 30전 이상의 값을 받았던 숙련된 여공도 이 상벌제도로 인해 10전 남짓의 값을 받기도 했는데, 이는 품위와 성과에 관련된 벌칙(벌금)제도 때문이며 공장에서 임의로 우열을 매겨 노동자를 통제하고 임금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도시제사공장에서는 능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공 15명에게 점심을 주지 않기도 했다.¹³⁴⁾

또한 제사공장 여공들은 일본인 임원이나 공장 감독들에게 일상적인 폭력을 당했고 이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서 노동쟁의나 파업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1929년 3월, 광주제사공장에서는 여공 김치녀와 지수분이 현업원 굴구에게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52명의 여공들이 보름에 걸친 동맹파업에 들어갔다. 이 사건으로 박애은은 파업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10원의 벌금을, 지부순, 오춘덕, 김두가마 세 사람은 퇴사 조치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씨원이라는 여공이 구타를 당한 적이 있으며 이후인 4월에도 조계란이라는 여공을 수관으로 난타하여 얼굴에 중상을 입히기도 하였다.¹³⁵⁾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제사공장 가동 초기부터 여공들의 공장 탈주가 빈번하였고¹³⁶⁾ 자연발생적인 동맹파업이 발생하였다.

광주제사공장 이면 탐사기(1)-눈물을 자아내는 여공들의 애가

공장이 잘 있거라 나는 떠난다. 선생님 잡지마오, 갈길 바빠요. 눈물 짓고

작별하는 우리 둘이는 기적소리 한번이면 그만이다.

(『중외일보』 1929.6.21.)

131) 「광주에 있는 전남도시제사공장, 14시간 노동 임금은 15전」, 『동아일보』 1932.11.16.; 「장시간 노동 난감, 여공 탈주 빈번 - 1일 노동 실로 15, 16시간, 광주 각 제사공장」, 『조선중앙일보』 1935.11.21.
132) 정근식-나간채, 앞의 글, 146쪽.
133) 「광주제사공장 이면 탐사기(3)-받는 임금보다 값는 벌금이 많다, 아홉가지의 벌칙」, 『중외일보』 1929.6.24.
134) 『동아일보』 1929.8.27.
135) 『중외일보』 1929.6.27.
136) 「공장 축 학대로 20여 직공 탈주, 노동자의 불평이 심한 광주제사공장에서」, 『중외일보』 1930.5.4.; 「공장 5번대 직공 장참순 외 20여명이 현업원들의 학대에 견디지 못하여 비밀히 공장을 탈출한 후 혹은 가사에 종사하며 혹은 송정리 제사공장으로 가서 지원을 하는 자라 많다더라」, 「장시간 노동 난감, 여공 탈주 빈번 1일 노동 실로 15, 16시간, 광주 각 제사공장」, 『조선중앙일보』 1935.11.21.
“어느 공장을 막론하고 1개월이면 약 10여 명씩이나 탈주하게 된다는데, 제일 고통을 받는 것은 공장 문자기라는 바, 여공 1명이 탈주하게 되면 1원씩을 변상하게 된다는데, 농촌에서 통경하는 공장도 결국은 하루 15, 16시간의 과격한 노동에는 달 수가 없어 그같이 탈주하는 것이라 한다.”

이 노래는 광주제사공장이 설립된 지 얼마 안되어 여공들 사이에 새로 유행된 애가이다. 이 노래는 당시 여공들의 고통이 어떠했는가를 미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1929년 8월 22일, 전남도시제사 공장에서는 통근공과 기숙공을 합하여 남녀 300여명의 직공이 공장을 포위하고 복도라는 현업원이 그의 사택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유는 복도라는 현업원에게 구타를 당한 3반대의 공녀 임마리아가 인사과를 찾아와서 복도의 무리한 구타를 하소연하므로 차남선이라는 과원이 그 공녀의 임자리에는 신견참 공녀 한 명을 대신 보냈다 하여 아무 의논 없이 임시 변동을 시킨 것에 차남선까지 구타 한 일이 알려지면서 일어난 일이었다.¹³⁷⁾

제사공장 여공들의 파업 투쟁 양상

발생일자	지역	공장명	요구조건	투쟁양상	결과	출처
1929.8.27	전남	道是製絲 株式會社	대우 불만	남녀직공 수백명 모여 소동	미확인	동아일보 (1929.8.27)
1932.11.11. ~12	전남 광주	道是製絲	임금인상, 음식물 개선, 취업시간 단축, 내선인 차별철폐, 주임 배척	여공 500명	미확인	동아일보 (1932.11.16.)
1932.11.27	전남 광주	鐘淵紡織製絲	임금인상	여공 158명	해결	동아일보 (1932.12.2)

윤정란 앞의 글, 58-59쪽, 62-63쪽

1931년 5월에는 광주도시제사공장의 남녀직공들이 일제경찰의 압수수색과 검거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1930년대 초반에 전국의 제사공장에는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조직들이 결성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일제 경찰은 노동자 동향에 대한 감시를 노동자 조직에 맞추기 시작하였다. 1931년 5월 2일, 광주경찰서 형사대 6~7명이 출장하여 기숙사를 수색하고 서적과 서류 등을 압수하였으며 차남선 외 남녀 10여명의 직공을 일시 검거하였다. 여기에는 양모, 이호신, 구모, 김성, 박모 등의 여공도 포함되어 있었다.¹³⁸⁾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석방되기는 하였으나,¹³⁹⁾ 당시 남녀직공들의 친목회가 사회주의적 색채를 띤 것이 아닌가를 의심해서 일어난 사건이고

137) 「남녀 직공 삼백여 명이 공장 포위 시위, 일인 현업원이 여직공 때린 반항 - 광주제사공장의 분규」 『중외일보』 1929.8.25.
138) 『조선일보』 1931.5.5.
139) 『조선일보』 1931.5.22.

보면 당시 제사공장에 대한 사회주의의 영향력과 일제의 통제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사회운동가들이나 학생들은 공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선전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¹⁴⁰⁾

1932년 전남도시제사공장에서는 여직공 5백여명이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동맹파업을 단행하고 매일 아침마다 합성을 질렀다. 파업의 동기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비인간적 대우 때문이었다. 회사 당국과 경찰의 제지로 13일에는 복귀하였으나 14일에는 일체히 복귀하지 않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항쟁하였다.¹⁴¹⁾ 직공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여공의 대우개선, 2. 임금 인상, 3. 작업시간 단축.¹⁴²⁾

제사공장의 동맹 파업사건이 발생하자 광주경찰서에서는 현장에 출두하여 엄중 경계하는 동시에 외인의 출입을 엄금하였다. 또한 11월 6일 불온한 삐라를 산포한 사람들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¹⁴³⁾ 제사공장은 직공들의 요구 세 가지 중 2가지, 즉 여공의 대우개선과 작업시간 단축은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임금은 회사의 운영상의 이유와 다른 제사공장에 비해 적지 않다는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파업의 선동자 77도 서약서를 받고 전원 복귀시키겠다고 언론을 통해 약속하였다.¹⁴⁴⁾ 실제로 여공들의 세 가지 요구사항이 제대로 수용되었으며 주동자들이 복귀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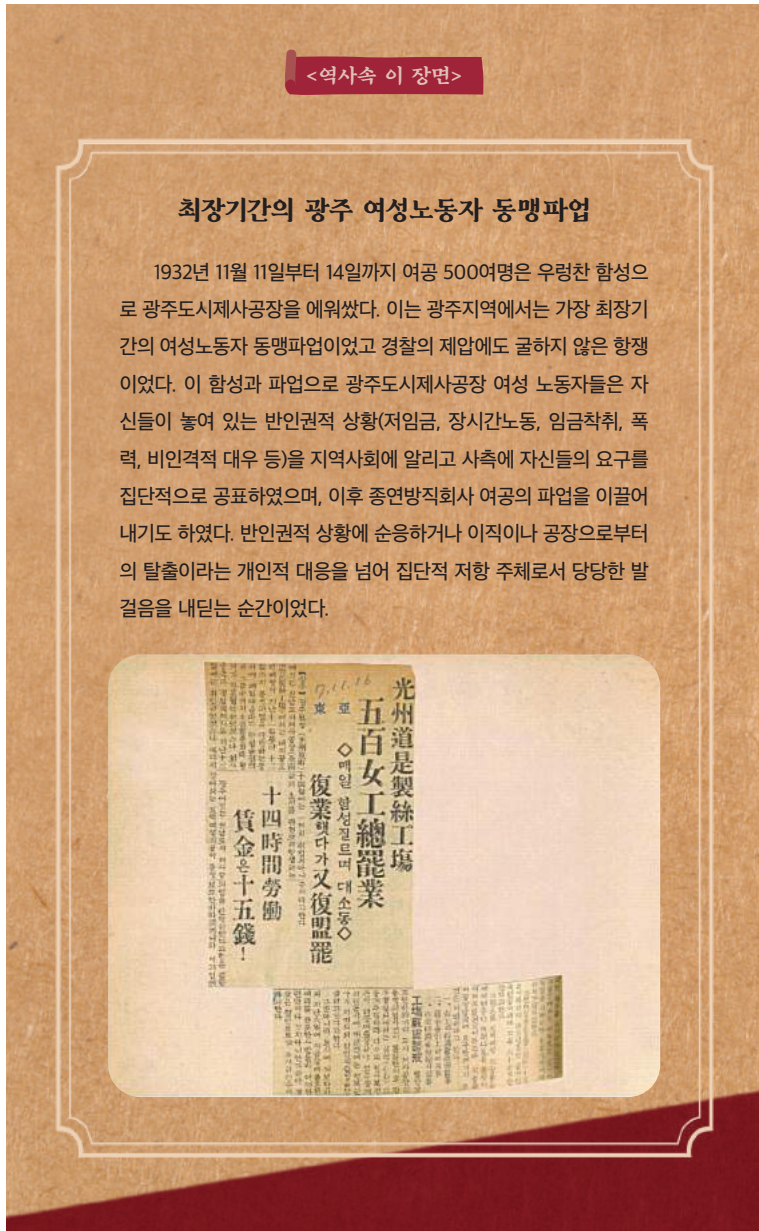
전남도시제사공장 동맹파업의 영향을 받아 종연방직회사 제사 공장에서도 같은 해 11월 26일, 3백여명의 여공이 파업을 감행했다. 이들은 10여일 전에 도시제사공장에서 500여명의 직공들이 동맹파업을 단행하여 임금을 인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이 파업에 대응해 회사는 광주경찰서에 즉각 보고하고 진압하였으며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한다.¹⁴⁵⁾

1933년 1월 13일, 전남도시제사주식회사 여공 기숙사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이 화재로 사상자는 없었으나 여공 385명이 뒷마당으로 피신해야 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여공 9명이 방화범으로 의심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¹⁴⁶⁾

당시 도시제사공장에서 발생한 여공들의 파업이 의식적인 조직운동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저임금의 열악한 노동조건, 그리고 폭력 및 차별 등 비인간적 대우에 대한 집단적 저항운동이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일제강점기 제사공장의 여공들은 피식민지국 여성으로서 이중차별을 경험하였고 공장 탈주와 이직을 자주 하였으며 저항을 통해 집

140) 「광주 각공장 격문-국제반전에 살포, 공장마다 격문 다수를 뿌리어 10여 명 청년학생 검거」 『동아일보』 1931.8.3. 「도시제사공장, 약탈제사공장, 종연제사공장, 조일고무공장 등의 문 앞에 과격한 문구를 많이 쓴 격문 수백 장을 산포하였던 것을 발견하여 그와 같이 검속 수색 경계를 한다는데 그 격문은 동경에서 가져온 것인 듯 하다 한다.」
141) 「광주도시제사공장 오백여공총 파업」 『동아일보』 1932.11.16.
142) 「14시간 노동 임금은 15전!」 『동아일보』 1932.11.16.
143) 「공장 엄중 경계」 『동아일보』 1932.11.16.
144) 「환산 지배인 탐」 『동아일보』 1932.11.18.
145) 「종연제사서 3백여공 파업 - 도시제사서 임금 인상했다고, 즉시 무사히 해결」 『동아일보』 1932.11.30.
146) 「4백 여직공 피난으로 비장한 정면 연출」 『동아일보』 1933.1.15.

단적 운동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다.



四장

광주여성, 전통가족에 도전하다

근대 가족구조의 변화와 성역할

1920~30년대 신문기사를 읽다보면 가정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한편에서는 자유연애와 신가정에 대한 요구가 '신진문물'이라는 이름으로 정당성을 얻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정절을 지킨 열녀·절부 칭송과 현모양처론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명분을 놓지 않으려 한다. 그 와중에 축첩제로 인한 불화와 방화, 가출, 폭력 사건 등이 지면을 장식하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이 장에서는 근대와 전통의 '배틀그라운드'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무수한 담론의 경합이 벌어졌던 근대 가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식민지 시기 목포 출신의 유명 작가였던 박화성의 작품과 인터뷰, 신문에 기사화되었던 광주지역의 사건 사고와 독자들이 보낸 이야기들 속에서 새롭게 변화해가는 연애와 결혼, 가정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36년 어느 늦은 봄 잡지 『삼천리』의 기자가 한 여성작가의 집을 방문했다. 「여류 작가 방문기」라는 시리즈의 첫 번째 기사를 쓰기 위해서였다.¹⁴⁷⁾ 작가 이름은 박화성. 목포 출신으로 여고보를 졸업한 직후인 1920년 열일곱의 앓던 나이에 광주에 와서 야학교사로 일하며 광주와 인연을 맺었던 신여성이다. 후에 그는 20세기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약관의 나이 스물한 살에 「추석전야」라는 작품으로 이광수의 추천을 받아 문단에 깜짝 등장한 박화성은 1930년대 들어 「하수도 공사」, 『백화』, 『북국의 여명』 등 장단편 소설들을 잇달아 발표하며 작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 참이었다. 가정방문 인터뷰인 만큼, 대화 내용은 문학을 넘어 일상생활까지 폭넓게 이어졌다. 그 와중에 드러나는, 아이들을 키우며 틈틈이 글을 써야 하는 여성작가로서의 바쁜 가정생활과,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으로서의 애로와 고충은 오늘날의 여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듯 보인다.



광주시립여자학교 교사 시절의 박화성(1922.4.25.)



딸과 함께 찍은 박화성의 모습(1930.3.18.)

147) 김팔련(金八蓮), 「여류작가방문기(女流作家訪問記) 기일(其一)-유달산(楡達山) 밑에서 밑늑(筆線)을 가다듬는 박화성(朴花城) 여사」, 『삼천리』 8-8, 1936.8

기 자: 창작생활을 하시면서 이렇듯 가정을 이루게 되니, 부자유스러운 일은 없으신가요?

박화성: 왜요! 말하자면 참 많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가지 잡동사니 일에 빠져서 해매면서도 붓을 들고 제법 창작해 보겠다는 생각만은 늘 잊지 않으려고 하니 고생이라면 무서운 고생이지요. 그 가운데 불만이 있다면 대단한 불만이 있지요. 그러나, 그저 가정 잡무를 툭 떠나서 자그마한 서재나 하나 고요한 곳에 지어놓고 정성을 들여서 창작할 기회만 있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마는, 이 땅의 여류문인 된 자에게 어디 그런 세상이 좀체로 오겠어요?

기 자: 집필하시는 서재 같은 방은 어디 따로 있나요?

박화성: 아니지요, 서재가 어디 있습니까? 책과 살림은 저편 안방에 있지요. 거기서 그냥 글을 쓰게 되지요. 대개 어린 것이 놀 때나, 잠자는 사이를 타서 몇 줄씩 쓰니까요….

기 자: 금후의 창작적 노선은 어떻게 가지시렵니까? 세상에서 흔히 말하기를 선생님의 작품은 여성적 품격은 어쩐지 안 보이고 너무나 남성적인 꺼칠꺼칠하고 억센 작품이라는 평이 있는데, 그런 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박화성: 여류문인은 여자다운 작품을 써라, 여자로만 쓸 수 있는 작품을 써라 하는 말을 … 제발 그따위 소리를 말아 달라고 나는 널리 문단을 향해서 말하고 싶어요. 글세, 글을 쓰는데 그다지 엄격하게 성별을 해서 말할게 무엇입니까? 아니 그럼 왜 남성작가들은 꼭 남자라야만 쓸 수 있는 것을 쓰지 않고 여자로도 잘못 쓸 별별 깊은 점까지 다 쓰고 있나요? 이것은 아예 당치 않은 주문인 줄 압니다. 가령 한 작품을 써 놓고 보니 여성이기 때문에 정말 남성이 짙어 보지 못할 곳을 짙었다라 그 말은 정당하나 미리부터 여성다운 작품을 쓰려고 노력하라는 말은 참 틀린 소리 줄 압니다. 좌우간 작품다운 작품, 값 있고 보람 있는 작품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만이 문인 공통의 희망인걸로 알아요. 물론 내 작품이 거칠고 남성적인 필치일런지도 모르지요. 구태여 내 필치를 여성적인 부드러운 것으로 고치고 싶지도 않으려니와 또 그렇게 고쳐질 것도 아니지요. 하여간 나는 금후에도 더욱 더욱 이땅의 현실을 보다 잘 그려내고 인류의 앞날을 위하는 진정한 예술로서의 문학적 생활을 하고 싶다는 것만은 말하고 싶어요.

이름난 작가임에도 변변한 서재 하나 없이 아이를 돌보며 틈틈이 글을 써야 했던 박화성은 그런 와중에서도 ‘여성다운 필체’를 강요하는 문단에 맞서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가고 있었다. 소녀시절에는 첩을 둔 아버지 때문에 고뇌했고, 자유연애와 결혼이 유행하는 풍조 속에서 부모도 모르게 비밀리에 자유결혼을 감행한 신여성, 가족은 버려도 동지는 버릴 수 없다는 남편과는 과감히 이혼을 선택했고, 전남편과의 사이에 자식이 둘이나 있었지만 재혼도 마다하지 않았던 박화성의 생애를 따라가다 보면, 식민지 근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급변하고 있던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그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새로운 가족을 꿈꿨던 광주의 여성들을 만나게 된다. 자, 이제 100년 전의 세계로 돌아가 광주 여성들의 삶과 이들이 이끌어냈던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살펴보자.

가족을 개혁하라
축첩을 폐지하고

19세기 말 서구세력이 몰밀듯이 들이닥치기 시작할 무렵, 개화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문명개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국경 전반은 물론이고 지역과 마을 곳곳을 들썩이게 하더니, 급기야는 문턱을 넘어 가족이 자리한 공간에까지 파고들었다. 앞 다투어 힘 자랑 하는 서구 열강 앞에 그야말로 바람 앞에 불꽃같은 아련한 처지에 놓인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들끓었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이자, 자녀들을 키우는 곳이므로, 장래 나라를 책임질 일꾼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의 변화가 절실했다. 보수적인 유교 질서와 의례에 침잠해 있는 가족으로는 미래가 없어 보였다.

개화와 개혁을 부르짖는 이들은 기존의 가족 문화와 관행을 낡고 사라져야 할 ‘폐습’이라 규정하였다. 낡은 전통과 단절하고 새로운 문명적 가정을 만드는 것이 나라를 문명개화하는 지름길이라 주장했다. 특히 1910년대 일본 등지를 유학하며 새로운 사상과 사조에 눈뜨고 사회개혁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젊은 유학생 출신들이 가족개혁에 관한 논의를 주도해 갔다. 이들은 단순히 몇몇 낡은 관행의 타파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서 삼강오륜을 근간으로 하는 종래의 유교적 가족 윤리 전반을 비판하였다. 가문과 문중이 아닌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근거한 새로운 가족 윤리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근본적이고 급진적이었다.

『창조』의 동인이자, 후에 신학대학 교수와 목사로 활동한 소설가 전영택이 바로 그런 이에 속했다. 1918년 일본 아오야마학원을 졸업했을 무렵 가정 제도의 개혁에 대해 쓴 글에서 그는 가정이 안식과 쾌락을 주고 사회활동을 위한 정력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가정은 오히려 불평과 고통만을 안겨준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선의 가정에서 “부친은 전제 왕이요, 기타 가족은 다 신민”이고 “남편은 한 집의 주인이요, 부인 기타 가족은 모두 노예”이기 때문에 어떤 화평과 쾌락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의 가정을 개혁하기 위해 그는 가정 내 연령이나 남녀의 위계에 따른 차등적인 지위와 권리를 철폐할 것, 남편이 중심되는 가정 제도를 개혁하여 아내가 가정의 주인이 되고 아이가 중심이 되는 가정을 만들 것, 시부모와 며느리가 동거하지 말 것, 일부다처제(축첩)를 폐지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¹⁴⁸⁾

당시 신문과 잡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가족개혁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첫째,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전제적인 가족문화와 아내와 자녀에 대한 무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내를

148) 전영택, 『가정제도를 개혁하라』, 『여자에게』 1-2, 1918.

남편의 소유물로 본다든지,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기대하는 기존의 윤리는 악습이라 비판하면서, 아내와 자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라는 요구를 담았다. 둘째, 가장의 전제 아래 3~4대가 한데 모여 사는 대가족제도를 폐지하고 부부가 중심이 된 소가족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가족제도는 나태와 의외심을 낳고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 지목되었고, 그 폐지를 통해서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공간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자 했다. 셋째, 부모의 지나친 간섭을 없애고 결혼은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선택의 기준은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관습적으로 행해지던 조혼과 강제결혼, 그리고 축첩 등이 비판되었다.

가족개혁의 다양한 의제 중 특히 젊은층에게 호응이 컸던 것은 자유연애 및 결혼 문제였다. 님웨일즈의 『아리랑』으로 유명한 독립운동가 김산(본명 장지락)은 당시 조선 젊은이들의 갈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비록 달성하려는 방법은 달랐지만, 모든 조선인들은 오로지 두 가지를 열망하고 있었다. 독립과 민주주의. 실제로 그것은 오직 한 가지만을 원하는 것이었다. 자유... 어떤 종류의 자유든 그들에게는 신성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들은 일제의 압제로부터의 자유, 결혼과 연애의 자유,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유, 자기 삶을 스스로 규정할 자유를 원했다.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고픈 마음만큼이나 결혼과 연애라는 개인적 자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갈망했던 이들이 당시 젊은이들이었다. 이들은 연애와 결혼의 자유를 개성의 자각이자, 근대적 개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외적 표식으로 간주했다. 이들은 연애 없는 결혼은 최악이라 믿었고, 전통적 인습에 따라 부모가 결정권을 가지던 조혼과 강제결혼이 결국 개인을 파멸시키고 조선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는 근본 원인이라 비판하였다. 이들은 '사랑'에 기초한 새로운 부부 간의 윤리를 옹호하였다. 특히 연애의 신성과 결혼 및 이혼의 자유를 역설한 엘렌 케이 등 외국 사상가의 사조를 적극 수용했다. 『사랑과 결혼』, 『사랑과 윤리』, 『아동의 세기』 등 다수의 저작을 남긴 엘렌 케이는 스웨덴 출신의 교육학자로, 사랑이 영혼의 성장과 개인의 행복에 제일가는 필수요건이라 주장했다. 자유연애와 결혼을 옹호한 그녀의 사상은 일본을 통해 조선에 소개되었고, 유학생층 뿐만 아니라 신지식층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

149)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현실문화연구, 2003, 104~109쪽.

에게 적극 수용되었다.¹⁴⁹⁾

종래의 '전제적' 가족, 사랑이 없는 가족과는 다른 이러한 새로운 대안적 가족상을 당시 사람들은 '신가정', '스위트 홈' 혹은 '이상적 가정'이라 칭했다. 3.1운동 이후 새로운 사조가 급격히 조선사회 일반에 확산되는 가운데, 가족의 개조와 '신가정'의 건설은 점차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중심 화두가 되어 갔다.

그러나 가족의 개혁은 그리 쉽게 달성되지 않았다. 1928년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조선사회에 남아 있는 여러 봉건 유제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으로 가족 제도를 꼽았다. 그리고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봉건적 가족 제도를 방치하는 식민권력의 지배정책을 비판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서구화된 '문명 제국'이라 거들먹거렸던 일본이었지만, 가족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서구에 대항하여 '전통'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노골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런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관습을 존중'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일본식 가족제도를 이식시키는 한편, 조선인이 열망했던 가족개혁을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저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호주를 정점으로 한 가족제도, 전통으로 둔갑하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는 식민지 조선인들을 정치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데에만 머물지 않았다. 병합 후 조선총독부의 통치 목표는 조선인을 일본의 '충량한 신민'으로 만들어 제국의 팽창에 자발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존재로 육성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일상과 개인에 대한 통제와 지배의 체계를 만들어갔는데, 가족은 그 중요한 통로였다. 국가가 민(民)을 파악하기 위한 신분등록제도라 할 수 있는 호적제도를 도입하고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통해 혼인, 이혼, 양자, 상속, 친족 관계 등을 법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인들을 일제의 법적 질서 속으로 편입시켜 나갔다. 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행정·사법의 시선과 규율 하에 조선인의 삶을 관리·통제해 나가고자 했다.

이민족의 식민지 지배라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이 과정은 호주를 정점으로 하는 일본식 가족제도(이에(家)제도)를 이식하여 조선의 가족제도를 일본적 가족제도로 변경하고 조선인을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적인 일본제국주의의 일원으로 편입시켜 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이 오랫동안 축적해 온 고유한 가족 관습과 생활방식은 부정되고 일본식 가족제도가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강요되었다. 동화주의로 치달은 일제 말기 창씨개명제도의 도입은 일본식 가족제도의 강제적 이식이 갖는 폭력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일제가 처음부터 노골적인 동화주의 정책을 취했던 것은 아니다. 식민지배 초기 일제는 조선인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민사령 제11조에 조선인 간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은 조선의 '관습'에 따른다고 하여 관습법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관습에 따른다는 표면적인 태도와 달리, 관습에 대한 해석의 변경을 통해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선민사령의 거듭된 개정을 통해서 일본민법의 의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법적인 내용을 일본적인 것으로 서서히 변경시켜 나갔다. 이를 통해 커다란 반발 없이 일본식 가족제도를 조선에 이식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가 취한 동화주의는 단순히 조선을 일본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동화주의의 이면은 차별주의로 일제는 조선의 가족을 일본화하면서도 식민지로서 조선을 차별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 본토와 식민지 조선에서 법적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민법을 의용하면서도, 실제 법의 적용에서 일본과 조선에서 다르게 판결하는 것을 통해 차별주의의 기초를 관철해 나갔다. 조선의 낮은 '민도'와 '관습'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일본에서는 허용되었던 진보적인 법 해석

을 조선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법적 동화주의를 표방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식민지적 차별의 구조에 바탕한 것이었다. 이처럼 일본적인 것으로의 동화(同化)와 식민지로서의 이화(異化)라는 모순적 정책이 펼쳐지는 가운데, 식민지를 거치며 결혼, 이혼, 재산상속 등 가족과 관련된 법과 관행들이 점차 변경되어 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조선시대 여성들은 양반, 중인, 평민, 천민으로 구분되는 엄격한 신분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같은 여성이라 해도 그 경험이 상이했다. 양반 여성들이 엄격한 내외 규범과 정절을 요구받으며 가부장적 가족 질서 속에 강하게 편입되어 있었다면, 평민 이하의 하층 여성들은 유교적 가부장제의 굴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남편이 죽으면 평생을 수절하며 정절을 강요당했던 양반 여성과 달리, 하층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서라도 재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분제가 해체되고 일제하에서 가족법이 변경되는 가운데 여성들은 상하계층을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새롭게 도입된 가족제도, 즉 일본식 호주제 아래 편입되어 갔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 만들어진 호주제도는 가족을 기본단위로 삼아 국가가 주민을 지배·통제하기 위한 가족제도로, 식민지 주민의 통제를 위해 조선에도 도입되었다. 해방 후 반세기 동안 여성운동단체들이 줄기차게 싸워 겨우 2005년에 가서야 폐지되었던 호주제가 바로 이 시기에 도입되었던 것인데, 여성을 가장의 종속 하에 두는 가족제도였다.

조선시대 호주는 다만 집안의 어른, 존장자라는 상징적 존재였으며 실질적으로 가장의 의무와 권리는 법률이 직접 규정하지 않고 형벌법에 직간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일제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호적제도 하에서 호주는 가족에 대하여 거의 무제한적인 권리를 인정받고 있었다. 호주는 혼인, 입양, 입적, 제적과 같은 중요한 신분 행위에 대한 동의권, 허가권,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 가족에 대해 강력한 가부장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호적이 부계 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단위로 편제되면서 호주로서의 여성의 지위는 약화되었다. 고려와 조선에서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있었으나 일제시기에 여성은 원칙적으로 호주로서의 지위에서 배제되었다. 호주에게 남자 상속인이 없을 때 예외적으로 호주가 될 수 있었으나 이 경우도 호주 상속인 남자, 즉 양자가 정해질 때까지 일시적인 것이었다. 부계 혈통을 이어가는 호주제도가 정착되면서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약화되었고 남성에게 종속적인 지위가 고착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이 결혼하였다 하더라도 친정에서 받은 자기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이나 매매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반면, 이제 결혼한 여성은 미성년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무능력자로 취급되어 중요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즉 결혼한 여성은 자기의 재산도 남편의 허가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었고, 상점의 고용원이 되는 등 직업을 갖거나 계약행위를 할 때도 호주인 남편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했다. 더욱이 자녀에 대한 친권도 아버지에게 우선하였다. 상속에서도 여성의 입지는 약화되었다. 조선시대까지는 딸의 출가여부에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이제 출가한 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아 재산상속에서 여성의 입장은 더욱 불리해졌다.

이혼에 관해서는 여성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청년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결혼과 이혼의 자유는 온전히 허락되지 않았다. 일본 민법에 따르면 남자 나이 30세, 여자 나이 25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자유로이 결혼할 수 있었고, 당사자간의 협의이혼 경우에도 여자 나이 25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식민지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조선의 '관습'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당사자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부모가 생존한 경우 허락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정식 결혼과 이혼이 인정되었다. 이로써 결혼과 이혼의 의사결정에서 개인의 자유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관습'에 근거한 이러한 제한에 의하여 일본 본토와 달리 식민지 조선에서 결혼과 이혼의 의사결정권은 개인에게 온전히 주어지지 않게 되었다.

한편, 1915년 민적법에서 첩란이 사라지면서 법률상 첩제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축첩은 간통으로 취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았고, 일제말기까지도 사회적으로 온존되었다. 축첩은 이혼의 원인으로 인정되지도 않았다. 아내의 간통은 당연한 이혼 원인으로 규정된 반면, 남편의 경우는 간음죄로 형사처벌 되었을 경우에만 이혼원인으로 인정되었다. 축첩을 본처에 대한 중대한 모욕으로 취급하여 이혼사유에 포함시켰던 일본과 비교할 때 식민지 조선에서 일제는 축첩을 '관습'으로 취급하여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관습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일본에서보다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가족법이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축첩의 온존은 무엇보다 불평등한 간통죄 조항으로부터 지지되고

있었다. 일제가 제정한 조선형사령은 일본 형법을 의용한 것으로, 간통죄 처벌에서 신분에 따른 차별은 사라졌으나 성별에 따른 불평등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일본 형법 183조의 간통죄 규정은, 남편의 간통은 처벌하지 않으면서 아내의 간통만 처벌하는 극도로 불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불평등한 규정은 아내의 정조는 가(家)의 혈통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져야 하지만 남편의 정조는 그런 걱정이 따르지 않으며, 더욱이 가(家)의 존속을 위해서라면 남편이 아내 외의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묵인해야 한다는 식의 성차별적인 사고방식으로 정당화되었다.¹⁵⁰⁾ 축첩을 폐품으로 규정했으면서도 관행으로서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던 일제는 가(家)의 계승을 위한 축첩에 대해서는 야만이 아닌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오히려 옹호했던 것이다.

이처럼 호주제를 정점으로 한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가족구조를 만들고, 결혼과 이혼에서 개인의 자율권을 보장하지 않고 부모나 호주의 동의를 강요하였던 점, 축첩을 온존시킨 점 등 일제의 가족정책은 조선인들이 열망하던 가족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개혁에 대한 거센 사회적 요구, 종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규율해간 새로운 법제도의 도입,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 여성들의 욕망, 그리고 종래의 가족질서를 유지하려는 완고한 시도 등 식민지시기 가족은 다양한 힘들이 맞물리며 갖가지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소란스러운 공간이 되었다. 신문에 나타난 각종 사건·사고들은 이를 보여준다. 광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광주와 그 주변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면, 광주에서 나타난 가족생활의 변화를 조금이나마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사고의 행간에서 광주 여성들이 새로운 가족을 꿈꾸며 기존의 가족제도와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었는지 포착할 수 있다.

150) 소현숙, 『이혼법정에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 역사비평사, 2017, 318~320쪽.

세대간 전쟁
결혼을 둘러싼
자유결혼을 허하라!

가족의 변화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자유결혼 문제였다. 이 시기 자유결혼을 둘러싼 젊은 시대와 기성세대간의 갈등은 심각했다. 완고한 부모들은 결코 손에 쥘 결정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새로운 세대는 어린 나이에 부모의 억지에 따라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본채 아무런 사랑의 감정도 없이 치르는 혼사를 더 이상은 무턱대고 따를 수 없었다.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선 우선 조혼과 강제결혼이라는 기존의 관행을 타파해야 했다.

<역사속 이 장면>

강제결혼과 시집살이의 힘겨움

식민지시기 여성에게 결혼은 새로운 장밋빛 인생의 출발이기 보다는 두려움과 고통의 시작이 되곤 했다. 특히 가혹한 시집살이로 인해 며느리로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열입곱 살에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가난한 시집에 가서 힘겨운 노동을 강요받고 굶주리던 끝에 친정으로 도망친 한 여성의 수기를 보자. 이 여성은 신체적 폭력을 직접 당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시집살이는 노동과 굶주림을 의미했다.

“나의 집은 농촌이지만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농사하는 것도 모르고 밥도 별로 안 지어보고 갔습니다. 시집간 후부터는 새벽밥 짓고 소죽 썬고 돼지 물 주고 물 길고 아주 이것이 나에게서 큰 책임 같았습니다. ... 여류 세월은 봄이 깊어 논과 밭에 김을 매게 되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일이라 어떤 것이 돌 되고 어떤 풀이 버인지 어떻게 가꾸어야 쌀이 열리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남이 하는 대로 흉내만 냅니다. 시부모님께 미움을 받으니까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김매 줄 모른다고 구박은 날로 심하여갑니다. 농사는 안 가르쳐주고 이런데, 농가에 시집보내는 부모가 사람이나?고 합니다. ... 나는 왜 농사를 못 배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죽고 싶도록 애가 탑니다. ... 구속이 더욱 심하여 갈수록 어린 가슴에 고통과 슬픔이 늘어갑니다. 새벽밥은 지어서 광주리에 담아 이고 십 리나 먼 곳을 다니며 김을 매는데 시부모는 나와 말도 하지 않으니까 불쌍히 생각할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일 못하는 사람이라고 천 찬밥이나 통강냉이 삶은 것을 주니 여름이라 속히 변하여 먹을 수가 없으므로 굶다시피 살아가니 피골이 상련하여 보는 사람마다 놀랍니다.”

계○덕, 『이룰 수 없는 알: 지긋지긋하던 시집살이(전3회)』, 『동아일보』 1930.1.16.~18.

계○덕, 『이룰 수 없는 알: 지긋지긋하던 시집살이(전3회)』, 『동아일보』 1930.1.16.~18.

151) 김경일,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푸른역사, 2012, 35쪽.

조혼과 강제결혼에 대한 비판은 비교적 일찍 나타났다. 조혼이 성숙하지 못한 신체로 출산 등을 감당하게 하여 혼인하는 당사자의 신체를 허약하게 만들뿐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자녀를 낳게 하고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부모를 양산함으로써 가정불화의 근원이 된다는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어떤 연령이 결혼에 적합한지는 해당 사회의 결혼의 기능과 문화에 따른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일찍이 1894년 갑오개혁에서는 남자 20세, 여자 16세로 조혼의 기준을 정했던 반면, 일제하에서는 남자 17세, 여자 15세를 기준으로 조혼을 정의하였다. 1920년대 중반에 조선의 청년단체들이 주장했던 것은 18세 이하 남녀의 강제결혼 철폐와 18세 이상 남녀의 자유결혼 및 이혼권 획득이었다. 이처럼 기준이 상대적인 것이기에 조혼에 대한 비판에는 서구의 근대성을 근거로 조선의 결혼관행을 야만적인 것으로 규정하려는 일방적 시선이 담겨져 있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혼담론의 오리엔탈리즘적 성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전 반적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조혼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듯하다. 당시 전체 결혼수의 4~14%가 조혼으로, 법률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혼 상태에 있었다. 이를 일본과 비교해 보면, 1930년 일본에서는 15세 이하의 여성이 결혼한 경우가 전체 34명으로 결혼 수 1만명에 대한 비율이 단지 1이었던 반면, 같은 해 조선에서는 15세 이하의 여성이 결혼한 경우는 10,683명으로 결혼 수 1만명에 대한 비율이 무려 541에 달하고 있었다.¹⁵¹⁾

이처럼 조혼과 강제결혼이 만연하였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고뇌는 깊었다. 1935년 4월 24일 조선일보의 독자상담란에 실린 광주 시내 사는 남성의 고민을 보자.

저는 당년 이 십오세된 남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전 꽃피는 봄이었습니 다. 나는 청춘에 끓는 연정을 내 누이동생의 동모인 이웃 처녀에게 하소연 하게 되어 보통 산속 속에서 첫사랑의 단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 은 굳고 굳었습니다만 호사다마라고 그 처녀는 얼마하지 않아 부모의 명령 으로 다른 남성에게 출가를 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가는 그 여자의 가슴에도 보내는 이내 가슴에도 철석 간강은 녹아내리어 눈물로써 이별을 하게 되었습 니다. 아픈 상처를 안고 시집간 지 만 두달만에 그 여자는 그 어느 날 밤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살수 없어요 나는 그 형식적인 결혼에 도저히 참을 길이 없어서요! 그리하여 밤마다 꿈속에 그리는데 신을 찾아서 는 밤도망을 쳐 신께로 왔어요 첫사랑의 불길을 당신이 부처 주셨으니 이몸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죽어도 당신의 것이야요.” 하고 내게 쓸어 저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버리고 간 그 여자를 극도로 저주하고 있던 때라 “나는 당신을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하고 냉정히 거절하며 “어서 그 남자하고 살라.”고 했으나 그 여자는 끝끝내 듣지를 않고 “내가 어리석은 년이죠. 찾아온 것이 잘못이어요” 하고 눈물 속에 내 곁을 떠나간 뒤에 그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로 가지도 않고 술집 작부로 몸을 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나는 느낀 바 있어 다시 그 여자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하였으니 용서하시고 기실은 내가 당신을 사랑은 하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하여도 그 여자는 “나는 임자 없는 뜰에 핀 꽃이예요. 짓밟힌 꽃송이예요” 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 여자와 결혼까지 하려고 생각하는데 어찌면 좋습니까?¹⁵²⁾

고뇌하는 젊은이의 이 안타까운 질문에 기자는 “진정으로 당신이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 여자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원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 참된 애정은 그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숭고하고 순결한 정신적 사랑의 결합에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여성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당신은 눈물로써 그 여자에게 사과하고 그를 구원해주십시오”라며 숭고한 사랑을 위해 그녀와 결혼하려고 충고하고 있다.

이처럼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뇌하는 청년들도 많았지만,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스스로 개척해 나간 이들도 많았다. 특히 여성들의 진취적 태도는 오늘날의 시선으로 봐도 놀랍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박화성은 일본에서 유학하던 1928년 오빠의 소개로 만난 김국진과 결혼하였다. 부모에게도 오빠에게도 알리지 않은 자유결혼이었다. 참석인원은 전부 이십명 정도에 불과한 간소한 결혼식이었고, 어머니와 오빠에게도 비밀에 붙인 예식이었지만, 박화성은 추호도 쓸쓸하다는 감정을 가지지 않았다. 둘만의 서약이면 만족했던 그녀는 결혼반지에 사랑과 이즘(사상)에 충실하자는 뜻으로 ‘Be Faithful L&I’라고 새겼다. 부모와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처럼 새로운 사조에 심취한 젊은이들은 자유연애와 결혼을 과감히 감행하고 있었다.

자유결혼은 신여성을 비롯한 지식인층의 전유물만도 아니었다. 강제결혼을 거부하고 자유연애와 결혼을 추구한 다양한 젊은이들이 존재했다. 예컨대, 광주 인근인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사는 정차숙은 19세의

나으로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임의결혼”했다는 사실로 1924년 동아일보의 지면을 장식했다. 양반집 처녀지만,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구여성이었던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의 혼처를 구하려고 충청도로 간 사이에 이전부터 사귀어 오던 박평길이라는 남성과 부모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신식결혼을 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혼처가 확정될 기미가 보이자 그녀는 박평길을 찾아가서 결혼하기를 요구했던 것이다. 신부가 속한 정씨 집안은 지역에서 행세깨나 하는 양반인데 반해, 남자쪽 집안은 지체가 좋지 못한 터라 박평길은 망설였다. 그러나 정차숙은 박평길에게 염려 말라 이르고 그의 손목을 끌고 근처 학교로 가서 자신의 일가인 정씨를 다수 모아놓고 나는 이 남자와 평생을 지낼 터이요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우리 남편이니 이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과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렸다.¹⁵³⁾



「신부의 임의결혼으로」, 『동아일보』, 1924.1.5.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했던 용감한 여성이 또 있었다. 1926년 광주군 서방면 매곡리 사는 류영언의 장남은 결혼하려 신부 집에 갔으나 신부가 도망가 혼례도 못 올리는 봉변을 당했다. 담양군 창평면 해곡리 사는 정운채의 장녀 열일곱살 남숙과 결혼하기로 했지만, 신부집에 당도해 보니, 신부 남숙이가 자신의 친족이 많이 사는 남면 지곡리로 달아나 버린 것이다. 신부도 없는 빈 처가에 누워 정식결혼을 할 때까지 버티겠다는 신랑과 결단코 결혼할 수 없다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신부의 이야기가 언론의 지면을 장식했다.¹⁵⁴⁾

한편, 비극도 있었다. 광주 수기옥정에 사는 열여섯살 정금환은 취

153) 「신부의 임의결혼으로」, 『동아일보』, 1924.1.5.

154) 「예식전의 처가에서 도주한 신부 고대」, 『동아일보』, 1926.6.1.

152) 「첫 애인이 결혼했다 다시 와서 살자해요」, 『조선일보』, 1935.4.24.

박화성은 남편 김국진이 사회운동에 매진하며 가정을 돌보지 않자 1936년 33세 때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과감히 이혼을 해버렸다. 요즘은 이혼을 결행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어서 일각에서는 가족해체를 염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식민지시기만 해도 이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1910년대까지도 아내가 남편에 이혼을 제기한다는 것은 ‘배부(背夫)’행위, 즉 남편을 배신한 행위로 인식되었고 도덕적으로 매도되었다. 남편은 아내를 언제든 버릴 수 있었지만(棄妻), 아내는 어떤 이유로도 남편을 버려서는 안된다는 도덕률이 엄연히 존재하던 시절이었다.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해서 이혼은 조선의 관습에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관습의 불분명, 법운용상의 어려움, 시세 변화 등을 이유로 점차 일본의 민법이 적용되면서 이혼법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여성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 점이다. 1915년 판례로 인정된 여성의 이혼청구권은 1922년 조선민사령 개정을 통해 일본 민법이 의용됨으로써 최종적으로 법에 명문화되었다.

이러한 법적 변화와 더불어, 1920년대 들어 자유이혼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자, 부모의 의사에 의해 맺어진 조혼한 아내를 버리고 신여성과 결혼하고자 이혼을 원하는 남성들이 증가했다. 1920년대 초반 신지식층 남성들 사이에서는 이혼동맹이 결성되는 등 이혼은 마치 ‘전염병’처럼 유행하며 번져갔는데, 광주도 예외는 아니었다. 신청년의 이혼문제는 ‘가장 말썽 많은 문제’로서 언급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이혼 현상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유행병”이라 생각한 부모세대는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아니할 것”이라며 학교 입학을 거절하는 풍조까지 나타났다.

집안의 제지로 이혼을 못해 자살하는 청년이 등장하는가 하면, 이혼당한 구여성들의 자살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었고, 심지어는 남편이 유학을 간다는 말만 듣고도 장래 이혼당할 것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공부하여 새지식을 알지 못하면 함께 살수 없으니 이혼이 두렵거든 공부 하라는 신식 공부한 남편의 말에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만류를 물리치고 홀로 상경하여 공부하는 여성이 등장하는가 하면 남편에게 소박당하는 이유는 오직 교육을 받지 못한 까닭밖에 없으므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조선여자교육협회를 찾아와 신세를 하소연하고 장래를 상의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부모의 의사를 거슬러 이혼을 단행한 아들은 아버지와의 불화를 피할 수 없었고, 일가친척, 고향 부로부터 비난과 배척을 당해야 했고, 신여성과의 결혼을 위해 본처와 이혼을 단행한 남성교사는 학부모와 동창

이혼,
일본에서 들어온
머리 아픈 유행병?

약을 먹고 자살했다. 일찍이 광주 공립보통학교에 재학하던 중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생활이 어려운 속에서도 학교를 졸업한 금환은 생계를 돕기 위해 전라남도 도청에서 급사로 일했다. 그러던 중 같이 급사로 일하던 박모라는 청년과 사랑에 빠졌으나, 금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뜻대로 다른 남성과 강제로 혼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금환은 다른 남성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사랑하는 이를 잊지 못해 “그동안 어머니의 엄령으로 결혼이라고 하였으나 날로 당신이 그리워서 못견디겠으니 나의 과거의 잘못을 다 용서하고 전과 같이 사랑하여 달라”고 수차로 이전의 애인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애인은 냉정하게 예전과 같이 사랑할 수 없으니 마음 고쳐먹고 가정 생활을 계속하라고 권유하고, 남편도 눈치채 괴롭히자 좌절한 마음에 금환은 그만 취약을 먹고 자살을 감행한 것이다.¹⁵⁵⁾ 강제결혼이 낳은 비극이었다.

결혼의 자유를 쟁취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와 자식의 운명에 개입하고자 하는 부모 사이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더욱이 일제에 의해 개인의 권리로서 결혼권에 많은 제약이 따랐지만, 젊은이들은 그러한 법적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자 했다.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자유결혼이 여성들에게 축복만 가져다 준 것만은 아니었다. 부모에 의해 조혼한 구식 아내들은 신여성과의 자유결혼을 원하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강요받아야 했다. 신청년들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자유이혼’이 ‘구식’아내들에게는 ‘강제결혼’에 다른 아닌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155) 『강제결혼으로 애인 일코 자살』, 『동아일보』 1925.12.3.

회의 반발로 권고사직을 당하는 일도 일어났다.

집안과 지역사회에서의 반대와 배척에 부딪혔지만, 남성들이 이혼을 단념하지 않았다. 조혼한 아내와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던 상황에서, 남편들은 간단히 아내를 소박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이혼할 수 있었다. 더욱이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아내에 대한 냉대와 협박, 강요, 폭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혼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자유이혼은 아내에게는 비극으로 다가왔다. 광주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혼도가 된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한 박세덕이라는 여성의 사연을 보자. 스물네살의 박세덕은 열아홉살에 당시 남선회사 급사로 있던 당재수라는 남성과 결혼하고 딸자식 낳고 시모를 모시며 살았던 평범한 여성이었다. 가난한 살림에 설새없이 품팔이까지 해가며 집안을 돕는 한편 홀로 있는 시모에게 극진한 효도를 하여 이웃의 칭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세 살 어린 남편이 광주사범학교에 입학하여 2년 동안 공부하는 사이에는 남편 없는 쓸쓸한 생활에 홀로 눈물을 흘린 적도 있지만 장래의 행복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여성이었다. 그런데,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훈도로 부임된 남편이 1925년 어느날 갑작스럽게 아내에게 “나는 신식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그대와 같은 무식한 옛날 여자와는 살수가 없으니 속히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의미의 편지를 보내왔다. 받아들일 수 없는 청천병력과 같은 일이었으나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밀려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¹⁵⁶⁾



『동아만평: 머릿살 아픈 신유행』
“보기 싫다. 어서 나가거라”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구여성 아내는 “어디 이상적 아내와 얼마나 잘
사나 보자”라며 냉정하게 들어서서 집을 떠난다.
구 여성은 시대의 희생자만은 아니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동아일보』 1924.3.26.)

156) 『각박한 신식남편과 구식여자의 비애』 『동아일보』 1925.9.11.

157) 『약혼 유린코 파혼』, 『동아일보』 1928.5.30

그러나 구여성들이 박세덕처럼 울면서 쫓겨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본처를 두고도 결혼을 감행하는 남편에 대한 구여성들의 반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남편의 결혼식장에 직접 찾아가서 단상을 엮고 신랑에게 달려들거나 신부에게 망신을 주는 등, 당시 ‘본처 야료’라고 표현되었던 사건들이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혼인신고만 되어 있다면 본처는 이혼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이 경우 신여성은 그야말로 첩의 처지가 되어,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 사례를 보자. 1928년 박승선이라는 “여학생 모양을 차린 미인”이 자택에서 다량의 양젓물을 마시고 자살하려는 것을 발견,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했다. 박승선은 전남 광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여성으로 소개로 만난 윤상용이라는 남성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여 오던 중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고향에 간 윤상용으로부터 본처가 이혼 수속을 해주지 않아 결혼을 할 수 없다는 편지를 받게 된 그녀는 “여자의 가장 귀한 정조만 유린된 것에 분개하여” 그만 자살시도를 감행하고 말았다.¹⁵⁷⁾

한편, 사랑으로 맺어진 신가정에서도 이혼은 나타났다. 결혼반지에 사랑과 ‘이즘(ism)’에 충실하자고 새겨 넣으며 부모 몰래 자유결혼을 했던 박화성 또한 이혼을 했다. 가족은 버려도 동지는 버릴 수 없었던 남편과 헤어진 것이다. 이혼한 신여성은 박화성만이 아니었다. ‘이상적 가정’을 만들겠다는 이들에게 어떤 불화가 닥친 것일까? 당시 신여성의 고백을 들어 보면, 그들의 고민은 구여성의 고민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완고한 부모의 승낙을 얻어 어렵게 연애결혼한 어느 신여성은 “입으로는 여성해방이니 인격이니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하나도 실행이 없”으며, “우월권을 함부로 행사”하는 “폭군”이 되어 버린 남편으로 인해 갖게 된 고민을 얘기했다. 그녀에 따르면 남편은 게으르고 아내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며, 시부모에 대한 봉양에 대해서도 예전 사람 못지않게 굴고, 아내에게는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의사를 벗어난 자유는 즐기지 않으며 예전 구식남편 이상으로 자기의 안해를 전제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생, 노는 계집에게 출입한 다며, “이상적 가정이니 하던 것은 옛꿈으로 사라져 버리고 현실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신식남편 또한 구식남편이나 다를 바 없다는 실망감 속에서 신여성들은 이혼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신가정의 파탄원인을 “현대여성과 함께 살 힘이 없는 황포한 남성”으로부터 찾고 남성들에게 진정으로 “신진남성”이 될 것을 촉구하였다.

은 아들을 남들이 괘시할 서자로 입적하기가 겁났다. 그리하여 아내에게 협의이혼하고 첩과 결혼하여 아들을 적출자로 입적시킨 후 다시 첩과 이혼하고 원고인 박현을 본처로 복적시키겠다고 설득하였다. 결국 남편의 설득에 못 이겨 이혼을 하였지만, 불행히도 아들은 금새 죽고 말았고, 아들조차 없는 마당에 남편 김두식은 전날 약속한대로 원고를 본처로 복적시켜 주지 않고 외면했다. 출지에 이혼을 당하고 만 원고 박현은 이혼할 의사가 없었는데 허위로 이혼한 것이니 무효로 해달라고 남편과 그 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국 이 재판에서 원고 박현은 승소하였다.¹⁵⁹⁾

재판정도 시끄러웠지만, 축첩으로 인한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첩이 되도록 강요당한 여성들은 가출을 감행했다. 예컨대, 전남 담양군 남면 학선리에 사는 정달삼의 둘째딸 점덕은 열다섯 살 소녀로, 가난한 가정의 딸이었다. 근방 사는 현기섭이 점덕을 첩으로 삼으려고 그 부모를 위협하고 달래며 괴롭히자 점덕은 마침내 광주로 도망쳤다.¹⁶⁰⁾ 첩의 자식을 죽이는 사건도 종종 일어났다. 남편이 첩을 들이자 첩의 자식에게 양재물을 먹여 죽이려고 한 본처가 검거되는가 하면, 첩의 소생을 빗자루로 난타하여 사망케 한 경우도 있었다. 또, 본처가 첩을 직접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1933년 전남 장성군 남면 사는 김상린은 자식 없음을 비판하여 김야모라는 여자를 첩을 맞아들였는데, 본처 김광덕은 김야모의 방에 들어가 첩의 자식에게 양재물을 먹이려다 미수에 그쳤다.¹⁶¹⁾ 1936년 광주경찰서에는 아내가 남편이 절도한 사실을 고발하여 남편이 발각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데, 절도하여 생긴 돈으로 축첩을 일삼는 남편에 대한 분노로 아내가 고발한 웃지 못할 사건이었다.¹⁶²⁾ 한편, 윤순례라는 여성은 광주군 지한면 사는 김대길이라는 이의 첩으로 들어갔는데 지극하던 남편의 사랑이 본처로 옮겨가자, 생활상의 불안을 느끼고 본처에 대한 질투심으로 김대길의 집에 불을 질러 징역형을 언도 받기도 했다.¹⁶³⁾ 본처와 첩 간에 폭행사건도 잦았다. 1926년 5월에는 광주 시내에서 처첩 간에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광주 조병섭의 본처 차씨는 향사리에 살게 하고 남원네라는 첩은 부동정에서 술장사를 하여 왔는데, 남편이 본처를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 본처 소생 딸을 결혼시키면서 받은 혼수비를 딸의 결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첩의 술장사 미천으로 쓰게 했다. 이에 화가 난 본처가 첩의 집을 찾아갔지만 결국 첩에게 폭행을 당하고 말았다.¹⁶⁴⁾

한편,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첩들도 많았는데, 버림 당한 첩들은 그냥 물러서지 않았다.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게 된 이들은 남편을 상대

159) 「부부간에 협의한 허위이혼은 무효」 『동아일보』 1938.2.24.
 160) 「학선 소녀 동정강상 비극」 『동아일보』 1925.4.18
 161) 「질투심 끝에 첩자 독살미수」 『동아일보』 1933.2.4
 162) 「방탕한 절도, 본처 질투로 발각」 『동아일보』 1936.6.3
 163) 「질투로 방화, 첩이 본처 집에」 『동아일보』 1929.2.16
 164) 「시앗에게 맛고 고소를 제기」 『조선일보』 1926.06.01

축첩케도의 고통
 고발, 가출, 난타...
 방화, 양젓물,

법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사회적으로는 온존하였던 축첩 문제 역시 이 시기 가족문제에서 중요한 이슈였다. 식민지시기 내내 많은 여성들이 남편과 아버지의 축첩 문제로 속을 끓여야 했고, 가난한 여성들은 첩으로 팔려가는 고통을 당했다. 박화성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녀의 자서전 『눈보라의 운하』에는 첩을 둔 아버지 때문에 가족이 고통당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박화성이 열한 살 되던 무렵, 어머니를 돕기 위해 젊은 여성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여성과 눈이 맞은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결국은 첩살림을 하게 된 것이다. 첩을 얻은 아버지는 잘 나가던 교회도 나가지 않고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와 부부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다. 싸움 끝에 어머니에게 폭행까지 감행하는 아버지의 태도에 실망한 박화성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아버지를 나는 멸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백여우 같이 요사한 해남댁을 끝없이 저주했다. 아무 것도 취할 것 없는, 오직 젊은 살덩이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요녀에게 정복당한 아버지를 어떻게 존경할 것인가. 나는 그 이후로 아버지를 한 번도 입 밖에 내어 아버지라고 불러 본 적이 없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축첩은 가정불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었다. 당시 통계를 분석해보면 대략 성인 여성의 5% 가량이 첩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1925년 현재 전국적으로 어림잡아 28만여명이 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축첩은 상류층뿐만 아니라 하층까지도 확산되어 하인이 축첩을 하고 두 집 살림을 감당하지 못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확한 통계가 남아 있지 않지만, 광주에서도 축첩이 횡행하자 일류 부호 가정과 모모 고등관의 귀부인 등 40여명이 남편 몰래 절에 가서 전곡을 바치며 남편이 축첩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축원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¹⁵⁸⁾

첩을 얻은 남성들은 두집 살림을 하였지만, 간혹 첩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서자로 취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하거나, 심지어는 허위로 이혼신고를 하는 일도 벌어졌다. 1938년 고등법원에까지 올라갔던 이혼무효 확인청구소송을 보자. 원고는 전남 광주부 명치정에 살던 박현이라는 72세의 백발노파였고, 피고는 그의 남편인 김두식과 그의 첩이 가실이었다. 박현은 그 남편과 스무 살을 전후한 때 결혼하여 가난한 중에서도 서로 돕고 근면저축하여 살아온 덕분에 수십만 원의 재산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자, 남편은 수십 회나 첩을 갈아치웠고, 마침내 1927년에 이가실이라는 첩을 맞아들여 2년만에 옥동자를 낳았다. 천신만고 끝에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은 남편 김두식은 금지옥엽갈

158) 「지방잡신」 『동아일보』 1929.1.15

로 소송도 불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싸웠다. 예컨대, 1933년 광주읍 사정에 살던 박달단(45세)은 산청군에 거주하던 전남편 김병의를 상대로 향후 15년간의 생활비 2천 4백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1운동 즈음인 1919년 7월 김병의를 만나 첩이 된 박달단은 무려 15년간이나 동거를 하였지만 결국 헤어지고 말았다. 헤어질 때 김병의는 매달 10원씩의 생활비와 1년에 40원씩을 별도로 보내주기로 했지만 그 약속을 이해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¹⁶⁵⁾

현모양처 교육
학교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열녀 칭송,

박화성은 이혼한 지 2년 만에 목포직물회사의 사장이었던 천독근과 재혼하였다. 과부의 재혼을 허용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이 이미 한말이었으니 여성의 재혼이 자유롭게 된지 반세기가 다 된 시점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도 과부의 재혼은 물론 이혼한 여성의 재혼은 그리 쉽지 않았다. 박화성 역시 재혼하기까지 상당한 심적 고뇌를 겪었다. 그녀의 재혼을 두고 떠도는 풍설에 괴로워했고, 재혼하며 전남편과의 사이에 둔 아들과 딸을 전남편에게 보내 놓고는 아이들이 그리워 ‘반광인’(半狂人)이 되었다. 그때의 심정을 박화성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보이느니 남매의 모습ियो, 들리느니 귀에 쟁쟁 그들의 목소리! 그 외의 아무것이 나는 무도 내게 무의미하고 무관심 하였다”고 표현하며, “엄습하는 자식에의 그리움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유약하고 평범한 죄 많은 한 어미에 지나지 않은” 자신을 발견했다고 쓰고 있다. 결국 그리움에 못 견디 박화성은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왔지만 함께 살지 못하고 친정어머니에게 맡겨 놓고 왕래하며 지내게 되었다.¹⁶⁶⁾ 남편 쪽에서 어지간히 즐라서 한 재혼이었지만 전남편의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였던 것이다. 이처럼 전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재혼은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자녀를 두고 재혼하는 문제에 관한 당시의 시선에 대해서는 『삼천리』 1931년 2월호에 게재된 「정조파훼 여성의 재혼론」이라는 제목의 특집에 잘 나와 있다. 이 기사에서 소설가 이광수의 아내이자 의사였던 신여성 허영숙은 재혼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자녀를 두고 자기 개인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재혼하는 것은 비난할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건전한 도덕적 정조를 가진 여자로는 모성에를 최고로 할 것”이라며 “무의한 어린 자녀를 버리고 새 남자를 따라 가는 것은 아무리 자유니 사랑이니 하는 이유로 분장한다 하더라도 모성에 같은 고급 정조가 없고 성욕 같은 본능에만 지배받는 음분(淫奔)이라 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하였다.¹⁶⁷⁾ 의사를 직업으로 둔 당대 최고의 엘리트이자 신여성이었던 허영숙조차도 재혼에 대해서 이토록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으니, 일반의 시선은 어떠했을까. 더욱이 법적으로 재혼한 여성은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재혼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놓고 가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데리고 가더라도 강한 혈통주의적 가족문화 속에서 전남편의 자식은 천덕꾸러기로 취급받기 십상이었다. 이 때문에 재혼한 여성이 데려온 아이를 버리거나 살해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재혼을 하기 보다는 과부조차 수절하는 것이 오히려 장려되었고, 자녀가

165) '길린 남편 길어 생활비청구소', 『동아일보』 1933.9.3.
166) 박화성, 서정자 편, 『눈보라의 운하-기행문』, 푸른사상, 2004, 205~212쪽.
167) 『정조파훼여성의 재혼론』, 『삼천리』 12, 1931.2

165) '길린 남편 길어 생활비청구소', 『동아일보』 1933.9.3.

있음에도 재혼하는 여성은 모성을 저버린 이기적인 여성으로 비난되었다.

재혼에 대한 터부시가 지속되었던 데에는 여성에게 정절을 강요하고 열녀관을 유지하려는 기성세대의 시도가 여전히 존재했던 것에도 원인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유교를 지배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던 일제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더욱 가시화되었다. 식민화 직후부터 양반 유지층을 회유하고 유교를 한국병합을 정당화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고자 했던 일제는 매년 천장절을 기념하여 효자·열녀·절부에 대한 포상을 통해 효열을 장려하였다. 급변하는 일상 속에서도 여성의 정절과 며느리로서의 효를 강조하는 보수적인 노력에 힘을 보탤던 것이다. 광주에서도 열녀와 효부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1927년 10월 10일 전남 광주군 광주면 루문리에 사는 김경덕의 며느리 이성녀(24)는 구차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는 여든 살 된 늙은 시아버지에게 지극한 효성을 다하였다 하여 지역 유지들의 발기로 동리구장사무소에서 포창식을 성대히 개최하였다.¹⁶⁸⁾

학교에서는 여성에게 현모양처가 되라고 가르쳤다. 흔히 현모양처하면 신사임당을 떠올리지만, 조선시대에는 ‘현모양처’라는 개념이 없었다. 현모양처라는 말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수입되어 보급된 것이다. 총독부에서 편찬한 여자고등보통학교 수신서에서는 여성들은 남자와 다르고 여자로서 천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나중에 일가의 주부로서 가사를 담당해야 하며 동시에 어머니로서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기 때문”이며 “이 천분을 다 하는 것은 여자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이다. 여학생들은 “양처란 주부로서 가정을 정비함과 함께 남편에 대하여는 항상 간독한 반려로 되고 혹은 친절한 위안자가 되고 혹은 충실한 보조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여성은 자녀 교육의 주된 담당자로서 자녀에 대한 교양은 여성의 천직이다”고 하여 현모양처가 될 것을 요구받았다.¹⁶⁹⁾

현모양처에의 강요는 1930년대 후반 전시체제기에 접어들면서 황국여성과 군국의 어머니가 되라는 요구로 변화해 갔다. 이제 여성은 주부와 어머니의 책무를 다하는 현모양처, 가정에 봉사하는 현모양처를 넘어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충량한 국민 전사’를 양육하는 여성이 되어야 했다. 즉 국가관과 국제관념을 지닌 현모양처로서 가정 내 역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군국의 어머니가 되어 아들을 기꺼이 천황을 위해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을 제대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존재로서 여성은 이제 국가를 위해 가정을 포기할 수 있

168) 『효부표창식』 『동아일보』 1927.10.15
 169) 김경일, 앞의 책, 162-167쪽

는 여성이 되라고 강요받았다.

이처럼 한말에서 식민지를 벗어나는 1945년까지 가족의 모습은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개화의 바람과 식민지 정책에 의해 가족법이 크게 변화하였고, 자유를 쟁취하려는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의 이름 없는 분투 속에서 가족은 전통과 근대를 둘러싼 요란한 갈등의 중심지가 되었다. 광주의 여성들은 신여성은 물론 이름 없는 구식 아내와 첩들조차도 이러한 갈등의 주인공이 되어 술한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들의 분투는 때로는 자살이나 폭력사건 같은 비극으로 드러났지만, 소송도 불사하며 판례를 바꾸고, 가족의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라는 조건 속에서 이들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가족법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기 어려웠다. 더욱이 일제 말기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경색되고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을 위해 총동원되는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는 침묵될 수밖에 없었다.

남녀평등한 가족법과 가족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화된 것은 해방 직후였다.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국가가 수립되자, 여성들은 그에 걸맞는 자유롭고 평등한 가족법을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가족법개정운동으로 가시화된 이 흐름 속에서 결국 식민지시기 만들어진 호주제와 불평등한 가족법은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반세기라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식민지시기 광주 여성들이 염원했던 자유와 평등은 해방 이후 한걸음 한걸음 여성들의 노력 속에서 진척되어 갔던 것이다.

갈등의 중심

전통과 근대를 둘러싼

가족,

五 장

광주여성, 저항의 주체로 서다

항일의 경험, 새 사회의 상상, 여성의 주체화

기존의 역사서술에서 3.1운동은 여성의 역할을 인정했던 몇 안되는 분야 중 하나였다. “국권회복을 위한 활동에 여성도 참여했다”는 기술은 물론 그 자체로 의미 있지만, 만세시위와 거리행진, 비밀모임 등이 여성의 주체적 자각에 끼친 영향은 그보다 훨씬 크고 깊다. 이 장에서는 항일·반일의 경험이 여성들로 하여금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여성해방론의 다양한 관점들이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고 새로운 주체를 꿈꾸는 과정에 어떻게 녹아들어갔는지를 살펴본다. 100년 전 그날 밤 비밀회합을 소집하여 태극기를 만들고 이튿날 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장터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놓아 부르짖었던 스무 살 여학생, 그 뜨겁고도 당찬 피가 우리 광주여성의 몸속에도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항의 경험 속으로 들어가 보자.

어렵다. 결국 여성의 권리는 여성에 의해 제기되고 여성운동은 여성에 의해 실천된 것으로, 남성 중심적인 정치세력의 젠더 기획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요컨대 일제 식민지 시대는 지난했던 항일투쟁에 여성이 참여하면서 민족의 구성원으로 승인받아간 역사가 아니라 항일투쟁을 포함한 여러 공적 활동을 통해 여성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면서 차별적 젠더 관계를 변화시켜간 역사였다.

이와 같은 시대 인식을 가지고 1919년 3·1운동에서 1929년 광주학생운동 시기까지 광주 지역 여성들의 항일운동 참여 경험과 그것의 의미를 추적해보자. 여성들의 항일운동 경험은 식민지 지배 질서의 근원적 전복을 위한 정치 활동에 한정되지 않았다. 이 속에는 식민 통치에서 비롯된 새롭지만 불평등했던 규범과 전통적인 규범 등 여성의 삶을 제약했던 제반 요소에 대한 저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전통적이고 사회적으로 공인된 젠더 관계에 대한 도전은 여성이 스스로 주체화되었던 과정이기도 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저항 주체로서 여성은 여러 기제를 통해 자신의 삶을 제약했던 일체의 젠더 규범과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간 여성운동 집단 혹은 여성 개인을 일컫는다. 이제 그녀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하고자 한다.

근대의 역사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남성의 지배를 당연시하던 문화를 깨고 근대 지식을 익힌 새로운 유형의 여성을 탄생시켰다. 우리 역사에서 이들은 1898년 ‘여권통문(女權通文)¹⁷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다. 이 통문에서는, 여성도 문명개화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참정권), 직업을 가지고 일할 권리가 있으며(직업권), 교육을 통해 인격을 가질 권리가 있다(교육권)고 입장을 밝혔다.¹⁷¹⁾ 이렇듯 여성의 권리는 근대와 함께 등장했다.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라는 새로운 문제의식은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과 동등한 행위를 선택하게 했다. 그리고 이 무렵은 대한제국의 국권이 위태로웠던 시기였다. 여성은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다양한 여성 네트워크와 사회 활동을 바탕으로 국민의 일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국채보상운동 시기 몇몇 지역에서는 여성단체가 조직되었고 여성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 근거로는 ‘국민의 의무’, ‘백성의 도리’ 등 남녀 동등의 윤리가 제기되기도 했고, 남녀동권, 즉 사회 참여의 권리 요소가 부각되기도 했다.¹⁷²⁾ 이처럼 식민지화를 눈앞에 둔 국가 위기의 국면에서 여성은 자발적 실천을 통해 국민됨을 경험했다. 이와 같은 남녀의 동등성 관념의 확산과 이에 따른 실천은 여성은 남성과 다르다는 전통적인 젠더 규범에서 벗어난 여성의 주체화 과정의 시작이었다.

3·1운동은 한국 여성의 주체화 과정의 전환점으로 주목할 만하다. 여성의 3·1운동 참여는 새로운 젠더 문화 창출을 위한 여성운동의 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여성들은 기존의 젠더 규범을 깨고 거리의 시위에 참여했고, 파리강화회의에 여성 대표를 파견하고자 하면서 남성의 지도를 당연시한 젠더 차별적 정치 문화를 파괴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여성은 정치 주체로 등장했고 이는 1920년대 무수한 여성단체를 탄생시킨 역사적 경험이 되었다.¹⁷³⁾ 즉 여성의 역사에서 3·1운동은 여성의 권리를 공론화하게 된 계기였고 젠더 평등을 위한 여성운동의 기점이었다.

이는 여성을 민족이라는 상위 주체 속에 포용한 남성 독립운동가들과 달랐다. 일제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장의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일체 평등”하다는 조항(대한민국임시정부 임시헌장, 1919, 제3조)은 한국인을 구획해 왔던 성별·신분·재력 등의 요소를 해제하고 모든 한국인을 포함하는, 19세기 말엽 등장해 20세기 초엽 확산된 민족이라는 집단 정체성¹⁷⁴⁾을 독립 국가의 정치 주체로 명문화한 것이었다. 독립의 주체로서 민족 관념의 확고한 정착은 여성의 3·1운동 참여의 결과였지만 평등한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었다고 하기는

여성의 권리 선언으로
근대의 시작은

170) 1898년에 발표된 한국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서.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과 정치참여권, 경제활동 참여권이 명시되었다.

171)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58쪽.

172) 전경옥·유숙란·이명실·신희선, 『한국여성근현대사①: 개화기-1945년 한국여성 정치사』,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4, 191-194쪽.

173) 소현숙, 『3·1운동과 정치 주제로서의 '여성'』, 『한국학논총』 51, 한국학연구소, 2019.

174) 헨리 임, 『유로-아메리칸 헤게모니와 근대 한국 역사학의 기원』, 『아세아연구』 51-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08, 119쪽.

1919년 3월 7일 또는 8일이었다. 광주군 효천면에 소재한 수피아여학교 교사 박애순(朴愛順)은 김강(金剛)이라는 사내와의 갑작스러운 만남으로 바빠지기 시작했다.¹⁷⁵⁾ 그녀는 김강으로부터 독립만세시위 계획을 들었고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을 시위에 참가하게 해 달라고 부탁받았다. 또한 독립선언서 역시 배포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박애순은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를 통해 제1차 세계 대전의 종결을 침략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지배의 시대에서 자주독립의 시대로 이행하는 문턱이라고 이해했음이 틀림없다. 김강과의 만남 전후 학생들에게 『매일신보』의 기사를 읽어 주고 ‘만국강화회의’(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의 독립을 승인”했으니 “우리도 독립운동을 개시하고 조선독립만세를 불러야 한다”고 설득했으니 말이다. 『매일신보』에는 연일 ‘휴전강화(休戰講和)’란을 통해 전쟁 종식 이후 평화 교섭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조선의 독립을 결정했다는 보도는 없었다. 또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파리강화회의에서는 그러한 결정을 한 일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조선의 독립을 확신했다.

그녀뿐이 아니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박애순이 모은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할 인원은 같은 학교 교사 1인과 학생 20여 인을 헤아렸다. 박애순의 조선 독립에 대한 확신은 같은 학교 동료와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만큼 그녀 개인만의 ‘착각’이 아니었다.

3월 9일 늦은 시각 박애순은 김강을 다시 만났다. 이날 그녀는 김강으로부터 독립만세시위가 다음날인 10일 오후 3시 반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또한 독립선언서 인쇄물 50장도 받았다.¹⁷⁶⁾ 박애순은 이제 학생들과 함께 시위행진을 할 것이었다.

이처럼 수피아여학교의 3·1운동 참가 준비에서 박애순의 역할은 상당히 컸고, 그녀의 활동은 김강과 관련이 있었다. 두 사람을 이어준 공통분모는 무엇이였을까. 이를 헤아리기 위해 광주 지역 독립만세시위 계획의 가장 첫 번째 시점으로 가보자.

광주의 독립만세시위운동 계획의 시발점은 나주 출신의 김복현(金福鉉)이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경성의 만세시위를 목격하고는 당시 배포되었던 ‘독립선언서’, ‘격문선언서’, ‘독립가’, ‘국민대소집청원서’ 등을 여러 매입수하여 전라남도에 배포하고 광주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리라 결심했다. 나주 사람임에도 광주에서 만세시위를 다짐한 것은 광주에 사는 김강과의 친분 관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복현은 광주에 오자마자 광주

175) 이 부분은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원문 서비스인 「박애순 외 76인 판결문」(大正8年刑 第558號, 「朴愛順 外 76人 判決文」)에 근거하여 구성했고, 별도의 각주 표기는 생략했다.
176)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원문 서비스, 「김복현 외 21인 판결문」(大正8年刑 第558-910號, 「金福鉉 外 21人 判決文」), 20쪽. 이하 「김복현 판결문」으로 칭함.

군 효천면에 거주하는 김강을 찾아갔다.¹⁷⁷⁾

김복현이 광주에 도착한 시점은 3월 6일이었다. 이날 그는 김강을 만나 독립만세시위를 논의했고, 두 사람은 만세시위에 학생층을 가담하게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대중시위 계획에서 학생은 주목받기 쉬운 존재였다. 같은 시간에 등교하여 같은 공간에서 일정 시간을 함께하는 학생층은 응집력이 큰 사회 집단으로 공동 행동을 이끌어 내는 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층으로 정의감이 크고 앞장서는 용기를 가진 집단이기도 했다. 김복현은 만세시위에 참가할 광주 지역 학생들을 모으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김강에게 부탁했다.¹⁷⁸⁾

이와 같은 경과를 거쳐 김강은 수피아여학교 교사 박애순을 접촉하게 되었다. 광주 지역 3·1운동에 참가한 학교는 수피아여학교 이외에 송일학교와 농업학교가 있었다. 기타 준비 사항은 시위 당일 배포할 독립선언서의 인쇄와 태극기의 제작이었다. 전자는 한길상(韓吉祥)과 최한영(崔漢泳)이 담당했고, 후자는 서정희(徐廷禧)가 담당했다.¹⁷⁹⁾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의 한 기사는 광주 독립만세시위를 보도하면서, 주요인물로 이 김복현, 김강, 최한영, 한길상,¹⁸⁰⁾ 박애순 5인을 거론했고, 나주 출신인 김복현을 제외한 남성들은 “광주 야소교학교의 졸업자”이고, 박애순은 “야소교학교의 여교사”라고 기록했다.¹⁸¹⁾

이 기사에 근거할 때, 김강은 광주 지역의 기독교 학교인 송일학교 출신이 거의 확실하다. 즉 그는 독립만세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송일학교 동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박애순은 시위 준비가 한창이던 1919년 3월 시점 수피아여학교의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여학교의 제1회 졸업생(1915년)이었다.¹⁸²⁾ 송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는 남장로교 학교에 해당했다.

결국 박애순과 김강을 연결해 준 매개체는 기독교였다. 한국 근대 역사에서 기독교는 교회와 학교를 통해 근대적인 것을 전달해 준 새로운 종교였다. 교회는 서구의 근대 문명을 전파했던 통로였고 한국의 전통적인 내외의 관습을 넘어 청년 남녀에게 공동의 활동 공간을 제공했으며, 학교는 근대 지식을 전파했다. 이처럼 수피아여학교는 기독교 네트워크를 통해 광주 지역 독립만세시위의 참여 주체가 될 수 있었다.

3월 9일 밤 수피아여학교의 독립만세시위 준비는 대체로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시위에 참여하기로 한 학생들이 있었고, 박애순은 김강을 통해 시위 현장에서 대중에게 나눠줄 독립선언서도 받았다.

177) 「김복현 판결문」, 14쪽.
178) 「김복현 판결문」, 15쪽.
179) 「김복현 판결문」, 17쪽, 22쪽.
180) 매일신보 기사에는 金復鉉과 朴吉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판결문 상의 金福鉉과 韓吉祥의 오기로 보인다. 본문에서는 판결문에 의거하여 표기했다.
181) 『매일신보』, 1919.4.17.
182) 광주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수피아 100년사』, 2008, 205쪽.

독립만세시위가 예정된 3월 10일 오전 수피아여학교는 마지막 시위 준비로 분주했다. 박애순은 학생 홍순남(洪順南)과 박영자(朴永子)에게 김강으로부터 받은 독립선언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홍순남과 박영자는 최경애(崔敬愛), 양태원(楊泰元)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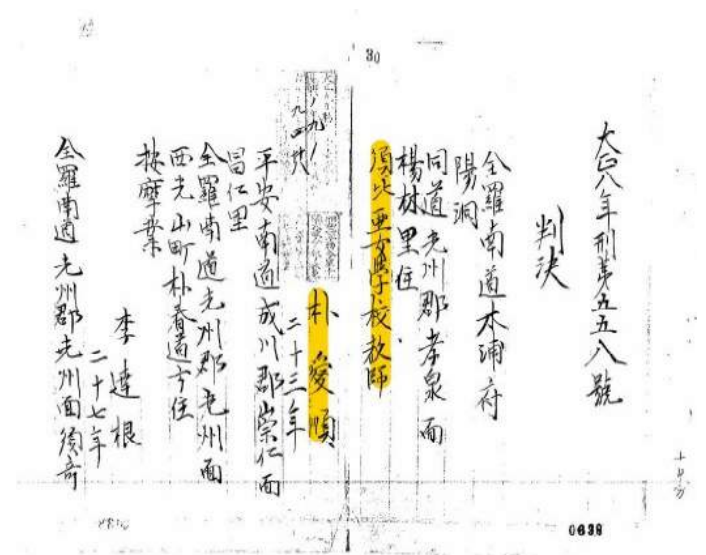
여학생들의 태극기 제작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 태극기 제작을 담당했던 서정희와의 접촉은 확인되지 않는데, 그는 독립만세시위에 사용할 태극기를 시위 시작 전에 광주교 아래에 운반해 놓았다고 한다. 여학생들은 독립만세시위에서 대한제국의 상징을 가지고 자신의 귀속감과 반일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광주의 독립만세시위는 세 무리의 출발로 시작되었다. 김복현·김강·서정희 등은 광주교에서 태극기를 대중에게 나누어 주면서 독립만세를 외쳐 시위의 시작을 알렸고, 모여든 군중과 함께 작은 시장으로 출발했다. 송일학교의 학생들과 수피아여학교의 박애순과 학생들도 학교가 소재한 양림리에서 작은 시장으로 왔다. 약속된 3시 반 작은 시장에 모인 대중은 천여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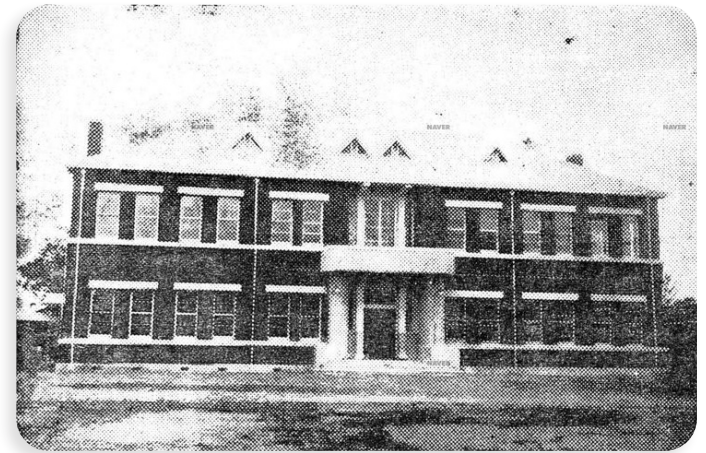
박애순과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은 무리와 함께 작은 시장에서 서문통(西門通)과 우체국까지 행진했고, 이 지점에서 구세군 지부로 향했다. 한편 여타의 무리는 우체국에서 본정통(本町通)과 북문 밖으로 가 누문리 방면에서 온 농업학교 학생들과 만난 후 다시 우체국으로 행진했다.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은 대중에게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그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거리를 행진했다. 광주의 여성들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치 행위인 거리 시위¹⁸³⁾를 통해 여성의 활동 공간을 가정 내로 엄격하게 제한했던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무력화시키면서,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여성의 존재감을 대중과 지역사회 앞에 드러냈다.

그러나 3월 10일 광주 여성의 독립만세시위 활동은 여성도 남성과 같이 ‘독립’이라는 구호 속에서 상상된 국가의 일원임을 보여주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새로운 모습이었던 여성의 거리 시위는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젠더 관계를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 여성해방론의 보급과 여성운동의 다양한 양태는 이를 증명했다.



박애순 판결문
 박애순은 수피아여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이후 같은 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1919년 3월 10일 광주지역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시위에 학생들과 함께 참가했고, 이 사건으로 검거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애순 판결문은 여성으로서 'O씨 부인'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정치행위를 한 정치주체로서 여성의 존재를 보여준다.
 *출처 : 국가기록원



수피아여학교(현 수피아여자고등학교)
 1935년 신축한 수피아여학교 물리학 교실의 모습
 *출처 : 『동아일보』 1935.10.22

183) 소현숙, 앞의 글, 398쪽.

3·1운동기 여성의 투쟁은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관습을 차별과 속박으로 인지하게 한 역사적 경험이었다. 이제 젠더 관계는 새롭게 구축해야 할 단계에 놓였다. 1920년대 들어와 전국적으로 조직된 여성단체들은 부자연스러워진 전통적인 젠더 관계를 혁파하고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고자 했다.

1919년 3월 10일 독립만세시위에서 수피아여학교 역시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여성의 존재감을 대중과 지역사회에 보여주었다. 여성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가 되었다.

이에 반응하듯 광주청년회는 여자야학을 여는 등 여성 문제에 관한 활동을 전개했다. 현실적으로 여성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였다. 여자야학은 여성 교육자들을 섭외해 운영되었다. 1920년 9월 1일 개학했고 김필례(金弼禮), 임자혜(林慈惠), 홍승애(洪勝愛) 등이 교사로 활약했다.¹⁸⁴⁾ 여자야학은 조선문, 한문, 산술, 가정학 등의 과목을 교육했고, 개학 시점 400여 명의 학생이 있었다.¹⁸⁵⁾

그리고 1년이 채 못 된 시점인 1921년 7월 30일 광주부인회가 조직되었고,¹⁸⁶⁾ 1924년 6월 18일 광주 여자기독교청년회도 창립되었다.¹⁸⁷⁾ 광주 부인회는 광주 지역 사회단체와의 연합으로 여성의 각성과 가정 생활 등에 관한 대중 강연 활동을 했고,¹⁸⁸⁾ 여자기독교청년회 역시 포교 활동과 함께 중앙의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YWCA]와 유사한 활동을 했으리라 여겨진다.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는 1923년 출범했고 축첩 폐지, 공창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문맹퇴치·생활개선·구습타파·부업 장려 등을 교육하는 농촌강습소를 운영했다.¹⁸⁹⁾

이처럼 1920년대 초반 광주청년회의 여자야학과 여성단체들의 활동은 신가정을 꾸릴 현모양처의 양성을 목적으로 했다. 광주청년회에서 운영한 여자야학에서 교수한 과목인 조선문, 한문, 산술, 가정학은 가계부 작성과 가정 운영을 위한 지식으로, 합리적인 가정 주부에게 필요했다. 또한 가정에 초점을 둔 여성단체들의 대중 계몽 활동 역시 광주청년회의 여자야학 활동과 궤를 같이했다.

이상 광주 지역의 여성 계몽과 현모양처 양성 활동은 대부분 김필례와 관련이 깊다. 그녀는 광주청년회가 운영하는 여자야학의 교사였고, 광주부인회의 임원이었으며,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의 창립자 중 하나였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신생활을 위한 가사노동의 효율화와 '가정의 내조'를 강조했다.¹⁹⁰⁾

3·1운동이 열어준 1920년대는 새로운 사회를 상상했던 시기였다.

184) 『동아일보』 1920.8.31.
185) 『동아일보』 1920.9.6.
186) 『동아일보』 1921.8.7.
187) 『조선일보』 1924.7.3.
188) 『동아일보』 1922.5.15.
189) 전경옥·유숙란·이명실·신희선, 앞의 책, 272~273쪽.
190) 『동아일보』 1924.1.1.

김필례 등 기독교 계통의 여성 리더들은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는 전통적인 가정 문화에서 벗어난 부부 평등의 신가정이 새로운 사회의 근원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근대적인 현모양처에서 찾았다. 이는 당시 신문화 건설이라는 이름 하에 남성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문화운동의 젠더 기획과도 유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운동의 실행단체격이었던 광주청년회와 김필례와 같은 여성 활동가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

현모양처 양성론은 남성과 여성을 상하 관계로 보는 전통적인 젠더 규범을 대체한 부부 평등의 신가정 건설론이었다. 상당수의 여성들이 첩으로 팔려가고 문맹이 극심했던 시절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부부 평등의 가정확립과 여성의 주체적 역할 수행을 위한 글과 셈 등의 기초 지식 교육은 건전한 것이었다. 또한 야학과 대중강연 형식의 교육과 계몽 활동은 교육의 기회가 지극히 제한된 조건에서 여성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젠더 차별적 관습에서 해방되는 주체로 서도록 돕는 적절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일반 여성에게 현모양처가 되어 신사회의 기초가 되는 신가정을 만들라는 주문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기도 했다. 경제난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정 안에 머물러 행복을 가꾸는 일은 꿈 같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김필례
김필례는 조선기독교여자청년연합회(YWCA)의 창립 멤버로 1920년대 초엽 광주 지역 여성운동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출처 : 『동아일보』 1929.1.2.

광주청년회에서 운영한 여자야학은 1921년까지 소식이 전해진다. 현실적으로 여자야학을 운영할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광주부인회 역시 1922년까지만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김필례 여사의 활동으로 광주에서 부인회라는 여자단체가 재작년에 발기되어 초기에는 성황을 이루었던 바 그후로는 점차 쇠퇴되어 지금은 여자단체가 없음과 같이 일부 신진여자 간에는 유감이던 바 2~3인 여자의 활동으로 지난 23일 오후 7시부터 광주 흥학관에서 광주여자청년회 발회식을 거행하였는데 의외에 대성황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광주여자계의 진보한 상태에 대해서는 일반이 경이히 생각한다더라
(『동아일보』 1923년 11월 26일.)

위 기사는 광주부인회의 활동이 점차 없어지면서 사실상 광주에서 여성단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광주부인회의 활동이 약해진 것은 김필례의 행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녀는 1923년 조선여자기독교청년연합회 결성 이래 경성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1926년 미국 유학길에 올라 이듬해 귀국한 이후에도 근우회 본부 활동 등 경성에서 활동했다.

이 기사는 광주부인회 활동의 쇠퇴와 더불어 1923년 11월 23일 광주여자청년회가 새롭게 발회했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광주여자계의 진보’로 기록했다. 상황이 진전되고 나아지는 상태를 표현하는 진보 개념은 칠패의 상태에서 다시 도약하는 광주 여성운동을 응원하는 표현이기도 했고, 현모양처 중심의 신가정 기획과는 다른 새로운 여성해방 기획의 출현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다.

광주여자청년회의 주요 활동은 여자야학의 관리였다. 실제 여자야학이 운영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1926년 1월 3일 광주여자청년회 위원회에서는 같은 달 11일에 개학할 것을 결정했다.¹⁹¹⁾

그러나 광주여자청년회의 여성 교육 활동은 1920년대 초엽 기독교 여성의 활동과는 방향을 달리했다. 광주여자청년회에서는 1926년 3월 8일 ‘국제부인데이’를 기념하는 대중강연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¹⁹²⁾ 오늘날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불리는 ‘국제부인데이’는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 참정권과 노동조합 결성권을 주장하면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1908년 3월 8일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당대 식민지 조선에서 ‘국제부인데이’ 기념은 여성운동이 ‘대중 본

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했다.¹⁹³⁾ 이는 근대적 여성상으로 현모양처를 제시한 기독교 계통의 여성운동이 ‘유산계급’, 즉 중산층 중심이라는 비판이 전체되었다. 이제 여성은 계급을 기준으로 사고되기 시작했고, 농촌이든 공장이든 가정 밖에서 노동해야 하는 여성의 존재가 부각되었다. 노동하는 여성을 위한 대중운동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이념적 토대로 삼았다. 즉 광주여자청년회의 ‘국제부인데이’ 기념 행사는 광주에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에 따른 여성운동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국제부인데이 기념 강연회 언론 보도
광주여자청년회가 1926년 3월 8일 국제부인데이 기념 강연회를 개최한다는 신문 보도이다. 국제부인데이는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의 정착을 알리려 한다.
*출처 : 『매일신보』 1926.3.14.

광주여자청년회의 활동가로 확인되는 인물은 김홍은(金洪恩)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홍은의 입장을 알려 줄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김홍은이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다. 당대 사회운동의 전망과 진단 등에 대한 평론은 지역 활동가보다는 중앙 활동가들에 의해 집필되었다.

따라서 김홍은의 문제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당대 발표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을 참고해 보자.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여성의 예측이 자본주의 경제 조직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성 해방을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파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게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의 역할을 가정에 고정시키는 현모양처론은 가정 밖에서 일해야 하는 여성에게 일터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혹사당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했다. 이에 따르면, 여성이 ‘가정·임금·성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현 체제를 근원적으로 타파하고 젠더 문제를 소멸시켜야 했다.

요컨대 사회주의 여성해방론은 가정으로부터 근원적으로 해방된 여성상을 제시했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근본적인 체제 변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에게 사회 발전의 동력은 여성 대중의 반자본주의 투쟁이었

191) 『동아일보』 1926.1.10.
192) 『매일일보』 1926.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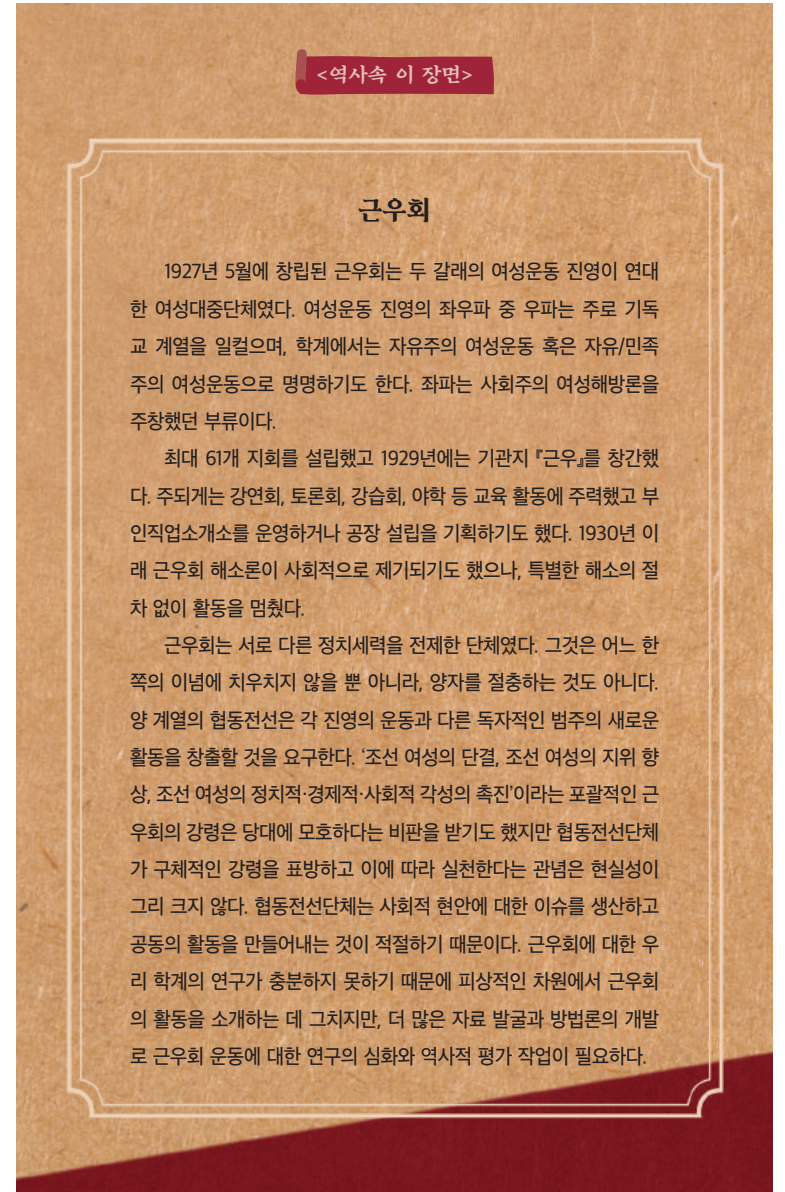
193) 『동아일보』 1925.3.9.

고,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여성이 해야 하는 일은 자본주의 체제에 속박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변혁 주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었다. 광주여자청년회의 여성 교육 활동이 전개되었을 법한 맥락은 이와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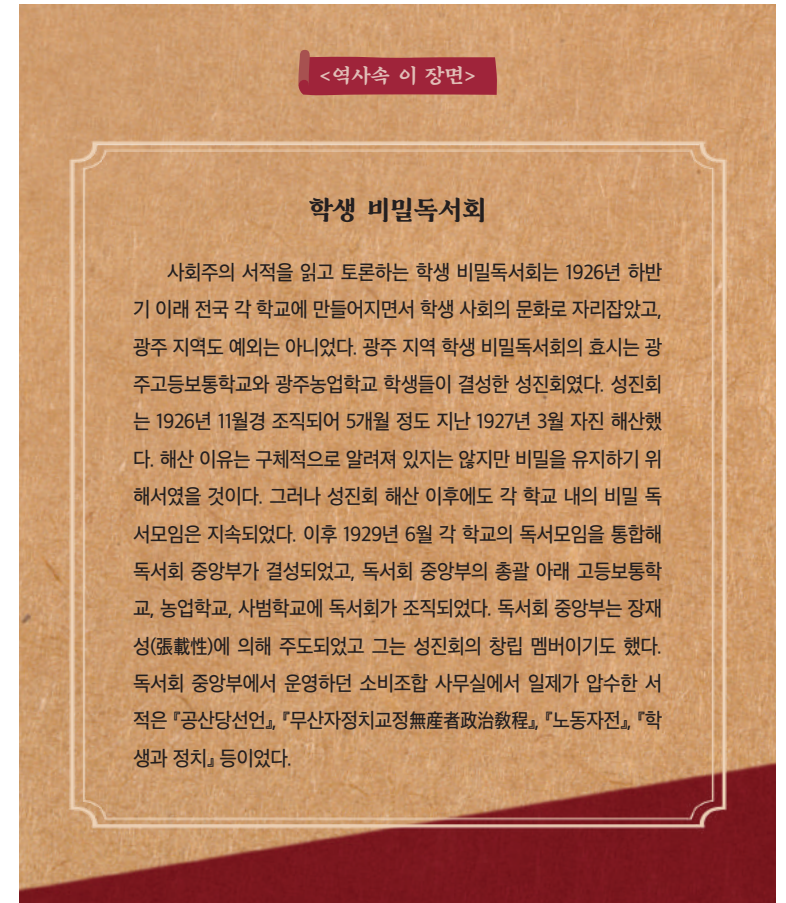
여성운동 방면에서 기독교 계통과 사회주의 계열 간의 경합은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양자의 연대로 1927년 5월 창립된 근우회 단체에서 두 운동은 경쟁보다는 협동을 통한 새로운 실천을 요구받게 되었다. 근우회가 창립된 이래 2년 정도 지난 1929년 5월 29일 광주에도 지회가 설립되었다. 근우회 광주지회는 현덕신(玄德信)과 김홍은이 중심이 되었다.¹⁹⁴⁾ 현덕신은 호남 최초의 여의사로 알려져 있고 당시 광주에서 병원을 경영하고 있었다.¹⁹⁵⁾ 그러나 광주지회는 거의 활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회의 활동을 보여주는 기록은 현재까지 거의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1920년대 광주의 여성운동은 사회 발전의 기초로서 부부 평등의 가정을 만들고자 한 기독교 계통의 여성운동에서 근원적인 사회 변혁을 제시한 사회주의 계통의 여성운동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속에서 각 각이 제시한 여성의 현재 과제는 가정 운영의 기초 지식 습득과 자본주의 요소와 싸우는 실천으로 매우 이질적이었고, 지향하는 여성상 역시 현모양처와 가정으로부터 근원적으로 해방된 여성으로 상호 대립적이기까지 했다. 즉 이 시기는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여성 정체성'들'을 형성하고자 경쟁하던 때였다. 이와 같은 경합은 근우회의 창립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지만 광주 지역에서 근우회 운동은 활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제 광주의 여성운동은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게 된다.

194) 『동아일보』 1929.6.16.
195) 『매일일보』 1927.10.30.



장재성은 일본 유학 중이었고, 1929년 6월 귀국 후 조직한 독서회 중앙부의 통제 범위에 광주여고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즉 장재성과 장매성은 각각의 문제의식에 따라 비밀독서회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속 이 장면>

학생 비밀독서회

사회주의 서적을 읽고 토론하는 학생 비밀독서회는 1926년 하반기 이래 전국 각 학교에 만들어지면서 학생 사회의 문화로 자리잡았고, 광주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광주 지역 학생 비밀독서회의 효시는 광주고등보통학교와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이 결성한 성진회였다. 성진회는 1926년 11월경 조직되어 5개월 정도 지난 1927년 3월 자진 해산했다. 해산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비밀을 유지하기 위 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성진회 해산 이후에도 각 학교 내의 비밀 독서모임은 지속되었다. 이후 1929년 6월 각 학교의 독서모임을 통합해 독서회 중앙부가 결성되었고, 독서회 중앙부의 총괄 아래 고등보통학교, 농업학교, 사범학교에 독서회가 조직되었다. 독서회 중앙부는 장재성(張載性)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는 성진회의 창립 멤버이기도 했다. 독서회 중앙부에서 운영하던 소비조합 사무실에서 일제가 압수한 서적은 『공산당선언』, 『무산자정치교정無產者政治教程』, 『노동자전』, 『학생과 정치』 등이었다.

다음으로 광주여고보가 여타의 사회단체와 지리적으로 밀접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광주여고보 외에도 광주고등보통학교, 사범학교, 농업 학교 등 광주 지역 조선인 중등교육기관은 모두 광주면에 위치했고, 이와 같은 지식층 양성의 중심지였던 광주면은 광주 지역 청년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했다.²⁰⁰⁾ 광주면에 소재한 흥학관은 광주청년회를 비롯해 신간회 광주지회 등 대부분의 광주 지역 사회운동 단체의 사무실이 있었던 곳이었다. 광주여 자청년회도 흥학관에서 회합을 했다. 즉 중등교육을 받은 인력이 사회운동으로 배출되고, 사회운동의 활성화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는 곳이 광주면이었다. 광주여고보 학생들의 생활 환경이 당대 지역사회운동과 가까웠다는

200) 이애숙, 『1920년대 전남 광주 지방의 청년운동』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 연구반 지음, 『한국 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 237쪽.

1928년 11월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이하 광주여고보) 학생 6명은 소녀회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했다.¹⁹⁶⁾ 처음 회합에 참가한 이들은 장매성(張梅性), 박옥련(朴玉連), 고순례(高順禮), 장경례(張慶禮), 암성금자(岩城錦子), 남협협(南俠俠)이었다. 이 모임은 이후 박계남(朴繼男), 박채희(朴采熙), 박현숙(朴賢淑), 김금연(金錦嫵), 김귀선(金貴先) 5명의 학생을 더 충원했다.

이들은 식민지의 여성에 대해 고민했다. “여성은 가정인으로서 남성으로 인해, 무산대중으로서 자본계급으로 인해, 조선민족으로서 일본 제국주의로 인해 삼중의 억압”을 받고 있기에, 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공산주의를 연구하기로 협의”했다. 식민지 현실의 여성이란 어떤 존재이고 여성으로서 자신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회주의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다.

소녀회 멤버들은 매월 10전의 회비를 모아 팜플렛을 사서 읽었다.¹⁹⁷⁾ 기록상의 ‘팜플렛’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여성 문제에 관한 사회주의 관련 잡지나 소책자를 말하는 듯하다.

이 학생들에게 ‘팜플렛’ 류의 지식 세계는 낯선 것이었다. 일제의 여학생 교육은 가사, 수예, 재봉 등에 초점을 둔 ‘부덕’을 갖춘 현모양처 양성을 목적으로 했다.¹⁹⁸⁾ 단 일제의 교육은 식민지 체제의 유지 재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기독교 계통의 여성운동가들이 한국인의 미래를 위해 제시한 현모양처론과는 달랐다. 양자가 본질적으로 대립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질적이지도 않았다. 기독교 계통의 여성운동이 구습으로부터의 해방과 젠더 평등한 신문화 형성을 통한 독립국가를 지향했다면, 일제의 여학생 교육은 일본 제국의 ‘국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소녀회의 멤버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부덕, 즉 주어진 역할과 사회적 요구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여성의 덕’을 거부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회합의 리더격인 장매성의 방에 모여 현 사회보다 더 나은 사회로 진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을 접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고자 했다.

소녀회는 다른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여학생들만의 비밀독서회였다.¹⁹⁹⁾ 광주여고보에서 비밀독서회가 조직될 수 있었던 이유와 관련해서 우선 소녀회 결성을 주도한 장매성을 주목해야 한다. 장매성은 광주 지역 독서회의 시초인 성진회(1926년 11월)의 창립 멤버 장재성의 여동생이었다. 장재성은 이후 1929년 6월 광주 지역 각 학교의 독서모임을 총괄하는 독서회 중앙부 조직을 주도했다. 장매성은 장재성과의 지적 교류를 통해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을 키웠을 수 있다. 그러나 소녀회의 결성과 장재성간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무엇보다도 소녀회가 조직되었던 1928년 11월

196) 이 부분은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원문 서비스의 「장매성 등 판결문(昭和5年刑公 第45號, 『張梅性 等 判決文』)에 근거하여 구성했고, 이하 별도의 출처 표기는 생략했다.
197) 『조선일보』, 1930.9.28.
198) 일제의 현모양처 교육에 대해서는, 홍양희, 『일제시기 조선의 여성 교육-현모양처교육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5, 한양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01 참조.
199) 민진영, 『일제하 광주의 여학생 조직과 여성교육』 『호남문화연구』 4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9, 125쪽.

소녀회
비밀독서회,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소녀회가 결성된 지 1년 정도 지난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나주에 거주하면서 광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하교길이었다. 처음 사건은 광주중학교의 후쿠다 등 3명의 일본인 학생들과 광주여고보의 박기옥(朴己玉), 이광춘(李光春), 암섬금자 3명의 여학생들 사이에 일어났다. 이 사건의 경과를 좀 자세히 보기 위해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박기옥의 사촌동생 박준채(朴準燾)와 후쿠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주역 사진
존엄의 훼손
희롱이 아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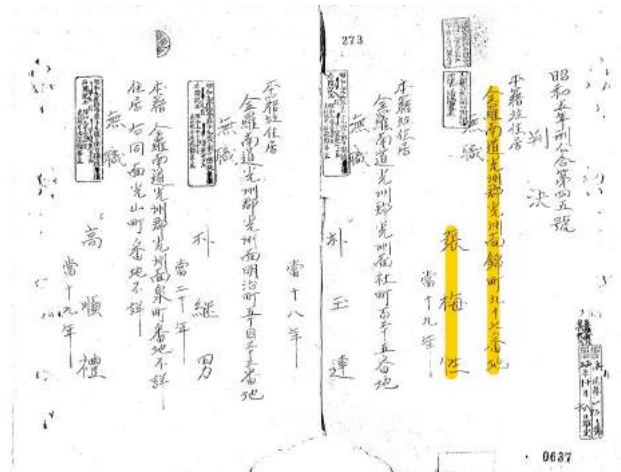
- ▶ 박준채 : 10월 30일 오후 5시 35분 도착의 기차로 나주역에 도착하여 개찰구로 가는데 내 앞에 있던 중학생 3명 중 후쿠다가 그 앞에 있던 나의 누이인 여고보생 박기옥의 뒤에서 어깨를 건드리면서 개찰구를 나가는 것을 보았다. 다시 대합실을 나갈 때 3인의 중학생은 나의 누이 및 그의 동료 여고보생 2명 앞으로 나가서 후쿠다가 누이 어깨를 건드리는 것을 보고 역전에 나와서 후쿠다에게 그것을 말하고 실례라고 했다.²⁰¹⁾
- ▶ 후쿠다 : 3, 4세쯤 되는 조선인 어린이가 통로에 있으므로 스에요시가 멈추어 서서 그것을 피하여 개찰구를 나오고, 나도 그 뒤에 따라 나왔다. 말하기를 개찰구를 나올 때 스에요시가 멈추어 서서 어린이를 피할 때 뒤에서 여고보생도 3인 정도 온 것을 고보생들은 스에요시가 고의로 여생도의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 생각하여 싸움이 된 것을 알았으므로 스에요시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므로 싸움을 그만두면 좋겠다고 했다.²⁰²⁾

양자의 진술은 차이가 크다. 박준채는 일본인 남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들의 뒤에 있었다고 했고, 후쿠다는 조선인 여학생들이 뒤에 있었다고 했다. 박준채의 진술처럼 여학생들이 앞에 있었고 일본인 남학생들이 뒤에 있었다면 고의로 여학생들과 불필요하게 접촉한 것이다. 한편 후쿠다의 진술처럼 아이를 피할 때 뒤편에서 여학생들이 온 것이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된다. 요컨대 박준채는 이 사건에서 조선인 여학생들에 대한 일본인 남학생들의 의도적 괴롭힘을 문제 삼았고, 후쿠다는 우연한 사고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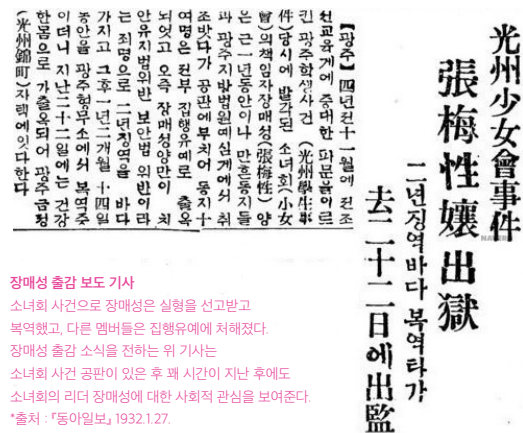
대체로 조선인 언론은 박준채의 진술과 유사하게 이 사건의 본질을 일본인 남학생의 고의로 보도했고, 최종적인 판결문에는 후쿠다의 진술과 유사하게 사고로 기록했다. 가령 동아일보에서는 “나주에서 통학하는 일본인 학생 다나카, 후쿠다, 스에요시 등 3명이 앞을 막고 조롱을 함으로”라고 보도되어,²⁰³⁾ 의도적인 길막음으로 보도했다. 반면 판결문에서는 “스에

201) 『박준채 신문조사』, 1929년 11월 9일,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0, 2002, 310쪽.
202) 『중인 후쿠다 신문조사』, 1929년 11월 9일,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13쪽.
203) 『동아일보』 호외, 1929.12.28.

점은 여학생 비밀독서회의 조직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효천면에 위치한 수피아여학교에 독서모임이 없었다는 점과 대조된다. 소녀회 멤버들은 1928년 시점 적게는 15세에서 많게는 18세 정도로 추산되는데, 한국이 식민지화된 이후에 태어난 이들로 과거 대한제국과 3·1운동을 겪고 1920년대 활동한 이들과는 세대를 달리했다. 이 젊은 세대는 1920년대 사회운동이 준 충격 속에서 비밀독서회를 만들었고 당대 범람한 사회주의 여성해방론 등 다양한 사조를 탐구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했다.



여학생 비밀독서회 소녀회 판결문
장매성 등 여학생 비밀독서회 소녀회 관계자들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판결문으로, 광주군 광주면 금정 97번지 장매성의 방이 소녀회 모임의 장소였다.
* 출처 : 국가기록원



장매성 출감 보도 기사
소녀회 사건으로 장매성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다른 멤버들은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장매성 출감 소식을 전하는 위 기사는 소녀회 사건 공판이 나온 후 꽤 시간이 지난 후에도 소녀회의 리더 장매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준다.
* 출처 : 『동아일보』 1932.1.27.

요시가 조선인 학생을 피하기 위하여 공립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의 앞을 옆질러 가는 것을 목격하고”라고 기록했다.²⁰⁴⁾

이 사건은 소위 ‘댕기머리 사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아있는 여러 기록에 댕기머리를 당긴 사실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학계에서는 이 사건을 댕기머리 사건으로 파악하지는 않는다.²⁰⁵⁾ 또한 남아 있는 기록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깨 터치 여부 역시도 진위를 따지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나주역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여학생들의 발언이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타진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에 한정해서 파악할 때, 나주역 사건은 현상적으로 보면 일본인 남학생과 조선인 여학생의 신체가 부딪친 혹은 부딪칠 뻔한 사건이었고, 당대의 쟁점은 고의 여부였다.

그러나 고의 여부를 떠나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조선인 여학생들에 대한 일본인 남학생들의 민족적·성적 모멸 사건이었다. 박준채의 진술과 조선인 언론의 보도처럼 일본인 남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졌거나 앞길을 의도적으로 막으면서 놀렸다면 분명한 성적 괴롭힘이다. 또한 후쿠다의 말과 판결문의 기록처럼 우연한 사고로 부딪쳤거나 앞길을 막게 된 것이었다고 해도 당황했을 여학생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혹은 실례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 아무 일도 없었던냥 지나치려 하는 행위는 약소민족 여성에 대한 멸시의 표현이다.

나주역에서 피해 여학생들의 대응은 어떠했을까. 이들의 대응은 기록의 행태든 기억의 형태든 확인되지 않는다. 기록과 기억의 누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이들의 대응 여부를 성급하게 확정하기 어렵다. 어쨌든 기록과 기억은 이들의 침묵을 보여주고 있으며, 침묵을 둘러싼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건은 빠르게 전개되었다. 10월 30일 사건 당일 박준채의 항의, “조선인 주제에”라는 일본인 학생의 응답, 일본인 순사의 개입과 박준채에 대한 폭력, 10월 31일 통학열차 안에서의 말다툼, 11월 1일 광주역에서 벌어진 광주고보 조선인 남학생들과 광주중학교 일본인 남학생들 간의 집단 싸움, 11월 3일 길에서 만난 고보생들과 중학교 학생들 간에 다시 벌어진 집단싸움, 같은 날 조선인 학생들의 시위운동(이하 광주학생시위)과 검거, 11월 12일 제2차 광주학생시위와 그 이후의 전국 학생시위의 확산으로 말이다.

우리가 광주학생운동이라고 말하는 역사적 사건은 11월 3일 제1차 광주학생시위에서 이듬해 초까지 이어진 전국 학생운동을 일컫는다. 우리

204)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광주학생독립운동사』, 국제문화사, 1974, 134쪽.
205) 김성민, 『1929년 광주학생운동』, 역사공간, 2013, 192쪽.

의 인식 속에서 광주학생운동은 민족 차별에 대한 항거이며, 나주역 사건은 이 역사적 사건의 발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당대 여론에 기인한다. 당시 언론은 일본인 학생들의 근거 없는 조선인에 대한 멸시와 조선인 학생에게 편파적인 태도로 상황을 봉합하려 했던 일본인 경찰의 태도 등을 책망하면서 11월 3일 광주학생시위는 일본의 ‘부당한 민족적 우월감’이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²⁰⁶⁾ 또한 이는 전국 학생들의 공감을 샀다. 학생들은 11월 3일 조선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이 싸웠음에도 조선인 학생만을 검거한 것은 부당하다 혹은 편파적이다라며 분노했다.²⁰⁷⁾ 이와 같은 공분은 광주학생운동 전국화의 한 요소이기도 했다.²⁰⁸⁾

이처럼 광주학생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민족 차별 이슈가 중심 여론을 형성했기 때문에 나주역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젠더 이슈는 부각되지 못했다. 또한 당시 여학생들도 젠더 이슈를 제기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광주학생운동의 주변에서 약소민족 여성으로서 멸시받은 자존감을 다양한 형태로 회복하고자 했다.



나주역
나주역은 1929년 10월 30일 일본인 남학생의 조선인 여학생 회롱 사건의 현장으로, 메타 역사의 차원에서는 광주학생운동의 발단이 된 민족 차별의 현장으로 이해되지만, 이 사건의 당사자 박기욱, 이광춘, 암성급자의 입장에서 존엄성을 훼손당한 장소였다. 사진은 옛 나주역을 복원한 것인데, 복원 대상 시기는 미상이다.
*출처 : 독립기념관

206) 『동아일보』 1929.11.6.
207) 『치재정 외 11명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사건 공판조서(제삼회)』, 1931년 3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4쪽.
208) 류시현, 『광주학생운동과 전국적 공감의 감성』, 『홍남학』, 49,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1.

더 이상
침묵당하지 않겠다
암성금자의 활동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침묵'한 또는 '침묵'당한 여학생들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광주학생운동의 한복판에 있었다. 광주학생운동은 학생층의 거리 시위 투쟁이 특징이었다. 기존 학생들의 투쟁 양상에서 교문을 벗어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는 학생운동의 이슈가 주로 교내 문제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광주학생운동 시기 전국 학생들이 공유한 이슈는 조선인에 대한 식민당국의 차별 대우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시위는 교문을 넘어 거리로 향했다. 이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운동에 자신을 드러냈는지 살펴보자.

10월 말 이래 계속된 조선인과 일본인 학생들 간의 충돌로 11월 3일 광주학생시위가 벌어졌다. 그리고 한 기사는 여학생 비밀독서회 소녀회의 활동을 아래와 같이 전했다.

작년 11월 3일에 광주역 앞에서 조선인 광주고보 생도, 일본인 광주중학교 생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부상 남학생들을 구호하고 응원하든 광주여고보 생도 장매성 이하 11명에 대한 소녀회 사건은 ...
〔동아일보〕 1930.9.29.)

이 기사에 따르면, 소녀회 회원 “장매성 이하 11명”은 “부상 남학생들을 구호하고 응원”했다. 이 11명 중의 한 명이 나주역 사건의 암성금자였다.

암성금자는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 담양 국씨는 일본인 남편 사이에 암성금자를 낳고 사별했다. 그리고 나주 상공인 이기성(李基性)과 만나 이광춘을 낳았다. 암성금자와 이광춘은 같은 어머니를 둔 자매였다.²⁰⁹⁾ 암성금자는 일본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조선인으로 키워졌다. 그녀는 조선인이 다니는 광주여고보에 입학했고 1928년 11월 이 학교 비밀독서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식민지 여성이라는 자각 하에서 정체성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나주역에서 일본인 남학생으로부터 조선인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희롱 또는 멸시받았다.

소녀회가 조직적 차원에서 젠더 이슈를 생산하면서 거리로 나간 것은 아니었다. 암성금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암성금자는 수동적일 것을 요구하는 젠더 규범의 벽을 넘었다. 그녀는 나주역의 '침묵'을 깨고 시위 학생들을 응원했다. 구체적인 자신의 언어는 아니었지만 일본 당국의 불공정한 처사에 대한 항의의 시위를 돕는 행동은 일본인 남학생들의 민족적·성적 오만으로 손상당한 식민지 여성의 인격을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였다.

회피라는 형식의 젠더 규범 안에 암성금자가 머물러 있었다면 상처도 남겨질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사건에 직면하고 행동함으로써 자존감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냈다. 1년 가량 소녀회의 독서 모임을 통한 암성금자의 정체성 모색은 학생들의 거리시위 지원이라는, 여학생으로서는 낯선 행위로 결산되었다.



암성금자
암성금자는 광주여고보 학생으로 비밀독서회 소녀회의 회원이었고,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 사건의 피해 당사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11월 3일 광주학생시위 지원 활동을 통해 식민지 여성으로서 손상받은 자존감을 회복했다.
* 출처 : 『매일신보』 1930.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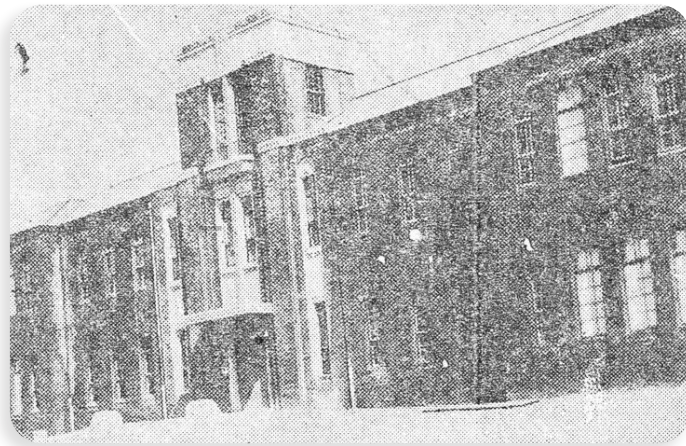
209) 암성금자에 대해서는, 박찬승, 『1·3학생독립운동과 나주』, 박찬승·박만규·김민영·고석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나주』 경인문화사, 2001, 20~21쪽.

1930년이 되면서 광주 지역에서는 학생시위가 진정되고 휴교했던 학교들에서는 개학과 함께 광주학생시위의 '소란' 속에서 치르지 못한 시험이 시작되었다. 이때 광주 지역 남녀학생들은 구속 학생과 함께 시험을 치를 때까지 시험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백지 답안지를 내기로 하고 백지동맹을 결성했다.²¹⁰⁾ 광주여고보는 이에 동참했다.

그리고 당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여고보의 백지 답안지 제출을 독려한 이는 나주역 사건의 이광춘이었다. 시험 당일 이광춘은 "최후까지 분투하여 목적을 관철하라"는 연설을 했다고 한다.²¹¹⁾

백지 답안지 제출을 호소하는 연설 행위는 인상적이다. 이광춘은 나주역에서 '침묵'했고 광주학생시위를 외면했다. 그러나 1929년 11월 두 차례의 광주학생시위를 거치면서 무수히 발생한 구속 학생은 그녀로 하여금 언행을 삼가야 한다는 쟌더 규범을 파괴하게 했다.

또한 이광춘의 호소로 광주여고보 여학생들의 백지 답안지 제출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녀는 나주역 사건을 시작으로 광주학생시위까지 이 역사적 사건에 개입하지 못했던 광주여고보 여학생들의 집단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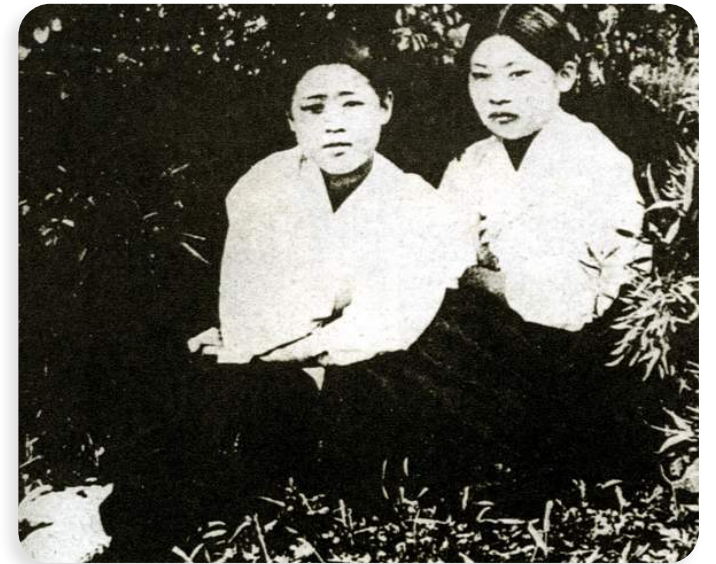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현 전남여자고등학교)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는 1930년 1월 백지동맹으로 일제 하 학생운동사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 사진은 1928년 4월에 완공된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이다.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는 1927년 4월에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처음에는 교사가 없어 광주고등여학교 교사의 일부를 빌려 수업을 진행했다.
* 출처 : 『동아일보』 1928.4.28.

이어서 1930년 2월 나주역 사건의 마지막 당사자인 박기옥은 자퇴했다. 당시 그녀는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큰 인물이 된다 해도 다수 동무가 고생하는 생각을 하면"이라고 소감을 말했다.²¹²⁾ 이처럼 박기옥은 쟌

더 규범을 교육하고 재생산하는 일체의 교육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퇴서를 작성했다.

박기옥의 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동기 역시 이광춘과 마찬가지로 구속 학생에 대한 동정이었다. 이광춘과 박기옥은 나주역에서 식민지 여성으로서 받은 민족적·성적 모멸감에서 도피했지만, 광주 지역 시위에 참여한 다수 학생들의 구속과 함께 다시금 이 문제와 마주했다. 이들은 반일 학생시위 속에 녹아버린 침해당한 식민지 여성의 자존심을 징계를 각오한 연설·자퇴라는 몸매 익숙한 쟌더 규범을 끊어내는 방식으로 회복해 갔던 것이다. 광주학생운동은 민족사의 견지에서 대표적인 항일운동으로 손꼽히지만, 나주역 사건의 피해자였던 평범한 여학생들에게 그것은 성인이 되는 길목에서 주체로 서게 해준 성장통과 다름없었다.



이광춘과 박기옥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 사건의 피해 당사자들로, 이광춘은 1930년 1월 백지동맹 동참 호소 연설을 통해, 박기옥은 같은 해 2월 자퇴를 통해 식민지 여성으로서 입은 상처를 스스로 치유했다.
* 출처 : 독립기념관

210) 『조선일보』 1930.1.15.
211) 『조선일보』 1930.1.15.
212) 『조선일보』 호외, 1930.2.26.

이 글은 우리 근대 역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3·1운동에서 광주학생운동 시기 까지 광주 지역 여성의 항일운동 경험을 살펴보았다. 여성의 저항은 집단적이기도 했고, 개인적이기도 했다.

광주의 수피아여학교 교사 박애순과 학생들은 1919년 3월 10일 독립만세시위를 통해 남녀의 동등함을 지역사회에 보여주면서 남성애 종속된 여성 이미지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이는 새로운 여성상의 창출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1920년대는 그 이상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 기독교 계통의 여성운동가들은 부부 평등의 신가정과 이를 운영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현모양처상을 제시했다. 반면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은 젠더 불평등의 근원적 학파를 사고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을 지향했다. 이 속에서 여성은 계급에 따라 사고되었고, 사회주의 여성 리더들은 노동하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자본주의 체제 모순 속의 억압적 상태를 각성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계통의 여성운동과 사회주의 여성운동은 매우 이질적이었지만, 전반적인 민족·사회운동이 민족협동전선운동 단계로 진전해 감에 따라 양 계열의 운동은 각자의 이념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범주의 공동 활동을 기획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광주지역에서 이 부분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근우회 광주지회는 1929년 5월 설립 이래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우회 광주지회 활동의 소극성이 광주 여성운동의 침체를 의미하지 않았다. 기성세대의 활동 부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대는 여성 문제를 고민하면서 자신들만의 소통 창구로서 비밀독서회를 조직했다. 그것은 광주여고보 11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소녀회로, 소녀회의 탄생은 1920년대 바람직한 여성상을 둘러싼 여러 논쟁과 다양한 활동의 결과였다. 1920년대 범람했던 여러 여성해방 사조와 논쟁은 대한제국을 겪지 못하고 3·1운동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여학생들이 새로운 사회를 꿈꾸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게 한 촉매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느닷없이 나주역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조선인 여학생에 대한 일본인 남학생의 민족적·성적 모멸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해자였던 암성금자, 이광춘, 박기옥은 사건 현장에서 '침묵'했고, 이 사건은 여러 국면을 거쳐 조선인 학생들 사이에 민족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거대한 항일시위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광주학생운동의 파고 속에서 나주역 사건의 피해 여학생들

은 말을 아끼고 몸을 삼가야 한다는 젠더 규범에서 벗어나 식민지 여성이기 때문에 겪은 자존감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했다. 암성금자는 시위 학생을 응원하는 형식으로, 이광춘은 백지동맹 동참 연설의 형식으로, 박기옥은 자퇴의 형식으로 말이다. 이들은 자신의 아픔을 '침묵'하면서 인내하기보다는 행위로써 치유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민족사에서 일제 하 광주학생운동은 대표적인 항일투쟁으로 우리 민족의 외침 극복의 역사적 경험으로 비중있게 교육되고 소비되어 왔다. 그러나 나주역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그것은 젠더 규범에서 해방되어 주체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경험이었다.

요컨대 광주 지역 여성들의 항일운동 경험은 젠더 규범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새로운 젠더 관계를 향한 여정이었다.

六章

광주여성, 침략전쟁에 갇히다

식민체제와 여성동원

전쟁은 전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광풍에 빨려 들어간 모든 이가 전장에 있는 것이다.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을 명분으로 식민지 조선의 물적, 인적 자원을 수탈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고, 광주여성 또한 이러한 동원령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장에서는 식민체제가 조선여성을 동원해온 전국적인 전시체제 속에서 광주여성고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것이다. 조선 여성을 군국의 어머니로 만들고자 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구호는 그 자체가 폭력적이고 성차별적이며, 그렇기에 그들의 언어를 읽어내기가 쉽지 않고 그 피해경험에 직면하는 것 또한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여성이기 때문에 겪었던 역사적 피해를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피해 경험을 피해라 말하지 못하는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했을 때만 우리는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것 아닐까.

상흔과 성장
피해와 협력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쟁기간 동안 여성들은 노동력 혹은 성(性) 동원을 당하며 혹독한 수난을 겪었다. 전쟁은 여성뿐만 아니라 대개의 기층 민중에게 고난의 시기이지만, 여성에 가해진 전쟁 피해는 대단히 심각한 상흔을 남기고 있다. 여전히 현재적 문제로 남아있는 '군위안부'나 '여자근로정신대'의 동원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전시 여성들의 모습이 단일한 것은 아니다. 여성들은 강제·반강제의 동원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관제 단체에 앞장서 참여하기도 하고 일제가 주장하는 '성전(聖戰)'에 대한 각오를 내기도 하였다. 일부 여성들은 사회적 발언을 자신의 기회로 여기고 전쟁 참여를 독려, 일제에 협력하기도 하였으며, 또 다른 여성들은 자신들의 존재 위치를 확인하고 성장해 갔다. 광주의 여성들 역시 그 자장 안에 존재하고 있다.

전시에 여성들은 병사를 전장에 기꺼이 내보내는 어머니로서 혹은 전장에 불려나간 남성의 보조 노동력으로 군수물자 생산과 농업 활동에 종사할 것이 요구되어졌다. 또 결혼, 출산 등 사적인 영역은 전력 증강의 일환으로 '국가'에 의해 통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조선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전시 총동원 체제 속에서 조선의 인적 물적자원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취급되었고, 자발적 동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내선일체', '황국신민' 등의 전쟁 동원 논리가 일상생활 전반을 압도하였다. 전시 여성들의 경험은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일제의 동원 정책이 강력한 규정력으로 작동하였다. 전쟁 동원논리와 동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전시 이전과 이후 여성의 일상을 구분짓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계기이다. 전시에 여성들은 가정 밖으로 나올 것이 요구되어졌다. 다소간 예외적이었던 국가주의는 여성의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 여성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제 '국민'의 일원으로 포섭되었다. 단, 전쟁에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따라 차별적이다. 이 가운데 광주 여성들의 삶의 궤적이 존재한다.

생각하라
'성전聖戰'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광주 여성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마을에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관제조직의 하부단위에 편재되어 활동하는 것이었다.

일본제국은 1938년 7월 중일전쟁 1주년에 맞추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이하 정동운동)을 전개하였다. 운동에 맞추어 조직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1940년부터 '국민총력조선연맹')은 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총후 역할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일상 동원의 추진체였다. 조선연맹 아래에는 각 지방행정의 장이 책임자가 되어 도연맹, 읍면연맹, 부락연맹까지 조직되고 그 아래 10호 단위로 애국반을 두었다. 1941년에 광주부의 애국반수는 644개, 반원 12,986명이었고, 현재 광주시에 편입되어 있는 광산군은 애국반 1,469개, 반원 18,994명이었다.²¹³⁾ 이 속에 절반 정도는 여성인구에 해당한다.

조선에서 정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황국신민화를 통하여 완전한 내선일체화를 달성하는 것에 있었다. 조선인들을 완전한 일본인, 일본의 전쟁 수행에 순종하는 천황의 신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일본제국은 전쟁을 통하여 기존 세계질서를 전복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대동아공영권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대동아전쟁'은 세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논리가 만들어졌다. 전쟁은 황도(皇道)정신에 기초한 도의적 질서를 건설하는 것이고 대동아에 영원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였다. 또한 전쟁은 단순히 일본국가 일본민족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 최고의 '도'(道義)를 위한 전쟁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²¹⁴⁾ 이 논리 속에 일본 제국의 식민지배는 사라지고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서구 제국의 침략아래 놓인 공동운명체가 된다.²¹⁵⁾ 구미 열강에 맞서 일본이 싸우는 것은 '성전(聖戰)'으로 이름 붙여졌다.

일본제국은 조선인이 적으로 설정된 미국과 영국을 제거하고 '세계 평화'를 달성하는 전쟁에 일조해야만 일본 '국민'으로 통합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무엇보다 대동아 해방전이라는 '성전'을 치루고 있는 일본 제국에 대해서 보은관념 즉 황민적 감사의 관념을 가져야만 했다. 학교에서 혹은 지역 단위에서 행해지는 매일 아침 일본 천황을 향한 목례,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 낭송 같은 행사는 일상 속에서 전쟁의 정당성을 각인시키고 황도정신을 체득하게 하는 의식이었다. 정동연맹 애국반은 전쟁논리를 설파하고 전시 여러 실천사항을 관철시키는 중심기구였다.

213) 전라남도, 『전남도세월반』, 1940, 83쪽
 214) 石本滿四郎(총독부정보과조사관), 『國體の本義と道義朝鮮』, 『국민총력』, 1942.4.9
 215) 김경일, 『제국의 시대와 동아시아 연대』 창비, 2011, 337쪽



신사참배 후 행진하는 여학생들
 광주신사(현 광주공원 현충탑자리)에서 신사참배를 마치고 대열을 갖추어 나오고 있다. 전시 몸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들고 있는 깃발에는 일장기가 선명하다.
 *출처 : 전남여고 편, 『전남여고 80년사』, 2007.

여성들은 전장에서 병사로 중책을 담당할 자녀의 어머니로 또 일선에서 활동하는 남성을 대신하여 총후 생산전을 담당할 주체로 ‘교화’, ‘계몽’되어야 했다. 특히 전시 물자부족에 기여할 소비절약과 저축, 국채 모집, 군수품 공출 등은 가정생활의 중심인 여성들이 앞장서야 할 일이었다. 여성들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전시 국책사업에 협력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식민 권력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여성의 ‘교화’ ‘계도’는 학교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지만, 조선인 여자의 초등학교 취학율은 1937년 14.3%에 불과하였다. 문자해독율이 낮고 라디오도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여자는 남자에 비해 교화 대상에 포섭되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조선 여성은 ‘무식’하면 할수록 존재 그 자체가 식민권력에게는 정책 수행상의 ‘장해’가 되었던 것이다.²¹⁶⁾

1942년 5월 전라남도 도지사는 광주부윤과 각 지역 군수에게 ‘부인계발운동을 철저히 할 것’을 시달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덕의 함양, 여자의 육성, 생활쇄신 개선과 근로의 촉진’ 등이었다.²¹⁷⁾ 여기에서 부덕함양이라는 것은 황민화된 여성을 의미하고 여자의 육성은 총력전에 앞장설 여성으로 교화 계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도지사는 정동리 부락연맹에 부인부를 두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광주부에서는 주부 상회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였다. 애국반에 여성 특히, 주부 중심의 상회를 열게해서 시국인식을 높이고 전시 국책사항을 시행하려는 것이었다. 전남도지사가 언급

216) 金富子, 『植民地朝鮮における女子教育』, 동경학예대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68쪽
 217) 鈴木裕子 외 편,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下)』, 明石書店, 2006, 320쪽~352쪽

한 내용에서 여성 ‘계발’에는 국어(일본어)강습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1940년 광주의 거주민 중 일본어 이해 능력에서 보통 회화가 가능한 조선인은 남자 6,547명, 여자 2,156명 합 8,703명이었다.²¹⁸⁾ 광주전체 인구의 약 17%에 해당한다. 인구 절반씩이 남성과 여성인구라고 할 때 일본어 회화 가능한 남성은 25%, 여성은 약 8% 정도였다. 광산군은 남자 4,130, 여자 484명, 합 4,614명으로 여성의 일본어 회화가능한 사람은 1%에 불과하다. 일본어 해독 능력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식민권력은 여성들에게 일본어를 습득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안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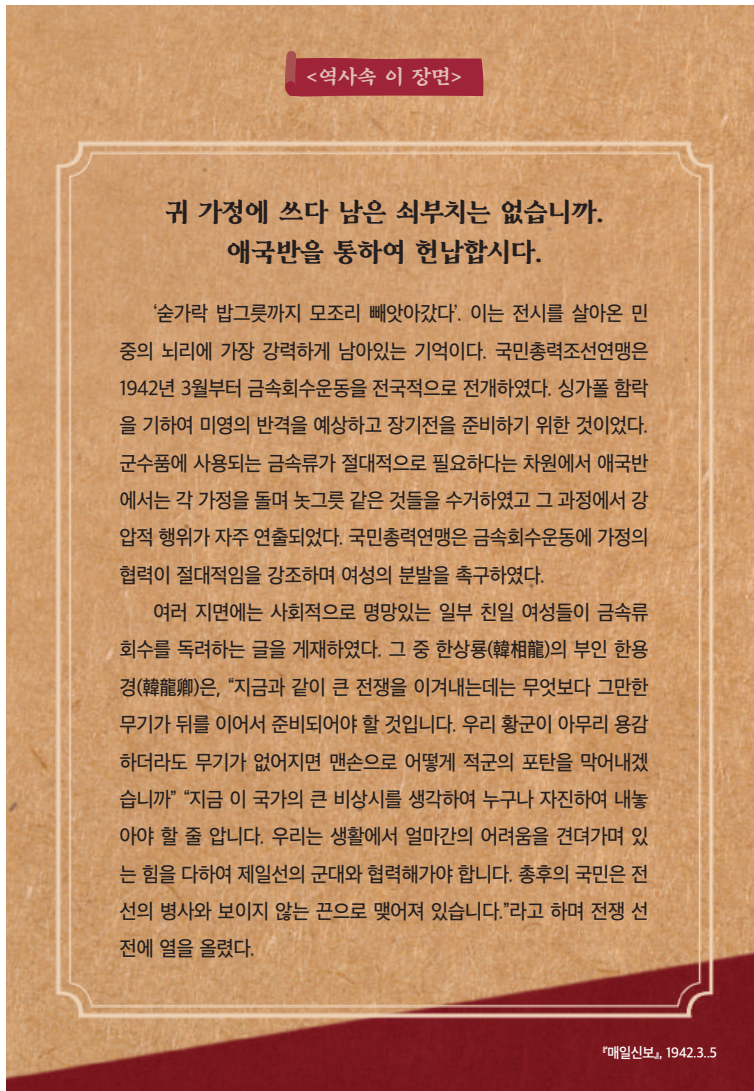
일본어를 공부하는 부인들
 보통학교 교실에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있는 여성들. 칠판에 가타가나를 쓰고 있다.
 *출처 : 역사문제연구소 편,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의 역사』, 웅진출판, 1993, 288쪽

광주의 여성들은 야간에 개최되는 각 정(町)의 간이 강습회에서 일본어를 습득하곤 했다. 정동조선연맹 전남지부에서는 부락연맹, 학교 연맹 등에서 매년 15세에서 30세를 대상으로 일본어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이웃의 부인들끼리 삼삼오오 짝을 지어 야간에 강습소로 가는 풍경은 흔한 일이 되었다. 애국반에서는 여성들이 강습회에 갈 것을 독려했다. 전남연맹에서는 1941년에 강습회를 통해 약 7만명의 수료자가 나오게 되었다고 선전하였다.²¹⁹⁾

소위 여성의 ‘교화’ ‘계발’은 무엇보다 기저조직인 애국반의 상회 활동에서 이루어졌다. 애국반은 한달에 한번씩 정기회(常會)가 열렸고 각 가정에서는 한명씩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했다. 애국반상회가 전일적으로 철저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대개 민중들은 식민권력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애국반상회에 어린 자녀를 내보내는 등 형식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점차 애국반은 전시 일상생활을 강제하는 조직이 되어갔다. 출석하지 않으면 배급을 받을 수 없었고 억울하게 징용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제 애국반은 단순히 조선연맹 하부조직의 하나에 그치지 않고 민중의 생활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감시하는 조직으로 기능하였다.

218) 전라남도, 알의 책, 20쪽
 219) 鈴木裕子 외 편, 알의 책, 330쪽

국민총력 전남도지부에서도 매월 1회 상회를 개최하고 애국일 행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많은 광주의 여성들은 매달 상회에 참석해서 전시 지시사항을 숙지하거나 물자 공출에 참여하여 전쟁동원의 조직체가 되어야 했다. 애국반의 반장은 처음에는 남성들이 주로 맡았지만, 1942년에 가면 여성들이 반장을 맡는 경우가 많아졌고 주부가 반장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서서히 애국반의 활동은 여성중심으로 되어 갔다.²²⁰⁾



220) 기와 가오루, 293쪽

한편 기혼여성들은 전남 정동연맹에서 주관하는 각종 강연회에 불려 나갔다. 강연회의 중요 내용은 일상생활의 개선과 저축관념, 총후 여성의 역할 등 소위 여성을 ‘계몽’하는 것이었다. 또 일부 여성들은 도(道)에서 설치한 중견부인양성소에서 교육을 받고 여성 교화운동에 앞장섰다. 1941년 당시 광산군의 농촌중견부인양성소에는 조선인 50명, 황민지도자양성소에 조선인 30명이 교육을 받았다.²²¹⁾ 광주의 여성들은 이렇게 정동 부연맹 차원에서 실시하는 여러 계몽선전에 수시로 불려나와 강연회나 선전교육을 받았고 강제저축이나 물자 공출에 내몰렸다. 전시 광주여성들은 국책선전의 대상으로 혹은 여성교화의 주체로 일상 자체가 동원의 연속 속에 존재하였다.

221) 전라남도 편, 앞의 책, 28쪽

산업전사로 내보내자
다음은 따님차례,

전시 이전 여성들은 주로 고무업이나 방직업, 정미업 등 경공업 분야 혹은 교통, 서비스업에 일부 종사하였다. 전시에 여성들은 상당수가 토목, 광산, 중화학 공업 등에 투입되었다. 일제가 군수산업에 해당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노동력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대개 가정주부로 혹은 농촌 노동력으로 남아 있었으나, 전체 노동력 동원계획에 입각해서 일부는 광산이나 중화학 공업 같은 분야로 노동영역이 확대되었다. 각종 매체에는 수시로 여성들이 노동현장에 진출할 것을 독려하는 선전 문구가 등장했다.

… 우리는 아드님을 즐겁게 제일선으로 출전시켰다. 다음은 따님을 내놓을 차례다. 지금이야말로 기뻐서 따님을 산업전사로 출전시킬 때다. … 여성들은 이미 자기들의 직장이 공장이라든지 생산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따님들보다 이러한 형편을 자세히 모른다는 것이다 … ‘한 공장의 문을 지나지 않은 여성은 머느리로 맞어들일 수 없다’는 공기가 차츰차츰 농후해질 것이다. 우리는 즐겁게 우리의 따님을 생산진에 받쳐보시다. 따님까지 나라를 위하여 내놓는 어머니의 즐거움을 지니기 바란다.²²²⁾

이것은 여성인 어머니가 총후에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아들은 군인으로 딸은 군수생산 업무로 기꺼이 내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공장노동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은 머느리로 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높아갈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일본제국은 전쟁에 필수적인 군수생산의 확충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의 활동영역을 가정 이외의 영역으로까지 넓히며 다양한 생산활동을 요구했다. 가정의 어머니들은 기꺼이 아들은 전장으로 딸은 생산진으로 보낼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여성이 생산현장에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선전작업은 학교나 지역의 애국반을 통하여 혹은 각종 대규모 결의대회에서 수시로 이루어졌다.

생산전에 내보낼 딸들은 ‘산업전사’로 불리웠다. ‘산업전사’는 중일전쟁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호칭으로 노동자가 전장의 병사와 같은 마음자세를 가지고 노동에 임해야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일본 제국은 노동자를 ‘전사’로 명명하면서 국가적 사업에 죽음을 각오하고 생산증강에 나서야한다는 이념을 설파했다.²²³⁾ 전시에 남성들과 더불어 생산전에 불려나오는 여성들 역시 ‘산업전사’로 지칭되었다. 산업전사가 된다는 것은 소위 일본제국이 치루는 ‘성전’에서 동등한 자격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전시 여성 노동자는 보잘 것 없는 ‘여직공’에서 ‘산업전사’로 호명되었고, 이는 여성들

222) 『매일신보』 1943.12.11.
223) 이병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산업전사' 이념의 형상화와 재현』, 『사총』 94, 2018, 34쪽.

에게 ‘평등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즉 민족적 차별 혹은 성적 차별이 사라지는 것 같은 환상이다. 이것은 여성들에게는 총후전사로서의 의의와 사명감을 부여하고, 그들이 가정 밖으로 나와 노동현장에 진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장치였다.

생산전에 나서는 여성들이 ‘산업전사’로 격상되었다면,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척결해야할 악습으로 비난 받았다. 일제는 조선인 일반에 대해 관습적으로 근로천시의 풍습을 갖고 있고 그러한 악습관에 의해 유한도식자가 많다고 보았다. 조선인은 ‘아무리 가난한 자도 돈이 있으면 놀고 먹는다. 결국 하루 임금을 벌면 하루 쉬는, 근로정신이 결핍된 게으른 악풍을 가지고 있다.’²²⁴⁾는 것이 식민권력이 갖고 있는 조선인에 대한 기본 시각이었다. 조선인 여성 역시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고, 노동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풍습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²²⁵⁾ 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인의 근로관념을 시정하고 국가적 근로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일본제국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여기에서 주요 공격 대상이 된 것이 주부가 ‘식모’를 사용하는 관행이었다. 이런 주부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으나, 전시 여성들이 해서는 안 될 대표적인 부정행위로 치부되었다. 여러 매체에는 ‘식모’나 ‘안잠자기’를 구하러 직업소개소로 가는 여성들에 대한 비난글이 자주 실렸다. 여성 자신의 집안일을 스스로 하라는 구호는 1940년 초반부터 등장하였다. 집안에서 보조 인력을 쓰는 것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지속되었고 1943년에 이르면 정책적으로 직업소개소에서 ‘식모’알선은 폐지되었다.

“직업소개소 가운데 제일 빈잡하고 전직원이 불쾌를 느끼는 것은 소위 식모 알선입니다. … 과거에는 식모를 두고 해주는 밥과 꾸며주는 옷이나 입고 나들이를 다녔을 것이나 이제는 주부들도 그날그날의 생활을 반성하여 결전에 충결기, 성전완수에 돌진하지 않으면 안될 때입니다. … 나는 주부들이 화려한 몸매나 입고 바구니를 끼고 무슨 배급물건이나 팔지 않나하고 아침부터 길거리로 돌아다니는 것은 결코 결전생활을 익찬하는 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과거에는 편히 지냈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결전생활을 하지 않아서는 안될 것입니다.”²²⁶⁾

이 기사에서 경성직업소개소장은 ‘결전하 가정 주부는 자숙을 요망한다’, ‘식모 알선은 가장 불쾌한 일’이라고 표현한다. 주부들은 ‘그날그날 태도를 반성하고 성전 완수에 기여해야할 때’라는 것이다. ‘야미’로 사람들

224) 御手洗辰雄(국민총력조선연맹 선전부장), 『總勤勞と婦人勞動』, 『朝鮮勞務』 1권 1호, 1941.10.
225) 御手洗辰雄(국민총력조선연맹 선전부장), 앞의 글.
226) 『주부에 근로의 진령(振鈴), 직업소개소에서 식모의 알선 폐지』, 『매일신보』 1943.8.30.

구해다 쓴다거나 몸뻘을 입고 무슨 배급품이나 팔지 않나 길거리로 돌아다니는 것은 척결되어야 할 생활태도였다.

전시 노동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노동력을 중요산업에 배치해서 군수 생산력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식모’나 ‘안잡자기’ 같은 노동력을 한 가정에서 사적으로 쓰는 것은 낭비에 해당했다. 한 사람의 노동력이라도 ‘국가’에서 필요한 전시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배치해야하는 것이다. ‘제집 살림 제순으로’는 전시 여성들의 노동관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여성 비하적 선전문구이면서 동시에 노동력의 중점 산업 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여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형태로든 노동현장으로 달려갈 것이 촉구되었다. 직업소개소는 학교와 연계하여 졸업하는 여학생을 알선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생활에 여유있는 계층의 자녀들 같은 경우 졸업 후 신부수업과 결혼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경로는 이제 폐기되어야 할 생활태도로 치부되었다.

… 지금 여성들의 직장수명을 본다면 평균 1년 2,3개월에서 그만두고 물러서는 편이 많다. 여학교나 졸업하고 제집에 먹을 만치의 재산이 있다면 아무런 하는 일도 없이 빈둥빈둥 놀며 영화구경이나 소일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직업소개소에서는 오는 봄부터 가정과 학교에 부르짖어 졸업하는 여성은 사정이 허락하는 사람은 각 직장에 동원해야 단체적 근로정신의 함양과 사회의 실재면을 직접경험하게 하리라고 한다.²²⁷⁾

이 글은 여학생들 역시 생산전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업소개소가 학교와 연계하여 졸업을 맞이하는 여학생을 노동현장에 동원할 계획이라는 소개 글인데, 여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에 있는 것은 버려야할 생활태도이다. 여성들은 직업전선에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점원이나 급사같은 간단한 일보다는 철공장, 방적공장 같은 ‘국가’가 요구하는 업종에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 요구되었다.

전시에 여성들은 모성으로 혹은 남성이 떠난 농촌의 식량생산에 전념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다른 한편 일본 제국은 끊임없이 여성들이 집 밖으로 나와 군수 생산확충에 기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조선인 여성들은 노동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노동관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여러 여성 동원조직의 중심 과제였던 것이다. 결국 전시에 상당수의 여성들은 강제 혹은 반

227) 『내집살림은 내손으로! 자태 김춘 구 “식모”군 직업소개소 창구를 통해본 부인들의 근로열』, 『매일신보』 1941.7.28.

강제적으로 소위 ‘집 밖으로’ 나와 이전과는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간혹 취업사기에 속거나 혹은 직업소개소와 연계된 말단 행정관리의 강제 모집으로 어린 여성들이 ‘군위안부’로 끌려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²²⁸⁾

228) 일본군 위안부 동원은 1931년부터 시작됐다. 만주를 침략한 일본군은 매춘업자와 결탁하여 군주둔지 주변에 위안소를 설치하였고 1932년 상하이(上海)에 육군위안소가 개설되었고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이 직접 위안소를 개설 관리하였다. 일본군은 위안소에 필요한 여성들을 확보하기 위해 매춘업자를 동원하고 일본군과 경찰, 관리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위안부를 공급했다. 이과정에서 취업사기, 인신매매, 유괴, 납치 등 여러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렇게 동원된 여성들은 치료의 소실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최소 2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국헌, 『빼앗긴 청춘 돌아오지 않는 원혼』, 시민의소리, 2007, 24쪽.

용하다!
근로보국이나?
광주 찾은 총독,

여러 매체와 학교, 지역에서 여성 동원 선전이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동원 관련 법과 제도는 여성들이 보다 실제적으로 노동현장으로 나아가도록 강제하였다. 시기별로 여성을 대상으로 동원과 관련하여 시행된 제도를 살펴 보면, 먼저 가장 상위법으로 국가총동원법을 들 수 있다.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시발로 자국을 중심으로 조선, 대만 등 식민지를 포함하여 통치 하거나 점령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전쟁수행에 동원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조선에는 5월부터 적용)을 공포하여 필요시 ‘국가’가 가진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제정되는 여러 동원법령은 모두 이 총동원법에 근거한 것이었다. 총동원법에 입각해서 가장 먼저 동원 형태를 이룬 것은 학생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보국운동’이다.

일제는 1938년 6월 ‘학생 생도의 근로봉사 작업실시에 관한 건’을 발표하여 각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봉사를 강제하였다. 처음에는 신사(神祠)의 경내 청소나 풀뽑기 같은 간단한 작업을 시행하였는데, 청소년에게 전시상황이라는 것을 환기시키고 후방에서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게하는 정신적 각성의 의미가 컸다. 1939년 9월 미나미(南次郎) 총독은 가뭄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전남지역을 시찰하였다.

광주에 도착한 남 총독은 역전에 마중나간 관공리들과 각 단체 학교 아동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곧장 광산군에서 가뭄이 심한 석곡면으로 떠났다. 총독은 중도에 열심히 근로봉사 작업을 하고 있는 망월(望月) 소학교 아동들을 불러서 “이 작업은 근로보국이나”(그렇다고 하니) “용하구나”하는 칭찬을 곁쳐 친절한 말을 건네주고 이동 ... 229)

총독이 광산군에 있는 망월 소학교 학생들의 근로보국을 격려하는 장면이다. 학생 대상 보국대와 동시에 1938년 6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근로보국대 실시요강’도 같이 나왔다. 이 요강에서는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의 남녀가 대상이었고 이 역시 처음에는 다분히 정신적 훈련의 목적이 강해서 ‘국가관념, 근로애호의 관념, 비상시국의 철저’ 같은 것을 취지로 하였다. 월 1회 단기간 작업으로 비교적 간단한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여성들은 옥외노동, 폐품수집, 위문대 만들기 같은 것들에 동원되었다. 특히 농촌에서는 여성들이 부인근로보국대, 부인근로단 같은 명칭으로 모내기, 보리수확 등 집단작업에 동원되어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였다.

229) 『老幼들의 근로에 관해』 김복, 한재국 북을 격려, 『조선일보』 1939.9.5.

일제는 1939년부터 「노무동원실시계획」을 세워 동원 목표인원을 계획하였는데, 1940년 조선내에서 사용할 신규 노동력 수요 목표 중에 여성은 69,500명이었다.²³⁰⁾ 남성은 355,900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1/5정도에 해당한다. 이 노동력은 주로 군수생산과 관련된 업종에 필요한 인원으로서, 목표수이기 때문에 실제 배치인원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1940년에 일제는 동원가능 인원을 파악하려고 전국적으로 ‘노무자원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여성은 12-19세의 미혼여성이 조사대상이었고 동원 가능한 수는 약 23만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근로보국대 외에 공장 광산 동원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20세 이상은 주로 기혼여성으로 자녀양육, 가사 뿐만 아니라 차출된 남성 노동력을 대신하여 농업노동에 충당할 대상에 해당한다. 광주의 여성들 역시 이 동원 가능인원수에 포함된다. 현재 광주광역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당시 광주부와 광산군으로, 1939년말 당시 광주, 광산군 인구는 다음과 같다.

광주부·광산군의 인구(1939년말 현재)

	조선인		일본인		만주, 중국인		기타외국인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광주부	10,611	52,513	1,830	7,878	18	51	9	21
광산군	18,592	95,214	368	1,670	6	15		
합	29,203	147,727	2198	9548	24	66	9	21

* 출처 : 전라남도, 『전남도세일반』 1940. 9~10쪽

광주부는 전체 인구가 60,463명으로 이중 일본인이 13%를 차지했다. 도청소재지가 있는 곳이므로 상당히 많은 수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다. 또 산업비중을 볼 때 광주부에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호수는 1,837호, 겸업이 295호이고 광산군은 전업 15,657호, 겸업 377호이다. 광주의 인구는 농업 비중이 매우 낮고 광산군은 대개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제의 노동력 동원정책에서 중심 대상은 농촌의 과잉노동력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광주의 여성들이 어느 정도 지역 외로 동원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광주에는 1940년에 직업소개소가 국영으로 설치되어 동원의 중간기구 역할을 했다. 직업소개소는 처음에 직업을 소개하는 사회사업 기관이었지만 전시에는 노동력 수급 조절과 동원에 개입하였다. 1938년까지 전

230) 김미정,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여성노동력 동원정책과 실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36쪽.

국 12개 부(府)에 직업소개소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1939년에 도청소재지에 있는 6개를 우선 국영으로 전환시켜서 조직과 활동 범위를 넓혔다. 1940년에는 공설 직업소개소를 국영화하고 관련 법규 제정과 정비를 통하여 노동력 동원을 위한 국가기관의 하나로 전환하였다. 여기에 광주 직업소개소도 포함된다. 광주직업소개소에는 서기 2명, 고원 2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²³¹⁾ 특히 소학교 졸업자나 활동반경이 넓지않은 여성을 동원하는데 직업소개소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직업소개소는 소년소녀부, 이민결혼부 같은 부서를 설치하고 학교 졸업 아동을 학교와 연계하여 관공서, 공장 등에 알선하였고 만주 개척이민자들에게 여성을 소개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광주지역 여성들도 역시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한반도 북부지역 공사장이나 광주 소재 종연방직 등으로 동원되었다.

다음으로, 1941년 4월에는 ‘여자광부갱내취업허가제’를 발표하여 광산에서 16세 이상의 여성에 한하여 갱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전에 여성들은 광산에서 작업하는 경우 모성보호 차원으로 갱 안의 노동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갱내 작업 허가는 여성 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규정을 폐기한 것으로 여성 노동력을 광산에 동원할 근거가 되는 규정이었다. 이는 군수생산에서 광물자원 획득이 그만큼 절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광업 분야 남성 노동력 수급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단서조항으로 업무는 신체상 괴로움이 없는 것으로 할 것, 야간근무 금지 등 단서조항이 있었지만, 당시 광물중산이 연일 부르짖고 있던 상황으로 그러한 예외 조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동원방침에 의해 1941년 조사에 의하면 약 4천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갱내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후 그 인원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태평양전쟁으로 전황이 확대되자 일제는 1941년 12월 ‘국민근로보국협력령’을 발표하였다. 이전의 근로보국대 체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치였다. 여자는 이전과 달리 ‘여자근로보국대’로 별도로 조직하게 되었고 14세 이상 25세 미만이 대상연령이었다. 작업기간은 1년 중 30일 이내였는데, 이후 개정을 거쳐 3개월, 필요에 따라 6개월로 확대되었다. 근로보국협력령의 대상연령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들은 지역 애국반이나 관제 여성단체 단위에 속하게 된다. 이 시기에 가면 근로보국대는 확실히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작업에 투입되었다. 알선이나 모집과 달리 단기간이지만 징용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시 여성노동력 동원은 근로보국대형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31) 「국영직업소개소 대전, 광주, 청주에 신설」 『매일신보』 1940.12.5

232) 「여지도 건설부대로, 함남도내 공사장에 5천명 동원」 『매일신보』 1940.11.7

전시 여성들은 다양한 업종의 노동현장에서 노동경험을 습득하였다. 이전까지는 주로 방직, 정미업, 고무공업에 저임금 유년노동력 형태로 주로 고용되었다면 전시에는 토목공사장, 중화학공업체 심지어는 광산의 갱내 노동에까지 배치되었다. 남성들이 일본, 만주 등지로 동원되면서 국내 토목건설 공사장이나 공장 등에 다수의 여성들이 동원되었다. 함경남도 같은 경우 1940년 주요 공사장,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총수는 58,400명인데 이중 여성이 5,200이었다. 약 10%는 여성노동자였던 것이다. 1939년에 비해서 2천여명 증가한 숫자였다.²³²⁾ 점차 여성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이는 전시 공업이 방직 등 생필품과 관련된 업종이 축소되고 군수 공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또 중화학공업체는 생산 공정이 세분화하고 기계화하면서 여성들이 중근육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분야에 다수 배치되었다. 여자근로정신대 동원자들이 비행기생산의 선반(旋盤) 공정 작업을 많이 했던 것도 그러한 배경이 작용한 것이다.

결혼을 빨리 했다
잡혀가지 않으려
근로정신대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여성들이 혹독한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된 것은 1943년 10월 '생산증강노무강화대책'의 발표 이후이다. 일제는 전쟁에 패색이 짙어지면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세워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다. 국민징용령의 적극 실시, 근로보국대의 활동 강화, 부인 동원 강화 등이 중심 내용이었다. 특히 여자들의 취업을 적극 장려하여 학교 졸업자와 미혼자를 모조리 직업여성이 되게 할 것이고, 카페 식당 등接客업에 종사하는 12세 이상 25세 미만의 여성은 중요산업으로 전직시킨다는 방침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먼저 여성에 대한 호적 정비를 예고하였다.

부녀자 호적도 정비, 노무강화 운영에 만전

... 동원령을 운영하는데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항상 호적에 있다. 호적이 완전히 못하면 당국에서 뜻하는 대로 동원령을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다.
... 남자에 대한 호적기류상태는 거의 정비되었으나, 여자의 호적기류는 등한시하여 조금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결혼하여 아이까지 난 20여세 되는 여자가 호적에는 열세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혼계와 출생계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 노무동원에 지장이 없도록 호적기류사항을 정비해야 ... 오는 11월에는 20세 이하 여자에 대해 호적기류 일제조사를 시행할 터 ... ²³³⁾

여자호적이 부실하여 동원령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호적 정비는 여성노동이 완전한 국가통제하에 두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세 미만 여성에 초점이 가 있다. 미혼 여성 노동력은 이제 보조적인 수단을 넘어서 전면적인 생산주체가 될 것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대강의 방침에 따라 실시된 대표적인 제도가 '여자근로정신대'의 동원이다. 관련 법령으로 「여자근로동원촉진에 관한 건」(1943.9.13.), 「여자정신근로령」(1944.8.23.)이 잇따라 발표되었다. '여자정신근로령'에서 동원대상은 만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여성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1년간의 근로기간을 규정하였다.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대개 20세 미만의 미혼 여성이 중심이었다. 당시 일반에서는 '정신대로 잡혀가지 않으려면 결혼을 빨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

「挺身」라는 단어는 '국가를 위해 진력을 다한다'라는 의미로 전시 체제가 '국가'를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는 당시의 수사적 표현이다.²³⁴⁾ 조선에서 '정신대'라는 명칭은 여러 단체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다. 1940

233) 『매일신보』 1943.10.10.
234) 齊藤勉, 『新聞にみる東京都女子挺身隊の記録』, のんぶる舎, 1997, 15쪽.

년대 초반에는 '보국대' 단위에도 '정신대'라는 명칭이 붙기도 하였다. 또 남성만으로, 혹은 남녀로 조직된 단체에도 사용되었다. 1940년부터 「농촌정신대」, 「국어보급정신대」, 「근로보국정신대」, 「내선일체정신대」등이 편성되기도 했다. 현재 주로 쓰이는 근로정신대는 '여자근로정신령'에 입각하여 1944년 4월경부터 조선여자근로정신대가 일본지역 군수공장으로 동원된 것을 주로 일컫는다.

조선여자근로정신대(이하 근로정신대)는 1944년 4월경부터 조선총독부의 이른바 '관의 알선지도'에 의해 2년 기한으로 항공기제작공장, 기계공구공장 등지로 동원되었다. 동원방식은 조선총독부가 도별 할당인원을 배정하면 도(道)는 군(郡)에, 군(郡)은 직업소개소나 학교, 지역행정기구(구장 등)에 지시하여 필요 인원을 차출해 가는 식이다.

광주의 어린 여학생들도 이 근로정신대 단위로 상당수가 동원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회는 해방이전에 건립된 광주·전남지역 보통학교 고등과와 중학교 등 291개 학교 학적부를 조사하였다. 이 중 14개 학교에서 73명(광주 21명, 전남 52명)이 여자근로정신대로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적부 기재내용별로는 '도야마현(富士縣 후지코시(不越)비행기공장 31명, '나고야(名古屋, 아이치현(愛知縣)) 5명, '제강회사 1명, 회사명 없이 '내지(内地 : 일본)로 기재된 사람 8명, 기재내용이 없어 불명인 사람이 28명이었다. 동원연도별로는 1943년 1명, 1944년 25명, 1945년 47명이 파악되었다.²³⁵⁾ 이는 보통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조사된 인원은 아주 일부에 해당한다.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동원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여자정신대 모집 광고
京城府에서 낸 여자정신대 모집 신문광고이다. "오라 직장은 여성을 부른다" 취업지는 일본 富士縣 不二越工場. 자격은 초등 학교 수료 정도로 연령 13세 이상 21세까지의 여성, 제출서류는 이력서 1통 및 부모 동의서, 전형은 府民館으로 되어 있다. 이 광고는 여자근로정신대 동원의 한 방식을 보여준다. 학교나 직업소개소 뿐만 아니라 신문광고를 통하여 모집 공고를 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행정관청에서 광고를 내고 전형을 거쳤다. * 출처 : 『매일신보』 1945.1.26.

235) 이현석, 「광주직할시-전남지역 정신대출정실상」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회 발표, 1992.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방식에 의한 노무동원에 관한 조사」, 2008, 3쪽 재인용.

여자근로정신대는 보통학교 등 학교 졸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동원되었다. 위에서 본대로, 여학교 졸업생들을 가급적 직업전선에 내보내려고 하는 일제의 동원정책과 연결된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설득하였다.

학교측의 선전에 이끌려 많은 여학생들이 동원에 자원하였다. 여학생들이 지원에 응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여자근로정신대로 가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는 감언이었다. 교사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한다’ ‘2년 기한을 다 완료하면 중학교 수료증이 나온다’ ‘상급학교 진학기회가 주어진다’고 설득하였다. 식민지 조선에서 여성들은 초등학교에 가는 사람이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초등교육 졸업 후 상급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은 극히 드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정신대로 가면 공부할 수 있다거나 상급학교 수료증이 나온다고 하는 감언이설은 어린 소녀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여졌다.

또 다른 동원 논리는 경제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학교에서는 근로정신대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선전했다. 동원에 응한 어린 학생들은 가정 경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은 자원에 응하게 되는 주요 동기 중의 하나였다.

조금 더 악질적인 방법은 마을 행정직원의 협박성 강요였다. 구장이나 면직원은 마을을 돌며 여자근로정신대 동원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배급통장을 뺏겠다는가, 배급을 잘 안주겠다는 식의 협박을 가하였고, 보호자인 부친을 구타하고 위협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조선여자근로정신대’라는 명칭으로 동원된 사업장은 후지코시(不二越鋼材)공업주식회사 도야마(富山)공장, 도쿄 아사이토(東京麻絲)방적주식회사 누마즈(沼津)공장,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나고야(名古屋)항공기제작소, 나가사키(長崎)가와나미(川南)조선소, 일본제철 야하타(八幡)제철소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이외 지역은 동원시기는 알 수 없지만, 만주 남만(南滿)방적공장, 제국제마(帝國製麻) 인천공장, 가네가후치(鐘淵)방적 광주공장에 동원되었다는 부분적인 증언이 있다.²³⁶⁾

이러한 사업장에서 어린 소녀들은 선반(旋盤)기계 등 부품생산, 부품 검사, 부품 포장 등의 업무에 배치되었고 군대식 노동규율 속에서 장시간의 노동을 해야 했다. 이는 크고 작은 여러 부상으로 이어졌다. 또한 일본 군수공장 지역에 대한 미군의 공습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포감과 배고픔을 견뎌내며 생존해야 했으며 전염병과 지진 같은 생존위협을 견뎌내야 했다.

23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 규명위원회, 앞의 책, 2008, 24쪽.

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어느 정도가 희생 당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광주 출신 여학생 두 명의 사고 소식이 『매일신보』에 실렸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국민학교를 졸업한 어린 소녀들로만 편성된 여자정신대가 전남에서 조직되어 대원 일동은 지난 6월 12일에 광주역을 출발하였다. 이들은 미쓰비시(三菱)항공기 ○○공장(나고야공장으로 추정) 비행기 증산에 불철주야로 분투하고 있던 중, 지난 7일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작업장에서 순직한 거룩한 소녀가 있다.

그는 광주부 명치정 5정목 32번지에 거주지를 둔 김순례(金順禮, 창씨명 미쓰사와(金廣順子) 13세), 광주부 수기옥정 6번지 이정숙(李貞淑, 창씨명 미야모토(宮本貞淑), 14세) 두 소녀로, 김순례는 광주 북정(北町)국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여자정신대원에 자원하여 참가하였고 대원 중에서도 모범이었으며 제4분대장으로 책임감이 강한 소녀로 칭송이 자자했다. 그리고 이정숙은 광주 호남(湖南)국민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무남독녀로 남부럽지않게 귀여히 자라났으나 부모의 만류하는 것도 듣지 않고 남자로 못 태어나 총을 메고 싸움을 못하러가니 그 대신 비행기 생산에 정진하는 산업전사가 되겠다고 굳은 결의를 가지고 여자정신대에 참가한 군국의 정렬을 가진 소녀였다. 이들은 순직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비행기 증산에 좀더 활동 못함을 부끄러워하며 선반(旋盤) 앞을 떠나지 않았다 하며 이들의 전투적인 그 정신에 전 공장은 큰 감명을 받았고 직장의 꽃으로 사러진 이 두 소녀를 본받겠다는 전공장에서는 증산의 열화가 폭발치고 있다한다.²³⁷⁾

일본에 도착한지 1개월만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비극적인 내용이다. 이 신문기사에는 어떻게 사고를 당하였고 어떤 정도의 부상을 입었는지에 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다. 다만 ‘군국의 정렬을 가진 소녀들, 순직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증산에 몰두’한 소녀들로 그려진다. 이 미담기사는 공장 증산 의지를 불태우는데 기여했다는 것이 중심인 것이다. 기사의 주 목적은 사고와 사망이라는 불행한 사실을 전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증산에 온 몸을 바친 거룩한 ‘군국의 전사’를 선전하는데 있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기사에서 모두 자발적으로 근로정신대에 지원했다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다. 일본 제국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언설이다.

또 다른 광주 출신 여자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한 소녀의 미담기사

237) 『關魂, 증산전에 不滅 두 처녀의 殉死를 追후 戰場에 살리라』, 『매일신보』 1944.12.24.

전시 여성들에게 부과된 중책 중 하나는 총후(銃後)에 맞는 모성의 역할이다. 근대 국민국가 성립 이후 대개의 국가는 산업발전을 위한 노동력과 군사력의 확보 차원으로 모성을 주목하였다. 전시 총동원체제 역시 근대국가가 견지하는 모성의 역할을 공통적으로 요구하지만 그 목적은 일본 제국의 '성전'에 바쳐질 모성이었다. 전시 여성은 출산과 아동양육을 통하여 가정 안에서 자녀 교육의 담당자로서, 남편과 자녀를 노동력으로 혹은 군인으로 내보내도록 협조하는 '군국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전시 모성정책은 인적 자원의 확보와 질적 향상을 위해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결혼과 임신, 출산, 자녀의 양육까지 국가권력의 통제가 확대되었다.

도시에는 도(道)나 부(府) 차원으로 결혼상담소가 설치되었다. 1941년 11월 경성부 사회과에서는 부청 내 미혼남녀를 조사하였다. 이를 근거로 부내 각 가정을 조사한 후 애국반장의 협력하에 결혼상담소와 협의하여 배우자를 알선한다는 계획이었다.²⁴⁰⁾ 결혼 상대자를 알선하는 것은 국가의 인국국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일이었다.

또 결혼장려책으로 만주 농업이민자에게는 국가가 나서서 결혼을 알선하였다. 일제는 '만주개척대'라는 명칭으로 만주 농업이민정책을 실시하여 다수의 노동력을 동원하였다. 이들 동원 노동자의 정착율을 높이기 위해 직업소개소에서는 결혼부를 신설하고 결혼할 여성을 모집하였다.²⁴¹⁾ 직업소개소나 행정기관은 결혼상대자를 상시 모집하였고 부청 등에서 맞선을 보게한 후 양자가 합의하면 신사에서 신전결혼식을 치루게 하였다. 이들은 '대륙의 신부'로 불리웠다.

학교를 졸업하는 여학생들은 직업 전선으로 나갈 것이 요구되었으나,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었다. 학교당국자들은 종종 여성이 결혼을 기피하는 풍속은 '인간도리의 대반역, 국민으로서의 대죄악'이라고 말하곤 했으며, 결혼과 출산을 통해 국가적 업무에 부응할 것을 주장하였다.

날아라, 불려라! 조선인구 증식대책

'수효가 많은 것이 결국 힘이다'하는 원칙아래 인구를 늘리우는 것은 크나큰 국책의 하나로 이번 후생성에서도 오는 7월부터 '인구국'을 따로 설치하고 인구증식에 신체제를 강구하게 되었는데, 병참기지로서 특수한 사명을 띄고 있는 조선에서도 이 인구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식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총독부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²⁴²⁾

“대륙의 신부가 되라”

가 있다. 히로야마(廣山玉順)라고 하는 이 소녀 역시 모 비행기 공장에서 날개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광주부윤에게 '총후를 부탁한다'는 혈서와 함께 승리의 날까지 감투하겠다는 맹세의 편지를 보냈다. 이 소녀의 맹서는 "우리들은 원기 왕성한 몸으로 적 격멸에 필요한 비행기 증산에 매일 감투하고 있다, 우리들은 숭고한 특공대에도 지지 않을 의기로 땀과 한덩어리가 되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성스러운 직장에서 사라질 각오이다, 우리들은 반드시 적 미영을 격멸하고야 말것이므로 부윤께서도 부민을 격려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승리의 날까지 감투를 계속합시다."²³⁸⁾라는 말로 편지를 끝맺는다. 동원지에서 인솔자는 종종 가족에게 혹은 중요 담당자에게 편지를 쓰도록 했다. 그 중 광주 출신 소녀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고 이 역시 다른 미담기사와 마찬가지로 전시 동원을 자발적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매개로 이용되었다.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여성들은 동원지에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빈번한 사망 사고에 직면하였다. 또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말은 감언이설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임금 한푼 받지 못하고 해방 후 천신만고 끝에 돌아왔다.

해방 이후 '정신대(挺身隊)'란 용어는 '데이신타이(挺身隊)로 잡아갔다'는 일종의 '처녀공출'로 '위안부'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한 것으로 인식했던 것이다.²³⁹⁾ 이 때문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었다가 귀국한 사람들 중에는 끊임없이 일본에서의 경험을 의심하는 가부장적인 시선과 부딪쳐 침묵하고 감추며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

240) 「총후의 결혼진군 애국반서 가연알선」, 『매일신보』, 1941.11.13.
241) 『매일신보』, 1938.12.23
242) 『매일신보』, 1941.6.29.

238) 「승리의 날까지 감투하겠다. 광주 출신 여자정신대 혈서로 맹서」, 『매일신보』, 1945.8.12.
239)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 규명위원회,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방식에 의한 노무동원에 관한 조사』, 2008, 2쪽.

인구증식은 중요 국책 중의 하나이고 총독부에서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는 내용이다. 결혼과 더불어 출산 장려 구호가 연일 등장했다. '남아라 불러라'라는 구호는 전시 인구증식 캠페인의 상징이었다. 각종 매체에서는 출산시 기념상을 수여하거나 5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금일봉을 준다고 선전하였다. 또 전쟁 말기에는 산모에 대해 식량 배급을 늘릴 것이라고 했고 10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표창하는 등 다산을 장려하였다.

출산장려 캠페인에는 출산을 담당하는 임산부의 건강과 위생의 중요성도 자주 거론되었다. 전시 여성은 튼튼한 자녀를 낳아 씩씩하게 길러야 하고 조선에서 유산이나 사산이 많은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권력이 현실적으로 임산부를 위해 실시한 것은 임산부 무료진찰이나 모자후생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하고 임산부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선전 캠페인 정도였다. 조선에서는 임산부를 정책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모자 보호법'이나 '국민우생법' 같은 법령은 시행되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낳는 어머니'라는 위치보다는 징병이나 징용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계발 대상으로서의 위치가 보다 더 우위에 있었던 것이다.²⁴³⁾

자녀 양육에 관해서도 국가 통제가 가해졌다. 일본 제국은 종종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장병 1명당 노동자 10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전선에서 군인 한명이 싸운다면 후방에서 10명의 노동자가 지원해야한다는 말이다. 또 전쟁은 십년이 갈지 백년이 갈지 알수 없는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장기전을 무리 없이 끌여가기 위해 미래의 노동력과 병력이 될 아동의 건강과 생존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아동애호주간을 설정하였고 각 의료기관 사회사업단체는 아동의 무료 건강상담, 기생충 검사, 우량아 심사, 강연과 영화회 등을 실시하였다.

1941년부터는 아동애호 건민운동을 추진하여 향후 병사가 될 어린이의 신체를 관리하고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아동의 건강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어머니의 양육책임에 대해 국가적 의미를 자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조선인 여성들이 무지와 무책임 때문에 유아 사망률이 높다고 비판하며 어린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전통적 육아법을 폐기하고 과학적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무장하는 것은 전시 국가적 책무를 담당할 모성으로써의 의무인 것이었다.²⁴⁴⁾

전시 모성에 부과된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국가의 성전'에 복무할 자녀의 가정교육 담당자로서의 역할이다. 식민권력은 황민화 교육을 실

243) 가와 가오루 글, 김미란 옮김, 『총력전 아래의 조선여성』 『실천문학』, 2002. 8. 306쪽.

244) 안태운, 『일제하 모성에 관한 연구: 전시체제와 모성의 식민화를 중심으로』 성신여대박사논문, 2001. 113쪽.

245) 『매일신보』, 1942.3.20.
246) 『매일신보』, 1942.1.27.

시하면서 학교에서 시행되는 황민화된 일본적 생활이 일상생활까지 침투하지 않는 점이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 하였다. 이에 학교 교육의 연장으로 가정교육은 그에 순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 조선의 어머니들은 그 자녀에게 너는 대일본의 으뜸가는 충신이 되어라, 너는 이 나라를 지키는 굳센인 방패가 되어라 이렇게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이 한가지 일을 위하여 조선의 어머니들은 헐벗어도 좋습니다. 꽃다운 청춘이 스러져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거룩한 스승이 꽃동산같이 부드러운 무릎위에서 충효의 역세인 남녀를 기르는 도장입니다… 여성들은 지금 급한 걸음으로 이 도장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합니다.²⁴⁵⁾

이상 속 가정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어머니는 앞장서서 아동을 국가적 책무에 제대로 복무할 인력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임무는 장차 황국의 운명을 담당할 자녀의 건전한 육성, 그것이 바로 국가의 기초라는 것이다. 미래의 황국신민을 육성하는 어머니의 노력은 남성들의 출정에 못지않은 '국가에 대한 봉공'이라는 국가적 의미가 부여되었다. 구체적인 방향으로서는 어린이에게 시국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 근로 애호의 생활을 습관화할 것, 일본정신을 높이도록 할 것 등이었다.²⁴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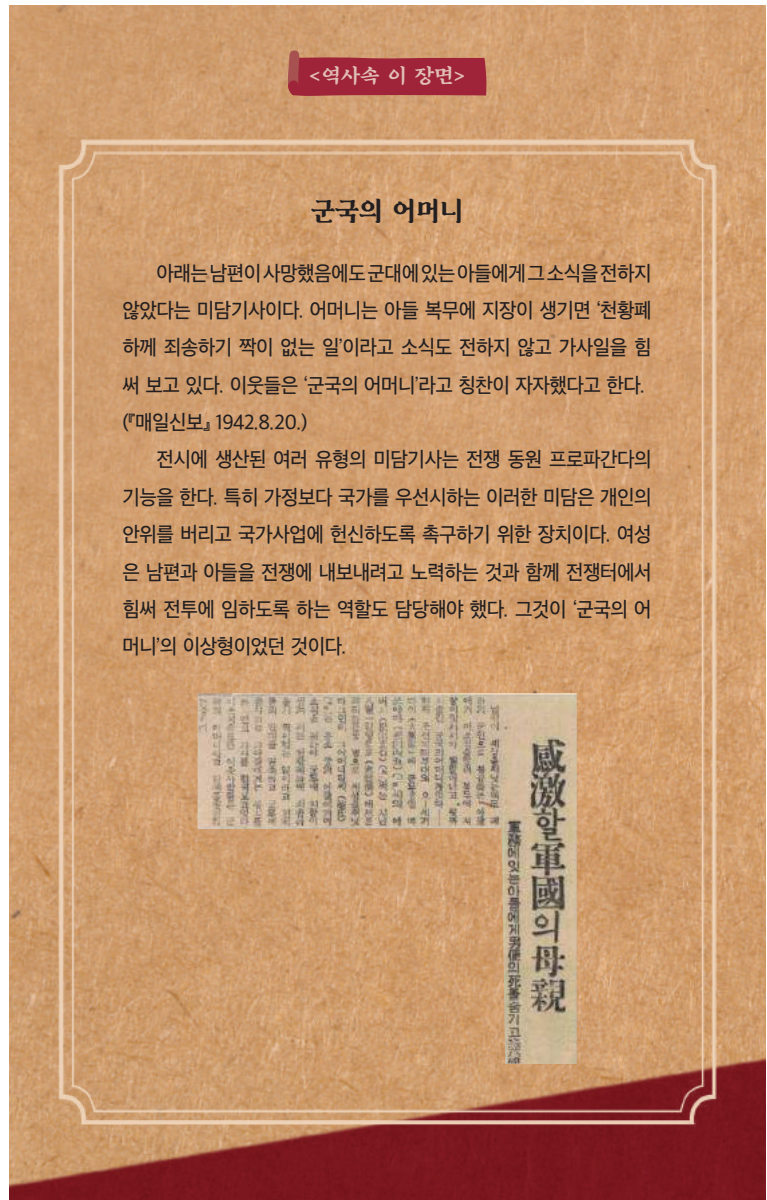
전시 모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황국신민으로 교육해야할 뿐만 아니라 장병으로 혹은 '산업전사'로 내보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였다. 일제는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하고 17세 이상의 남자를 대상으로 지원병을 모집하였다. 1943년에는 전문학교와 대학 재학생의 학도지원병을 강제도 징발하였다. 이때 지원병 2만 3천여명이 전방으로 보내졌다.

지원병 모집과 장차 시행될 조선인 징병제를 염두에 두고 각종 매체와 좌담회에서는 조선인 어머니들이 자녀를 기꺼이 전방으로 내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자식을 낳아 길러내는 것 뿐만 아니라 전장에 내보내는 역할을 요구했던 것이다. 조선인 어머니들은 그 자녀에게 '대일본의 충신이 되어라' '일본을 지키는 굳센 방패가 되어라'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게 하는 일이 모두 어머니의 힘이고, 어머니는 자녀에게 상무정신을 고취시켜야 하며 어머니 자신도 국가정신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애국 충성할 것이 요구되었다.

전사한 군인의 어머니는 '군국의 어머니'로 예찬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어머니들을 전쟁에 협력하게 하였다. 또 평범한 어머니들을 애국적인

어머니로 미화하여 선전하면서 모성을 군국주의 선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여기에는 온갖 미담기사가 만들어졌다.

전쟁에서 전사한 조선인 군인은 다른 일본인 군인들과 같이 야스쿠니신사에 안치하였고, 그 어머니는 동경의 충혼식에 참석하게 하였다. 전사한 아들의 어머니는 아들을 황국에 바친 '군국의 어머니'로 예찬되었다.²⁴⁷⁾ 이러한 모든 행사는 어머니들에게 자식을 전장에 보내도록 선동하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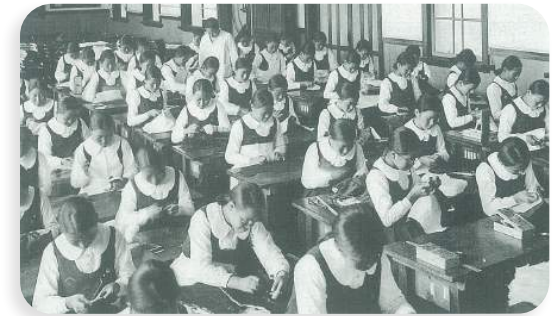


247) 안태윤, 앞의 글, 134쪽

여성동원
환상을 이용한
사회진출의

전시 여성들은 여러 관제 여성단체에 강제 혹은 반강제로 동원되어 국책사업을 수행했다. 광주는 전국 14개 부(府) 중의 하나이고 일본인 거주가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많은 관변단체가 광주부를 근거로 하여 조직되어 전시 총력전의 선전 공세에 앞장섰다. 전적으로 여성이 중심이 된 관제 여성단체들은 전시 동원에 적합한 여성상을 제시하며 여성을 조직해 나갔다. 가장 대표적인 조직체가 애국부인회이다.

애국부인회는 일본에서 1906년에 조직되고 조선본부가 이어져 조직되었다. 일본에서 조직된 후 조선에서는 상위계급의 일본인 여성들이 중심이 되었다가 1910년 애국부인회 조선본부로 개칭하고 각 도 소재지에 지부를 설치하였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국방헌금 모금 등 총후 여성 동원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애국부인회는 중앙 지방 모두 총독부 관련인사들이 중심이 되었고, 행정기구 수장의 부인과 관민 유력자 부인들로 구성되었다. 처음에는 일본인 여성 회원이 많았으나 조선인 여성이 점차 증가하여 1941년에는 일본인 138,499명, 조선인 322,423명으로 조선인이 일본 여성회원의 약 3배가 되었다. 조선인 여성들은 대개 강제적으로 동원되었지만, 일부 여성은 민족적 차별의 극복이나 억압적 여성성 극복의 계기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친일에 앞장섰다.



위문품을 만드는 여학생들
군대 위문품을 만드는 여학생들. 일제는 학생들을 애국여자단원이라 칭하면서 군대 위문품 조끼를 만들게 했다.
*출처 : 전남여고편, 『전남여고 80년사』, 2007.

또 다른 단체로 국방부인회가 있다. 국방부인회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주로 군인이 출정할 때 환송이나 환영 등 각종 군인원호 활동을 벌였다. 군부의 지원을 받아 군인 유가족을 돌보는 일도 담당하였다. 1932년 오사카에서 처음 결성되었고 중일전쟁 이후 조선본부도 설치되었다. 애국부인회 조선본부와 마찬가지로 각 지방의 도지사, 군수, 정총대(町總代),

경찰서장 부인들이 조직의 임원을 맡았다. 1937년 6월말 단체수 73개, 회원수 29,500여명이던 것이 1940년에는 회원수만 265,656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광주의 여성회원은 2,250여명이었다. 광주부 전체 여성인구가 약 3만여명이라고 했을 때 회원수가 매우 많은 편에 속한다. 광주에서는 1940년 4월 국방부인회 본부 창설일을 기념하여 광주신사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다. 여성들은 모두 흰색 에프론을 입고 집합하였으며 부윤, 애국부인회 지부장, 부지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표창식, 황국시민 서사, 만세삼창의 순서로 행사가 진행되었다.²⁴⁸⁾

국방부인회는 군사후원단체였으므로 군인원호 활동에 주력하여 위문품모집, 센닌바리(千人針) 제작, 군복 등을 제작하여 군부대에 발송하였다. 국방부인회와 애국부인회는 연합하여 각종 국방헌금 등 군부대로 보내는 각종 물품 모금운동을 벌였다.

애국부인회 전남지부와 애국 국방부인회의 광주분회에서 모제품(毛製品) 헌납수집에 대활동
 지난 22일부터 전선 일제히 실시하고 있는 경제전 강조주간 중에 등부내 일원에서 1호 1품 헌납운동에 협력하기로 되었다. 부인회는 24일 오전 9시부터 부회의실에서 역원회를 열고 협의한 후 25일 전 회원을 총동원하여 각 반으로 나누어 부내 각 가정을 호별 방문하여 폐물을 수집하고 수집한 폐물은 헌품으로 혹은 환금하여 헌납한다고.²⁴⁹⁾

부인회가 호별 방문하여 한집에 한 개씩 폐품을 수집하러 다니는 장면이다. 폐품이 없을 경우 강제 수집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부인회는 호별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942년 2월 애국부인회와 국방부인회는 대일본부인회로 통합되었고 3월에 대일본부인회조선본부에 결성되었다.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는 기존 두 단체가 하던 역할과 함께 조선인 여성의 '교화'에 적극 나섰다. 조선 여성이 전쟁에 적극 협력하면 진정한 일본여성이 될 수 있다는 선전이 시로 이루어졌다.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의 주요 사업은 국체관념의 함양, 내선일체의 구현, 군인원호, 저축장려 등이었다.

식민권력은 부인회 활동을 통해 조선여성과 일본여성이 하나라는 선전효과를 얻고자 하였고 총후 부인상을 제시하고자 했다. 여성들이 군국의 어머니, 생산자로서 진정한 총후부인으로 거듭나게 되면 일본인이 될 수

248) 『부산일보』 1940.4.12
 249) 『광주 각 부인단체에서 폐물수집에 활동. 1호 1품을 목표로』 『매일신보』 1938.8.27.

250) 가와 가오루 글, 앞의 글, 297쪽
 251) 『모든 것을 전쟁에 대일본부인회의 실천운동요함』 『매일신보』 1944.2.10.

있다는 선전은 전쟁 동원의 주요 명분이었다. 물론 본부장에는 총독부인, 부분부장에 정무총감 부인 등이고 하부조직으로 각 도지부, 각 부군도읍 면지부, 지역별 분회, 그 아래에 반을 두었다.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는 국민총력연맹의 여성판 양상을 띠었다. 회원수는 1943년 9월 3백 71만명에 달하였고 1944년에는 회원 6백만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20세 이상 여성인구의 대부분에 해당한다.²⁵⁰⁾ 일부 자발적 참여 인원도 있으나 성인 여성 대부분을 강제 편입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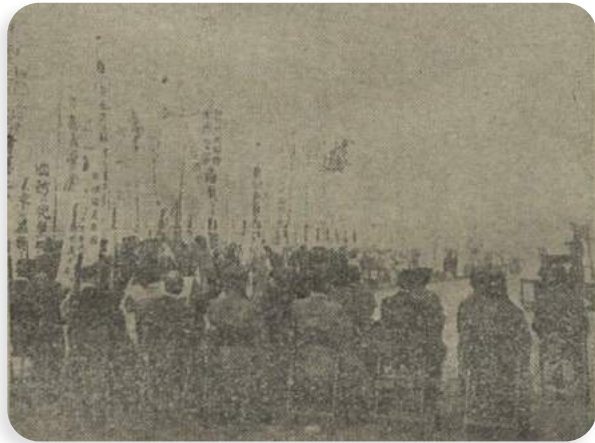
대일본부인회조선본부는 1944년 운동 목표로 '필승생활의 확립지도', '결전생산의 증강', '저축증강', '건민운동'을 설정하였다. 부인회에서는 조선 여성들이 '조선옷의 치마 저고리 색신이 철저히 못하고 옛모양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교정이 잘 안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부인회 전 회원에게 '성전'의 의미를 알리고 '국민'으로서의 자각을 갖도록 하여 생활이 즉 결전이라는 정신과 행동을 유도하도록 지도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 공동작업반, 근로협력 봉사반, 보육봉사반 같은 것을 편성해서 조선 여성의 노동 기피 관념을 교정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가정경제와 관련하여 물자시간 절약, 전시 저축 등 일상생활을 전시태세로 교정할 것이 요구되었다.²⁵¹⁾

이들 관계 여성단체에는 친일 여성운동 지도자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이들은 황민화를 위한 순회강연, 징병과 학도병 권유, 국방헌금 등을 내도록 유도하였고 솔선수범하여 신사참배에 앞장섰다. 총동원은 조선 여성 지식인에게 사회진출의 환상을 품게 하였으며, 총독부와 그 관련단체는 조선인층의 이러한 희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전시 여성동원의 침병이 되도록 하였다.

일제는 전쟁수행을 위해 여성노동력 동원을 강화하면서 조선인 여성들에게 '황국신민'으로 전쟁에 협력할 것을 강요하였다. '적국여성들에 지지 않게 노력하라',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식으로 조선인 여성들을 압박하였다. 여성들은 각종 관계 단체의 하부단위로 묶여 전시 동원 논리를 습득하고 지역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공적 활동을 경험하였다. 이 가운데 일부 여성은 전쟁논리를 적극적으로 체득해간 경우도 있지만, 조선인 여성들은 '여전히 조선옷의 풍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식민권력의 비판처럼 대개의 여성들에게 '대동아전쟁'은 (일본인) 그들의 전쟁에 불과한 것이었다.

〈스파이는 어디든지 있다〉
관계 여성단체의 연극회

한편 반공단체의 여성부도 조직되었다. 방공(防共) 광주지부가 결성되고 관계 반공단체인 여자의용단이 광주에서 결성되었다. 1938년 10월 전남 반공단체 지부 발대식이 있었는데, 여자의용단도 참가하였다. 방공단체는 각 공장 별로도 결성이 되었다. 종연방직(주) 광주공장에서는 같은 시기 공장의용단이 만들어져서 발대식에 합류하였다.²⁵²⁾ 광주여자의용단에서는 1940년 4월 온양온천 분원, 용산육군병원을 방문하여 부상자 위문행사를 진행하였다.²⁵³⁾



여자의용단 결성식
광주에서 열린 여자의용단 결성식 장면. 11월 5일 광주신사에서 개최되었다. 여자의용단은 공산주의 박멸, 직화(赤化)방지, 황도정신 앙양의 철지를 기한다는 명목하에 광주 동, 남, 서 및 전 조선의 여급(女給) 예기(藝妓)를 망라하여 조직되었다.
* 출처 : 『부산일보』 1938.11.8

1938년 12월 조선방공협회 광주지부의 남녀의용단은 모두 38개 단체 회원 5천1백28명을 조직하였다. 광주여자의용단은 수시로 전람회나 강연회, 연극 같은 것을 개최하여 방공 선전작업을 벌였다. 1938년 12월에는 ‘방첩과 방공의 저녁’이라고 하여 광주극장에서 <여자스파이>, <스파이는 어디든지 있다>, <생명선> 같은 소인극(素人劇)을 열었다.²⁵⁴⁾ 이 연극에는 부내 예기, 카페 여급 등이 출연하였으며, 언론에서는 연극회가 연일 만원의 성황을 이루었다고 선전했다. 경무국 보안과에서는 광주여자의용단의 연극회를 극찬하며 각본을 전 조선에 선전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광주의 여성들은 근로보국대나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어 많은 희생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여성들은 일본제국의 전쟁 선전에 이끌려 정책사업에 동원되곤 하였다.

252) 『부산일보』 1938.10.30.
253) 『부산일보』 1940.4.21.
254) 『방공 방첩 연극, 광주에서 호평』 『매일신보』 1938.12.21.

맺는
글

오늘 우리의 하루, 그날 그들의 하루

지금까지 우리는 가상인물인 1895년생 김광희의 삶으로부터 시작해, 신문물과 직업세계, 가족, 항일의 경험, 전쟁동원까지, 광주의 근대적 변화 속에서 여성들은 어떤 일상을 영위했는가를 살펴보았다. 근대 광주여성사를 기술하는 것은 때로는 식민지시기의 공적 역사서술이라 할 수 있는 조선총독부의 통계연표를 뒤적거려야 하는 일이었고, 때로는 신문기사나 문학작품을 참고해야 했으며, 이도 아니면 집필자의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접근 가능한 사료의 제한과 중앙중심의 서술로 인한 지역사 발굴의 한계 등 광주여성사의 통사를 서술하는 것이 근대시기라고 해서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사적 접근을 고집했던 이유는, 인물사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기존의 여성사 연구를 확장하고 기록되지 않은 여성 일상의 다양한 양태를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성사 연구가 국가와 지역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 인물을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사료의 한계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을 드러내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여성의 역할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고 여성 인물을 발굴해내는 것은 물론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성과에 더해 성역할의 양상과 사적·사회적 공간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한 통사적 접근을 통해 여성 삶의 다층성을 조명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보다 풍성한 여성사 서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안고서, 근대적 변화가 추동해낸 여성 삶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영역을 살펴보고 이 책에 실린 여섯 개의 주제를 확정했다. 집필진을 선정할 때는 여성사 연구가 갖고 있는 특징들, 즉 기존의 역사학 뿐만 아니라 지역학, 가족학, 문학, 도시공간학 등의 학문과 밀접한 주제들이 많고 학제적 연구를 통해 그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광주여성사의 본격적인 집필에 들어가기 전, 집필진과의 논의를 통해 몇 가지 지침을 설정하였다. 첫째, 법과 제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일상과 문화의 변화가 여성 삶에 끼친 영향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제도사, 생활사, 문화사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고, 둘째 공식적 자료에만 기대기보다 신문자료와 광고, 대중문화물 등에 대한 사료적 해석과 구술을 통한 당사자의 의미를 통해 폭넓은 서술이 가능하도록 하며, 셋째 여성의 피해자성과 주체성에 대해 다층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광주여성 삶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여성주의적 서술을 지향하고, 넷째 지역의 변화와 맞물리는 여성 삶에 주안점을 둬으로써 지역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었다.

광주여성사 집필 지침이 이 책에 실린 6개의 주제에 일관되게 관철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광주여성에 방점을 찍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여성주의 서술 관점이 적절한지, 혹은 여성 경험을 다층적으로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이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특히 식민지 시대라는 한국 근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한 부분, 다양한 방식으로 식민권력과 관계 맺었던 광주여성들의 조건을 젠더 역학 속에서 역동적으로 드러내지 못한 부분 등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다.

어쨌든 『광주여성사II(근대편) : 개항에서 해방이전까지』 발간을 통해 우리는 광주여성사 서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얻게 되었다. 광주여성사의 풍성한 서술을 위해 시민 누구든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라며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언제나 이러한 지적을 반갑게 맞아 향후 발간될 광주여성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여성의 역사를 쓴다는 것, 광주여성의 삶을 기록한다는 것이 갖는 중차대한 의미에 대해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란다. 지역여성사를 기록하는 작업은 역사의 주체로서 지역 여성의 존재성을 드러내고 여성 활동의 가치를 조명하면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동체의 성평등한 미래를 전망하는 일임을 공유했으면 한다. 또한 이 책을 읽은 독자라면 근대의 풍경을 조망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공간과 위치를 만나거나 광주여성들의 하루를 상상해볼 수 있는 감수성을 갖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해본다. 오늘의 역사를 쓰고 있는 바로 우리들처럼,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았던 광주여성들의 면면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말이다.

부
록

변화를 이끈 광주여성 인물 및 단체

강사채 (1915~1999)

민족의 울분으로 거리에 나선 여학생

강사채는 강호일의 십남매 중 막내 딸로 태어났다. 그의 오빠는 강석봉, 강해석, 강영석, 강석원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들이다. 이들은 광주지역의 사회운동에 헌신하였고,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광주지역에서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강사채는 일본 경찰들의 감시가 남자들에 비해 덜해서 오빠들의 연락책 역할을 했다. 또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는데,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광주여고보에서 퇴학을 당했다. 2019년 대통령포창에 서훈되었다.

광주여자청년회 (1923년~1930년대)

여성해방과 노동해방을 위해 투쟁하다

1920년대 초부터 광주지역 여성들은 민족해방과 노동자해방, 여성해방을 위해 조직을 결성하고 있었다. 1923년 창립된 광주여자청년회(김홍은, 윤경옥, 정순이, 정은순 등 50여명)가 그것이다. 광주여자청년회는 그 활약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직업별, 산업별로 조직된 노동조합 및 청년조직과 함께 광주지역 여성운동의 지도부 역할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조직이 1930년대 광주 도시제사공장의 여성노동자운동과 연계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전남해방운동자동맹이 각 부문운동에 공동으로 제시한 지침으로 미루어 보아 도시제사 여공들을 노동운동 조직화의 대상으로 보고 각종 선전활동을 펼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두채 (1912~1947)

동지를 석방하라! 1930년 백지동맹투쟁의 주도자

1930년 3월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 중 동지석방투쟁, 동맹휴학, 백지동맹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수피아여학교로 전학을 갔다. 수피아여학교 졸업 후 광주소년동맹위원장이었던 강석원과 결혼하였다. 그러나 강석원에 대한 일경의 감시는 심했고, 일제는 김두채를 수시로 경찰서에 끌고가 강석원의 행방을 물었고, 김두채는 협박과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정부는 2019년 대통령포창을 추서했다.

김필례 (1891~1983)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교육에 투신하다

1907년 정선여학교 1회 졸업생으로 모교 교사로 발탁되어 후배를 가르치다가 1908년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동경여자학원에서 유학하였다. 귀국 후 정선여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18년 최홍종 목사의 동생이자 의사였던 최영욱과 결혼하여 광주에 거주하였다. 1919년 조카 김마리아가 몰래 가져온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서를 복사하여 전국으로 살포하다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감옥살이를 하였고 풀려난 후에 수피아여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흥학관의 야학교사로도 참여했다. 1922년 3월 서울의 김활란과 함께 한국 YWCA를 결성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여성계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그해 10월 광주 YWCA 창립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924년 미국 조지아 주의 아그네스 스캇 대학에 입학한 후 콜럼비아대학 대학원에 진학하여 수학한 후 1927년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근우회(權友會) 창설에 앞장섰고 1928년 인도에서 개최된 WSCF에 참석하였다. 1937년까지 수피아여자중학교 교감을 지냈으며, 1945년 광복과 동시에 수피아여자중학교 교장에 취임했다. 1972년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되었다.

박애순 (朴愛順, 1896~1969)

광주지역 근대교육 여성 1세대이자 독립운동가

1896년생으로 본적지는 전라남도 목포이다. 1915년 제1회 수피아여학교 졸업생으로, 이후 서울 정선여학교 사범과에서 수학했다. 졸업 후 수피아여학교 교사로 재직했고, 재직 중 1919년 3월 10일 광주 지역 독립만세시위 준비와 당일 시위에 참가했다. 박애순은 수피아여학교와 같은 남장로교계 학교인 숭일학교 출신으로 추정되는 김강(金剛)과 접촉하면서 시위운동을 준비했다. 구체적으로는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할 학생들을 조직했고, 김강으로부터 받은 독립선언서 50장을 수피아여학교 학생 홍순남(洪順南)과 박영자(朴永子)에게 전달해 대중에게 배포하게 했다. 이 사건으로 검거되어 1919년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언도받았다. 박애순은 광주지역에서 근대 교육을 받은 여성 1세대로 1919년 3월 10일 광주 지역 독립만세시위에 수피아여학교의 참여를 매개함으로써 남녀의 동등성을 가시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박화성(1903~1988)**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대표작가**

1903년 전남 목포에서 출생한 박화성은 어릴때부터 신동이라 불렸고 11세에 소설을 쓸만큼 두각을 나타냈다. 1915년 정명여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정신여학교에 들어갔으나, 편지를 검열하는 등 자유를 구속하는 정신여학교의 생활이 싫어 그만두고 숙명여학교로 편입하였다. 1918년 숙명여고보를 졸업하고 천안공립보통학교, 아산공립보통학교 등에서 교사생활을 하였다. 일본 유학을 원하였으나 집안이 기울어져 어려워지자, 1920년 언니가 있는 광주로 오게 되어 광주사립여자야학교 교사로 일하며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1924년 「추석전야」를 써서 이광수의 추천을 받아 1925년 『조선문단』 1월호에 실으면 서 문단에 등단하였다. 1926년 오빠 친구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유학, 일본여자대학교 영문학부에 입학하였고, 근우회 동경지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 김국진과 비밀 결혼식을 올리고, 임신으로 1930년 귀국, 아이를 키우고 노동운동에 매진하며 감옥을 드나들던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백화』, 「하수도 공사」, 『북국의 여명』 등 다수의 소설을 써서 신문과 잡지에 연재하였다. 동 반자 작가로 알려진 박화성은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는 사상으로서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주의리얼리즘 문학을 지향하였다. 1936년 가족은 버려도 동지는 버릴 수 없다는 남편과 이혼하고, 1938년 목포의 사업가 천득근과 재혼하였다. 해방 후에도 꾸준히 작품활동을 하며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여성작가로 자리매김하였고, 1988년 85세의 나이로 영면하였다.

서서평(徐舒平, 본명 Elisabeth Johanna Shepping, 1880~1934)**가장 낮은 자와 함께 한 푸른 눈의 광주여성**

독일 출신 미국 간호선교사로서 22년 동안 광주에 살면서 병자와 여성들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미국에서 간호학을 전공했던 서서평은 미국 남장로교 해외파견 간호선교사로 선발되어 1912년 광주에 처음 발을 디뎠다. 이후 광주 제중병원과 군산 예수병원, 서울 세브란스병원 등을 거쳐 1919년 광주 제중병원 간호사로 부임하면서 광주에 정착했다. 1922년 광주 이일학교를 설립함과 동시에 구제와 자선활동의 동력이 되는 부인조력회를 조직하면서 여성들의 교육·계몽에 힘썼다. 또한 1923년 한국간호협회를 창설하여 사무소를 광주에 두고 11년간 회장을 맡으면서 간호사의 권익을 위해 노력했다. 1933년 서서평은 일제 총독부의 나환자 정관수술 정책에 반대하면서 환자

530명을 이끌고 서울까지 행진을 벌였는데, 이로 인해 총독부로부터 정관수술 정책 폐기와 소록도 갱생원 건설을 약속받았다. 그때부터 서서평은 ‘나환자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1934년 6월 26일, 서서평은 만성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인해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동아일보』 1934년 6월 28일자 기사에는 ‘이국분투 25년 자선, 교육 사업에 일생 바친 빈민의 자모 서서평양 장서’란 제하에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장례식은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다. 나환자근절협회와 성매매여성 구제, 공창제폐지운동의 현장에서 활동한 그는 생을 마칠 때까지 병자와 여성들을 돌보았으며 열악한 교육환경과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조선의 어머니’가 되었다. 미국 장로회는 1930년대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 중에 한 명으로 그를 선정했다.

암성금자(岩城錦子, 1910년생 추정~사망년도 미상)**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 광주학생독립운동 참가**

암성금자는 1910년(추정)생으로, 본적지는 일본 에히메 현[愛媛縣]이다. 그녀는 한국인 어머니 담양 국씨와 일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담양 국씨는 일본인 남편과 사별 후 자녀가 없었던 나주 상공인 이기성(李基性)를 만나 이광춘(李光春)을 낳았다. 나주역 사건의 암성금자와 이광춘은 자매지간이었다. 암성금자는 조선인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조선인이 다니는 광주여고보에 입학했고 1928년 11월 이 학교 비밀독서회 소녀회의 일원이 되었다. 소녀회가 식민지 여성에 대한 다중적 억압에서 해방되기 위해 사회주의 서적을 연구하는 비밀독서회라는 점을 상기할 때, 암성금자는 자신을 식민지 여성으로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녀는 다른 일본인으로부터도 조선인으로 인지되었다.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 사건은 그녀가 조선인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건 당시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그녀는 11월 3일 광주학생시위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등 남학생들의 거리시위 지원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1930년 1월 백지동맹에도 가담했으리라 여겨진다. 그녀의 거리시위 지원 활동은 인내와 침묵을 요구하는 젠더 규범에서 이탈한 것이었다. 암성금자는 식민지의 여학생이 요구받았던 젠더 규범을 스스로 깨고 주체적인 판단과 행위를 통해 식민자 남성에게 의해 훼손된 자존감을 회복한 주체적 여성을 상징한다. 그녀는 비밀독서회 소녀회 사건으로 1930년 10월 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양금덕(1929~)**일본은 강제동원 사과하라, 강제동원 피해자에서 운동가로**

일제 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동원되었다. 국민학교 6학년 되던 해인 1944년 일본인 교장선생은 공부를 잘하니 일본에 가면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돌아오면 중학교도 보내준다고 했다. 이국 땅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교장 선생의 말에 설득되어 동원에 응하였다.

1944년 5월 30일 목포, 나주, 순천, 광주, 여수 5개 지역에서 동원된 어린 여자아이들 138명과 함께 배를 타고 출발해서 6월 1일 일본 나고야 도착했다. 항공기 제작 공장인 나고야 미쓰비시(三菱)중공업에 배치되었다. 공장에서는 항공기 녹슨 부분을 알코올로 닦는 작업을 주로 했다. 장갑을 제공하지 않아서 맨손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손이 갈라지고 통증에 시달렸다. 또 완성된 비행기에 페인트칠도 해야했다. 키는 작고 선반에 올라가서 칠하면 페인트가 떨어져서 눈에 들어가기 일쑤였다. 어린 나이에 처음 겪어보는 공장 노동이 가장 힘들었지만 식사량이 부족해서 배고픈 것이 더 힘들었다. “밥 두 숟가락 떠먹으면 밥이 없어서 식당 가서 청소도 해주고, 일본인들은 한국사람을 동물 취급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린다.” 같이 갔던 친구 두 명은 지진때 죽고 말았다. 1년 넘게 혹사 당했지만 월급 한푼 받지 못하고 해방 후 10월 23일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얼마 후에 결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하였다. 남편은 일본에 갔다 왔다는 말을 듣고 때리고 외면했다. 당시에 일본에 갔다 온 여자들은 ‘몸이 더럽혀졌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했다. 수많은 날들 흘린 눈물은 배 한 척 띄우고도 남는다. 1999년부터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와 미불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한 국회의원이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법을 발의하여 한일 기업기부금과 성금으로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했지만, 일본측의 사과없는 그런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필 편지를 내기도 했다. 고령으로 살 날이 많지 않지만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일본측 사과와 중노동에 대한 정당한 미불금을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유화례(柳華禮, 본명 Florence Elizabeth Root, 1893~1995)**일제의 강제추방 명령도 여성교육의 뜻을 꺾을 수 없다**

미국 선교사로 수피아여자학교에서 여성교육에 기여하였다. 뉴욕에서

출생하고 1914년 매사추세츠에서 대학 졸업 후 교사로 근무하다가 버지니아 리치몬드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2년간 수학했다. 1926년 미국 남장로회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한국으로 건너왔다. 1927년 1월 남장로회 선교부가 운영하는 미션학교인 광주수피아여자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영어, 음악을 가르치고 농촌을 방문하며 선교활동을 전개하였다. 1933년 3월 수피아 교장에 임명되어 1937년 9월 폐교할 때까지 헌신적으로 학교를 운영하였다. 교장 재임기간 동안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여 여러차례 탄압을 겪었다. 신사참배는 기독교에서 금하고 있는 벽사기양(關邪祈穰)의 제사의식으로 여기고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특히 남장로교 선교회는 시종일관 강력한 태도를 취하여 신사참배에 응하기 보다는 학교 문을 닫는 편을 택하였다. 1937년 9월 중일전쟁 도발로 일제가 대대적인 신사참배를 강행하자 선교부 정책에 따라 학교를 자진 폐교하였다. 학교 문을 닫은 후 애양원의 한센병 환자를 돌보고 어린이를 가르치며 부모 잃은 어린이를 데려다 양육하면서 농촌 선교를 계속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제 경찰의 탄압과 핍박을 받았으며 1941년 6월에는 주거 제한조치를 당하기도 하였다. 선교회 이사장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는 수난을 당한 후 1942년 일제의 6월 강제 추방 명령으로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에 체류하면서 일제의 탄압상과 한국의 실정을 알리고 한국이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 독립국임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 해방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두차례 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교장으로 봉직하며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주말순(1915~2000)**비밀독서회, 소녀회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1928년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독서회 <소녀회>에서 활동하였다.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광주에서 학생시위가 있었고, 학생들이 체포되었다. 광주여고보의 학생들은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의미로 일본어 시간에 답안지를 백지로 제출하자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주말순도 백지 제출에 참여하였다. 2019년 대통령포창에 서훈되었다.

최양수(1930~)**나의 삶이 곧 근대 광주여성의 역사**

광주 토박이로 공예자수에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다. 광주 서동

(西洞)에서 나고 자랐다. 8남매의 셋째 딸로 수창국민학교를 나와서 옥(旭)공립고등여학교(현, 전남여고)에 진학했다. 옥고녀 재학 당시 풀뽑기와 벼베기 같은 근로봉사를 자주 다녔다. 해방 되고 나서는 부모님의 권유로 양림동에 있는 학강 초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24세 되던 해에 결혼을 하면서 교사직을 그만두었는데, 그때 당시 결혼은 상당히 늦은 편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재주가 있었다. 옥고녀 재학 당시 천경자 화백이 미술교사로 재직하고 있어서 화백에게 그림 지도를 받았다. 그림 그리기 뿐만 아니라 자수에도 솜씨가 있었다. 학교 다닐 때는 전등불 밑에서 꽃이나 앵무새 같은 그림에 자수를 놓아 근화수예점에 갖다 주면 금방 팔려 나가곤 했다. 천경자 화백이 미대에 가기를 권하였으나 유교적 사상이 강한 부친의 반대로 진학하지는 못하였다. 집안간 중매로 결혼을 하였고 결혼 이후 생활수단으로 병풍자수를 시작했다. 자수를 놓아 한상수(중요무형문화재 제 80호 자수장. 최초 기능보유자)선생에게 모두 납품을 했다. 솜씨가 좋아서 제작한 자수는 전국으로 팔려나갔고 일본으로 수출도 했다. 자수공예는 6남매를 낳아 기르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수십년 동안 자수공예에 매달리다 보니 딸들이 자식은 돌보지 않고 일에만 몰두했다고 원망하기도 한다. 그만큼 생활에 보탬도 되지만 재미가 있었던 것이다. 나이가 들고 자수공예가 유행이 지나면서 자수는 더 이상 놓지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결혼할 때 병풍을 받아서 혼수로 가져가는 것이 유행이었다. 그러나 아파트가 생기고 생활문화가 변화하면서 어느 순간 더 이상 병풍은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 자수공예를 하지 않게 된 후로는 원래 관심사였던 그림 그리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2015년에는 머느리와 함께 전시회도 개최하였고 그림 중 한 점은 모교인 전남여고에 기증하여 현재도 학교에 걸려있다. 현재 고령이지만 여전히 그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림 그리기를 계속하며 살아가고 있다. 인생을 회고해 보면, 정신없이 자식들 키우며 살았지만 인생을 멋있게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다.

현덕신(1896~1963)

광주 최초의 여자의사이자 독립운동가

1896년 황해 해주에서 출생한 현덕신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우고 오빠이자 후에 목사가 된 현석철의 보호 아래 성장하였다. 평양 남산교회 등에서 목사로 재직하며 만세시위를 모의하고 임시정부 수립운동에 참여하는 등 독립

운동에 매진한 현석철의 영향을 받아 일찍이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에 눈 뒀다. 서울로 이주하여 이화학당을 졸업한 후 선교사 로제타 홀(Rosetta Sherwood Hall)의 권유와 “조선 여자들을 위한 봉사적 생활”을 위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현덕신은 1918년 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 1921년 졸업후 귀국하여 총독부 병원, 동대문부인병원 등에서 의사로 근무하였다. 현덕신은 의학을 공부하는 중에서도 일본 유학시절부터 2.8독립선언에 참여하고, 조선여자유학생총회 등 조직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투신, 여러 차례 검속되기도 하였다. 귀국 후에도 근우회의 발기인이자 창립회원으로 활동하며 여성운동에 헌신하였다. 1923년 동아일보 기자였던 최원순과 결혼, 이후 귀향하는 남편을 따라 1928년 광주로 내려와 총장로4가 옛 화니백화점 자리에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개설하고 의사로서 개업하였다. 광주 최초의 여의사로 활약하는 가운데서도 사회운동을 계속 이어나가 광주YWCA 회장을 역임했고, 근우회 광주지회를 설립하는 등 ‘조선 여성’과 ‘조선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해방 이후인 1949년에는 사재를 털어 현덕신병원 안에 신생유치원을 열고 유아교육에 앞장섰고, 건국부녀동맹 초대 부회장, 독립촉성애국부인회 회장, 대한부인회 전남도본부 회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사회활동에 매진하였으며 1963년 67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하였다.

홍승애(1901~미상)

광주지역 3.1운동의 불씨를 피우다

광주 하남 출신으로 벨 목사의 조사를 맡았던 홍우중 장로의 딸이다. 수피아여학교를 다녔고 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광주 3.1만세운동 거사에서 여학생 동원 책임을 맡았다가 1년형을 선고받았다. 1년간 복역한 후에 다시 복학하여 졸업하였다. 1912년부터 스와인하트 선교사가 세운 사립 배영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다가 광주 양림교회의 전도사, 기독병원의 전도사 등으로 봉사하였으며, 그의 아들 은희철 목사는 광주 용산동의 기독정신요양소를 운영했다.

단행본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일제강점기 광주문헌집』,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04.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광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07.

광주시사편찬위원회, 『광주시사』 2, 광주광역시, 1993.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사 간행위원회 기획, 오미란·안진 저, 『민주장정 100년, 광주·전남지역 사회운동사 : 여성운동』, 광주광역시·전라남도, 2016.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역사관, 『광주학생독립운동 타고르는 햇불-광주학생독립운동 참여자의 증언』, 2009.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광주학생독립운동사』, 국제문화사, 1974.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50, 2002.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1920년대 초반의 문화와 유행』, 현실문화연구, 2009.

김경일, 『신여성, 개념과 역사』, 푸른역사, 2016.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김경일, 『제국의 시대와 동아시아 연대』, 창비, 2011.

김경일, 『근대의 가족, 근대의 결혼』, 푸른역사, 2012.

김성민, 『1929년 광주학생운동』, 역사공간, 2013.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9: 학생독립운동사』, 독립유공자사업기금 운용위원회, 1970.

박화성 저, 서정자 편, 『눈보라의 운하·기행문』, 푸른사상, 2004.

수피아100년사간행위원회 편, 『수피아 백년사』, 광주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2008.

소현숙, 『이혼법정에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 역사비평사, 2017.

박선홍, 『광주백년』 1, 광주문화재단, 2012.

박용옥, 『한국근대여성운동사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박찬승·박만규·김민영·고석규, 『광주학생독립운동과 나주』, 경인문화사, 2001.

송연옥, 『식민주의, 전쟁, 군 '위안부'』, 선인, 2017.

역사문제연구소 편,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의 역사』, 웅진출판, 1993.

우에노 치즈코, 『내선닐리즘과 젠더』, 이선이 옮김, 박종철출판사, 1999.

이연정, 『모성의 담론과 현실 : 어머니의 성·삶·정체성』, 나남출판, 1999.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방식에 의한 노무동원에 관한 조사』, 2008.

전경옥·유숙란·이명실·신희선, 『한국여성근현대사 : 개화기-1945년 한국여성 정치사회사』,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4.

전남여고편, 『전남여고 80년사』, 2007.

전라남도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기획, 이수애·한신애·박남순·송정자 저, 『전남 여성 100년』, 다지리, 2004.

정진성,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 사진과 자료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 이야기』, 푸른역사, 2018.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1997.

하야카와 노리요,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형성과 젠더, 여성표상을 중심으로』, 소명출판, 2009.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 연구반,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全羅南道 編, 『昭和13年 全羅南道 統計年報』, 1940.

全羅南道 編, 『全羅南道勢一般』, 1940.

全羅南道, 『全羅南道報』, 1942~44.

全羅南道廳, 『全南の教育と宗教』, 1938.

광주시, 『光州市史』 第2卷, 1993.

朝鮮勞務協會, 『朝鮮勞務』, 1942~1944.

國民總力朝鮮聯盟 編, 『國民總力』, 1942.

鈴木裕子 외 편,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下), 明石書店, 2006.

大正8年刑 第558號, 「朴愛順 外 76人 判決文」.

大正8年刑 第558·910號, 「金福鉉 外 21人 判決文」.

昭和5年刑公 第45號, 「張梅性 等 判決文」.

논문

가와 가오루 글, 김미란 옮김, 「총력전 아래의 조선여성」, 『실천문학』, 2002.

강이수, 「1930년대 면방대기업 여성노동자의 상태에 대한 연구 : 노동과정과 노동통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강이수, 「일제하 근대여성 서비스직의 유형과 실태」, 『페미니즘 연구』 5호, 2005.

권명아, 「총후 부인, 신여성, 그리고 스파이 - 전시 동원체제하 총후 부인 담론 연구 -」, 『상허학보』 12, 2004.

권숙인, 「식민지 여자·제국의 주부·군국의 어머니」, 『일본비평』 10권 1호, 2018.

김미정, 「전시체제기 조선총독부의 여성노동력 동원정책과 실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金富子, 「植民地朝鮮における女子教育」, 동경학예대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김양섭, 「일제강점기 인천 성냥공장 여성노동자 동맹파업」, 『지방사와 지방문화』, 17권 2호, 2013.

김영희,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여성의 역할」,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1997.

김 원, 「근대화 시기 주변부 여성 노동에 대한 담론 : ‘식모’(食母)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제1호, 2004.

남하숙, 「1920년대 여성운동에서의 협동전선론과 근우회」, 『한국사론』 2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1.

노영중, 「일제 말기 충남지역 노동력 강제동원과 거부투쟁」,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9.

류시현, 「광주학생운동과 전국적 공감의 감성」, 『호남학』 49, 전남대학교 호남학 연구원, 2011.

민진영, 「일제하 광주의 여학생 조직과 여성교육」, 『호남문화연구』 44,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9.

박윤진, 「대일본부인회 조선본부(大日本婦人會 朝鮮本部)의 결성과 활동 (1942~45년)」, 『한국문화연구』 13, 2007.

박현옥, 「1930년 서울지역학생 연합시위와 근화여학교」, 『인문과학연구』 29,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9.

소현숙, 「3·1운동과 정치 주체로서의 ‘여성」, 『한국학논총』 51, 한국학연구소, 2019.

서형실, 「식민지시대 여성노동 운동에 관한 연구 : 1930년대 전반기 고무제품 제조업과 제사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신영숙,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조선인 중군간호부의 동원실태와 정체성」, 『여성 과 역사』 14, 2011.

안연선, 「한국 식민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여성 노동의 성격에 관한 연구 : 1930년대 방직공업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안태윤, 「일제하 모성에 관한 연구 : 전시체제와 모성의 식민화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윤선자, 「호남지역 근우회의 설립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4.

윤정란, 「식민지 시대 제사공장 여공들의 근대적인 자아의식 성장과 노동쟁의의 변화과정 : 1920년대~1930년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담론 201』 9호, 2006.

윤지현, 「1920~30년대 서비스직 여성의 노동실태와 사회적 위상」,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윤효정, 「여성주의 관점의 지역여성사 서술을 위한 제언-광주학생운동 전후 광주지역 여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남도문화연구』 40,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2020.

이가연, 「호남지역 기독교 여학교의 3·1운동 - 수피아여학교, 기전여학교, 정명 여학교를 중심으로」, 『석당논총』 74,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9.

이병례, 「아시아 - 태평양전쟁기 ‘산업전사’ 이념의 형상화와 재현」, 『사총』 94, 2018.

이상경, 「일제 말기 여성 동원과 ‘군국의 어머니」, 『페미니즘 연구』, 동녘, 2002.

이성은, 「식민지 근대 카페 여급의 정치경제학적 위치성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3권 2호, 2007.

이승순, 「일제하 1920~30년대 여성 직업의 지역별 분포와 존재양태」, 『한국사 학보』 65호, 2016.

이아리, 「日帝下 주변적 노동으로서 ‘家事使用人’의 등장과 그 존재 양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이정선, 「일제의 內鮮結婚 정책」,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이정옥, 「일제하 공업노동에서의 민족과 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이정희, 「일제강점기 대구의 제사업과 여성노동자의 실태」, 『民族文化論叢』, 第64輯, 2009.

임선화, 「미군정의 실시와 전라남도 도지사 고문회의 조직」, 『역사학연구』 38, 호남사학회, 2010.

장미화,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여성동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정근식, 「일제하 종연방적의 잠사업 지배」, 한국사회사학회, 1986.

정근식·나간채, 「1920-30년대 광주지역의 노동운동」, 『호남문화연구』 제21집, 2000.

조정규, 「일제강점기 광주읍성 내의 경관변화」, 『남도문화연구』 제24권, 2013.

조현민, 「이중노동시장의 형성과 초기업 교섭의 발전에 관한 연구 : 한국 면방직업 사례를 중심으로(해방이후~1960년대)」,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한신애, 「광주지역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 일제강점기부터 고도성 장기(1910년~1980년)을 중심으로」,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헨리 임, 「유로-아메리칸 헤게모니와 근대 한국 역사학의 기원」, 『아세아연구』 51-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2008.

홍양희, 「일제시기 조선의 여성교육-현모양처교육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5,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1.

신문자료

『매일신보』

『조선일보』

『부산일보』

『매일신보』

『동아일보』

『남도일보』 2019. 12. 15 <항일독립운동과 호남여성(3)>

『남도일보』 2019. 8. 13 <강호일 가문 오남매 독립운동에 헌신>



2020 기본 04
광주여성사II(근대편)
개항에서 해방이전까지

발행일 | 2020년 12월 21일

연구책임 | 김미경(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집필진 | 임선화(전남대학교 사학과 강사)

한순미(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교수)

김경례(전남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소현숙(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

윤효정(국립순천대 인문학술원 학술연구교수)

이병례(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발행처 | 광주여성가족재단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무등빌딩 3층, 9층

Tel. 062-670-0533 | Fax. 062-670-0505

홈페이지 gjwf.or.kr | 인스타그램 @gjwomenfamily

발행인 | 김미경(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기획 및 진행 | 정미경(광주여성가족재단 사업운영실 과장)

디자인 | 파종모종

ISBN 978-89-98622-85-5 93300 비매품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광주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